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1
창세기

HB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창세기

Genesis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1:1)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

창세기 차례

성경에 관하여	〈14제〉	11
모세 오경 서론	〈11제〉	15
창세기 서론	〈11제〉	20
제 1 장 천지 창조	〈32제〉	23
제 2 장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인간이 거주하다	〈35제〉	32
제 3 장 죄가 이 땅에 들어오다	〈32제〉	42
제 4 장 아담의 아들과 인간 문명의 시작	〈36제〉	52
제 5 장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장들의 족보	〈18제〉	62
제 6 장 홍수의 예고와 방주의 준비	〈22제〉	68
제 7 장 온 세상이 물에 잠기다	〈20제〉	77
제 8 장 비가 그치고 땅이 회복되다	〈23제〉	83
제 9 장 무지개 언약과 노아의 실수	〈26제〉	90
제 10 장 인류의 확산과 각국의 기원	〈18제〉	98
제 11 장 바벨탑 건축과 인류의 분산	〈26제〉	105
제 12 장 아브람이 부름 받다	〈21제〉	113
제 13 장 아브람과 롯의 분리	〈15제〉	120
제 14 장 가나안 남북 전쟁과 아브람의 활약	〈19제〉	125
제 15 장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다	〈18제〉	132
제 16 장 이스마엘의 출생	〈22제〉	138
제 17 장 아브람이 새 이름을 받다	〈20제〉	146
제 18 장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21제〉	152
제 19 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25제〉	160
제 20 장 그랄로 이주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17제〉	167
제 21 장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축출	〈23제〉	172
제 22 장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	〈18제〉	178
제 23 장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	〈14제〉	183
제 24 장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22제〉	187
제 25 장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두 아들이 태어나다	〈24제〉	196
제 26 장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33제〉	202
제 27 장 이삭을 통해 축복받는 야곱	〈36제〉	209
제 28 장 야곱의 도망과 사닥다리 환상	〈32제〉	218
제 29 장 야곱의 결혼	〈29제〉	226

제 30 장	야곱의 자녀와 물질 축복	〈29제〉	233
제 31 장	야곱의 귀향과 라반의 추격	〈28제〉	241
제 32 장	천사와 씨름한 야곱	〈26제〉	250
제 33 장	야곱과 에서의 재회(再會)	〈17제〉	261
제 34 장	디나의 사건과 세겜 성(城) 약탈	〈19제〉	266
제 35 장	야곱이 벧엘로 올라가다	〈32제〉	272
제 36 장	에서의 후손들	〈16제〉	280
제 37 장	애굽으로 팔려 간 요셉	〈25제〉	287
제 38 장	유다와 다말의 근친 상간	〈20제〉	294
제 39 장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17제〉	300
제 40 장	요셉과 두 관원장의 꿈 해석	〈14제〉	305
제 41 장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다	〈24제〉	309
제 42 장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다	〈19제〉	316
제 43 장	요셉 형제들의 두번째 애굽 방문	〈19제〉	322
제 44 장	요셉이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다	〈15제〉	328
제 45 장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다	〈15제〉	333
제 46 장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16제〉	338
제 47 장	바로 앞에 선 야곱	〈18제〉	346
제 48 장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	〈17제〉	352
제 49 장	열 두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	〈21제〉	357
제 50 장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죽음	〈17제〉	363

창세기 특별 자료 차례

모세 오경 〈연구 자료〉	랍비 문학	19
창세기 서론 〈연구 자료〉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되었던 꿈	22
제 1 장 〈화보 자료〉	마부자리의 성운(星雲)	31
제 2 장 〈화보 자료〉	화산 폭발	41
제 3 장 〈화보 자료〉	유혹받는 아담과 이브	51
제 4 장 〈연구 자료〉	죄의 기원	61
제 5 장 〈화보 자료〉	죽은 자를 장사지내는 모습	67
제 6 장 〈연구 자료〉	당대(當代)의 의인 노아	75
제 7 장 〈본장의 요절〉		82
제 8 장 〈화보 자료〉	점토판	89
제 9 장 〈연구 자료〉	본장에 나타난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	97

제 11 장	〈본장의 요절〉	112
제 12 장	〈본장의 요절〉	119
제 13 장	〈지도 자료〉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	124
제 14 장	〈화보 자료〉 포로로 잡혀가는 롯	131
제 15 장	〈지도 자료〉 아브라함의 여정	137
제 16 장	〈본장의 요절〉	144
제 16 장	〈연구 자료〉 성경적인 결혼관	145
제 17 장	〈본장의 요절〉	151
제 18 장	〈화보 자료〉 손님을 대접하는 유목민	157
제 18 장	〈연구 자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58
제 19 장	〈본장의 요절〉	166
제 20 장	〈본장의 요절〉	171
제 21 장	〈본장의 요절〉	177
제 23 장	〈본장의 요절〉	186
제 24 장	〈본장의 요절〉	193
제 24 장	〈연구 자료〉 순종의 모본이 된 이삭	194
제 27 장	〈본장의 요절〉	217
제 28 장	〈화보 자료〉 꿈꾸는 야곱	225
제 30 장	〈화보 자료〉 합환채 (mandrake)	240
제 31 장	〈화보 자료〉 종주권 언약 (宗主權言約) 이 새겨진 점토판	249
제 32 장	〈연구 자료〉 구약에 언급된 용사	258
제 32 장	〈연구 자료〉 이스라엘이라 칭함 받은 야곱	259
제 33 장	〈화보 자료〉 설형 문자로 기록된 매매 증서 (賣買證書)	265
제 34 장	〈본장의 요절〉	271
제 35 장	〈연구 자료〉 족장 시대 근친 결혼의 계통	279
제 36 장	〈연구 자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요 산	285
제 37 장	〈지도 자료〉 애굽으로 팔려 가는 요셉의 노정 (路程)	293
제 40 장	〈본장의 요절〉	308
제 41 장	〈연구 자료〉 결혼의 목적과 기능	315
제 42 장	〈연구 자료〉 구약에 언급된 꿈과 해몽	321
제 43 장	〈화보 자료〉 몰약 (myrrh tree)	327
제 44 장	〈화보 자료〉 점치는 도구	332
제 45 장	〈연구 자료〉 히브리인들의 식생활 (食生活)	337
제 46 장	〈본장의 요절〉	342
제 46 장	〈연구 자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요셉	343
제 47 장	〈연구 자료〉 매매로 인한 노예	351
제 49 장	〈본장의 요절〉	362
제 50 장	〈본장의 요절〉	368

성경에 관하여

1. Q 성경(聖經)이란 무엇인가?

- A (1)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딤후 3:16).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를 기록한 유일하고도 공인(公認)된 책이다.
- (2)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진리)을 인간에게 전달하시며(롬 3:4) 또한 인간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추진해 가신다.
- (3) 그러나 죄로 인하여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인간은 이 책을 읽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책은 분명히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고전 2:6-16).
- (4) 인간은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며 또한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켜 갈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이 인간을 온전케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도움이 있기 때문이다(요 14:26).

2. Q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 A (1) 성경의 제 1차 저자는 성령(the Holy Spirit) 이시다(벧후 1:21).
- (2) 그러나 제 2차 저자는 성령의 영감(inspiration)을 받은 36-40명의 사람들이다. 이들이 약 1,600년 동안 성경 전체를 기록했다.
- (3)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은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啓示, revelation)한 것임을 나타낸다(딤후 3:16).
- (4)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헬, 데오프뉴스토스)이란 말은 '하나님'(헬, 데오스)이란 말과 '숨을 쉬다'(헬, 프네오)는 말의 합성어(合成語)이다. 즉 하나님의 숨결(호흡)이 인간에게 강하게 작용되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섭리하신 것을 말한다.
- (5)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저자들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없이 기록하도록 그들을 감동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영감(靈感)이 각 단어 하나 하나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셨다(마 5:18; 요 10:35).
- (6) 그런데 성경의 영감은 하나님이 사람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고 정확한 기록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에서 성경의 무오성(無誤性)과 신적 권위가 발견된다.

3. Q 계시(啓示)란 무엇인가?

- A (1) 계시(revelation)란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 역사, 인간의 양심, 성경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다.
- (2) 이 계시의 어원(語原)을 살펴보면 '드러내다', '베일을 벗기다', '덮개를 연다'는 뜻을 가진 헬라이어 동사(아포칼립토)에서 계시, 즉(아포칼립시스)가 유래되었다.
- (3) 이런 어원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스스로 공개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도 가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4) 이 계시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일반 계시)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12 성경에 관하여

시(특별 계시)로 구별할 수 있다.

- (5) 자연신론자(自然神論者)들은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인정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특별 계시의 필연성과 실재성, 심지어는 특별 계시의 가능성까지도 부인한다.
- (6) 그러나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모두 신뢰하며 그것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다. 이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구원에 있다.

4. ㉠ 성경의 주제(theme)는 무엇인가?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다.

5. ㉠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시대 순으로 구분하라.

㉡ (1) 선사 시대

- ① 천지 창조-바벨탑 사건
- ② 아브라함의 소명-족장들의 가나안 생활
- (2) 이스라엘 민족의 대이동기(B. C. 1900-1400)
요셉에서 가나안 입국까지
- (3) 왕국 이전 시대(B. C. 1400-1000)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
- (4) 통일 왕국 시대(B. C. 1000-930)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치세
- (5) 분열 왕국 시대(B. C. 930-586)
솔로몬 사후부터 예루살렘 함락까지
- (6) 바벨론 포로와 말라기 시대(B. C. 586~D. C. 400)
- (7) 신·구약 중간 시대(B. C. 400-A. D. 4)
- (8) 예수와 사도 시대(A. D. 4-100)

6. ㉠ 성경의 구성을 말하라.

㉡ (1) 성경은 구약(39권)과 신약(27권)으로 구분되며 모두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성경은 비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 주제'(구원)를 가진 '하나의 이야기'(예수 그리스도에 관한)이며 '한 권의 책'(one Book)이다.
- (3) 구약은 '한 민족'(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며, 신약은 '한 사람'(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한 민족'은 '한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한 준비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육성하신 것이다.
- (4) 또한 언약의 측면에서 성경을 보게 된다면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모세 언약(출 24:8; 왕하 23:2)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신약은 하나님과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과 맺은 새 언약(마 26:28)을 중심으로 꾸며져 있다.
- (5) 그러나 이 구별은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사실 구약은 전역사의 흐름이 신약 시대에 오실 구세주 메시야와 새 언약의 수립에 관한 일련의 사건과 예언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들 사건과 예언은 모두 신약에서 성취된다.

7. ㉠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 (1)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증거(revelation,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2)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special revelation)이다.

(3) 즉 특별 계시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를 가리킨다(요 1:14). 이 계시(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행 4:12).

8. ㉠ 성경(Bible)이란 말의 어원적 의미는 무엇인가?

- Ⓐ (1) '성경'(Bible)이란 말은 '책'(a book), '두루마리'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비블로스>에서 유래하였다.
- (2) 본래 이 말은 그 당시 종이 대신 쓰이던 파피루스 껍질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파피루스 껍질을 엮어 글을 써서 두루마리 책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성경', 즉 거룩한 책이라는 의미가 나왔다.
- (3) 한편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던 초대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타 비블리아>, 즉 뛰어난 책들이라고 불렀다. 그 후에 문헌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단수인 '바이블'(Bible)을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 (4)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한 다양한 문서의 선집(選集)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로 통합된 한 권의 완전한 책이며 동시에 거룩한 책임을 밝혀 준다.

9. ⓐ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성경	구약	율법서	모세오경	5	창세기·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신명기
		역사서	역사서	12	여호수아·사사기·룻기·사무엘상하·열왕기상하·역대상하·에스라·느헤미야·에스더
		시가서	시와지혜문서	5	욥기·시편·잠언·전도서·아가
		예언서	선지서	17	이사야·예레미야·예레미야애가·에스겔·다니엘·호세아·요엘·아모스·오바다·요나·미가·나훔·하박국·스바냐·학개·스가랴·말라기
	신약	복음서	예수그리스도	4	마태복음·마가복음·누가복음·요한복음
		역사서	초대교회	1	사도행전
		서신서	사도들의 서신	21	로마서·고린도전후서·갈라디아서·에베소서·빌립보서·골로새서·테살로니가전후서·디모데전후서·디도서·빌레몬서·히브리서·야고보서·베드로전후서·요한1,2,3서·유다서
		예언서	계시록	1	요한계시록

10. ⓐ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1) 율법서(Torah) :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 예언서(Nebhiim) :

- ① 전기 예언서 /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 ② 후기 예언서 /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3) 성문서(Kethubim) :

- ① 시가서 / 시편, 잠언, 욥기
- ② 다섯 두루마리[五軸] / 아가, 룻기, 예레미야애가, 전도서, 에스더
- ③ 예언서 / 다니엘
- ④ 역사서 /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4) 그러나 개역 한글 성경은 70인역(LXX)의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율법서(창세기-신명기)

14 성경에 관하여

- ② 역사서 (여호수아-에스더)
- ③ 시가서 (욥기-아가)
- ④ 선지서 (이사야-말라기)

(5) 이처럼 개역 성경과 히브리 성경은 책의 배열상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11. ㉠ 구약은 무엇인가?

- ㉠ (1)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사건(타락한 인간의 구속 방법)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 (2) 구약의 초반부는 인간 창조, 홍수, 아브라함의 소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한정짓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 (3) 모세 율법의 성립에 대한 기록 이후에 구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사를 기록한다. 그들의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의 부분적 정복, 남북 왕국의 분열을 포함해서 사사들과 열왕들 치하의 생활, 임박한 포로 생활에 대한 수많은 예언자들의 경고, 포로 생활, 유다의 팔레스틴 귀환 등이 그것이다.
- (4) 그런데 이런 다양한 역사의 전개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지속되어 온 하나의 흐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다. 구약 어느 한 부분도 메시아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다.

12. ㉠ '구약'이란 말의 어원적 의미를 말하라.

- ㉠ (1) 본래 구약, 신약이란 말의 약(約)은 '약속' (testament), '언약' (covenant), '계약'이란 뜻이다.
- (2) 언약을 나타내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이며 이것이 헬라어 <디아테케>로 번역되었다. 그 후 라틴어로 번역되었고 (testamentum) 이 라틴어에서 오늘날 '언약', '약속' (testament)이란 말이 나왔다.
- (3) 그러므로 구약 (Old Testament)은 '옛 언약'이며, 신약 (New Testament)은 '새 언약'이란 뜻이다. '옛 언약'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구원 약속'이란 뜻이며, '새 언약'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랑으로 맺어진 구원 약속'이란 뜻이다.

13. ㉠ 성경은 최초로 어떤 언어로 기록 되었는가?

- ㉠ (1) 구약은 전권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나 단 2:4-7:28; 스 4:8-6:19; 7:12-17; 렘 10:11 등의 일부가 아람어 (Aramaic)로 기록되었다.
- (2) 신약은 전체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14. ㉠ 유대인의 히브리 성경 배열 가운데 오축(五軸)이란 무엇인가?

- ㉠ (1) 주로 절기 때 낭송하는 다섯 권의 두루마리 책을 말한다.
- (2) 아가, 룻기, 예레미야애가, 전도서, 에스더 등 5권이다.
- (3) 아가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룻기는 맥추절에, 예레미야애가는 압월 제9일(7월 23일)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에, 전도서는 수장절(초막절)에, 에스더는 부림절에 각각 낭송되었다.

모세 오경 서론

1. ㉠ 모세 오경 (Pentateuch, 五經) 이란 무엇인가?

- ㉠ (1) 모세가 기록한 다섯 부분으로 된 책을 가리킨다. 구약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한다.
- (2) 본래 '오경'이란 말은 헬리어 <헤 펜타튜코스 비블로스>에서 나온 말이다. 여기서 <펜타튜코스>의 <펜타>는 '다섯' (five), <튜코스>는 '부분' (part)을 나타낸다. 그리고 <비블로스>는 '책' (book)이란 뜻이다.
- (3) 그러므로 '오경'의 뜻은 '다섯 부분으로 된 책'이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다섯 부분으로 된 하나의 책'이란 뜻이다.
- (4) 히브리어로 '오경'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토라>인데 '율법', '교훈'이란 뜻이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포함) 백성에게 주신 (모세를 통하여) 율법 (교훈)이라는 뜻이다.
- (5) 이 다섯 권의 내용은 천지 창조로부터 히브리 민족의 성립까지 그 범위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언약 (covenant)을 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의 보존과 성취를 위하여 명령하신 율법을 중심으로 엮여져 있다.

2. ㉠ 신·구약 성경에 사용된 모세 오경의 명칭을 열거하라.

- ㉠ (1) 구약 :
- ① 율법 / 수 8:34; 대하 14:14; 31:21; 33:8; 스 10:3; 느 8:2, 7, 14; 10:34, 36; 12:44
 - ② 율법의 책 / 수 1:8; 8:34; 왕하 22:8; 느 8:3
 - ③ 모세의 율법책 / 수 8:31; 23:6; 왕하 14:6; 느 8:1
 - ④ 모세의 책 / 대하 25:4; 35:12; 스 6:18; 느 13:1
 - ⑤ 여호와와의 율법 / 대상 16:40; 대하 31:3; 35:26; 스 7:10
 - ⑥ 하나님의 율법 / 느 10:28, 29
 - ⑦ 하나님의 율법의 책 / 수 24:26; 느 8:18
 - ⑧ 여호와와의 율법책 / 대하 17:9; 34:14
 - ⑨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의 율법책 / 느 9:3
 - ⑩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 단 9:11
- (2) 신약 :
- ① 율법의 책 / 갈 3:10
 - ② 모세의 책 / 막 12:26
 - ③ 율법 / 마 12:5; 눅 16:16; 요 7:19
 - ④ 모세의 율법 / 눅 2:22; 요 7:23
 - ⑤ 여호와와의 율법 / 눅 2:23, 24

3. ㉠ 모세 오경의 위치를 말하라.

- ㉠ (1) 성경의 첫머리에 두었다.
- (2) 성경 중에서 최초로 기록되었다.
- (3) 다른 정경 (구약 성경)들의 기초와 표준이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4. ㉠ 모세 오경의 특징은 무엇인가?

16 모세 오경 서론

Ⓐ (1) 비록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으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옛 계약의 중재자인 모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하나의 사건이 통일성 있는 구성으로 전개되어 있다.

(2) 이것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이주까지 : 창 1-50장
- ② 출애굽에서 시내 산까지 : 출 1-19장
- ③ 시내 산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 출 20장-민 10장
- ④ 광야 생활 : 민 11-21장
- ⑤ 모압 평지에서 : 민 22장-신 34장

5. Ⓞ 모세가 오경의 기록자임을 증명하라.

Ⓐ (1) 오경 자체가 모세의 저작임을 증거하고 있다(출 7:14; 24:4; 민 33:2).

(2) 예수님께서도 오경이 모세의 글임을 언급하셨다(요 5:46, 47).

(3)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모세 저작설을 증명한다(수 1:7; 왕상 2:3; 눅 24:44; 고전 9:9).

(4) 고고학적 증명으로 오경은 모세의 글이라는 사실이 더욱 확실해졌다.

6. Ⓞ 오경이 모세에 의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아는 대로 말하라.

Ⓐ (1) 이스라엘 전역사를 통해 오경을 기록하는데 있어서 모세보다 더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섭리에 의하여 애굽 사람의 학술을 모두 배운 그는(행 7:22) 유용한 모든 기록, 필사본(筆寫本), 구전 자료들을 해독하고 이용할 수 있었다.

(2) 유전에 의하면 그는 고대 동방의 서적들을 거의 다 읽은 역사가라고 한다.

(3) 또한 그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모친의 젖을 먹을 때부터 조상들의 신앙의 행적과 여호와 신앙을 배웠다(출 22:7-9).

(4) 시내 산 위에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린 선지자로서 모세는 전세대를 통하여 활동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할 능력을 부여 받았다(신 18:18; 34:18).

7. Ⓞ 오경이 모세의 기록임을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 (1) 모세 당시에는 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에는 글을 남길만한 지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2) 오경은 모세 시대 이후, 즉 바벨론 포로 후에 편집되었다고(문서설) 주장한다.

(3) 그러나 (1), (2)의 주장은 히브리어와 악카디아의 설형 문자, 애굽 상형 문자 등의 고대어가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되므로써 그릇된 견해임이 밝혀졌다.

(4) (2)의 주장은 '문서설'이라는 가설(假說)에 의해 이루어진 견해로서 지금도 계속 수정되고 있는 학설이다.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것이므로 우리의 신앙과 모순된다.

8. Ⓞ 모세 오경의 기록 연대를 말하라.

Ⓐ (1) 학자들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대개 B. C. 1440-1400년으로 본다.

(2) 그 이유는 모세 오경 전체의 저자가 모세이므로 기록 연대는 출애굽 이후 그가 느보산 상에서 죽기 이전(신 34:1-8)의 어느 시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9. Ⓞ 모세 오경의 기록 장소는 어디인가?

Ⓐ (1) 모세 오경은 시내 광야 및 모압 평지에서 기록되었다.

(2) 문서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편집한 것으로 보는 그릇된 주장을 한다.

10. Ⓞ 모세의 생애를 오경과 연관지어 열거하라.

Ⓐ 아래 제시된 도표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신앙의 영웅이며 오경의 저자인 모세의 생애를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비교 연구하여 시간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그렇기

만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한 개인으로서의 모세의 생애가 아니라 출애굽 시기에 발생한 여러 사건과 오늘날 성도의 예표인 선민 이스라엘의 죄악과 구원, 타락과 회개의 역사인 구속사이다.

I. 가정

- 1. 아므람의 아들. 출 6:20
- 2. 레위 지파. 출 2:1
- 3. 형, 아론. 출 4:14
- 4. 누이, 미리암. 출 15:20

II. 유년기

- 5. 출생. 출 2:2
- 6. 아름다운 아기. 행 7:20
- 7. 갈대 사이에 숨겨짐. 출 2:3
- 8. 공주의 양자가 되다. 출 2:4-10
- 9. 이름을 모세라 함. 출 2:10

III. 청년기

- 10. 훌륭한 교육을 받음. 행 7:22
- 11.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자의식. 히 11:25
- 12. 애굽 사람을 죽임. 출 2:11, 12
- 13. 동족에게 거부당함. 행 7:22-28
- 14.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다. 출 2:15

IV. 미디안에서 40년

- 15. 40세. 행 7:23
- 16.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 출 2:21
- 17. 특별한 기록이 없음. 행 7:29, 30
-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 (출 3:1-9)
- 소명을 거절하는 네 가지 변명 -
- 18. 부적당한 인물. 출 3:11
- 19. 백성들의 불신임을 염려함. 출 4:1
- 20. 언변이 부족함. 출 4:10
- 21. 다른 사람을 택하시길 구함. 출 4:13
- 하나님의 동행 약속 -
- 22. 하나님이 함께 하심. 출 3:12
- 23. 하나님의 권위를 받음. 출 3:13, 14
- 24.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 출 4:2-8
- 25. 협조자의 약속. 출 4:14-16

V. 애굽으로 돌아가다

- 26. 백성을 향한 구원의 선포. 출 4: 29-31
- 27. 바로의 저항. 출 5:2
- 28. 가중된 백성의 고통. 출 5:7, 8
- 열 가지 재앙
- 29. 물이 피로 변함. 출 7:14-25
- 30. 개구리. 출 8:1-15
- 31. 이. 출 8:16-19
- 32. 파리. 출 8:20-32
- 33. 은역. 출 9:1-7
- 34. 창질. 출 9:8-12
- 35. 우박. 출 9:13-25
- 36. 메뚜기. 출 10:1-20
- 37. 흑암. 출 10:21-29
- 38. 유월절. 출 12:14-28
- 39. 장자의 죽음. 출 12:29

VI. 출애굽

- 40. 출발. 출 12:27-38
- 41. 구름기둥. 출 13:21
- 42. 추격. 출 14:1-9
- 43. 여호와와의 구원. 출 14:13-31
- 44. 여호와를 찬양. 출 15:1-19
- 45. 마라와 엘림. 출 15:23-27
- 46. 만나를 먹다. 출 16:14, 15
- 47. 반석에서 물이 솟음. 출 17:1-7
- 48. 협력을 통한 승리. 출 17:8-13
- 49. 이드로의 충고. 출 18:13-23
- 50. 시내 산 도착. 출 19:1, 2

VII. 시내 산에서

- 51. 모세가 산에 오르다. 출 19:3-6
- 52.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 출 19:8
- 53. 여호와와의 강림. 출 19:18-20

54. 십계명. 출 20:1-17
 55. 승리의 약속. 출 23:20-31
 56. 피 뿌림. 출 24:6-8
 57. 장로들의 환상. 출 24:9-11
 58. 두번째 오른 모세가 사십 일을 머뭄. 출 24:18
 59. 금송아지. 출 32:1-6
 60. 하나님의 진노. 출 32:7-10
 61. 모세의 중보 기도. 출 32:11-14
 62. 우상 숭배에 따른 징벌. 출 32:15-28
 63. 모세가 세번째 오르다. 출 32:30, 31
 64. 두번째 중보 기도. 출 32:31, 32
 65. 동행을 거절하시는 하나님. 출 33:1-6
 66.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함. 출 33:11
 67.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됨. 출 33:12-17
 68. 모세가 새 환상을 구함. 출 33:18-23
 69. 율법의 두번째 돌비를 받다. 출 34:1-10
 70. 두번째로 산 위에서 40일을 지냄. 출 34:27, 28
 71. 빛나는 모세의 얼굴. 출 34:30-35
 72. 성막을 세움. 출 40:1-38
- VII. 시내에서 가데스바네아로**
73. 구름기둥. 민 10:11, 12
 74. 원망하는 자를 멸망시킨 불. 민 11:1-3
 75. 고기를 원하는 백성들. 민 11:4-6
 76. 모세가 용기를 잃음. 민 11:10-15
 77. 70인의 장로를 임명. 민 11:16, 17
 78. 메추라기. 민 11:31-35

79. 아론과 미리암의 욕심. 민 12:1-15

IX. 가데스바네아에서

80. 정탐군의 보고. 민 13:26-33
81. 백성들의 반역. 민 14:1-10
82. 하나님의 진노. 민 14:11, 12
83. 모세의 중재. 민 14:13-20
84.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세대. 민 14:28-83
85.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패함. 민 14:40-45

X. 40년간의 광야 생활

86. 이스라엘의 방황이 예언됨. 민 14:33
87.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찰. 민 15:32-36
88. 고라,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민 16:1-40
89. 백성들의 반역. 민 16:41, 42
90. 아론의 속죄. 민 16:45-50

XI. 가데스에서(두번째)

91. 미리암의 죽음. 민 20:1
92. 목마른 백성의 원망. 민 20:2-6
93. 모세의 죄. 민 20:7-13

XII. 요단강까지

94. 에돔의 냉대. 민 20:14-22
95. 아론의 죽음. 민 20:23-29
96. 불뱀. 민 21:5-7
97. 놋뱀. 민 21:8, 9
98. 돈을 따라간 선지자 발람. 민 22-24장
99. 요단 여행의 회고. 민 33:1-49

XIII. 임종 직전의 사건들

100. 모세의 고별사와 축복. 신 32, 33장
101. 느보 산에 오름. 신 34:1

102.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죽다.

신 34:1-5

103.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세의 무덤.

신 34:6

11. ㉔ 오경의 각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라.

- ㉔ (1) 첫째 부분인 창세기는 아담으로부터 족장 시대까지의 인류 초기 역사를 언급했으며, 특히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고 있다.
- (2) 둘째 부분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택한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 (3) 세째 부분인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조직을 말하고 있다.
- (4) 네째 부분인 민수기는 택한 백성의 정치적 조직과 하나님 나라의 규모와 질서를 보여 준다.
- (5) 다섯째 부분인 신명기는 가나안에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 준비와 그곳에서 지켜야 할 법을 반복하여 교훈해 준다.

연구자료

랍비 문학. 흠어진 유대인의 생활 규범을 정해 주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A. D. 6-12세기에 가장 왕성하였다.

문 서	부 분	연 대	내 용
미 드 라 쉬 (Midrash)	할 라 카 (Halakah)	B. C. 100- A. D. 300	토라에 대해서만 주석하고 있는 법률에 관한 부분들
	학 가 다 (Haggada)		구약 전체에 관한 이야기, 설교 및 비유담
바 벨 론 탈 무 드 (Talmud)	미 쉬 나 (Mishnah)	A. D. 200	실제로 실행해야 할 할라카로 되어 있고 탈무드의 줄기가 되 었음
	게 마 라 (Gemara)	A. D. 500	후기 랍비들의 미쉬나에 관한 주석
팔레스티나 탈 무 드	게 마 라 (Gemara)	A. D. 200	미쉬나에 관한 주석
토 셉 타 (Tosefta)		A. D. 100- 300	미쉬나의 편집에서 빠진 교훈 수록

창세기 서론

1. ㉠ 창세기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 ㉠ (1) '시작' (beginning), '기원' (origin), '세대' (generation)를 가리킨다.
(2)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책의 제목이 <베레쉬트>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이며 '태초에' (in the beginning)라는 뜻이다.
(3) 70인역 (구약의 헬라어 역본) 성경에는 <게네시스>로 명명(命名)되어 있는데 '기원', '시작'이란 뜻이다. 이 말은 70인역 (LXX)에서 창 2:4의 '하늘과 땅의 기원(시작)의 책'(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우라누 카이 게스)이란 말의 <게네세오스>에서 나왔다.
(4) 영어 성경의 창세기를 가리키는 말 (genesis)은 헬라어 <게네시스>를 번역한 것이며 개역 성경의 '창세기' (창 5:1; 6:9; 10:1 등)라는 명칭도 이 헬라어에서 유래되었다.

2. ㉠ 본서(本書)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오경의 저자인 모세이다 (모세 오경 서론 ㉠ 1, 2, 5, 6, 7을 참조하라).
(2) 본서의 저자로 모세보다 믿을만한 사람은 없다. 그 증거로 신·구약 성경이 본서의 저자로 모세를 인정하고 있다 (출 24:4; 레 14:3; 민 5:2-4; 신 31:9; 마 8:4; 막 10:3; 눅 5:14; 요 5:46, 47)는 점을 들 수 있다.
(3) 더우기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해 애굽 사람의 학문을 모두 배울 수 있었으며 (행 7:22), 그런 까닭에 유용한 모든 기록, 필사본, 구전 자료들을 해독하고 이용할 수 있었다.

3. ㉠ 본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 ㉠ 본서는 B. C. 1440-1400년경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다.

4. ㉠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 ㉠ (1) 여호와 한 분만이 인간이 섬길 유일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2) 또한 인간 타락의 경위와 구원의 필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3) 그리고 여자의 후손 (창 3:15)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4) 마지막으로 한 가문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가를 보여 주며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건설하실 당신의 나라를 위한 초석(礎石) 작업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5. ㉠ 본서의 특징을 말하라.

- ㉠ (1) 본서는 기원(起原)의 책이다. 즉 본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 주고 있다. 특히 '우주의 생성, 하나님의 계시, 가정의 형성, 죄의 기원, 종족의 발전 그리고 선택된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을 연대순으로 기록하였다.'
(2) 그리고 본서는 우주적 진리를 담고 있으며 인간 이성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신비들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밝혀 준다.
(3) 또한 인간의 타락과 멸망 그리고 죽음을 초래한 죄의 도입 과정과 그 죄의 비극적인 결과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만으로 본서를 인류의 종말에 관한 책이라 할 수 없다.

- (4)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인하여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새로운(영적으로) 종족을 이 땅에서 육성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이다.
- (5) 끝으로 본서의 특징은 자세한 '계보'(generation)의 기록이 열거된 것이다. 즉 아담의 계보로부터 시작하여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의 계보가 언급된다. 이 계보는 후에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졌다.

6. **㉠ 창세기와 과학과의 관계를 말하라.**

- ㉠** (1) 자연 과학의 방법으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나 우주의 기원과 생명을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2) 왜냐하면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과학의 범주 아래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과학을 초월한 단계에서의 영적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사람들은 성경이 과학과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정직한 과학자라면 과학이 내리는 결론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인정한다.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과 변할 수밖에 없는 과학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 (4) 그러나 성경과 과학과의 조화 속에서 그 일치점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것은 독선적인 교리만을 주장하는 태도를 벗어나 끊임없이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는 과학적인 태도를 수용하여 성경에 접근하는 태도로부터 가능하다.
- (5) 사실 성경을 기초로 하여 얻었던 결론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오류로서 마땅히 수정해야 할 경우도 있다.

7. **㉠ 본서에 나타난 3대 조상을 말하라.**

- ㉠** (1) 인류의 시조(始祖) / 아담(1-5장)
- (2) 세상의 시조(始祖) / 노아(6-11장)
- (3) 믿음의 시조(始祖) / 아브라함(12-23장)

8. **㉠ 본서에서 말하고 있는 시작(Beginning)은 몇 가지나 되는가?**

- ㉠** (1) 인간의 거주지로서의 지구의 시작 / 1:1-2:3
- (2) 인류의 시작 / 2:4-25
- (3) 죄의 시작 / 3:1-7
- (4) 구원 계시의 시작 / 3:8-24
- (5) 인류 가족의 시작 / 4:1-15
- (6) 인간 문화의 시작 / 4:16-9:29
- (7) 국가의 시작 / 10:1-32
- (8) 다양한 언어의 시작 / 11:1-9
- (9) 히브리 민족의 시작 / 11:10-50:26

9. **㉠ 본서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몇 개의 단어는 무엇인가?**

- ㉠** (1) 창조(creation) (2) 타락(fall) (3) 홍수(flood) (4) 민족(nation) (5) 아브라함(Abraham) (6) 이삭(Issac) (7) 야곱(Jacob) (8) 요셉(Joseph)

10.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천지와 만물의 창조 / 1, 2장
- (2) 인간의 범죄와 타락 / 3장
- (3) 인간 사회의 시작 / 4-6장
- (4) 홍수 심판과 구원 / 7-9장
- (5) 노아의 후손과 바벨탑 / 10, 11장
- (6) 아브라함의 역사(歷史) / 12-25장

22 창세기 서론

- (7) 이삭의 역사 / 21 - 28장
- (8) 야곱의 역사 / 25 - 36장
- (9) 요셉의 역사 / 37 - 50장

11. ㉠ 본서의 요절을 말하라.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1:1).

연구자료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되었던 꿈

꿈을 꾀 사람	내 용	성경귀절	성 취
아 비 멜 렉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안이 수태(受胎)치 못할 것임	창 20:3	창 20:18
야 곱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할 것임 야곱이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임	창 28:13 :14 :15	수 11:21 출 1:7 창 33:18
라 반	야곱의 귀향을 막지 말라	창 31:24	창 33:30,55
요 셉	부모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될 요셉	창 37:5-11	창 41:41-44 ;42:6
바 로	7년씩의 대풍년 및 대흉년	창 41:1-13	창 41:46-57
미 디 안 인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가 여호수아에 의해 멸절될 것임	삿 7:13, 14	삿 7:24, 25
솔 로 몬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심	왕상 3:5	왕상 3:12, 16-28
느 부 갓 네 살	바벨론 이후 세계 제국의 흥망성쇠(興亡盛衰) 느부갓네살이 얼마 동안 왕위에서 쫓겨 날 것임	단 2:1, 28-45 단 4:4-27	참조, 사 46장 단 4:28-37
요 셉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임	마 1:18-24	눅 2:1-7
동 방 박 사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음	마 2:12a	마 2:12b
빌라도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슬픔	마 27:19	참조, 막 15 :38-41

제 1 장 천지 창조

단락구분 1 천지 창조의 대선언 / 2 천지 창조 전의 혼돈 상태 / 3-5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다 / 6-8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다 / 9-13 세째 날, 바다와 육지와 조성하시다 / 14-19 네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다 / 20-23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시다 / 24-27 여섯째 날, 각종 짐승들과 사람을 창조하시다 / 28-31 인간을 축복하시며 식물을 주시다

-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 3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 4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 5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 6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 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 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 9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 10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 11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 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 13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세째 날이니라
- 14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 15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취라 하시고(그대로 되니라)
- 16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 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

- 에 비취게 하시며
- 18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 19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네째 날이니라
- 20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 21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 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 23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 24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그대로 되니라)
- 25 하나님이 땅의 모든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 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29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24 창세기 1장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 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
31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 | 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삼위(三位) 하나님께서 외부의 어떠한 도움도 받으시지 않고 6일 동안 천지 만물의 창조를 완성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즉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라는 점과 아울러 전능자이심을 밝히고 있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떤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참조, 롬 11:36).
- (4) 또한 본장은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왜냐하면 본장의 내용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성경 66권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 ㉠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를 시작하셨는가? (1절)

- ㉠ (1) 천지 창조의 대역사는 '태초'에 시작되었다.
- (2) 여기서 '태초'(히, 베레쉬트)는 시간이란 개념이 형성되기 전인 영원의 어느 한 점으로부터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므로써 개시(開始)된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한다.
- (3)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요 1:1에서 언급한 '태초'(헬, 알케), 즉 '근원부터' 또는 '영원부터' 라는 그 시간보다 훨씬 뒤의 시간을 가리킨다.
- (4) 결국 이것은 영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미리 존재(存在)하고 계셨음을 나타내고 있다.

3. ㉠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구속사적(救贖史的)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1절)

- ㉠ (1) 창세기를 구속 계시(救贖啓示)의 시작으로 볼 때 이 말은 인간의 구속자가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것이다(참조, 롬 1:18-20).
- (2)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속성과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본래의 상태가 파괴된(엡 2:1) 인간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러한 구속은 후에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다.
- (3) 더우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피조물 하나하나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다(9-31절).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 어느 하나라도 당신의 품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4. ㉠ 천지 창조를 주관하신 분은 누구인가? (1절)

- ㉠ (1) 천지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 (2) 여기서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은 전능자, 주관자란 의미를 지닌 <엘로아>의 복수형이다.
- (3) 한편 <엘로힘>이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이방의 신들(31:30; 출 12:12), 천사들(시8:5), 재판장(출 21:6) 등을 의미하였다.
- (4) 그러나 본절에서 이 말은 복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인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 (5) 그러므로 <엘로힘>은 복수형 명사이나 단수 명사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표현법은 삼위(三位)이시면서 일체(一體)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아울러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심을 나타낸다.

5. ㉠ '창조하시니라'는 말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A** (1) 본절에서 사용된 ‘창조하시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無]에서부터 어떤 존재[有]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시 51:10; 사 65:17, 18; 암 4:13).
- (2) 그리고 ‘창조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또 다른 단어로써 <아사>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창조된 물질로부터 전혀 새로운 생명이나 물체의 창조를 의미한다(1:16, 25, 26).
- (3) 또한 <야찰>이라는 말은 토기장이가 흙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맞도록 사물을 완벽하게 지으신 것(form)을 뜻한다(2:7, 9).
- (4) ‘창조하다’는 의미를 지닌 또 다른 말로서 <바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신 것(2:22)을 나타낼 때 사용된 말로 ‘짓다’ 또는 ‘건축하다’는 뜻을 갖는다.
- (5) 이상과 같이 ‘창조하다’라는 뜻의 4가지 원어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자신이 창조하신 물질을 사용하여 전우주를 자신의 뜻에 맞도록 조성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 Q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상태를 말하라(2절).

- A** (1)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였다.
- (2)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말은 땅이 황폐하고 생물이 살만한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무질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사 34:11; 램 4:23).
- (3)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말은 고정되고 완벽한 형태의 물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용해된 화산의 마그마(magma)처럼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는 뜻이다(참조, 시 42:8).
- (4)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히, 루아흐 엘로힘)이란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과 생명의 근원이란 의미를 지닌다(참조, 욥 16:13; 27:3; 시 33:6; 104:29; 사 34:16; 63:11).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말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우주 전체를 근원자이신 하나님이 통괄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 (5) 이런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와 인격(지·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목적에 합당한 삶이다.

7. Q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엘로힘)의 능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절)

- A** (1) 정밀한 아름다움과 정확한 운행 질서의 조화를 볼 수 있다(시 19:1-6).
- (2) 하나님의 영원성과 무한성을 알 수 있다(시 95:3).
- (3)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볼 수 있다(롬 1:20).
- (4)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 여호와이심을 알 수 있다(시 148:2-14).

8. Q 우주 만물의 기원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2절)

- A** (1) 인간 노력의 산물인 자연 과학을 통해서나 혹은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통해서 우주의 기원을 알기는 부족하다.
- (2) 그러므로 일반 계시인 자연의 현상(행 17:27), 양심 그리고 특별 계시인 성경(1:1)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우주 만물의 기원을 찾아야 한다.
- (3)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는 믿음(신앙)에서 비롯된다(참조, 히 11:3).

9. Q 천지 만물의 창조된 순서와 내용을 요약하라(3-31절).

A

순서	내용
1 첫째 날	빛 - 낮과 밤의 구별 (3-5절)
2 둘째 날	하늘 -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구분 (6-8절)
3 세째 날	땅과 식물 - 육지와 바다 구분 (9-13절)
4 네째 날	해 · 달 · 별 (14-19절)
5 다섯째 날	물 속의 생물과 날 수 있는 생물 (조류) (20-23절)
6 여섯째 날	땅 위의 모든 짐승과 인간 창조 (24-31절)
7 일곱째 날	안식하심 (2:1-3)

10. **㉠** 본장에 자주 나타나는 ‘가라사대’, ‘있으라’, ‘하라’ 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3-30절)

- ㉠** (1)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방법은 오직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참조, 시 19:3, 4; 33:6).
- (2)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생각과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표현한 것이며 그 자체는 신비와 능력이다(사 14:24-27).
- (3) 사도 요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말씀 없이 된 것은 전혀 없다고 역설하였다(요 1:3). 그런데 이 말씀은 정제된 것이 아니라 행동의 능력과 성취를 가능케 하는 역동적인 것이다.
- (4) 이처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며(요 1: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평안을 제공하신다.
- (5)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복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주님께서서는 재림하실 때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다(요 12:48).

11. **㉠**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3-28절)

- ㉠** (1)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들을 갖춰 놓으시고 맨 나중에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26절).
- (2) 이와 같은 창조 순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있다.
- (3)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모든 풍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4)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 출현 이전부터 인간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는 얼마나 더 큰 관심과 배려를 제공하실지 가히 짐작이 간다.

12. **㉠**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3-28절)

- ㉠** (1)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받으실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참조, 시 148:13; 롬 11:36; 고전 15:28).
- (2)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빌 2:10, 11).
- (3) 그런데 위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자세는 비굴함이나 굴복이라기 보다는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일 뿐이다(시 115:1).
- (4) 만약 피조물이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거나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추구해야 할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고전 10:31).

13. **㉠**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 만드셨던 ‘빛’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3-5절)

- ㉠** (1) 그 빛은 창조 제 4일째되던 날 창조된 태양과 별이 아니다.

- (2) 즉 그것은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빛의 근원적인 존재 또는 가시적(可視的)이 아닌 일종의 에너지원(energy源)으로 생각된다.
- (3) 결국 그 빛은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장 뚜렷이 제시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 (4) 하나님은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참빛이시며(요 1:9)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요일 1:5).

14. ㉠ 본장에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4절)

- ㉠ (1) 본장은 하나님의 반응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다(10, 12, 18, 21, 25, 31절).
-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손수 만드신 피조물이 당신의 의지대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시는 자충족적(自充足的)인 표현이다.
- (3) 더우기 절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족을 느끼셨다는 것은 그 피조물이 결코 불완전한 상태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준다.
- (4) 그리고 절대 선(善)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그 피조물의 근본 존재가 선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들은 매일의 삶에 거룩과 선을 추구하여 그분의 만족에 또 다른 만족을 드려야 할 것이다.

15. ㉠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그것을 각각 무엇이라고 부르셨는가? (4, 5절)

- ㉠ (1)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셨다.
- (2) 여기서 낮(히, 옴)과 밤(히, 라에라)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격을 규정하는 말이다.
- (3) 즉 낮은 생동감과 생명력 그리고 다양한 변화 등을 그 속성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밤은 적막과 정체 등의 속성을 가진 그 어떤 것을 가리킨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개념까지도 그것에 독특한 이름을 붙이신 것은 당신이 그 모든 존재의 주관자이심을 알려 주시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6. ㉠ 천지 창조에 있어서 각각의 날은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하루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5절)

- ㉠ (1) 천지 창조 때에 구분하였던 7일간의 '날들'은 그 시간적 길이에 있어서 오늘날의 시간 개념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다. 단지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을 뿐이다.
- (2) 먼저 본장의 '날'은 오늘날의 시간 개념과는 다르다는 학설이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은 시간의 계산 표준인 태양은 제 4일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14절).
- (3) 두번째는 본절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에 근거할 때 이것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 유대인들의 시간 관념인 24시간을 뜻한다는 학설이다.
- (4) 세번째는 2:4에 날을 때란 뜻으로 사용한 점, 즉 옴 14:6; 시 90:4; 140:7 등에서도 '날'이 한정지을 수 없는 막연한 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점으로 볼 때 이것은 한 시대 또는 지질학적 연대를 의미할 수 있다는 학설이다.
- (5) 이상과 같은 주장은 일자설(日字說)과 연대설(年代說)로 요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느 하나를 절대시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참조, 벵후 3:8).

17. ㉠ '궁창'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6-8절)

- ㉠ (1) '궁창' (히, 라키아)이란 퍼다, 확장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라카>에서 파생된 말로써 '확장된 공간', 즉 끝없이 넓은 허공을 가리킨다(욥 37:18).

- (2) 우주 공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지구는 수증기를 중심으로 한 혼란스러운 덩어리였던 것으로 보인다(2:5, 6).
- (3) 하나님은 이런 혼란한 상태에 있는 지구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수증기류를 모으셨으며 또한 대기를 구성하게 될 여러 가지 기체를 만드셨다.
- (4) 이와 같이 수증기의 덩어리와 여러 가지 기체로 형성된 넓은 공간인 대기권을 가리켜 궁창 곧 하늘이라고 부르셨던 것이다(참조, 시 104:3; 148:4).

18. **㉠**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가? (7절)

- ㉠** (1) 먼저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 표면을 뒤덮고 있는 모든 수분을 가리킨다.
- (2)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은 높은 대기층에 떠다니는 수분을 가리킨다.
- (3) 이렇게 물들이 각각의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됨으로 지구는 드디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4)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결코 자연적이거나 우연 발생적인 또는 진화의 과정으로 빚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 (5) 만약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파괴하시는 날에는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는 생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참조, 6-9장).

19. **㉠**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1, 12, 22, 24, 25절)

- ㉠** (1) 이 말은 생물 각 개체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각각의 독특한 성격을 주셨다는 말이다.
- (2) 그러므로 생물의 근원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3) 더우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의 교만이며 무지이다.

20. **㉠** 하나님은 지구의 밤낮을 어떻게 조성하셨는가? (14절)

- ㉠** (1)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게 하셔서 지구의 밤낮을 조성하셨다.
- (2) 여기서 ‘광명’이란 ‘빛이 있는 곳’, ‘빛의 본거지’를 의미한다. 이것은 천체에 떠 있는 태양과 다른 별들에게 그들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발광체를 만드셨다는 의미이다.
- (3) 하나님은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시간 개념을 설정하셨다.
- (4) 이와 같이 우리가 느끼고 또한 이용하고 있는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임을 명심하여 사소한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최선을 다하고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눅 19:11-27).

21. **㉠** ‘징조(徵兆)와 사시(四時)와 일자(日字)와 연한(年限)’이란 무엇인가? (14절)

- ㉠** (1) 먼저 ‘징조’란 천체의 변화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참조, 시 65:8; 눅 21:25). 이것은 물론 점성술(astrology)과는 무관하다.
- (2) 또한 ‘사시’란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때를 가리킨다. 이것은 인간 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있어서 생활의 기준이 된다(참조, 시 104:19; 렘 8:7).
- (3) 그리고 ‘일자와 연한’은 우리가 달력에서 볼 수 있는 산술적인 날과 해를 가리킨다.

22. **㉠** 하나님은 무엇으로 낮과 밤을 각각 주관하게 하셨는가? (16-18절)

- ㉠** (1) 하나님은 큰 광명, 즉 태양으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 곧 달에게 밤을 주관하도록 명하셨다.
- (2) 이런 명령은 천문학적으로만 해석해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주 전체나 과학적인 접근 방법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지구 중심이고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 두 광명에게 낮과 밤을 각각 '주관하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통치권을 비인격체에게 이양(移讓)하셨다는 말이 아니다.
- (4) 단지 그것은 두 광명이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전달하는 청지기역을 맡았다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에 의해 오늘도 해와 달을 관리하신다(참조, 수 10:12; 욥 9:7; 마 5:45).

23. **㉠**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신 최초의 대상은 무엇인가? (20-22절)

- ㉠** (1) 물에 사는 모든 생물과 날개 가진 모든 새가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축복을 받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 (2) 이처럼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한 축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
- (3)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탄식하며 회복의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롬 8:22).

24. **㉠** 하나님께서 물 속의 생물과 날짐승들에게 부여하셨던 '복'은 어떤 것인가? (22절)

- ㉠** (1)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복을 부여하셨다.
- (2) 이런 축복은 그들의 증식과 종족 보존에 관계된 것으로서 결국은 생명의 팽창과 보호를 허락받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 출 23:25).
- (3)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서 피조물 하나하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셨다. 또한 피조물들은 아직 자기들 앞에 장애물(죄)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번성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었다.
- (4) 이와 같이 생명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자이며 보존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한다(요 5:26; 11:25; 롬 8:2; 벰전 3:7).

25. **㉠**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24절)

- ㉠** (1) 이 말은 육지에 거하는 생물을 만든 주체자가 땅이라는 뜻이 아니다.
- (2)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두셨던 땅(1절)을 근거로 하여 그 생물들을 만드셨다는 의미이다(25절).
- (3) 사실 하나님의 의지와 손길이 닿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롬 11:36).

26. **㉠**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 부르셨는가? (26절)

- ㉠** (1) 하나님은 '우리'라는 말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 (2) 여기서 '우리'라는 대명사의 복수형은 삼위 일체(三位一體) 교리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
- (3) 또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先在性)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되며 각 위(位)의 완벽한 협동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참조, 마 3:16, 17).
- (4) 그리고 '우리'라는 복수형은 복수형 단수인(엘로힘)이란 표현과도 조화를 이룬다(1절). 이와 같은 절대 유일신 하나님께서 삼위 일체로 존재하심은 성경의 신비이다.

27. **㉠** 인간 창조의 모델(model)이 된 것은 무엇인가? (26절)

- ㉠** (1)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e)과 '모양'(likeness)을 따라 창조되었다.
- (2) 이것은 인간의 육체 구조에 대한 언급이러기 보다는 인간의 영적, 도덕적 본성에 대한 표현이다. 물론 인간의 육체도 인간의 영적, 도덕적 본성을 표현하도록 창조되었다.
- (3) 그러므로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이다.
- (4)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의(義)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 받았음을 뜻한다(엡 4:24).
- (5) 뿐만 아니라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위치는 피조물 가운데 으뜸임을 가리킨다.

(6)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정·의(知·情·意)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지으신 것을 의미한다.

28. **㉠**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다에 거하는 생물과 날짐승들이 받았던 복(22절)이외에 어떤 복을 더하셨는가? (26-28절)**

- ㉠** (1) 인간은 일반적인 동물들이 받았던 복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더 받았다.
- (2)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땅을 소유하라는 말인 동시에 그 땅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필요를 채우라는 말이다.
- (3)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권한을 위임하시어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통괄하게 하셨다는 뜻이다.
- (4) 이와 같이 인간은 분명히 창조 당시 이 땅의 주역으로서 임명받았으나 범죄 이후부터 땅과 모든 생물에 대한 주권 행사를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롬 1:25).
- (5) 그러므로 인간의 범죄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받은 축복을 거부하고 땅과 그 위의 모든 생물에 대한 통치권을 포기하는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29. **㉠**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칙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27절)**

- ㉠** (1) 먼저 남자(아담)를 만드시고 그 후에 여자(하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계시하신 것이다.
- (2) 즉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두 인격체에 대해서 당신의 뜻에 따라 순서를 정하셨다. 이러한 순서는 우월(優越)을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자연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3)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며(고전 11:3)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다.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질서와 순종의 관계는 남자와 여자와의 질서와 순종의 관계와 동일하다.
- (4)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 아래에 있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남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힘을 협력자이다.

30. **㉠**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양식으로 삼으라고 하셨는가? (29절)**

- ㉠** (1) 인간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양식으로 받았다.
- (2) 그런데 이런 명령 때문에 그 당시 인간은 모두 채식만 했다고 선불리 단정지을 수 없다.
-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물에 대한 인간의 주권을 인정하셨을 뿐 아니라(30절) 아담의 범죄 이후 동물의 희생으로 제사드리며 가죽 옷을 입었던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3:21;4:4).
- (4) 그러므로 채식이나 육식이냐는 문제를 따지기 보다는 그들이 채식위주의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편이 좋다.
- (5)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인간에게 육식을 장려하신 것은 대홍수 이후부터이다(9:2).

31. **㉠**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3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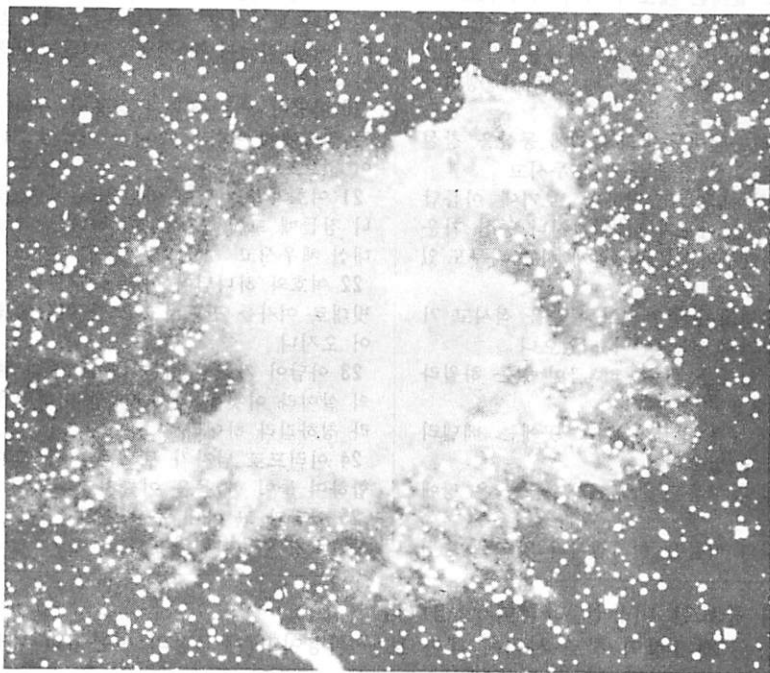
- ㉠** (1) 그것은 인간이 자연계의 모든 것을 도구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임을 밝히기 위해서이다(고전 10:31).
- (2) 그리고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동시에 인간을 위한 존재에 불과하므로 자연을 숭배하거나 절대시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롬 1:23).
- (3) 즉 천지와 우주 만물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며 또한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된다.
- (4) 마지막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간이 물질들을 위해 있지 않고 물질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원칙)을 깨우치시기 위해서이다.

32. ㉠ 모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그 피조물들을 향하여 나타 내신 반응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31절)

- ㉠ (1)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묘사하였다.
 (2) 사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향해 계속 감탄사를 발하셨다(10, 12, 18, 21, 25절). 그러나 당신이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친 후에 발하신 감탄사는 한층 더 고조된 것이었다.
 (3) 이런 감탄사의 고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도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어 피조계에 조그 마한 흠도 없이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대변하는 것이다.
 (4) 이 완벽한 세계는 인간의 범죄로 도전받기도 했으나 하나님은 그러한 도전에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의 세계를 보존하시며 발전하도록 섭리하신다(참조, 계 21:1).

화보자료

마부 자리의 성운(星雲). 아래의 사진은 프랑스의 생 미셸 드 프로뱅스 천문대에서 촬영한 성운이다. 이것은 단순한 별의 집합체가 아니고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별들과 성간 물질(星間物質)이 모여 구성된 것인데 멀리서 보면 마치 한 덩어리처럼 보인다.



위의 사진과 같은 별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16절) 어리석은 인간들은 도리어 별을 섬기기도 하였다(왕하21:3; 렘8:2; 습1:4,5).

제 2 장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인간이 거주하다

단락구분 1-7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다 / 8-16 에덴 동산 / 17-18 선악과 / 19-20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다 / 21-25 여자의 유래와 결혼 제도

- 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 2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 3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 4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 5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 6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 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 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 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 10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 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 12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 14 세째 강의 이름은 히태질이라 앗수르 동편

- 으로 흐르며 네째 강은 유브라테더라
- 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 18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 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 20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 23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 24 이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 25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은 제 1장의 창조 사역에 대한 보충 설명이며 제 3장의 서론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즉 본장에는 인간 역사의 시작이 1장보다 더 세밀하게 설명되어 있고 3장에 나타난 인간 타락의 배경이 예시되어 있다.
- (3) 그러나 본장은 주로 인간을 소재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그 주제가 인간 역사라고는 할 수 없다.

(4) 왜냐하면 인간이 이 땅에 출현하게 된 것과 그들이 거처하는 곳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이다(참조, 15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살게 되었던 것이다.

2. **Q**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A** (1)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마무리짓게 되어 완전한 형태의 피조 세계가 형성되었다는 뜻이다.
- (2) 즉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단순히 중단시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뜻하셨던 바를 조금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성취하셨다는 말이다.
- (3)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만족의 표시를 하셨다(1:31).
- (4) 한편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사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으셨지만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존 관리하시는 일은 오늘날도 계속하고 계신다(참조, 요 5:17).

3. **Q**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대역사를 며칠 동안 계속하셨는가? (2절)

- A** (1)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일간 계속되다가 제 7일에 이르러 모두 끝났다.
- (2) 즉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와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드신 후 7일째 되던 날 안식(安息)하셨다.
- (3) 이 안식은 하나님의 능력에 이상이 있어서 취하신 휴식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형태의 피조물을 다시 만들지 않으시겠다는 창조자의 공식 선언이다.
- (4) 사실 하나님은 휴식이나 안정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분이 아니다(참조, 사 40:28). 그러므로 그분의 쉼은 활동의 중단을 뜻한다기 보다는 이제까지의 일을 끝맺으시고 또 다른 계획과 활동을 추진해 가시는 것을 의미한다.
- (5) 한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수자는 완전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완전히 끝난 '제 7일'에서 유래된 듯하다.

4. **Q**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2, 3절)

- A** (1)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이것을 실행하는 인간들이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 (2) 즉 이 안식은 단순히 인간의 게으름을 조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진행해 오던 모든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 신경을 집중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 (3) 그러므로 이 안식에 참여하는 인간들은 세속적인 활동과 생각을 모두 접어두고 온전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활동과 지혜를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것이다.
- (4) 그런데 '안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는 훗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상 생활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즐겁게 쉬도록 주어진 날의 이름이 되었다(참조, 출 16:29; 신 5:15; 렘 17:21).

5. **Q** 안식일 제도의 근거는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2, 3절)

- A** (1)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신 후에 하루를 쉬심으로 안식일 제도의 규례를 세우셨다.
- (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사실에 근거하여 인간의 안식 제도가 생겨났으므로 안식 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다.
- (3) 인간은 마땅히 이러한 창조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생체 리듬(biorhythm)과도 조화를 이룬다.

6. **Q**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A** (1) 안식일이 인간과 관계되는 날임을 나타내고 있다.

- (2) 안식일은 예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막 2:27). 즉 안식일은 창조 질서 속에서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 (3) 오늘날 성도들은 인간을 위해 생겨난 이 안식의 제도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근본 의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기쁜 날로 삼아야 한다.

7. **㉠**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 ‘제 7일’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제 7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제 7일’이 거룩하다.
- (2)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대상이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로 향하며 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부정한 이해 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 (3)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으면서 ‘제 7일’ 만을 형식적으로 기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예수께서도 ‘제 7일’, 즉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를 비판하셨다(막 2:23-28).
- (4) 따라서 하나님의 날(主日)을 지키는 성도들도 단순히 외형적인 예배와 봉사만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참된 경건과 희생으로 그날들을 보내야 한다(약 1:27).

8. **㉠**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3절)

- ㉠** (1) 안식의 참된 의미는 기쁨과 자유와 축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 제도를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주도해 가시기 때문이다.
- (2) 이 안식 개념은 처음 ‘제 7일’의 안식(출 23:12)에서부터 7년마다의 안식인 ‘안식년’(출 23:10, 11), 안식년의 7번 반복과 더불어 오는 안식(레 25:8-12)인 ‘희년’(禧年) 그리고 영원한 안식(시 116:7)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 (3) 이런 안식 개념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미래에 완성될 영원한 안식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 (4) 사실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Sabbath)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참조, 히 4:8, 9).

9. **㉠** 안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 (1) 죄나 질병 또는 이별이 우리의 마음에 좌절과 영혼의 고통을 가져올 때 가장 먼저 요청되는 것이 안식이다(참조, 욥 3:26; 시 22:2; 고후 2:12).
- (2)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 땅 위에서의 삶을 포기한 채 영원한 안식의 세계인 천국만을 동경하는 극단적인 내세주의자(來世主義者)로 변신할 때가 있다.
- (3)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분명히 안식과 기쁨이 있는 곳이다(참조, 행 7:49; 계 14:13).
- (4)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안식을 누리 본 자라면 불만족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 생활과 마찬가지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참조, 마 11:28-30).

10. **㉠** 오늘날 성도들이 지키는 주일(主日)이 갖는 안식 개념은 무엇인가? (3절)

- ㉠** (1)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서 안식일 제도가 처음 창조된 것이라면,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재창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O. Palmer, Robertson).
- (2)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 사역과 더불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인은 역사를 처음 창조와 부활 창조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된 새 계약 시대에는 성도들이 옛 계약 시대 사람들의 안식일 제도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 (3) 오늘날 성도들은 안식일을 기다리며 옛세(6일) 동안 노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우주적 사건으로 이미 달성된 안식 속에서 기뻐하며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승리를 통해서 성공을 확신하며 6일 동안의 일에 즐거이 참여하게 된다.

- (4) 이와 같이 안식일을 기념하는 날이 일곱째 날에서 한 주일의 첫째 날로 바뀌었지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어야 한다. 즉 주일을 거룩하고 엄숙히 지키며 이날에는 자신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 일은 금해야 한다.
- (5) 그러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생겨난 제도이며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오히려 언제라도(비록 주일에 행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행할 수 있다(참조, 마 12:7-12; 막 2:27; 요 5:16, 17; 9:1-17).

11. ㉠ 성경에 나타난 안식일 제도가 바벨론 안식 제도에서 유래하였다 볼 수 있는가?(3절)

- ㉠ (1) 바벨론 유적지에서 출토된 다량의 설형 문자(楔形文字) 서판에는 음력으로 매달 15일째 되는 날을 '신을 달래는 날'로 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 (2) 그리고 또 다른 서판에는 어떤 달들의 제 7일, 제 14일, 제 21일 및 제 28일이 불운한 날로 지켜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날들에 왕들은 불에 구운 고기를 먹는 다든지 병거를 타거나 옷을 갈아 입는 것 그리고 국사(國事)를 의논하는 일을 삼가하였다.
- (3) 이처럼 바벨론 안식일과 성경의 안식 제도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 (4) 즉 바벨론의 안식일은 특정한 날에 국한되어 있지만 성경의 안식일은 매 7일마다 지켜졌다. 그리고 바벨론은 제한된 계층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성경의 안식일은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만 한다.
- (5) 또한 바벨론 안식일은 사업상의 거래가 중지되지 않았지만 성경의 안식일에는 어떤 종류의 노동도 허용되지 않았다.
- (6) 더우기 바벨론의 안식일은 인간들이 신의 화를 면하기 위해 쉬는 날이었지만 성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주시기 위해 제정하신 날로써 기쁨과 감사로 휴식하는 날이다.
- (7) 그러므로 성경의 안식 제도가 바벨론 풍속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12. ㉠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을 비교하라(3절).

㉠

	내 용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
1	제 정 자	하나님	하나님
2	매 개 자	모세(안식일 전달자)	그리스도(안식일의 주인)
3	제정 장소	시내 산	갈보리 산
4	시기 제정	구약 시대 -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5	이 름	안 식 일	주 일
6	지키는 때	한 주간의 마지막 날	한 주간의 첫날
7	대 상	주로 선민 이스라엘에 국한	모든 성도들
8	제정한 동기	천지 창조의 끝과 출애굽 구속 기념	부활로 인한 새로운 삶 시작
9	쉬는 동기	엿새 동안 일한 후의 휴식	엿새 동안 일하기 위한 시작
10	지키는 법	일하지 않고 전적으로 쉬	세속적인 일은 금하고 하나님의 일은 적극적으로 행함
11	받을 때 형편	공포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사랑과 은혜)
12	소 망	앞으로 올 선한 일의 그림자	예수와 함께 참된 안식
13	영 역	땅에 속한 안식의 날	하늘에 속한 영적 안식
14	지키는 차이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함

15	하는 일	모여서 구약을 읽음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떡을 뺐
16	상 별	사형(죽음)	삶(영생)

13. ㉠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로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가? (4-22절)

- ㉠ (1) 1장부터 계속 사용되던 하나님(히, 엘로힘)이란 이름보다 여호와 하나님(히, 예호와 엘로힘)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 (2) 여기서 ‘여호와’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다. 그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출 3:14), ‘이스라엘의 구원자’ (출6:6)이다.
- (3) 그리고 이 이름은 하나님의 유일성(唯一性)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다.
- (4) 한편 이 이름의 발음이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 〈야웨〉로 읽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이 〈야웨〉는 구약에서만 6,823회 사용되었다.

14. ㉠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 지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5, 6절)

- ㉠ (1) 지구 표면은 식물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단지 땅에서 증발한 수증기만 지구를 뒤덮고 있었다.
- (2) 모세가 인간이 이 땅에 나타나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전혀 생존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3) 즉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 혼돈하고 삭막한 곳이었던 지구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땅 위에 생물 특히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조성하셨다.
- (4)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 위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를 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15. ㉠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7절)

- ㉠ (1)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흙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땅의 티끌로’(dust from the ground)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 (2)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기 전까지 보잘것없는 먼지에 불과했다.
- (3) 하나님께서 이런 하찮은 먼지에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참조, 고전1:29).
- (4) 더우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었던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이다(참조, 시 90:3).
- (5) 결국 성도들이 육체적인 외모를 자랑하거나 또는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불평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원망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 (6)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신 육체를 소중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이다.

16. ㉠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인간의 이름은 무엇인가? (7절)

- ㉠ (1) 인류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다. 이 ‘아담’은 흙(히, 아다마)이라는 말과 동일한 어원에서 유래되었다(19절).
- (2) 이처럼 인간은 흙에서 출발한 나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전 3:18, 20)라고 고백하였다.
- (3) 그러나 최초의 인류 아담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걸작품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영광스러운 존재였다(1:26; 시139:14).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 땅에 죄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 자가 되었으므로 ‘생명’(living soul)이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지게 되었다(3:19).
- (5) 한편 하나님은 첫 사람 아담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동참하기를 거부하자 인류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둘째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다(롬8:21, 23; 고전15:42).

17. ㉠ **흙으로서의 인간이 지금과 같은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7절)**

- ㉠ (1) 하나님께서 흙으로만 구성된 인간의 코에 당신의 생기(生氣)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간은 지금과 같은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 여기서 '생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사마>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으나 7:22에서는 인간과 동물들에 대해 함께 쓰이고 있다.
 (3) 이 '생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나 왕상 17:17의 용례로 보아 '모든 생명의 호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
 (4)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동물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1:26).

18. ㉠ **인간이 '생명'(生靈)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7절)**

- ㉠ (1) 먼저 '생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쉬 하야>인데 '살아 있는 영'(living soul)이라는 뜻으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2) 또한 이 말은 하등 동물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다.
 (3) 그러나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는 의미는 하등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받은 영혼을 가진 생물체임을 나타낸다.
 (4)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생명체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살아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참조, 딤후5:6; 계3:1).
 (5) 결국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으며, 또한 호흡하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존재인 것이다.

19. ㉠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7절)**

- ㉠ (1) 육체(몸)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비록 육체는 흙에서 취해졌으나 영혼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임을 알 수 있다.
 (3) 더우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기운이 인간에게 전달되었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거처라고 할 수 있다(고전6:19).
 (4) 결국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조성되었으며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여야 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전12:7; 사57:16; 고전6:20).

20. ㉠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8-14절)**

- ㉠ (1) '즐거움', '기쁨', '좋은'이란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에덴>은 최초의 인간이 거주한 지역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이다.
 (2) 그러나 <에덴>이란 말은 에덴 동산이 갖는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때문에 인간이 최초로 거주한 이곳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었다(참조, 왕하19:12; 사37:12; 51:3; 겔27:33; 암1:5).
 (3) 그리고 '동산'(히, 간)이란 울타리로 보호되는 아름다운 곳을 의미한다.

21. ㉠ **에덴 동산은 현재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 (8-14절)**

- ㉠ (1) 먼저 '동방'(東方)이란 팔레스틴의 남쪽 지방을 의미한다(8절).
 (2) 그리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보면 에덴 동산은 현재의 이라크 근방일 것으로 추정된다(14절).
 (3) 그러나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밝혀진 바 없으며 또한 인간이 해박한 지식과 최신 장비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끝내 이곳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4)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대한 접근을 막으셨기 때문이다(3:24).
 (5)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영원히 인간의 기억에서 제외시키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

은 인간이 잃어버린 에덴보다도 더 훌륭한 당신의 나라를 인간에게 공개하실 것이다 (계21:1, 2).

22. **㉠**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외에 어떤 것들로 아름답게 꾸미셨는가? (9절)

- ㉠** (1)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에덴 동산을 꾸미셨다.
 (2) 즉 그곳에 인간이 살기에 풍족하고 아무 불편이 없도록 온갖 좋은 식물들을 자라게 하심으로 지상에서 가장 이상적(理想的)인 동산을 만드셨다(사51:3).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배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에 얽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다(3:6).
 (4) 이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인간에게 잠재해 있는 범죄의 경향성(傾向性)을 억제시켜야 한다(참조, 눅3:14; 고후12:9; 딤펢전6:8; 히13:5).

23. **㉠** '생명나무'란 어떤 종류의 나무인가? (9절)

- ㉠** (1) '생명나무'는 인간에게 생명과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나무이다. 이것은 3:22에 언급된 이 나무의 효력에 대한 진술을 보아서 알 수 있다.
 (2) 한편 어거스틴(Augustine)은 이 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과 만일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 결과 다른 세상에서 누리게 될 생명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3) 그리고 칼빈(Calvin)은 무죄 상태에 있었던 아담이 이 나무의 과일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4) 하여튼 이 나무는 비록 상징적인 면을 띠고 있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나무가 아니라 실재한 나무였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하다(참조, 계 22:2).

24.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신 목적은 무엇인가? (9절)

- ㉠** (1)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 발휘될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에덴 가운데 두셨다.
 (2) 그 당시 인간은 하나님의 금지 조항(17절)을 어길 수도 있었고 순종할 수도 있었다.
 (3) 하나님은 인간을 자동(automation)으로 조작되는 기계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택의 권리가 있는, 즉 자유 의지를 소유한 인격체로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4)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 뜻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이 인간의 자유가 갖는 권리와 책임의 양면성에 기원을 둔 것이다.

25. **㉠**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의 이름과 그 위치를 도표화하라(10-14절).

㉠

이름	이름의 뜻	위 치	비 고
비 손	풍부하게 흐른다	하월라(아라비아를 포함한 인도 지역)	특산물: 금, 베렐리엄(향기나는 누런 송진의 일종), 호마노(대제사장의 흉패와 성전 장식)로 사용됨. (출 25:7)
기 혼	넘치다	구스(아프리카 구스가 아니라 바벨론의 가시인들의 땅)	페르시아 만과 홍해 사이에 있는 아라비아와 나일 강 사이에 있는 전지역
히 테 겔	빠른 화살	앗수르 동편	티그리스 강의 다른 이름

유브라테	달다	하란에서부터 바벨론을 경유하여 페르시아 만에 이름	히브리인들에게는 큰 강, 하수, 바 다(신 1:7; 사 7:20) 등으로 알려졌 다
------	----	-----------------------------------	--

26. ㉠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최초의 금지 규정은 무엇인가? (16, 17절)

- ㉠ (1)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다.
 (2) 여기서 '알게 하다'는 말은 단순히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을 경우 선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뜻이다.
 (3) 그런데 '선악'이란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은 이 세상에 출현할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이며 그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 악임을 알고 있었다.
 (4) 한편 하나님께서 이런 금지 규정을 두신 것은 인간을 괴롭게 하시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만족과 감사의 생활과 더불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결코 인간을 해롭게 하고 착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질제와 도덕율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알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27. ㉠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는가? (17절)

- ㉠ (1) 만일 인간이 그 실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셨다.
 (2) 이 말은 실과 그 자체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독극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의 준엄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3)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체결한 행위 언약으로서 부정적인 측면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리라는 약속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참조, 호 6:7).
 (4)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은 결코 인간을 헐박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엄을 의식하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가르치기 위해 마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8. ㉠ 하나님께서 어길 때 죽음에 이르는 한가지 계명만을 아담에게 주신 까닭이 무엇인가? (17절)

- ㉠ (1) 아직 구체적인 계명이 주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2) 그런 점에서 한 가지 계명을 어기면 모든 계명을 어긴 것과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었다(참조, 약 2:10).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계명에 대한 복종을 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죽으심을 통한 순종을 예표하기 위해서였다(롬 5:14).

29. ㉠ 에덴 동산의 최초 인간의 삶을 천국에서의 성도의 삶과 비교할 수 있는가? (18-25절)

- ㉠ (1)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살았듯이 천국에서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된다(요일 3:2; 계 21:3).
 (2)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과 천국에 있는 것으로 묘사된 과일나무이다. 이것은 영생을 상징한다(계 7:7; 22:2, 14, 17).
 (3) 에덴 동산은 수채와 부끄러움이 없는 곳이었다(25절). 이것 역시 천국의 삶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계 21:4; 22:3).
 (4) 이 두 장소 모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참조, 시 23:1; 34:9, 10; 84:11; 마 6:33; 7:11).

(5) 에덴 동산은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며 왕 노릇하는 곳이었다. 이것은 천국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 노릇할 것을 가리킨다(딤후 2:12; 계 20:4).

30. **㉠**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18절)

- Ⓐ (1) 최초의 인간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다.
- (2) 그런데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 중에 좋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없다(1:4, 10, 12, 18, 21, 25).
- (3)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당시의 시점, 즉 아담이 혼자 있던 순간에 대한 부족 상태를 묘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1. **㉠**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아담을 위해 어떤 계획을 하셨는가? (18절)

- Ⓐ (1)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실 계획을 수립하셨다.
- (2)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적합한 조력자 또는 배우자를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의 역할을 암시하고 있다(참조, 고전 11:9).
- (3) 그러나 이 말은 남성 우위론(優位論)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남녀의 차이는 기본적인 기능의 문제이지 인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32. **㉠**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9절)

- Ⓐ (1) 과거 셈족 문화권에서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종주권(宗主權) 또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한 표현 양식이었다.
- (2) 하나님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직접 지으시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권한을 주신 것은 만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해 주신 것이다.
- (3)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 능력과 사물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것을 통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음을 보여 준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과 통치 권한을 부여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려 나가기보다는 그 피조물에 지배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롬 1:25).

33. **㉠**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드시기 위해 아담을 어떤 지경으로 이끄셨는가? (21절)

- Ⓐ (1) 하나님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 (2) 이 당시 아담의 잠은 자연적인 수면(睡眠)이 아니다. 즉 피곤에서 오는 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배필을 만드시기 위해 재우신 초자연적인 잠이다.
- (3) 또한 여기서 ‘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탈데마>는 환상을 보게 하는 깊은 잠을 의미한다(욥 4:13).
- (4) 이런 히브리어 용례에 따라서 어떤 학자는 아담의 잠을 황홀지경이나 무아경 속의 환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Lightfoot).

34. **㉠**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21, 22절)

- Ⓐ (1)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다.
- (2) 여기서 갈빗대(히, 첼라)는 ‘구부러졌다’는 일차적인 의미와 더불어 ‘한쪽 편(便)’(출 25:12-14; 27:7) 또는 ‘산비탈’(삼하 16:13)이란 뜻도 지닌다.
- (3) 그러므로 어떤 학자(Obbink)는 이러한 사실을 들어 본래의 인간이 양성(兩性)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의한다면 남녀는 시간의 차이가 없이 동시에 이 땅에 출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4)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시고 그들 각자에게 개성과 특성을 부여하셨다(딤후 2:13).
- (5) 한편 여자는 아담의 남아도는 갈비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아담의 갈비를 부러뜨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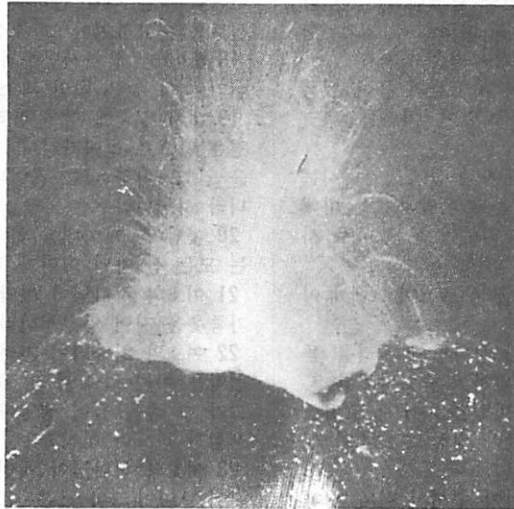
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35. ㉠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신 의미는 무엇인가? (21절)

- ㉠ (1)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처럼 흙으로 지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담의 배필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취하신 것은 깊은 뜻을 지닌다.
- (2) 특히 남자 신체의 여러 부위 가운데 중앙에 위치한 갈빗대를 취한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소중함을 상징하는 것임과 동시에 서로간의 인격에 있어서 동등함을 나타낸다.
- (3)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 속에는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과 우월성을 함께 가지도록 하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인격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동일한 체질로 만들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셨다. 그러므로 두 인격체는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화보자료

화산 폭발. 이것은 화산 학자인 하룬 지에프가 아포레드 제도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우리는 화산 폭발로 인해 지각이 변동 되는 것을 통해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에서 전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엿볼 수 있다.

제 3 장 죄가 이 땅에 들어오다

단락구분 1-5 뱀을 통한 사단의 유혹 / 6-7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따먹다 / 8-13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인간의 대답 / 14-15 뱀을 저주하시다 / 16 여자를 저주하시다 / 17-19 아담을 저주하시다 / 20-21 범죄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 22-24 잃어버린 낙원

1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8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12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 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2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들들과 두루 도는 화염점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1) 본장에는 뱀을 가장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2:17)을 무시한 채 자신들을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 인류의 시조(始祖)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 (2)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초 인류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못미쳤을 뿐만 아니라 계약(Covenant)을 파기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었으며 끝내 고통과 죽음 그리고 낙원에서 추방이라는 불명예를 남기게 되었다.
- (3) 더우기 인간의 타락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형벌을 가져오지 않고 피조 세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7절). 이것은 인간이 피조계를 관리하는 책임자임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증거이다.
- (4)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당신의 계획이 도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그대로 내버리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참조, 합3:2).
- (5)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불법을 다스리는 공의(公義)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죄인을 용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밝혀 주고 있다.

2. **㉠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奸巧)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 하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 (2) 왜냐하면 ‘간교하다’는 말은 사악(邪惡)하거나 음흉하다는 말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신중하다, 슬기롭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잠 12:16).
 - (3) 그리고 예수께서도 뱀의 천부적인 지혜를 칭찬하신 적이 있다(마10:16).
 - (4) 그러나 사단은 자기의 추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뱀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은총을 왜곡되게 만들어 뱀을 유혹의 도구로 사용하였다(참조, 대상21:1).
 - (5)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제공하신 여러 가지 은총과 혜택이 사단의 노리개감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사단의 교활함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참조, 벰전5:8).

3. **㉠ 에덴에서의 유혹 사건 이후 뱀은 성경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 (1절)**

- ㉠** (1)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단의 도구로 이용된 후 성경에 나타난 모든 뱀은 언제나 유혹의 상징인 사단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고후11:3, 14; 계12:9; 20:2).
- (2) 즉 성경은 사단을 뱀, 옛뱀, 용 등의 말로서 표현하고 있다(시140:3; 사27:1; 계9:19).
 - (3) 그러나 이것은 뱀 자체가 사단이나 사단과 같은 악질이라는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제공할 만큼 선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1:31).
 - (4) 하지만 본성적으로 제아무리 선하고 청결하다 하더라도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때에는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지 하등 동물이 되었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4. **㉠ 뱀은 뎌 처음 무슨 말로 여자를 유혹하였는가? (1절)**

- ㉠** (1)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는 질문으로 그 마음을 혼들어 보았다.
- (2) 이와 같은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2:17). 사단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하나만을 먹지말라고 하신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확대해서 질문한 것은 여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의 진리를 의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 (3) 이와 같은 꾀은 수 천년 후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사단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마4:3-11).
 - (4)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어 자신의 교묘한 술책에 말려들도록 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경을 대충 이해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성경을 깊이 깨달아 이해하여 사단의 어리석은 유혹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엡6:10-17).

5. **㉠ 뱀이 유혹의 대상으로 여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여자가 남자보다 유혹에 더 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다(참조, 딤후2:4; 벰전3:7).

- (2) 그 당시 아담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뱀이 여자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했다는 것은 분명히 뱀이 여자를 유혹하기 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 (3) 또한 여자가 하나님의 금지 규정을 직접적으로 전달받지 못한 데(2:17) 대한 책임 회피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사단은 인간의 약한 부분과 모자라는 부위를 골라서 접근하며 끝내 전인격과 온 공동체를 자기의 통치 영역으로 삼는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에게 노출될 만한 약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그 약점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6. **㉠**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뱀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는가? (1절)

- ㉠** (1) 본절에서 뱀과 여자가 의사 소통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뱀과 인간은 하나의 언어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2) 그러나 뱀이 원래부터 인간의 언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단지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그 자신의 도구로 뱀을 선택하였을 때 뱀은 그의 입을 벌려 인간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Augustine, Calvin, Rosenmüller).
- (3) 즉 뱀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소유하지 못했다. 비록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웠지만 자연계를 통괄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언어 감각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7. **㉠** 뱀의 질문에 대한 여자의 대답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같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2, 3절)

- ㉠** (1)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뿐이고 ‘만지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한 하와의 말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완화시킨 것이다.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다(2:17).
- (2) 이러한 여자의 표현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자신에게 너무 엄한 것으로 보였으며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회의와 의심은 곧 범죄의 동기가 된다.
- (3) 또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던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대한 반역 행위이다(참조, 신 4:2; 마5:19; 계22:19).
- (4)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편견으로 해석하는 자는 악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8. **㉠** 뱀은 여자의 대답을 듣고 어떤 말로써 그 여자에게 더욱 접근하였는가? (4, 5절)

- ㉠** (1) 뱀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로써 유혹하였다.
- (2) 이처럼 사단은 인간을 울무에 가두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동원한다(참조, 요8:44).
- (3) 그런데 사단이 이와 같이 여러 거짓말로 여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여자에게서 의혹과 불신이라는 마음의 틈이 엿보였기 때문이다.
- (4) 사단은 항상 좋은 말과 관심을 끄는 언어로 인간에게 접근하는데, 만일 인간이 그 말에 대해 조그마한 흔들림을 보이기만 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력한 자기의 무기(거짓말, 거짓 행동 등)를 동원하여 전인격을 침몰시키려 한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회의의 틈을 말씀과 기도로 메워서 그 틈이 사단의 침투로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고후11:3-10; 엡6:16).

9. **㉠** 뱀의 거짓말에서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5절)

- ㉠** (1) 먼저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구약에서 주로 진리를 알거나 예언적 이상(異像) 중에 하

나눔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는 상태를 가리킨다(창21:19; 민22:31).

- (2) 그러나 여기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고상한 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독립되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 (3)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영광과 권위 그리고 절대적인 신성(Supreme Deity)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된다는 의미이다.
- (4) 즉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스스로 알게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자유인이 된다는 말이다.
- (5)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에 불과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7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동시에 사단에게 예속되어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10. ㉠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그녀의 느낌은 어떠한가? (6절)

- ㉠ (1) 여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느꼈다.
- (2) 여기서 '먹음직하다'는 말은 그 나무의 열매가 여자의 식욕을 돋을 만큼 다른 열매보다 훌륭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단지 여자의 욕심이 식욕을 부른 경우를 가리킨다.
- (3) 또한 '보암직하다'는 말 역시 여자 자신의 눈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판단의 기준을 잃어 버리고 단순히 소유욕에 의해 느껴진 것을 표현한 말이다(참조, 민11:4; 시10:17; 요일2:16).
- (4)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하다'는 것은 여자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그 나무를 바라 본 결과 생긴 마음의 모습을 묘사한 말이다.
- (5) 이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데 여자의 마음이 온갖 욕심에 휩싸여 편견을 가지고 그 나무를 바라 보았던 것이다. 이런 욕심은 결국 인간을 죽음에까지 이끌고 만다(약1:15).

11. ㉠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라는 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6절)

- ㉠ (1) 인간의 욕심은 인간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며 끝내는 하나님의 명령(2:17)을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게 만든다(참조, 약1:15).
- (2) 사실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되지만 그 여자는 뱀과의 대화에서 이미 범죄의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과실을 따먹은 행위는 진행되어 온 죄의 열매라 할 수 있다.
- (3) 예수께서는 마음에 품은 악한 감정마저도 죄라고 단정하셨다(마 5:21-42).

12.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여자 혼자만 먹었는가? (6절)

- ㉠ (1) 여자는 그 과실을 먹고 난 후 함께 생활하던 남자에게도 그것을 권하여 먹게 하였다(딤후 2:13). 이것은 죄의 전염성을 잘 대변해 주는 사건이다.
- (2) 이와 같은 절차로 보아서는 아담에게 그렇게 큰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금지 규정(2:17)을 전해들은 자로서 여자의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꾸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에 가담하고 말았다.
- (3) 즉 아담은 그 일의 공범자일 뿐 아니라 그 일을 의지적(意志的)으로 수행한 범죄자였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담의 범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롬 5:12; 고전 15:21, 22).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준 여자가 오히려 자신과 아담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묶고가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모든 피조물이 고통하며 탄식하게 되었다(롬 8:22).

13. ㉠ 인간이 범죄한 후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무엇인가? (7절)

- Ⓐ (1)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여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부끄러움(수치)을 느끼게 되었다(참조, 2:25).
- (2) 즉 그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을 감싸고 있던 거룩함과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겔 16:22; 계 3:17, 18).
- (3) 더우기 그들은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1:26, 27)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제공한 악한 욕심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순수할 수가 없게 되었다.
- (4)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을 엮어 엉덩이에 걸치는 치마를 해 입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어느 정도 수치를 감출 수 있었으나 마음 깊숙히 도사리고 있는 죄의식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수치심은 물리칠 수가 없었다.
- (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스스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 치마를 만들어 앞을 가린 행동은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 헛된 시도라고밖에 할 수 없다.

14. Ⓞ 하나님은 아담 부부의 범죄를 아시고 언제 그들을 찾아 오셨는가? (8절)

- Ⓐ (1) 하나님은 '날이 서늘 할 때', 즉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 때에 그들을 찾아 오셨다.
- (2) 시간적으로 이때는 경건하고 심오한 명상에 알맞은 때이다. 즉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며 반성할 수 있는 때이다.
- (3) 하나님께서 이때에야 나타나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 (4)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인간이 비록 당신을 떠났지만 당신은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이다(참조, 눅 15:11-24).

15. Ⓞ 아담 부부는 범죄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8절)

- Ⓐ (1)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란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는 소리(삼하 5:24) 또는 하나님의 임재 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소리(출 9:23; 시 29:3, 9)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 등의 뜻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라 할 수 있다.
- (2) 아담 부부는 이런 하나님의 접근하심을 깨닫게 되자 곧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그들의 몸을 숨겼다.
- (3) 그들이 이처럼 황급히 피한 것은 그들의 죄의식에서 빚어진 두려움(공포) 때문이었다.
- (4) 이와 같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 (5) 그러나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이 공포와 불안은 제 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참조, 요 14:1).

16. Ⓞ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9절)

- Ⓐ (1) 하나님은 아담을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숨어 있는 장소를 모르셨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다(4:9). 단지 그들로 하여금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셨다.
- (3)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찾아 오시는 것은 마치 신약의 잃은 양의 비유를 연상케 만든다(눅 15:3-7).
- (4)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을 혼란과 죄의식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신다. 이것이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17. Ⓞ 아담은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와 있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10절)

- Ⓐ (1)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했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아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의 공간적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의 위치가 어떠한가 질문하셨다(9절).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솔직하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었다고 했다. 그는 죄 자체를 인정하기보다는 죄의 결과로 생긴 수치심을 이유로 내세웠다.
- (4)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 (5) 사실 범죄한 인간은 제아무리 할 말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으며 단지 말을 꺼낸다면 회개와 용서의 간구만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눅 18:13).

18. **㉠** 아담의 벗은 모습을 누가 지적하고 조롱한 적이 있는가? (11절)

- ㉠** (1) 아담의 벗은 모습에 대해서 왈가 왈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특히 자신의 배필인 여자와 자신조차도 그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 (2)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무도 지적하지 않은 자신의 벗은 모습에 대해 스스로 깊은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괴로와했다.
- (3) 즉 그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남긴 양심의 소리가 전하는 범죄한 자기의 모습을 들고는 자신이 벗은 몸임을 자각(自覺)하기 시작했다.
- (4)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자신의 벗은 몸을 남 앞에 내놓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죄의식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19. **㉠** 아담은 금지한 과실을 내가 따먹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무엇이라고 핑계하였는가? (12절)

- ㉠** (1)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핑계하였다.
- (2) 이처럼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의 대답은 불성실하고 미온적이었다. 하나님은 범죄의 경위를 알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셨다.
- (3)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수치심을 발하기 보다는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轉嫁) 시켰다.
- (4)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의 일부분을 돌렸다. 사실 아담에게 여자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2:18, 23, 24).
- (5) 이와 같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은 모든 범죄자의 공통된 심리이다(참조, 출32:24).

20. **㉠** 범죄를 추궁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여자는 무슨 말로 변명하였는가? (13절)

- ㉠** (1) 여자는 자신의 남편을 본받아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변명하였다.
- (2) 여기서 '꾀다'는 말은 가야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는 뜻이다(참조, 렘23:39; 애3:17). 이것으로 보아 여자는 분명히 자신의 의지적(意志的)으로 행한 일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 (3) 한편 그녀는 자기가 그 과실을 '먹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 내가 먹기는 먹었으나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뱀의 잘못이라는 핑계에 불과했다.
- (4)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기도에서조차 자신이 회피할 구석을 남겨둔 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때가 있다. 즉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기는 하되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셨다고 하는 토를 덧붙인다.
- (5)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변명치 않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눅 18:13, 14).

21. **㉠**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14, 15절)

- Ⓐ (1) '배로 다니고 종신(終身)토록 흠을 먹을' 것과 '여자와 원수가 되며',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등의 저주를 받았다.
- (2) 여기서 우리는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에는 지금과 같이 땅을 기어 다닌 것이 아니라 걸어 다녔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다녔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3) 한편 흠을 먹게 될 것이라는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피조물로서 종신토록 굴욕 가운데 처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지 흠을 음식물로 먹게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참조, 시 72:9; 사 49:23; 애 3:29; 미 7:17).
- (4) 뿐만 아니라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과 여자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메시아 사이에는 영원히 교제할 수 없는 적대 감정이 생기며 서로 혐오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저주도 함께 받았다(참조, 갈 3:16, 19).
- (5) 이처럼 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을 타락시킨 결과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22. Ⓢ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4절)

- Ⓐ (1) 여기서 '...보다'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민>은 비교격 조사가 아니라 '...에서' '...로부터' 라는 의미이다.
- (2) 그러므로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라는 말은 뱀이 직접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모든 짐승들로부터 극심한 저주를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될 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서도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고 만다.

23. Ⓢ '뱀의 후손' 과 '여자의 후손' 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가? (15절)

- Ⓐ (1) 먼저 '뱀의 후손' 은 악의 권세를 추종할 사단의 영적인 후손을 가리킨다(요 8:44; 엡 2:2; 요일 3:10).
- (2) 그리고 '여자의 후손' 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가리키며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 택한 백성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갈 3:16, 19; 히 2:4; 요일 3:8).
- (3) 한편 이 '여자의 후손'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성취된 말씀이며(눅 4:13) 더 나아가 십자가 위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예표한 말씀이다(눅 23:45-48).
- (4) 또한 뱀이 '여자의 후손' 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수난으로 성취되었다(요 19:18-24).
- (5) 그런데 이와 같은 예언은 많은 사람에게 의하여 선악의 투쟁과 선의 최후 승리를 예언하는 '원시 복음'으로 불리워진다.

24. Ⓢ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여자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셨는가? (16절)

- Ⓐ (1) 하나님은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와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권위 밑에 있게 되는 형벌을 내리셨다.
- (2) 사실 성적 결합과 그로 인한 인류의 번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28)는 말씀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 (3)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은 사라지고 고통과 수고로 자식을 양육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참조, 시 48:7; 살전 5:3; 계 12:2).
- (4) 그리고 계속해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여기서 '사모하다' (히, 테슈카)는 말은 '의외하다', '기울어 의지하다' 는 뜻이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자에 대한 남자의 권위를 말한 것이다(참조, 1:28).
- (5) 이런 권위는 유대 사회에서 종속의 개념으로 발전되어 여자는 남편 또는 주인의 소유로서 취급되었다(참조, 출21:3; 신20:22).

(6) 사실 성경은 남녀간에 차별을 두지 않지만(갈 3:28), 부부의 위치에서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엡 5:22; 뱀전 3:1).

25. ㉠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은 무엇인가? (17-19절)

- ㉠ (1)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所産)을 먹을 수 있으며 결국에는 자신이 출발한 곳이라 할 수 있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 (2) 여기서 아담이 '수고해야 한다'는 말은 고통스럽게 일해야 한다는 뜻이다(참조, 잠 5:10). 물론 아담은 타락 이전에도 노동을 하였지만(1:28) 이제는 죄의 결과로 땅마저 저주를 받아서 고생을 해야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참조, 시127:2).
- (3) 더우기 그는 '흙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이다(롬 2:17).
- (4) 이처럼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원인은 죄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해진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롬 6:22).

26. ㉠ 인간의 타락은 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17, 18절)

- ㉠ (1) 땅은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인간의 생활에 해를 끼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많이 생산하게 되었다(참조, 사 26:6; 렘 23:10).
- (2) 이처럼 모든 피조 세계의 대표자인 인간의 타락은 인간 자신만의 고통으로 그치지 않고 자연계마저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게 하였다(롬 8:22).
- (3) 그러므로 타락 전의 인간은 자연의 혜택과 풍요함 속에서 생활했으나 타락 후에는 자연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 (4) 한편 타락한 인간이 양식으로 삼을 '채소'는 타락 전에는 음식으로 먹지 않았던 짐승의 먹이로나 합당한 하찮은 것을 가리킨다.
- (5)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황폐해지다시피 한 이 땅은 인간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어느날 새롭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계 21:1).

27. ㉠ 범죄 이후 아담은 그의 배필인 여자에게 어떤 이름을 부여하였는가? (20절)

- ㉠ (1) 아담은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다.
- (2) 아담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나 '여자의 후손'을 통한 언약의 말씀(15절)에 위로를 받고 있다. 그는 '하와'라는 이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 (3) 여기서 '하와'란 '산다'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하야>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명' 또는 '생명의 생산자'라는 뜻이다.
- (4) 아담은 자신의 이름이 보통 명사였다가(2:20) 범죄 이후에 고유 명사가 된 것처럼(17절) 그는 자기 아내를 일반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보다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후 그녀의 본명(本名)을 지었다.
- (5) 한편 '하와'의 영어 발음 '이브'(Eve)는 '하와'가 헬라어 및 라틴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발음에 변화를 일으킨 형태이다.

28. ㉠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무엇을 통해 당신의 자비를 보여 주셨는가? (21절)

- ㉠ (1)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범죄한 인간을 향한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셨다.
- (2) 여기서 '지어 입히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옷을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靈感)을 받고 인간이 옷을 만든 것을 뜻한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는 인간에게 낙원 외부의 거친 환경 속에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인간의 수치(벌거벗음)를 가릴 수 있는 튼튼한 옷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였다. 즉 가죽옷을 지어 입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으며 이것이 인간의 죄를 속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히 9:22).
- (5) 이와 같은 짐승의 희생은 구약 시대 전체를 통해 희생의 제사 형식으로 계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다(롬 3:25).

29. Q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신 후 인간이 어떤 위치에까지 올라 있다고 한탄하셨는가? (22절)

- A (1)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한탄하셨다.
- (2) 여기서 '우리'란 천사나 또 다른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격을 나타내는 말이다(1:26).
- (3) 이 말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인식 능력이 동일한 위치에 올랐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는 좁힐래야 좁힐 수 없는 큰 격차가 있다.
- (4) 지적하는 반어적(反語的)인 표현으로써 인간이 이제부터는 도덕적 인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30. Q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을 구별하는 인식 능력을 소유하게 되자 어떤 염려를 하셨는가? (22절)

- A (1) 그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셨다.
- (2)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했다면 생명나무의 실과는 그들에게 축복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은 후에 영생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오히려 불행한 일이 된다.
- (3) 왜냐하면 죄의 상태에서 불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계획하셨던 영생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한 생활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영원한 형벌이 되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은 의미에서 낙원으로부터의 추방과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는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당신의 사랑의 한 표현이다.
- (5) 즉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19절)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영원한 죽음에는 처하지 않게 하시려는 당신의 사랑의 반영이다.

31. Q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낙원(에덴)에서 추방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도록 하셨는가? (23절)

- A (1) 하나님은 인간을 낙원에서 쫓아낸 후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 (2) 이처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낙원 밖의 척박(瘠薄)한 땅을 경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의 교제를 영원히 단절하지는 않으셨다.
- (3) 그러므로 인간이 쫓겨난 곳은 고통의 땅이라기 보다는 수고의 땅이다. 인간은 이제 자신이 취함을 받은 흙과의 교제를 선택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 (4) 즉 자신이 흙에서 취함을 받은 존재인 줄 알고 다가오는 종말을 생각하며 겸손히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32. Q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하신 후 인간이 에덴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24절)

- A (1)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火焰劍)을 두시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 (2) 여기서 '그룹'이란 하나님 가까이 위치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보좌하는 영적인 존

재, 즉 천사를 가리킨다(참조, 겔1:22; 계4:6).

- (3) 그리고 '두루 도는 화염검'은 그룹들의 손에 들려 있는 칼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불을 뽑어 내며 회전하는 칼을 가리킨다(참조, 겔 1:4).
- (4)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곳을 인간에게 공개하지 않으시고 에덴을 인간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셨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게 되었다.
- (5)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비참한 상태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인간이 당신에게로 갈 수 있는 새롭고 확실한 길을 마련하셨다.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요 14:6).

화보자료



유혹받는 아담과 이브.

왼쪽의 그림은 아담과 이브가 뱀에 의해 유혹받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으로서 15 세기에 마솔리노가 그린 것인데 지금은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미네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 먹은 아담과 이브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고자'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5절).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며(잠16:16, 17) 영적인 부패를 초래하는(호7:9, 10) 패망의 길잡이이다(잠16:18).

제 4 장 아담의 아들들과 인간 문명의 시작

단락구분 1-2 가인과 아벨의 출생 / 3-7 가인과 아벨의 제사 / 8-10 최초의 살인자 가인 / 11-15 가인이 저주받다 / 16-18 인류 최초의 성음 에녹 / 19-24 라멕의 가문과 문명의 발달 / 25-26 셋과 에노스의 출생

1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던라

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5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 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뇨

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었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8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4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내시은즉 내가 주의 낫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16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17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18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았고 므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았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19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셀라며

20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 셀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던라

23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24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 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 칠 배이리다 하였더라

25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A (1) 본장에는 범죄한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 아벨 그리고 셋에 대한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어 전개되고 있다. 특별히 가인이 범죄한 후손답게 자신의 동생을 살해함으로써 그 이름은 죄인의 대명사가 되는 슬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2) 이런 와중에서도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인류 문명의 기원을 이룩하였다. 한편 이 문명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가인의 후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죄의 문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문명이 죄악으로 오염되고 그들의 성읍이 죄인의 후손으로 가득차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문화를 이룩하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한 씨, 즉 셋을 이 땅에 출생시키셨다.

(4)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은 인류를 범죄한 상태에서부터 구원하여 당신이 새롭게 건설하시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 보내시려는 원대한 계획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

(5)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살피셨다(참조, 요 13:1).

2. C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1절)

A (1) 먼저 '동침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야다>로서 '알다' (know)라는 뜻이다. 즉 정신적으로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다.

(2) 그런데 이 말이 부부 사이에 사용되면 부부간의 성적 교제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말을 통해서 남편의 성적인 교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뜻하지 않고 전인격적인 나눔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한편 소돔 성에 들어온 천사들과 '상관하겠다'는 소돔 성 주민들의 말에서 '상관하다'는 말 역시 히브리어로 <야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은 남자 모습을 한 천사들과 성적 교제를 갖겠다는 뜻이다(참조, 사 19:22).

3. C 아담과 하와 부부가 처음으로 얻은 아들은 누구인가? (1절)

A (1)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1:28)에 따라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첫아들로 얻었다. 이것은 비록 낙원 밖에서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임이 분명하다.

(2) 이 '가인'이란 이름은 득남(得男)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티트>와 연결되어 있다. 이 두 말은 히브리어 동사 <카나>에서 유래되었는데 <카나>는 '창조하다', '꺼내다', '얻다',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참조, 신 32:6).

(3) 이 '가인'이란 이름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얻은 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한 것이며 또한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 얻게 하신 소유물임을 알 수 있다.

4. C 하와는 첫아들을 얻은 후 어떤 말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였는가? (1절)

A (1) 하와가 기쁨에 못이겨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得男)하였다'고 말했다.

(2) 하와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결코 자기와 남편으로부터 비롯된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었다고 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벌게이트(Vulgate) 역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Per Deum)이라고 기술됨으로써 더욱 분명해졌다.

(4) 사실 자녀는 부부간의 사랑의 열매로써 우연이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중 인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다(출 23:26; 신 7:14).

(5) 즉 자녀는 태의 열매이며(사 13:18), 하나님의 상급(시 127:3)이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의 예측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독립된 인격체임을 의미한다.

5. C 아담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2절)

A (1) 아담은 자신이 얻은 두번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다.

- (2) 이 '아벨' 이란 이름은 '빨리 꺼지는 생기', '허무', '아무것도 없음' 등의 뜻을 가진다.
- (3) 그런데 구약 시대 특히 창세기에 기록된 인명(人各)은 그 사람의 생애 또는 인격의 특징과 연관을 지닌다(17:5). 그런 점에서 '아벨'이라는 이름 속에 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즉 '아벨' 이란 이름은 그의 어머니의 기대 속에 태어났던 큰 아들(가인)에게서 얻은 실망의 감정을 담고 있으며, 또한 젊은 나이에 허무하게 살해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뜻도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8절).

6. **㉠** 가인과 아벨의 직업은 각각 무엇이었는가? (2절)

- ㉠** (1)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
- (2) 이 두 직업(농업과 목축업)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미리부터 말씀하셨고 또한 계시하셨던 직업들이다(3:21,23).
 - (3)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직업들은 인류의 부단한 노력과 문화 활동으로 이룩된 것이지만 그 직업의 근본 창시자는 하나님이다.
 - (4) 인류는 각자의 직업들을 통하여 자아 성취와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으나 그 무엇보다도 그 직업을 허락하시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7. **㉠**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에게 어떤 제물로 제사드렸는가? (3-5절)

- ㉠** (1) 가인은 '땅의 소산', 즉 농산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드렸다. 이것은 두 사람의 직업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제물들이다.
- (2) 여기서 '땅의 소산'은 가장 오래된 형태의 제물인데, 이 피흘림이 없는 제물도 충분히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었다(참조, 레2:1, 4, 14, 15).
 - (3) 그리고 양의 첫 새끼, 즉 생축으로 제물을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제사 예법으로써(3:21)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이다(참조, 히9:22).
 - (4) 하나님은 이 두 제물 가운데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부하셨다. 이것은 제물의 차이 때문이 아니다.
 - (5)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살피셨던 것이다. 즉 가인의 제물은 그의 불경건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고 믿음과 정성으로 드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히11:4).
 - (6)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제사(예배)하는 자의 제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인격과 정성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막12:41-44; 요4:24).

8. **㉠**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열납(悅納)하지 않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4, 5절)

- ㉠** (1)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을 기뻐하시자 '심히 분하여 안색(顔色)이 변하였다'. 이것은 죄인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여기서 '안색이 변하였다'는 것은 불만과 분노의 직선적인 묘사이다(욥29:24; 렘3:12).
- (2) 이처럼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 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아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는 마땅히 회개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분노를 터뜨렸다. 이것은 불신앙적 행위이다(느6:16).
 - (3) 또한 그는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심이 극도에 달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 가인은 이미 살인자나 다름 없었다(마5:21-24).
 - (4) 이와 같이 가인은 자신을 바라볼 줄 모르는 교만한 자였다. 가인이 겸손한 자였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어 풍성한 은혜를 받았을 것이다. 겸손하지 못한 자는!

제나 말이 많으며 쉽게 분노하고 일을 그르치게 된다.

9. **㉠**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분노하고 있는 가인을 향해 꾸짖으신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6, 7절)

- ㉠** (1) 하나님은 가인으로 하여금 그 죄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분함과 불만이 부당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교훈하셨다.
- (2)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모든 자들이 회개할 것을 바라신다. 탕자의 아버지도 이와 같이 큰 아들에게 변론했으며(눅15:28), 불평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은 선한 말로 그들을 이해시키셨다(겔18:25).
- (3) 이것은 악한 자에게조차 자비를 보이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의 반영이다.

10. **㉠**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르느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7절)

- ㉠** (1) 먼저 '선을 행치 아니하면'이란 말은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박하여져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면이란 의미이다.
- (2) 그리고 '죄가 문에 엮드르느니라'는 말은 죄가 항상 사람의 마음 문에 엮드려 그 마음을 주관할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문'이란 양심의 문 또는 영혼의 문을 뜻한다(참조, 벰전5:8).
- (3) 이 두 말을 연결하면 결국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또한 선한 뜻을 지니지 않는다면 사단이 틈을 타서 그 심령에 들어와 끝내 그로 하여금 악한 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11. **㉠** '죄'(罪)란 어떤 것인가? (7절)

- ㉠** (1)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타트>는 활이 시위에서 떠나 목표를 향했으나 그 목표에 명중하지 못하고 빗나갔다는 뜻을 지닌 <하타>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 (2) 더우기 본장의 사건 전개로 보아서도 '죄'의 어원학적(語原學的)인 규정과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 (3) 즉 인간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에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대신 불순종과 불평으로 일관하는 것을 죄라고 할 수 있다(5, 8절; 3:6).
- (4) 그런데 이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킬 뿐 아니라 많은 고통까지 가져오고 끝내는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약1:15).

12. **㉠** 하나님은 불만에 가득 찬 가인에게 무슨 말로 권고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권면하셨다.
-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인이 범죄할 가능성이 있음을 아시고 그에게 분노를 억제하고 악한 계획을 버린 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올바른 길로 가라는 권면과 경고가 동시에 내포된 말이다.
- (3) 사실 죄인(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악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이 늘 일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생각을 자제하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억제하며 참된 경건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참조, 롬7:18-25).
- (4) 한편 가인은 하나님의 이런 권고를 무시한 채 죄의 노예로서 방황하다가 마침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8절).
- (5)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고 의지적인 결단이나 그 말씀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마음에 품은 악한 감정(죄)은 그로 하여금 더 깊고 두드러진 죄악을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13. **㉠** 가인은 하나님의 엄한 경고를 들은 후 곧바로 아벨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가?(8절)

- ㉠** (1) 본절에서는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건넸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즉 본절에는

단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는 말만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러나 어떤 학자는(Jerome, Calvin) 이 말이 생략문으로서 '자 우리 밖으로 나가자' 하는 식의 표현이 덧붙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3) 즉 가인은 자기의 끊어오르는 분노를 숨긴 채 아우 아벨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일터에 나가자는 권고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 (4) 이와 같은 견해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으나 남을 해치려는 악한 감정을 지닌 자들의 속성이 보통 자기의 감정을 은폐하고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것은 확실하다.

14. **㉠** 가인이 자기의 악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8절)

- ㉠** (1) 가인은 자기와 같은 핏줄인 아우 아벨을 들판에서 살해하였다.
- (2) 이처럼 인간이 악한 감정의 노예가 될 때 그는 판단력이 약해지고 이성을 잃게 되어 마침내 파괴적인 행동으로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킨다(49:6).
- (3) 가인은 이런 감정의 노예가 되어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동시에 근친(近親) 살해범이 되는 처지에 이르렀다(참조, 사9:5).
- (4) 이와 같이 인간의 행동은 단순히 그 마음의 표현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마음의 품은 악까지 죄로 단정하시고 형제 미워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엄히 경계하셨다(마5:21-26).

15. **㉠**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8절)

- ㉠** (1) 먼저 이 사건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인류 전체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 준다(3:6).
- (2) 더우기 죄인(아담)의 후손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롬5:19).
- (3) 또한 이 사건은 가인이 이제는 더 이상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 되어 사단에게 속한 자로 전락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참조, 요일3:12).
- (4) 그리고 이 살인 사건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적대심에서 나온 첫 열매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꺾박할 것을 예표한 사건이기도 하다(갈4:29).
- (5) 이처럼 죄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조화롭고 행복한 환경을 파괴하고 그곳에 부조화와 죽음을 대신 심는다. 즉 죄는 파괴와 멸망을 초래한다(롬5:12).

16. **㉠** 하나님은 동생을 살해한 가인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하셨는가? (9절)

- ㉠** (1) 하나님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셨다. 이것은 살인자의 양심에 직접 부딪치시는 하나님의 물음이다.
- (2)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신 것과 같이(3:9) 이번에도 가인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죄를 돌아볼 기회를 주셨다.
- (3) 이처럼 범죄한 인간을 곧바로 버리지 않으시고 재기(再起)의 기회를 제공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기인한다(참조, 호2:20).

17. **㉠** 가인은 자기 아우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9절)

- ㉠** (1) 가인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방문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뻔뻔스런 태도로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응답했다.
- (2)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변명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모르는 무지(無知)이다(참조, 행5:1-11).
- (3) 하나님께서 지니신 무한하신 능력은 인간의 머리털까지 세실 수 있을 만큼 세밀하고 완벽하시다(마10:30).

(4) 범죄한 인간은 마땅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만이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을 수 있다.

18. **㉠** 하나님은 아벨이 살해된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뜻으로 살인자 가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10절)

㉠ (1)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2) 사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제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합리적인 결론으로 자기의 죄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범죄한 인간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신다(시139:5).

(3) 여기서 '핏소리가...호소하느니라' 는 말은 억울하게 살해된 아벨의 외침, 즉 무죄한 자를 피흘리게 만든 가인을 정당하게 심판해 달라는 피해자(아벨)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뜻이다(참조, 욥16:18; 사26:21; 겔24:7).

(4) 하나님은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며 또한 거기에 개입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신다. 즉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의인의 피의 절규를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신다(마5:10-12).

19. **㉠**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저주의 말을 듣게 되었는가? (11, 12절)

㉠ (1) 가인은 자신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땅을 더럽혔으므로 땅이 그 심판에 동원될 것이라는 저주의 말을 듣게 되었다(참조, 레18:28).

(2)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다(2절). 그러나 범죄로 인하여 자신의 산업에서조차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3)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 세계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4) 뿐만 아니라 가인은 죄의식으로 인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책과 고통에 짓눌리게 될 것이다. 즉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평안함이 없는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5) 이와 같이 범죄한 인간이 발붙일 곳이라고는 이 세상에서 한 곳도 없다. 특히 자기 자신마저 자신의 보호처가 되지 못한다.

20. **㉠** 가인은 무엇에 짓눌려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였는가? (13절)

㉠ (1)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범죄의 대가로 내리신 형벌(11, 12절)이 너무 무거워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하였다.

(2) 즉 그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앞으로 당할 형벌의 공포에만 절망하고 있었다.

(3)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자 하는 자는 자신에게 미칠 형벌에 대해 염려하기 보다는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더 깊이 번뇌하고 애통해 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사6:5; 은1:12; 눅23:41).

21. **㉠**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듣고 앞날에 대해서 어떠한 불안을 느꼈는가? (14절)

㉠ (1) 가인은 먼저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로부터 제외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휩싸였다(신31:18). 사실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독립이나 자유를 뜻하지 않고 영원한 공포와 죽음을 의미한다.

(2) 또한 그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늘 고민하며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 하였다.

(3) 더우기 그는 혹시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서 자기가 흘린 피에 대한 보복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강박 관념에 쌓이게 되었다(참조, 민35:19).

(4) 이처럼 인간이 죄를 범하면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앞날의 불안 때문에 늘 고통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불안과 공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를 뉘우치고 용서를 간구할 때에 모두 사라질 것이다(마 11:28).

22. **㉠**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당시 아담 부부와 두 형제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생존하였는가? (14절)

- ㉠ (1) 가인은 분명히 자기를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이지나 않을까 겁을 먹고 있었다. 즉 피의 복수자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 (2) 여기서 가인을 만나 피의 복수를 감행할 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 시대가 인류 역사의 초기였기 때문에 땅에는 사람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 (3) 그러나 어떤 학자(Delitzsch)는 아담의 가족을 피의 복수자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서 가인이 무서워한 피의 복수자는 장차 늘어나서 외지(外地)에 퍼져 살 아벨의 가족으로 보는 것이다.
- (4)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아담의 손자와 증손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7절과 5:4에 의하면 그에게는 다른 자식들이 있어서 언젠가는 그들이 아벨의 사망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3. **㉠** 하나님은 앞날의 불안에 휩싸여 있는 가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15절)

- ㉠ (1)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내리시겠다고 하셨다. 여기서 ‘벌을 7배’나 내리신다는 것은 완전하고 철저한 복수의 표현이다(참조, 레 26:28).
- (2) 사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살인죄를 범한 것일 뿐 아니라 가인을 살려 주신 하나님에 대해 범죄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으며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롬 12:19).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標)를 주셔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다. 이 ‘표’는 외형적인 표식인지 아니면 가인의 내적 확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후자가 더 타당한 것 같다.
- (4) 그런데 이 표가 어떤 것이었는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보증에 불과하다.
- (5)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마 5:45).

24. **㉠** 범죄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거주하였던 곳은 어디인가? (16절)

- ㉠ (1)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추방되어 에덴 동편 ‘돛’ 땅에 거하였다.
- (2) 이 ‘돛’은 유랑 또는 추방이라는 뜻의 지명으로서 에덴 동편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지방인 것 같으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 (3) 또한 이곳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신 기쁨의 땅 에덴과는 대조적인 도망과 추방의 땅이다.
- (4) 오늘날도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의 땅을 상실한 채 방황하며 죄의식에 사로잡혀 날마다 쫓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도망과 추방의 땅에 거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인의 후예임이 분명하다.

25. **㉠** 가인의 아내는 누구의 후손이었는가? (17절)

- ㉠ (1) 가인이 얻었던 아내는 아담의 후손임이 확실하다. 그녀가 가인의 여동생이었거나 혹은 그 형제들이 낳은 딸일 수도 있다.
- (2) 이 당시에는 근친혼(近親婚)이 성행했으며 이 관습은 먼 훗날까지 계속되었다.
- (3) 유대 사회에서도 근친 결혼이 각종 형태로 행하여졌으나 모세의 율법은 이것을 금하고 있다(참조, 레 18:6-18).

26. **㉠** 가인이 첫번째로 얻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17절)

- A** (1) 가인은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첫아들로 얻었다.
 (2) 여기서 '에녹'은 원래 히브리어로 <하녹>이라고 발음되는데 그 뜻은 헌신 또는 시작이다. 이것은 '가르치다' (잠 22:6), '헌신하다' (왕상 8:63) 등의 뜻을 지닌 <하낙>에서 기원한 말이다.
 (3) 혹자(Keil)는 이와 같은 이름에서 가인의 변화된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 이름을 통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지닌 교만을 발견할 수 있다.
 (4) 즉 이 귀절부터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는 인간의 족보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5) 비록 그들이 여러 가지 기술과 재주를 겸비하고 있었으나 그들로 인하여 죄는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27. C 가인은 자신의 첫아들을 얻은 후 계속해서 어떤 일을 추진했는가? (17절)

- A** (1) 가인은 인류 최초의 정착촌인 '성' (城)을 건축하였다. 이 '성'은 문자적으로 '영원한 거주지'를 의미한다.
 (2) 여기서 '성'이라는 말은 근대적인 의미의 도시가 아니라 쌓아 올린 벽이나 성채(城砦)를 뜻한다. 이것은 인류 문명 발전에 중요한 단계가 되었다.
 (3) 한편 가인이 이런 성을 건축한 것은 그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인 듯하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정처없는 방랑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12절).
 (4)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으면서 스스로 정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런 교만은 결국 저주를 확대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
 (5) 만약 그가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살았다면 '아담에게서 나누이고 이스라엘에게서 흠어져야 하리라'고 책망받았던 레위 족속들이(49:7) 훗날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제사장 가문이 된 것처럼(민 3:5-13) 다시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비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28. C 가인의 아들 에녹에서부터 라멕까지의 족보를 도표화하라(18절).

A

이름	순서	이름의 뜻
에녹	가인의 아들	시작, 헌신
이랏	에녹의 아들	도회지 사람, 시민, 교양 있는
므후야엘	이랏의 아들	순결한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므드사엘	므후야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빛은 사람
라멕	므드사엘의 아들	힘센 청년, 기도의 사람

29. C 라멕은 아내를 몇 명이나 얻었는가? (19절)

- A** (1) 라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때 제정하신 일부 일처제(一夫一妻制)의 원리를 최초로 깨뜨리고(2:21, 22) 두 아내를 얻었다.
 (2) 본문에는 라멕이 첫번째 아내로부터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그의 아내에 대한 허물은 조금도 기록하지 않고 다만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3) 한편 여기서 특이할만한 것은 라멕이 얻었던 아내의 이름이 모두 감각적이라는 사실이다. 즉 '아다'라는 이름은 꾸민 자 또는 장식한 자를 의미하며 '셀라'는 그늘집 또는 덜렁거림이라는 뜻을 지녔다.
 (4) 이처럼 라멕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윤리적이어서 할 결혼을 육체적이며 쾌락적인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인류의 문화는 이렇게 하여 점점 더 인간 위주의 분위기로 만들어져 갔다.

30. C 라멕의 아들은 모두 몇 명인가? (20-22절)

- A (1) 라멕은 두 아내에게서 모두 3명의 아들을 얻었다.
 (2) 그 아들들의 신상(身上)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름	어머니	이름의 뜻	직업
야발	아다	여행자, 생산자	목축업의 창시자, 천막에서 삶
유발	아다	기쁜 소리, 환희	최초의 음악인
두발가인	셀라	번영(?)	대장장이 (농사와 전쟁을 위한 기구들을 생산)

31. C 유발이 다루었던 악기는 어떤 것인가? (21절)

- A (1)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만들어 연주하였다.
 (2) 여기서 수금이란 히브리어로 <킨늘>인데 줄을 튕기는 악기라는 뜻이다. 이것은 다윗 시대를 거쳐 근대에까지 계속 발전되어 온 현악기이다(삼상 16:23;19:9).
 (3) 그리고 통소는 히브리어로 <우갑>인데 숨을 내쉬거나 바람을 분다. 또는 귀여운 소리를 낸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목자들이 불었던 갈대 피리로 여겨지며 호흡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관악기의 초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4) 이런 악기들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인간의 감정과 생활의 언어를 대신하는 인간 중심의 오락 도구임에 분명하다.
 (5) 이처럼 인류의 문화는 하나님과 굉장한 거리를 두고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는 쾌락 위주의 것으로만 발전해 갔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32. C 라멕에게는 세 아들 외에 몇 명의 딸이 있었는가? (22절)

- A (1) 라멕은 셀라에게서 '나아마' 라는 딸 하나를 얻었다.
 (2) 이 '나아마' 란 이름의 뜻은 사랑스럽다는 의미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하와'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3) 이와 같은 이름은 참된 생명과 여자의 본분을 무시하고 미모를 위주로 했던 당시 부패한 시대상의 반영인 듯하다.
 (4) 이것은 상대방의 신앙과 인격 그리고 성실성 보다는 외모와 학벌 그리고 집안의 배경을 중요시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오늘날의 사회 풍토와 조금도 다른 점이 없다.

33. C 라멕이 아내들에게 들려 준 노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3, 24절)

- A (1) 두발가인이 만든 무기를 가지고 교만해진 라멕은 이제 유발이 만든 악기로 증오와 복수의 노래를 불렀다.
 (2) 그는 자신의 부상 때문에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며 상처 때문에 청년을 죽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다.
 (3)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해 주셨던 약속(15절)을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4) 즉 하나님께서 동생을 죽인 가인도 보호하셨다면 비록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친동생을 죽인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안전을 주시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해치려는 원수에게는 가인의 살인자에게 주어진 보복보다 11배를 더 가할 것이라고 호언하였다.
 (5)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못 알았으며 생명의 존엄성마저 짓밟고 말았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교만과 그 시대의 잔학성을 보여 준다.

34. C 아담이 그의 아들 아벨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얻은 아들은 누구인가? (25절)

- A (1) 아담은 '셋'이라는 아들을 새로 얻었다. 이 '셋'은 택함을 받은 자라는 뜻을 지닌 이름이다. 이런 이름은 하나님께서 셋을 아벨 대신에 주셨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 (2) 하나님은 '셋'을 아담 가문에 선물하심으로 당신께서 일찌기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3:15)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나가셨다.
- (3) 즉 인간의 사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으나 하나님은 이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당신께서 계획하신 인류 회복의 역사를 계속해 가셨던 것이다(참조, 눅 3:38).
- (4) 따라서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 (5)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 가문의 부패로 말미암아 빛어진 인류 문화의 심각한 죄악성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한 생명을 보내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셋'은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35. Q 셋은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명명(命名)했는가? (26절)

- A** (1) 셋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다.
- (2) 이 '에노스'란 이름은 연약하다, 미약하다는 뜻을 가진 <아나스>에서 유래하였다.
- (3) 즉 '에노스'는 사람의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여 주는 이름이다(참조, 시 90:3; 103:15).
- (4) 이처럼 셋은 자신의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그 당시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보아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36. Q '여호와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6절)

- A** (1) 이 말은 기도와 찬송으로 여호와를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참조, 12:8; 21:33; 대상 16:8; 시 105:1).
- (2) 이것은 죄악이 극심했던 당시 사람들 중에 여호와만이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셔서 인류를 통치하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3) 즉 가인의 자손들과 달리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친교 안에서 삶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18-24절; 5:24).
- (4)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제아무리 방탕하고 부패하다 하더라도 자신들을 그러한 세계에 방임하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여 참된 경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5) 이러한 삶의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에 꽃피우려고 소망하는 자들이 지녀야 할 기본 자세이다.

연구자료

죄의 기원. 최초의 죄는 낙원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결과로 세상에 들어 왔다(롬 5:12). 이 최초의 죄는 뱀의 형태로 가장한 사단의 시험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사단은 인간의 마음속에 불신의 씨를 뿌렸다. 결국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을 범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파기했던 것이다(창 3:6; 호 6:7). 따라서 인간은 그 행위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지적인 면에서는 불신앙과 교만을, 의지면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감정면에서는 금지된 실과를 먹으려는 호기심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사망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말았다(3:19; 롬 5:12; 6:23).

제 5 장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족장들의 족보

단락구분 1-5 인류의 조상, 아담의 일대기(一代記) / 6-8 하나님의 문화를 이어간 셋의 일대기 / 9-11 에노스의 일대기 / 12-14 계난의 일대기 / 15-17 마할랄렐의 일대기 / 18-20 야렛의 일대기 / 21-24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일대기 / 25-27 고통자 므두셀라의 일대기 / 28-31 라멕의 일대기 / 32 노아와 세 아들

- 1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 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 3 아담이 일백 삼십 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 4 아담이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5 그가 구백 삼십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 6 셋은 일백 오 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 7 에노스를 낳은 후 팔백 칠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8 그가 구백 십 이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 9 에노스는 구십 세에 계난을 낳았고
- 10 계난을 낳은 후 팔백 십 오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11 그가 구백 오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 12 계난은 칠십 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 13 마할랄렐을 낳은 후 팔백 사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14 그가 구백 십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 15 마할랄렐은 육십 오 세에 야렛을 낳았고
- 16 야렛을 낳은 후 팔백 삼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17 그가 팔백 구십 오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 18 야렛은 일백 육십 이 세에 에녹을 낳았고
- 19 에녹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20 그가 구백 육십 이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 21 에녹은 육십 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 22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 23 그가 삼백 육십 오 세를 향수하였더라
- 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 25 므두셀라는 일백 팔십 칠 세에 라멕을 낳았고
- 26 라멕을 낳은 후 칠백 팔십 이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27 그는 구백 육십 구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 28 라멕은 일백 팔십 이 세에 아들을 낳고
- 29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 30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오백 구십 오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 31 그는 칠백 칠십 칠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 32 노아가 오백 세 된 후에 셋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A) (1) 본장은 인간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때부터 노아의 대홍수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족보의 형태를 빌어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장의 초두에 '아담 자손의 계보'라는 말을 씌으로써 분명히 하고 있다.
- (2) 그러나 본장에 기록된 족보가 아담 자손 전체를 포괄하는 연대표는 아니다. 단지 그리스도와 연관을 갖는 아담의 후손에 대한 대략적인 기술일 뿐이다(참조, 눅3:36-38).
- (3) 즉 본장의 족보는 아담 한 개인의 가정이 거쳐 온 역사를 언급한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담 가문을 택하셔서 어떤 통로를 거쳐 당신의 구속 사역을 전개해 오셨는가를 밝히는 인간 구원사(人間救援史)라 할 수 있다.
- (4) 이처럼 우리가 단순히 처리하고 있는 족보 이야기마저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숨어 있음을 알고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신중하

게 살피야 할 것이다(참조, 딤후 3:15-17).

2. **㉠** 본장의 족보에 나타난 형식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 (1-32절)

- A) (1) 본장의 족보는 네 가지 기본 사항, 즉 ①이름 ②장자를 낳은 나이 ③그 후의 여생 ④향년(享年) 등을 언급함으로써 족장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다. 단, 아담(3절), 에녹(22,24절), 라멕(28,29절)의 경우는 예외이다.
- (2) 이것을 간추려서 말한다면 낳고 죽는 생사(生死) 문제가 거듭해서 반복되고(8회) 있다는 것이다(참조, 벡전1:24).
- (3) 즉 제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라도 결국에 가서는 ‘향수하고 죽었더라’는 기록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 (4) 이것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인간에게 찾아드는 가장 비극적인 일이다(3:19). 이 죽음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거부할 수 없다(참조, 롬5:12).
- (5)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죽음의 세력을 파멸시키셨다(고전 15:55-57).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비록 육신적인 죽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주어지는 것이다(참조, 요 3:16; 5:24).

3. **㉠** 본장에는 몇 명의 족장들이 소개되고 있는가? (1-32절)

- A) (1)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10명이 소개되고 있다.
- (2) 10세대의 이 계보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의 10세대와 대칭된다(눅 3:34-36).
- (3) 그런데 성경의 계보(족보)는 그 가문에서 두드러진 인물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마 1:1-17). 그러므로 ‘아들’이라는 말과 ‘낳다’는 말은 바로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 원칙이나 그보다 먼 세대를 가리킬 때도 많다.
- (4) 특히 본장에 기록된 족보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필요한 인물들만이 열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인은 분명히 아담의 장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족보에서 제외되고 대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던 셋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 (5) 이런 사실로 보아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심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이 만드신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실현해 가신다.

4. **㉠**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장들의 나이와 이름의 뜻을 말하라(1-32절).

A) ※ A=후계자를 낳을 때의 나이 B=후계자를 낳은 후의 생애

이름	이름의 뜻	A	B	전체생애	장수한 순서
아담	사람	130세	800년	930세	4
셋	지정환, 보상환	105	807	912	5
에노스	연약한 사람	90	815	905	7
게난	유익한, 부지런한	70	840	910	6
마할랄렐	명성, 하나님의 찬양	65	830	895	8
야벳	내려오는 자	162	800	962	2
에녹	성실한 자, 신비로운	65	300	365	10
므두셀라	활쏘는 자, 성장하는 자	187	782	969	1
라멕	영웅, 힘센 청년	182	595	777	9
노아	휴식, 쉼을 가져 오는 자	500	450	950	3

5. **㉠** 계보(系譜)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1절)

- Ⓐ (1) 계보란 히브리어로 <세펠>로서 이것은 무엇을 완전히 기록한 것, 한 장이나 한 쌍으로 된 기록 등을 의미한다(참조, 2:4;6:9;10:1;11:10, 27;신 24:1, 3;마 1:1;눅 3:36).
- (2) 그러므로 이 말은 아마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기 위하여 이용한 문서 자료라고 추측할 수 있다.
- (3) 또한 이런 사실로 보아 대홍수 사건 이전에도 이미 문자(文字)가 통용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인류는 홍수 전에도 상당히 진보한 문명과 문화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 10명의 족장 중 후계자를 낳을 때의 나이가 가장 적은 자와 가장 많은 자는 각각 누구인가? (3-32절)
- Ⓐ (1) 마할랄렐과 예녹은 65세 때에 자신들의 후계자를 낳음으로 최연소로 후계자를 얻은 족장이 되었고 (15, 21절), 500세 된 때에야 겨우 세 아들을 얻었던 노아는 가장 많은 나이에 후계자를 얻은 족장이 되었다(32절).
- (2) 이 시대의 출산 상황으로 보아 현대인과는 체질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3) 그런데 혹자는(Delitzsch) 이런 출산 현상이 신체적인 이유보다는 윤리적인 면에서 더 고려할 만한 것이라고 한다. 즉 그는 부모가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한 후에야 비로소 자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어느 정도 수긍은 할 수 있으나 자식을 늦게 얻었던 그 당시의 상태를 완전히 이해시키기에는 부족하다.
- (4) 여하튼 자신들의 후계자를 얻었던 나이가 몇 백년의 간격을 두었다는 것은 분명히 자식을 얻는 일이 단순한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하면 태(胎)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20:18).
- (5) 그러므로 자식은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임이라고 할 수 있다(시127:3).
7. ⓐ 본장에는 인간이 장수한 사실과 더불어 죽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3-32절)
- Ⓐ (1)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산다해도 죽음을 맛보지 않을 만큼 오래 살 수는 없다.
- (2)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다음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
- (3)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지만 그 외에 죽은 후의 심판이 있는 것도 진리이다(히9:27).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 (4)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죽어도 살며 또한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보장받은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요 11:26).
8. ⓐ 본장에 제시된 족장들(예녹 제외)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인가? (3-32절)
- Ⓐ (1) 대홍수 사건 직전에 살았던 족장들의 평균 수명은 912살이다.
- (2) 그들이 이처럼 많은 날들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그 사역을 분명히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또한 당시의 사람들이 비교적 하나님을 잘 공경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4:26). 성경에는 경건한 생활과 장수를 연관시켜 설명한 귀절이 많다(참조, 잠 3:1, 2;4:10;9:11;엡 6:2, 3).
- (4) 그리고 대홍수가 있기 이전에는 지구 대기권의 밀도가 지금과 달리 인간 생존에 아주 적합했다는 사실에서도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1:6).
9. ⓐ '가인' 대신 동생인 '아벨'을 택하신 하나님은 다시 '셋'을 택하셔서 구속 계획을 이끌어 가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과정을 아는 대로 말하라(3-32절).

- Ⓐ (1) 가인이 아니라 아벨과 그를 대신한 셋이 선택되었다.
 (2)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창21:8, 9).
 (3)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창25:23).
 (4)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다(창48:14).
 (5) 아론이 아니라 모세이다(출7:7).
 (6)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이다(삼상16:1, 13).
 (7) 첫 왕(사울)이 아니라 둘째 왕(다윗)이다(삼상 16:1, 13).
 (8)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다(히8:13).
 (9) 육체적·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다(롬 9:6-8).
 (10) 첫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그리스도)이다(고전 15:45).

10. Ⓒ 성경은 아담이 낳은 셋이 누구를 닮았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3절)

- Ⓐ (1) 성경은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고 언급하였다.
 (2) 여기서 '자기 모양' 또는 '자기 형상' 이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의 그 형상(1:26) 이 아니라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가리킨다.
 (3) 즉 죄에 의해서 파괴되고 변형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셋은 육신을 따라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4) 이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최초 인간이 범한 죄의 결과인 부패한 본성을 유전받고 태어난다. 이런 측면에서 성경은 인간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라고 단정하였다(롬 3:9-18; 5:12).

11. Ⓒ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는 말은 무슨 뜻인가? (22절)

- Ⓐ (1)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복종으로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뜻이다. 즉 그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결국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였다는 말이다(히11:5).
 (2) 또한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걸어다니다, 산책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분의 형상 닮기를 노력했다는 말이다(참조, 암3:3).
 (3) 성경에서 노아와(6:9) 미가에게도(미6:8)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본받으며 거룩한 삶을 영위했던 에녹의 사건은 비록 사단의 권세가 이 땅을 어지럽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참조, 암5:1-14).

12. Ⓒ 성경은 경건한 사람 에녹의 종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24절)

- Ⓐ (1) 성경은 에녹의 종말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는 말로 기록하고 있다.
 (2) 즉 에녹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거쳐야 하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리움 받았다고 묘사하였다(참조, 왕하2:3, 5, 9, 10).
 (3) 이와 같이 에녹은 한계가 분명한 이 세상의 삶에서 영원한 삶이 보장된 세계로 이끌림 받는 영광을 얻었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예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요3:16; 히11:5). 더우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인간의 영혼이 육체적 죽음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허무주의자(虛無主義者)들의 주장이 틀리며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

13. Ⓒ 에녹 외에 하늘로 승천한 사람은 누구인가? (24절)

- Ⓐ (1)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다(왕하2:11).
 (2) 그리스도는 부활 후 하늘로 승천하셨다(행1:9).
 (3) 이러한 사실은 놀라운 영적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으며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

어갈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만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 (4)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은 인간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어야만 하는(3:19) 원칙이(히9:27)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고쳐졌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롬8:11; 고전15:35).

14. **㉠** 인류 역사상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인가? (25-27절)

- ㉠** (1) 경건한 사람인 에녹의 아들 므두셀라이다. 그는 969세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날을 이 땅에서 보냈다.
- (2) '므두셀라'란 이름은 '투창하는 사람', '무기를 가진 자', '활쏘는 사람' 등의 뜻이 있다.
- (3) 이런 이름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가 광포한 사람이며 홍수 전 세대의 사악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한다. 더우기 <셀라>라는 어미는 신(神)의 고유 명칭으로서 우상 숭배를 가리킨다고 한다.
- (4) 그러나 이름이 그의 사악성을 나타낸다고 보다는 그의 활발하고 건강한 체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좋다.
- (5) 즉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오랜 삶을 영위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이 땅에서 보냈다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까지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든다.

15. **㉠**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에 나타나는 이름들 가운데 동일한 이름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동명 이인, 同名異人)이 있다. 누구인가? (28, 29절)

- ㉠** (1) 가인의 후손 중 라멕(4:19)과 셋의 후손 중 라멕(28, 29절)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다.
- (2) 가인의 후손 라멕은 최초로 두 아내를 취한 사람이며 셋의 후손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이다.

16. **㉠** 라멕은 노아를 얻은 후 그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했는가? (28, 29절)

- ㉠** (1) 라멕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는 말로 노아의 출생 소감을 밝혔다.
- (2) 한편 '노아'란 이름은 그 아버지의 소감에서 볼 수 있듯이 '위로', '안식'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3) 이런 이름은 당시 족장들이 극심한 피로움 속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4) 그런데 라멕은 그러한 어려움 중에도 예언자적인 감각을 가지고 당시의 비참한 상태가 극복된 이후의 밝은 미래를 내다본 듯하다.
- (5) 즉 라멕은 노아라는 자식을 통하여 대홍수 사건과 그를 통해 계속될 구원의 역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17. **㉠**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32절)

- ㉠** (1) 노아는 그의 나이 500세 된 후에야 비로소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얻었다.
- (2) 이 세 아들은 이제까지 내려오던 셋을 중심한 족보를 일단락시키고 새로운 족속의 시조(始祖)로 부각된다(9:18, 19; 10:1).
- (3) 여기서 '셈'이란 이름은 '높은 지위'를 뜻하고, '함'은 '검은', '뜨거움'을 의미하며, '야벳'은 '아름다움'을 뜻한다.
- (4) 이들은 모두 홍수 이전에 출생했으며 홍수가 났을 때는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방주 안으로 들어 갔다. 그리고 홍수 후에는 이들로부터 인류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
- (5) 학자들은 흔히 노아의 세 아들의 기질과 거주지를 예로 들어 셈은 황인종, 함은 흑인종,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라고 하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10:1-32).

18. **㉠** 성경의 족보는 연대 산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A (1) 17세기의 학자 어셔(Ussher)는 성경의 족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므로 창조 연대를 B. C. 4004년으로 계산했다.
- (2)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족보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구약의 많은 계보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 (3) 레위에서 모세까지 네 사람의 연계자가 있지만(출 6:16-20) 레위의 조카, 즉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으로부터 여호수아까지의 계보는 18명의 연계자를 보여 준다(대상 7:20-27).
- (3) 마 1장의 족보에서 왕들의 목록은(2-17) 구약에 나오는 왕들의 목록과는 대조적으로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및 여호야김의 이름까지 생략하여 14대씩 의도적으로 묶어 놓았다.
- (4)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에 성경에서 ‘낳다’ 또는 ‘아들’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부자의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조와 후손의 관계도 해당하므로 본장과 11장의 족보 역시 결코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 (5)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필요없는 것은 생략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기록한 성경의 족보는 연대 산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화보자료

죽은자를 장사지내는 모습. 아래의 그림은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시편 삽화 가운데 일부로서 죽은 자를 장사지내는 모습이다.



본장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오면서 ‘죽었더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이유는(5, 8, 11, 13, 17, 20절) 2:17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실현되었는가를 보여 주려 함이다.

제 6 장 홍수의 예고와 방주의 준비

단락구분 1-4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인류의 타락 / 5-7 하나님이 한탄하시다 / 8 노아를 돌아보시다 / 9-12 노아와 그 시대 상황이 설명되다 / 13-21 방주에 대한 설계도가 계시되다 / 22 노아의 순종

1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 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1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13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15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삼백 규빗, 광이 오십 규빗, 고가 삼십 규빗이며

16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 층으로 할지니라

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20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들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21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극도로 타락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멸당하게 되는 인류 최악의 사건이 예언되어 있다.
- (2) 인류 역사 초기에는 인구 증가가 급속히 이루어진 것 같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장수(長壽) 하였으며 많은 자녀를 가졌기 때문이다(5:3-32). 이러한 현상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1:28) 성취된 것이다.
- (3) 그러나 한 번 타락한 인간들은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급속도로 부패하여 갔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다.

(4) 그런데 본장에 나타난 홍수 심판에 관한 예언은 단지 인류를 멸절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진노라기보다는 부패한 인류를 정화(淨化)하여 당신이 의도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다.

(5) 하나님은 죄악이 범람하는 오늘날에도 노아와 같이 당신의 뜻을 추구해가며 거룩히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신다.

2. **㉠**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2절)

㉠ (1)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즉 ① 지체 높은 자의 아들들 ② 천사들 ③ 셋 족속이거나 경건한 사람들로 해석한다.

(2) 또한 ‘사람의 딸들’은 ① 낮은 서열에 있는 백성의 딸들 ② 인간의 딸들 ③ 가인 족속 또는 경건한 자나 하나님의 자녀와 대조되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3)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첫번째 견해는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 주장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오늘날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두번째 견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대부분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욥1:6; 2:1; 38:7; 단3:25). 그러나 이 주장도 본장의 문맥에 맞지 않는다. 본장이 보여 주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인류의 죄악이 너무 커져서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4) 그러므로 세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한 것이 반드시 천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즉 경건한 인간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다(신32:5; 시73:15; 80:17; 호1:10).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통의 경건한 자손으로,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의 경건치 못한 불신 자손으로 볼 수 있다.

3. **㉠** 대홍수 직전에 경건한 셋 가문의 남자들이 아내를 맞아들이는 기준은 어디에 있었는가? (2절)

㉠ (1) 셋 가문의 남자들은 그들과 동일한 영적인 혈족을 찾는 대신 감각적인 눈으로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2) 그 당시 가인의 후손은 불경건하고 인간 중심의 문명 발달에만 치중했던 반면(4:16-24) 셋의 후손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면서(5:22)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속에 살았었다(8절).

(3) 그러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셋 후손의 도덕적인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즉 그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보다 육체적인 매력만을 우선으로 삼게 되었을 정도였다.

(4)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의 아름다움 그 자체가 죄악시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육체만을 소유하려는 욕망에 찬 인간의 눈이 하나님 뜻을 거스렀다는 것이다.

(5) 육체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가치 판단을 흐리게 만들며 끝내 외부로 드러나는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 이것은 성 윤리의 파괴뿐 아니라 인간 세계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죄악이다(참조, 삼하11:2-27).

4.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신(神)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란 말은 무슨 뜻인가? (3절)

㉠ (1) 먼저 ‘나의 신’이란 성령(1:2)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명(spirit)을 의미한다(2:7). 그러므로 위의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 즉 생명이 홍수 때문에 땅 위에서 멸망할 것이라는 암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게 된 것은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육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살>은 신약의 헬라이어 <사르크스>와 같은 의미로서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 사악하게 된 육체를 가리킨다.

(3) 즉 인간들이 오직 자신의 육체적 탐욕에만 이끌려 하나님의 형상(1:27)을 닮기 거부

하는 심각한 타락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는 말이다.

5. **㉠** ‘그들의 날은 일백 이십 년이 되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3절)

- ㉠** (1) 이것은 인간의 수명에 관한 말이 아니라 120년이 지난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가리킨다.
 (2) 특히 본절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사용된 사실로 보아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발제한 즉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음을 알 수 있다.
 (3)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조건 죄에 대한 보응을 실시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기회를 제공하신다. 이것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합 3:2).

6. **㉠** ‘네프림’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4절)

- ㉠** (1) ‘네프림’이란 ‘떨어진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팔>에서 유래된 말이다. 이러한 이 유에서 흑자는(Hoffman, Delitzsch) ‘네프림’을 타락한 천사의 후손으로 생각하였다.
 (2) 그러나 70인역(LXX)은 이 말을 힘세고 위엄있는 사람이란 뜻을 가진 <기간테스>로 번역하여서 이 ‘네프림’이란 말이 천사와 인간 사이의 혼혈족이 아니라 ‘네프림’이라 불렀던 사람들의 신체적인 특징을 묘사한 이름일 뿐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3) 사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이나 성적인 접촉 등을 할 수 없다(마22:30).
 (4) 따라서 이 네프림은 장부 또는 거인들로 추정되어 진다. 이런 점에서 출애굽 당시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정탐군들이 그 땅 족속들의 건장한 체격을 보고 ‘네프림’ 같다고 했던 것이다(민13:33).

7. **㉠**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서 낳은 자식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4절)

- ㉠** (1) 그들은 대홍수 직전에 세상에 이름을 떨쳤던 ‘용사’(勇士)들이었다.
 (2) 여기서 용사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하킵보림>은 원래 ‘강한 자’, ‘성급한 자’, ‘영웅’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다(10:8).
 (3) 한편 이러한 용사들이 본장에 언급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 당시 사회는 힘있는 자들의 손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4) 즉 당시 사회는 힘있는 자가 인정받고 연약한 자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폭력과 부정이 사회 전체를 다스리는 법으로 공공연하게 등장했음이 분명하다.

8. **㉠**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는가? (5, 6절)

- ㉠** (1)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貫盈)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2)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서도 진실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패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참조, 왕상 8:46; 히 4:12, 13).
 (3)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추종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4)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이 죄의 홍수로 범람해 있음을 아시고 그 죄를 물로 씻어내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셨던 것이다(7절). 이와 같이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다.

9. **㉠**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6절)

- ㉠** (1)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목적에 어떤 후회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참조, 삼상 15:29).

- (2) 또한 이 말은 성경의 독자인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용된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다.
- (3) 왜냐하면 ‘한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인나헴>이 ‘숨이차다’, ‘신음하다’는 뜻을 가진 <나함>에서 유래하였으므로 이 단어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비극 때문에 애곡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묘사하는 낱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근심하다’는 말은 단순히 신적인 감정을 표현한 단어이기 때문이다.
- (4)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것이 실수였다는 뜻으로 한탄하거나 근심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근심하셨던 것이다.
- (5)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성도를 향하여 근심어린 눈으로 보시며 다시 말씀으로 회복된 생활하기를 기대하신다(참조, 엡 4:30).

10. ㉠ 하나님은 인간의 극심한 타락을 보신 후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 (2) 여기서 ‘쓸어버리다’ (히, 마하)란 말은 문자적으로 ‘씻어서 닦아 내거나 얼룩진 것을 씻는다’는 의미이다(참조, 민 5:23; 왕하 21:18; 잠 30:20; 사 25:8). 이것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암시로 볼 수 있다.
- (3)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인간의 죄가 단순히 인간 자신만이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동물에까지 미쳤다는 것이다.
- (4) 이것은 모든 사물이 인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과 자연계에 대하여 인간이 갖는 주권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자연계가 인간에게 갖는 의존성을 분명히 밝혀 주는 말씀이다(1:26-29).

11. ㉠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8절)

- ㉠ (1) 구약 성경에는 ‘은혜’를 의미하는 말이 세 가지 나온다. 본절에 사용된 <헨>은 ‘숙이다’, ‘굽히다’는 뜻이다. 즉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굽없이 그리고 겸손하게 베푸는 사랑을 뜻하는 말로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이곳에 사용되었다. 이 은혜는 때로 구속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참조, 렘 31:2; 스후 12:10).
- (2) 두번째로 <라하임>은 죄를 사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이며(출 34:6; 시 51:3; 79:8; 미 7:19), 마지막으로 <헤세드>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과 긍휼인 동시에 공의(公義)이 심을 나타내는 말이다(시 112:4; 렘 9:24).
- (3) 한편 본절에 사용된 <헨>은 하나님으로부터 호의와 고마움을 얻는 자가 경건하며 의로운 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9절).
- (4)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인간의 노력과 선행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전제되어야지만 가능하다.
- (5)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가 본래부터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엡 2:3-10).

12. ㉠ 성경은 노아의 행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9절)

- ㉠ (1)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기록하였다.
- (2) 여기서 ‘의인’에 해당하는 <차딕>은 ‘곧다’는 뜻을 지닌 <차달>에서 유래했다. 이 말은 흠없고 무죄한 것이 아니라(롬 3:10)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아는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라는 뜻이다.

- (3) 그리고 ‘완전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림)은 ‘온전’ 또는 ‘전체’라는 뜻이다. 이 말 역시 완전히 무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고자 노력했다는 뜻이다.
- (4) 이처럼 노아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앞선 에녹의 경우와 같이(5:22)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 (5) 만약 그 당시 노아가 주변의 화려한 문명과 인간들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살았다면 분명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온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고 날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애썼다.

13. ㉠ ‘패괴(悖壞)하여 강포(強暴)가 땅에 충만한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1-13절)

- ㉠ (1) 먼저 ‘패괴하다’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수치심 없이 공개적으로 또는 외람되게 범죄함을 뜻한다(10:9). 이것은 종교적 범죄인 동시에 도덕적인 범죄이다.
- (2) 또한, ‘강포하다’는 말은 마음속에 품은 악을 외부로 표현한 것을 가리킨다. 즉 도덕적인 가책 없이 흉악한 악(간음, 약탈, 강도질 등)을 자행한다는 의미이다.
- (3) 이와 같이 대홍수 직전의 세상은 한 마디로 방종과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답고 선한 세계의 원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 (4)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목적에 조금도 접근하지 못하는 수준 이하의 인류와 그에 속한 모든 자연계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 (5)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것은 아니었다(참조, 2:16, 17). 인간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교만과 잘못된 자의식(自意識) 때문이다.

14. ㉠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려는 계획과 함께 또 무엇을 제시하셨는가? (14-21절)

- ㉠ (1)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사랑하는 노아와 그 가정만은 홍수 심판에서 구하시기 위해 방주(方舟)를 만들도록 하셨다.
- (2) 여기서 ‘방주’는 통상 볼 수 있는 항해용 배가 아니라 다만 물 위에 뜰 수 있는 상자나 큰 궤를 가리킨다(참조, 출 2:3).
- (3) 이 ‘방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결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완전히 오염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 당신이 친히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셔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또한 당신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참조, 마 24:38, 39; 눅 17:27).

15. ㉠ 방주와 신약 시대 교회와의 연관성은 무엇인가? (14-16절)

- ㉠ (1) 방주는 신약 시대의 교회와 자주 비유된다. 왜냐하면 방주가 주는 영적 교훈과 교회가 갖는 영적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 (2) 방주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노아가 그 지시에 따랐을 때 훌륭한 방주가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신적 기원(神的起源)을 가진다(요 10:16).
- (3) 또한 방주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같이 교회도 영적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워졌다(행 2:47).
- (4) 그리고 방주의 운전자가 하나님임과 같이 교회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요 17:15-26).
- (5) 마지막으로 방주가 세상을 전멸시킨 물 위에 뜬 것같이 교회는 죽음의 권세를 밟고 부

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참조, 벰전 3:21).

16. **㉠**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재료로 무엇을 사용하도록 하셨는가? (14절)

- ㉠** (1) 하나님은 잣나무로 방주를 짓고 그 틈새를 역청(瀝靑)으로 메우게 하셨다.
 (2) 그런데 방주의 주재료가 된 ‘잣나무’ (히, 고펠)는 선박 건조에 주로 사용된 소나무 또는 수지성(樹脂性) 나무를 가리키는 듯하다.
 (3) 그리고 ‘역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코펠>은 나무 기름으로 만든 아스팔트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매우 훌륭한 방수재(防水材料) 역할을 하였다.
 (4) 물이 외부로부터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이 ‘역청’은 영적인 의미에서 죄와 죽음이 성도의 삶 속에 파고드는 것을 방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기도 한다(참조, 대하 30:18; 시65:3; 78:38; 단9:24).

17. **㉠** 방주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 (14-16절)

- ㉠** (1) 성경에는 방주의 모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 규모만 나와 있다. 즉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크기로서 그 방주 안에 여러 개의 방과 창이 있었다는 것 정도밖에 알려져 있지 않다.
 (2) 여기서 규빗이란 팔꿈치에서 중지(中指)까지의 길이(신3:11)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약 45.6cm 정도의 길이에 해당한다.
 (3) 이렇게 볼 때 이 방주는 길이 약 137m, 폭 약 23m, 높이 약 14m 정도의 크기이다. 이것은 배수량 약 20,000t, 용적 약 14,000t의 크기이다.
 (4) 그런데 이처럼 큰 덩치의 방주라 하더라도 아무런 추진력이나 제동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방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배를 설계하시고 또한 운행하셨기 때문이다.

18. **㉠**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모순된 것이 아닌가? (17절)

- ㉠** (1)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한 인간들은 영적 가치(靈的價値)를 상실한 자들이다. 즉 그들은 타락과 부패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숭고한 삶의 목적을 이미 상실하였다(3절).
 (2) 그렇지만 하나님은 120년 동안 참으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3절).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불순종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나타냈다.
 (3)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이 세상을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심판의 손길을 펴셨다. 이것은 앞으로 오는 세대에게 범죄의 위험을 경고하시며 죄의 확산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참조, 민16:26-35).
 (4) 더우기 하나님의 심판 행위는 죄로 오염된 이 땅을 정결케 하여 당신이 목적하신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참조, 신7:1-11).
 (5)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었으며 그의 사랑을 더욱 구체화한 사건이었다.

19. **㉠**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노아 사이에 무엇을 세우셨는가? (18절)

- ㉠** (1) 하나님은 노아와의 사이에 당신이 제정하신 ‘언약’을 세우셨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베리트>는 ‘끊는다’, ‘새긴다’는 뜻을 가진 <바라>에서 유래되었다.
 (2) 그러므로 이 말은 언약을 맺는 상대방에게 엄정한 계약 체결 행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때는 계약 당시 갈라 놓은 동물의 모습과 같이 그도 그러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을 경고하는 행동 언어이다(15:9, 10).
 (3)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기 전에 아담과도 ‘언약’을 맺으셨으나(2:15; 3:15) 이 귀절에서 비로소 ‘언약’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흔히 아담과의 언약을 ‘시작의 언약’, 노아와의 언약을 ‘보존의 언약’이라 부른다. 이것

은 아마도 노아의 가문을 이 세상에 존속시킴으로써 장차 임할 메시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표현일 것이다.

- (4)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맺은 '언약' 뿐 아니라(8:21; 15:18; 26:24; 28:13, 14) 한 국가나 공동체 등과도 '언약'을 맺으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출 19:6; 신 5:3).
- (5) 이러한 '언약'들은 각각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제각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면을 가지고 이루어졌으나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頂點)인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히 7:22).

20. ㉠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맺으신 노아와의 언약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18-21절)

- ㉠ (1) 이 언약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설정되었다는 사실(18절)과 또 언약의 범위가 전우주적이며 그것이 노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모든 피조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언약이라는 사실이다.
- (2) 또한 이 언약은 무조건적이며 그 유효성(有效性)이 영원하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은 무지개에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심으로 본장에 기록된 언약에 인을 치신 것이다(9:9-17; 사 54:9).
- (3) 이처럼 특이한 사항을 지닌 언약을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맺으신 것은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온 인류와 피조물 전체가 저주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 한 사람의 언약 수행으로 다른 생명들이 구원받게 되는 대표의 원리를 적용시키기 위함이었다.
- (4) 이와 같은 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단 한번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속죄함을 받는 경우에서 절정을 이루었다(롬5:17-19).

21. ㉠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2절)

- ㉠ (1)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遵行)하였다.
- (2) 사실 방주를 준비하고 식량을 비축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더우기 이웃에게 조롱까지 당하면서 이 일을 모두 수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 (3) 그러나 노아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이런 노아의 행동이 야말로 신앙 생활의 근본이 된다. 사실 신앙이란 순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히 11:8).
- (4) 노아에게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신앙 표본은 단순히 사고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약 2:17, 26).

22. ㉠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판을 준비한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22절)

- ㉠ (1) 홍수 심판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은 의심 없이 믿는 그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 (2)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였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이다(참조, 마 25:1-13).
- (3)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요 무서운 심판이다(참조, 고전 1:18).

연구자료

당대(當代)의 의인 노아

‘노아’ (Noah) 라는 이름의 어원은 불확실한데 그 이름의 형태가 70인역(LXX)에는 헬라어 <노에>로 나와 있다. ‘노아’ 라는 이름의 뜻은 ‘휴식’, ‘안위’ (安慰), ‘구원을 가져 오다’이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5:29)는 말과 관련지워져 있다. 노아는 아담(Adam)의 9대손인 라멕(Lamech)의 아들이었다. 노아 당시의 세상은 너무도 부패하였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貫盈)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6:5-7)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 라는 인정을 받은 자이다(6:9). 그러므로 라멕은 노아가 태어났을 때 인간이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며 위로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이다. 하지만 노아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의인’ 또는 ‘당대에 완전한 자’ 라는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지(6:8) 자신의 공로는 결코 아니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죄의 영향 아래에 놓였으니 누구든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자이다(요일 1:10). 이러한 사실은 비록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자’ 라는 일컬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포도주에 취하여 자신의 아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치부(恥部)를 드러내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지만 인간 공로에 의거한 것이 아니다(롬 3:23-28). 한편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패한 인류를 향하여 임박한 심판에 관하여 경고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의 임무는 방주를 짓는 것(6:14-16)과 의(義)를 전파하는 것이었다(벧후 2:5).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노아는 한편으론 방주를 지으며 또 한편으론 사람들에게 장차 임할 대홍수에 관하여 증거하면서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므로 구원을 얻으라고 권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치 롯(Lot)의 사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19:14) 노아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며 이를 무시하였다. 결국 때가 이르렀으니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7:11,12). 이 같은 홍수를 피하여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및 세 자부(子婦)는 방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을 제외한 전인류는 지구를 덮은 대홍수로

말미암아 멸절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의미를 추출해 낼 수 있다. 대홍수는 말세에 있을 심판의 예표이다(계 20:12). 노아의 가족들은 성도들을 예표한다. 그리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므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심판의 때에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뜻하고 있다. 이윽고 홍수의 기간은 끝이 났다. 601년 2월 27일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부터 밖으로 나왔다(8:13-19).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그토록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심판을 되풀이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8:21) 노아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遍滿)하라'(9:7)고 명하시었다. 그리고 이 같은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증표로 삼으셨다(9:12-17). 이와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성도들에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계 21:3, 4). 이후, 즉 홍수 이후에 노아가 다른 자손들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함(Ham)과 셈(Sem), 야벳(Japheth) 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으니 이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으며(참조, 10, 11장) 노아는 전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홍수 후에도 노아는 350년이나 더 삶을 영위(營爲) 하였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의 노아의 생애 관하여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9장의 기록에 의하면 홍수 후 노아는 농사짓는 일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때에 맞추어 그는 포도를 재배하였고 전술(前述)한 것처럼 어느 날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이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 그의 장막 안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9:20, 21). 그런데 이 같은 노아의 실수로 인하여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참조, 9:25). 아뭏든 노아의 조그마한 실수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음을 볼 때 우리는 자신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삼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던 것처럼 완전치 못하던 노아가 '의인'이라 칭함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향후(向後) 노아는 950세를 끝으로 일생을 마친다(9:29).

제 7 장 은 세상이 물에 잠기다

단락구분 1-5 생명을 얻게 한 순종 / 6-12 노아와 그의 식구가 방주로 들어가다 / 13-16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다 / 17-20 40일간 계속된 대홍수 / 21-24 땅의 모든 생명이 끊어지다

1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2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 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취하며

3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취하여 그 씨를 은 지면에 유전케 하라

4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 어 버리리라

5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 세라

7 노아가 아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8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9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10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 노아 육백 세 되던 해 이 월 곧 그 달 십 칠 일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12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3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14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15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들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17 홍수가 땅에 사십 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19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매 천하에 높은 산에 다 덮였더니

20 물이 불어서 십 오 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21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24 물이 일백 오십 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6장에 예언하신 인류에 대한 홍수 심판의 성취를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2)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물에 잠기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고,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예외 없이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 이처럼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엄청난 것이었다.
- (3)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상황 중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새롭게 실현해 갈 한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 당신이 고안한 방주에 믿음과 순종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정을 피신시키셨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公義)의 칼로 죄악을 진멸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손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보살피신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가 있기에 죽음과 죄가 홍수를 이룬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

2. **㉠**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특별히 당신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 절)

- ㉠** (1)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살피신 이유에 대해서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즉 이 말은 노아의 경건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한다.
- (2) 여기서 '내 앞에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내 얼굴 앞에서'란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보았다'는 말은 '인정하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 (3) 이런 어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노아가 완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전적으로 의롭다 인정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 (4) 한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신학적 용어로 칭의(稱義, justification)이다. 이러한 칭의는 구원을 받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인한 죄사함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진다(롬 5:1-9).
- (5) 비록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같이 부패한 자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흉악한 죄악을 범한 인간이라도 용서하시고 의인이라 부르실 뿐 아니라 새로운 생을 살게 만드신다.

3. **㉠** 방주에 입주시킨 짐승은 각각 어떤 기준으로 차이를 두고 들여보냈는가? (2,3 절)

- ㉠** (1)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는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방주에 들여보냈다. 여기서의 분류 기준은 제사 제물로서의 효용성이다. 그러나 레 11장, 신 11장의 분류 기준은 식물(食物)로서의 효용성이었다.
- (2) 한편 본절과 6:19, 20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은 문서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두 개의 다른 문서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다. 6:19, 20의 내용은 개괄적(概括的)인 표현인데 반하여 본절의 내용은 더 상세한 데서 오는 차이 때문이다.
- (3) 그리고 정결한 짐승 암수 '일곱씩'이라는 말은 '일곱 쌍'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벨 게이트 역, 70인역, Knobel 등)가 있는 반면, '세 쌍과 여분 한 마리'로 보는 견해도 있다(Chrisostom, Augustine, Calvin, Keil, Delitzsch, Lange 등).
- (4) 만약 후자의 경우가 합당할 경우 여분의 한 마리는 후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 (5)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이 세상과 그 위에 거하는 모든 생물을 전멸시키려는 계획과 더불어 당신이 '좋았더라'라고 인정하신 생태계를 보존하시려는 계획을 함께 수행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4. **㉠**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리신 후 며칠 만에 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4 절)

- ㉠** (1)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명령을 하신 후 7일 만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2) 이것은 범죄한 인간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최후 경고였다.
- (3) 즉 하나님은 심판의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난 후에도 다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것이다(참조, 은 1:2).
- (4) 이런 사실로 보아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멸하시기보다는 그들을 살려서 영생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본체이심을 알 수 있다(요 3:16).
- (5)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앞에 보일 태도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묵묵히 응답하는 것이다(참조, 사 1:18).

5. **㉠**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며칠간 계속될 것이라고 하셨는가? (4 절)

- ㉠** (1) 하나님께서는 밤낮 40일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모두 물에 잠길 만큼의 비를 내리셔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멸절시킬 계획을 세우셨다(6:7).

- (3)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 주는 심판의 선포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성행되고 있던 죄악의 요소를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시키기 위해 이 땅을 물로 뒤덮으시려고 하셨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친히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거기에 '보기 좋았더라'는 만족의 표시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물을 파멸시키려고 하신 것은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단호한 분이심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이다.
- (5)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죄악의 요소마저도 용납하기를 싫어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는 경건과 절단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6. **㉠**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절)

- ㉠** (1) 노아의 순종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은 모든 자들에게 모본이 되었다.
 (2) 이러한 순종은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이다.
 (3) 노아는 특히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한 사실을 가리킨다.
 (4) 순종은 외적인 화려함이나 제사보다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시는 것이다(삼상 15:22).

7. **㉠** 노아는 홍수 심판이 이르기 전 방주를 만드는 일 외에 무엇을 하였는가? (5절)

- ㉠** (1) 의(義)를 전파하였다(벧후 2:5).
 (2) 노아가 그 당시 임박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오히려 심한 조소와 핍박을 받았을 것이다.
 (3) 이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마 5:10).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상속되는 축복이며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8. **㉠** 노아의 나이 몇 살 때 홍수 심판이 임했는가? (6절)

- ㉠** (1)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이다.
 (2) 이때 노아의 아들들의 나이는 100세에 약간 못 미쳤다. 왜냐하면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아들들을 낳았기 때문이다(5:32).
 (3) 이렇게 노아는 자기의 아들들이 성숙해 가고 또한 자신마저 기력이 쇠하여져 가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추구했던 나태와 방종을 일삼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
 (4) 이와 같이 참된 신앙의 소유자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생활한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들은 시대와 세태의 흐름에 자신을 쉽게 맡겨 버린다.

9. **㉠**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누구인가? (7절)

- ㉠** (1) 노아는 아들과 아내와 자부(子婦)들과 더불어 홍수를 피하기 위해 방주에 들어갔다. 이 귀절을 벧전 3:20과 연결시켜 볼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은 8명이다.
 (2) 이것은 노아와 아들이 각기 1명의 아내를 취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들은 가인 족속이 취하였던 일부 다처제(一夫多妻制)를 배격한 것이다(4:19).
 (3)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가족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 대부분이 불순종했던 롯의 가정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19:14, 26).
 (4) 이처럼 가정은 단순한 주거 공동체(住居共同體)가 아니라 신앙과 사랑을 보존하는 생명 공동체이다.

10. **㉠** 노아는 어떻게 모든 짐승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었는가? (8, 9절)

- ㉠** (1) 홍수가 가까와지자 짐승들이 노아에게로 모여와 방주로 들어갔다. 이러한 일들은 노아

의 인위적인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것 같다.

- (2) 이것은 위험한 곳으로부터 피해 생명을 보호하려는 짐승의 본능을 이용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 (3) 비록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짐승에 대한 지배권 행사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통괄하신다.
- (4)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날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生態系)가 보존되고 또한 우리들의 생명이 존속될 수 있다.

11. ㉠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물에 잠긴 때는 언제인가? (11절)

- ㉠ (1)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4일에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
- (2) 이 날짜가 이스라엘의 종교력(宗教曆)으로 계산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민간력(民間曆)으로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없다.
- (3) 그러나 홍수의 날짜가 이렇게 정확히 기록된 것은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 (4) 사실 이 대홍수 사건은 많은 고고학적인 자료에서 뿐 아니라 각국의 전해 오는 설화에 의해서도 역사적인 사실임이 뒷받침되고 있다.

12. ㉠ 노아 당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게 된 것은 자연계에 어떤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인가? (11, 12절)

- ㉠ (1) 성경은 당시의 모습을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로 묘사하였다.
- (2) 여기서 '큰 깊음의 샘들'이란 바다의 물(욥 38:16, 30; 41:31; 시 106:9)과 땅 속에 있는 물(신 8:7; 욥 28:14; 시 33:7)을 가리킨다. 이것은 당시에 폭우와 함께 해일(海溢)과 지하수(地下水)의 범람까지 동원된 것을 암시한다.
- (3)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란 말은 당시에 내리던 빗줄기가 마치 열린 창으로 쏟아지는 물과 같이 심했음을 보여 주는 표현이다. 이처럼 엄청난 양의 비가 계속된 것은 대기권에 퍼져 있던 수증기(1:7)가 급속도로 응결하여 일시에 내렸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하늘의 비 뿐 아니라 지상의 모든 물을 동원하여 일시에 지구를 물로 채운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이며 절대적인 섭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자연의 주인이심을 밝혀 주는 사건이다.

13. ㉠ 이 홍수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에 있을 불의 심판과의 관계를 설명하라(11, 12절).

- ㉠ (1) 이 두 사건 모두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빚어진 것이며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 (2)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세상을 물로서 멸망케 하신 홍수 심판처럼 불로도 죄 많은 세상을 멸절시키실 것이다.
- (3) 사도 베드로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같이 마지막 날의 심판과 멸망도 말씀대로 성취될 것을 예언하였다(벧후 3:5-7).
- (4) 한편 마지막 날에 있을 불 심판도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의인에게는 구원을, 악인에게는 멸망을 가져다 주되 그 결과는 영원할 것이다(마 25:31, 32; 벧후 2:9; 유 1:14, 15).

14. ㉠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16절)

- ㉠ (1) 먼저 '닫아 넣으셨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 뒤에서 닫으셨다'는 뜻이다. 즉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가족 및 약속받은 모든 생물이 들어간 후에 그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는 의미이다.
- (2)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방주를 통괄하시며 또한 생명들마저 자신의 주권으로 보호하시겠다는 의지를 암시한다.
- (3) 그러므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멸망받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울

타리 안에 있는 축복받은 자들이다.

- (4)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힌 것은 은혜받을 시기와 구원받을 시기가 지났음을 의미한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문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마 25:1-13).
- (5) 또한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기에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다. 이것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 행동이다(엡 2:8).

15. ㉠ 노아가 방주 안에 갇힌 사실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6절)

- ㉠ (1)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자신의 집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구원에 필요한 요소만이 있었다.
- (2) 오늘날 성도들도 독선과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위치해 있다면 그것들을 버려야 한다(참조, 빌 3:8).
- (3) 방주 안에서 잠시 불편한 생활을 하는 노아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잠시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도 없다(고후 4:17, 18).

16. ㉠ 홍수는 노아가 거주하고 있던 지방에만 한정되어 일어난 현상인가? (19절)

- ㉠ (1) 홍수의 피해에 대해 성경은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라고 묘사하였다. 이 기록은 대홍수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사건이었던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2) 9:11, 15의 내용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
- (3) 또한 노아 당시 큰 홍수가 있었다는 전설이 세계 도처에서 전해진다.
- (4) 그러므로 혹자들(Poole, Murphy, Tayler, Lewis)이 주장하는 지구가 부분적으로 침수(浸水)되었다는 학설은 믿을만한 것이 못 된다.

17. ㉠ 대홍수 때 지구를 덮은 물은 어느 정도의 높이까지 올랐는가? (20절)

- ㉠ (1)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십 오 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고만 언급하였다.
- (2)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5규빗(약 6.84m)이 올랐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높은 산의 정상을 기준으로 한 것 같다.
- (3)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을 강조하기에 적절하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
- (4) 이처럼 물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엄청난 것이었지만 앞으로 닥칠 불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클 것이다(참조, 벰후 3:10).
- (5) 성도들은 이런 심판이 필연적으로 있음을 알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지내며 또한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해 가야 할 것이다(벰후 3:14).

18. ㉠ 방주 안에 남은 자만 생명의 보존함을 받은 홍수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21-23절)

- ㉠ (1) 방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만 영적 생명을 누릴 수 있다.
- (2) 이러한 방주의 기능은 신약 시대 교회의 기능을 예표한 것이다. 방주(교회)로 부름 받고 그 속에 거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방주에로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는 멸망당한다.
- (3) 방주 안에 있던 생명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된 것은 영적 의미로 볼 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참조, 약 1:18; 벰전 1:23).
- (4)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므로 비록 성도가 이 땅에서 순교나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끝내는 구원얻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게 만든다.
- (5) 의인이 환난 중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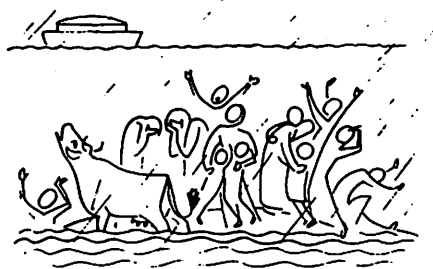
19. ㉠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정이 주는 의미를 말하라 (21-23절).

- ㉠ (1)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노아의 가정은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적인 신앙의 가정을 의미한다.
- (2) 또한 이 가족의 신앙적인 단결이 아름답다. 8식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였다.
- (3) 당시 세상의 다른 가정들과 달랐다. 세 아들은 오직 한 아내만을 취하였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부 일처제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던 믿음의 아들들이었다.
- (4)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이다. 신앙적인 부부, 신앙으로 단결된 형제들, 신앙적인 사랑 등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 중의 하나이다.
- (5) 이처럼 믿음의 가정은 어떤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끝내는 그 환난을 극복하고야 만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31) 고 하였다.
- (6) 마지막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히 11:7).

20. ㉠ 물이 온 지면을 뒤덮고 있던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24절)

- ㉠ (1) 물은 150일 동안 온 지면을 뒤덮고 있었다.
- (2) 그런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혹자는 이 150일의 기간을 비가 온 40일을 제외한 그 이후의 기간만으로 본다(Murphy).
- (3)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기간이 40일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조한다(Knobel, Lange, Bush).
- (4) 하여튼 이 기간이 150일인지, 110일인지에 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없으나 이 기간 동안 땅에 있던 모든 생물이 모두 죽었음에 분명하다.
- (5)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성취이다(4절;6:17). 이와 같은 사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성취됨을 알 수 있다.

본장의 요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더라' (22절).

제 8 장 비가 그치고 땅이 회복되다

단락구분 1-3 비가 그치다 / 4-5 아라랏 산에 머문 방주 / 6-12 노아가 내보낸 까마귀와 비둘기 / 13-14 땅이 마르다 / 15-19 방주에서 나온다 / 20 제일 먼저 제단을 쌓다 / 21-22 저주를 돌이키시는 여호와와의 언약

1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시니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2 깊은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3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일백 오십 일 후에 감하고

4 칠 월 곧 그 달 십 칠 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5 물이 점점 감하여 시 월 곧 그 달 일 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6 사십 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7 까마귀를 내어 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8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9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10 또 칠 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으매

11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12 또 칠 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13 육백 일 년 정월 곧 그 달 일 일에 지면에 물이 건진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건졌더니

14 이 월 이십 칠 일에 땅이 말랐더라

15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16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17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명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18 노아가 그 아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19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도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둬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온 인류와 땅 위에 거하는 모든 생물의 목숨을 앗아간 홍수가 하나님의 배려로 완전히 건지고 지면(地面)이 말끔히 회복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런 이유에서 전장(7장)을 인류 멸망의 날에 관한 기록이라고 본다면 본장은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날을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 또한 전장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예견한 사건의 나열이라면 본장은 부패한 세상과 인류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고 교회가 확장될 것을 예견한 사건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 (4)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영광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철저히 보응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섭리하신다. 이것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합 3:2).

2. **㉠**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식구들과 짐승들을 권념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 (1) '권념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칼)은 '기억하다', '새기다'라는 뜻이다. 이 말은 잊었다가 다시 기억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늘 염두에 두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의미이다.
- (2) 즉 하나님이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신 사실을 묘사하는 말이다.
- (3) 더우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정과 짐승을 위해 행하실 다음 단계의 일을 생각하셨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 (4) 이처럼 비록 무지한 인간들이 당신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늘 당신의 기억 속에 두시고 그들의 필요와 형편을 따라 적절한 은혜를 공급하신다(참조, 느 5:19; 시 25:7).

3. **㉠** 홍수의 진행 과정을 알기 쉽게 요약하라(1-19절).

1A'

	사 건	때	기간
1	방주로 들어가다(7:7)	홍수가 나기 7일 전	7
2	홍수의 시작(7:11)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0
3	비가 계속됨(7:17)	2월 17일부터 40일간	40
4	물이 창일하다(7:24)		?
5	방주가 아라삿 산에 멈추다(8:4)	7월 17일	150
6	산 봉우리가 보이다(8:5)	10월 1일	224
7	40일 후에 까마귀를 보내다(8:7)		264
8	7일 후에 비둘기름 보내다(8:8)		271
9	7일 후에 두번째 비둘기름 보내다(8:10)		278
10	7일 후에 세번째 비둘기 보내다(8:12)		285
11	지면에 물이 걷히다(8:13)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	314
12	땅이 마르다(8:14)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27일	370
13	방주에 나오다(8:18, 19)		

4. **㉠**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지구의 물을 격감시키셨는가? (1-3절)

- A** (1) 먼저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셔서 많은 수분을 증발하도록 하셨다. 또한 하늘의 비와 해 일 그리고 지하수의 불규칙적인 분출을 막으심으로 지구의 물을 격감시키셨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향한 심판을 마무리 지으신 사실을 보여 주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 (3) 즉 대홍수가 발생한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役事)였던 것처럼 이 홍수 심판을 끝내시고 땅을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데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단독적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는 주체자로서 온 피조 세계의 질서를 도맡아 운행하신다.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피조 세계는 순간적으로 이해하면 파괴와 부패와 멸망만 존재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최선의 길로 달려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 비가 그치고 물이 감하기 시작할 때 노아가 탄 방주는 어디에 머물렀는가? (4절)

A (1)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2) 이곳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산이 아니라 단지 방주가 홍수 후에 정박한 곳이다. 여기서 '아라랏 산'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느 산의 한 봉우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산맥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지역을 실론(Ceylon) 또는 인도 북쪽에 있는 알야발타(Aryavarta)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성경의 자료를 추정할 때 그 대략적 위치는 알메니아(Armenia) 지역인 것 같다(참조, 왕하 19:37; 사 37:38; 렘 51:27).

(4) 한편 방주가 닿았던 곳으로 언급된 아라랏 산(일명 노아의 산)은 전설에 의하면 오늘날 에리반(Erivan) 남방 약 20km 지점인 북부 알메니아 지역에 위치한 해발 5100m 정도의 산이라고 한다(Keil, Lange, Kalisch).

6. C 방주로부터 맨 처음 나온 짐승은 무엇인가? (6, 7절)

A (1) 노아는 방주가 아라랏 산에 도착한 지 만 113일이 지난 뒤 창문을 열고 최초로 까마귀를 바깥 세상에 날려보냈다.

(2) 일반적으로 까마귀는 예언하는 새로 알려져 있다. 아라비아인들은 까마귀를 기상(氣象)의 예언자라고 불렀다.

(3) 이 새는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기도 한다(왕상 17:4, 6).

(4) 그런데 이 새는 맹금수로서 썩은 음식을 먹는 습성이 있다(잠 30:17). 이런 이유에서 모세 율법은 이 새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였다(레 11:15; 신 14:14).

7. C 노아가 까마귀를 내어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7절)

A (1) 노아는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까마귀를 날려보냈다.

(2) 그런데 성경은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고 묘사하였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날아 갔다가 되돌아 왔다'는 의미이다.

(3) 그러나 어떤 학자(Alford)는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고 돌아다녔다고 생각하며 70인역(LXX), 별게이트(Vulgate) 역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한다. 이와 같이 엇갈리는 주장이 가능한 것은 히브리어 표현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이다(참조, 삼하 6:23).

(4) 한편 델리취(Delitzsch)는 까마귀가 돌아오기는 했으나 도중에 산봉우리와 시체가 휴식처와 먹을 것을 제공하였으므로 방주에는 아무것도 가져 오지 않았다고 이해한다.

(5) 여기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3)의 견해를 따른다면 땅이 마를 때까지 육지 주변을 배회한 것이 되고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 보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은 당연하다.

8. C 까마귀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7절)

A (1) 까마귀는 방주 안의 다른 모든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보존받는 은혜를 누렸다.

(2) 그러나 까마귀는 노아와 방주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면에 물이 감한 사실을 알아보려는 노아의 요구에 불성실했으며 단지 실망시킬 따름이었다.

(3)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교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요구와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다.

(4) 성경은 이런 자들의 신앙 생활을 통렬히 비판하며 그들의 무감각한 삶을 일깨워 주고 있다(참조, 약 1:19-27).

(5) 이처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무관심한 자들은 흔히 까마귀가 썩은 고기를 즐겨 먹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명예와 재물에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

9. C 까마귀와는 달리 비둘기는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8-12절)

A (1) 비둘기는 방주에서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노아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었다.

- (2) 처음에는 땅 위에 물이 많아서 앉을 수 없음을 알려 주기 위해 그냥 돌아왔다(9절).
- (3) 두번째는 물이 거의 말라가고 있다는 뜻으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다(10,11절).
- (4) 세번째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땅 위에 물이 다 없어진 것을 알려 주었다(12절).
- (5) 이러한 비둘기의 행위는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은혜의 보답으로 볼 수 있다.
- (6)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항상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생활을 힘써야 한다(참조, 고후 1:3-14).

10. **㉠ 성경에 나타난 비둘기의 특징을 요약하라(8절).**

- ㉠ (1) 아름다움의 상징이다(아 1:15).
- (2) 은유함의 상징이다(마 3:16; 눅 3:22).
- (3) 순결한 자의 상징이다(마 10:16).
- (4) 헌신의 상징이다(레 1:14; 눅 2:24).
- (5) 슬픔의 상징이다(사 38:14; 59:11; 60:8).

11. **㉠ 비둘기가 다시 되돌아 온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 ㉠ (1) 아직도 땅에 물이 남아 있다는 의미이다.
- (2) 비둘기가 돌아옴으로써 노아는 밖의 사정을 알 수 있었다. 즉 비둘기는 대체로 골짜기나 평야 지대에 살며(절 7:16), 마르고 건조한 곳만 찾아서 앉는 습성이 있다.
- (3) 그러므로 비둘기가 돌아온 것은 평야 지대나 골짜기에 아직도 물이 있다는 표시였다.

12. **㉠ ‘또 칠 일을 기다려’ 라는 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0절)**

- ㉠ (1) ‘7’이라는 수자를 자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12절)은 한 주간에 7일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며 안식일의 휴식 제도를 늘 암시하는 것이다.
- (2) 즉 노아가 방주 안에서도 날짜 계산을 하고 있었으며 7일마다 반복되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 (3) 이런 사실에서 노아의 끈기 있는 신앙을 볼 수 있다. 노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루함으로 7일을 보낸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와 인내로써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기다렸다(참조, 사 40:31).
- (4) 이처럼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이르렀든지 그 상황에 개의치 말고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참조, 고후 4:7-10).

13. **㉠ 노아가 두번째로 내어보낸 비둘기는 무엇을 물고 방주에 돌아왔는가? (11절)**

- ㉠ (1) 방주를 떠났던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야 ‘감람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 (2) 이처럼 비둘기가 ‘감람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은 온 세상을 물로 범람케 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났음을 알리는 평화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 (3) 또한 이것은 타락한 한 시대가 끝나고 거룩한 시대가 온다는 기쁨의 소식이기도 하다. 특히 이 사건은 평화와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참조, 마 3:16; 막 1:10; 눅 3:22; 요 1:32).
- (4) 한편 ‘감람 새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날아온 비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임하였음을 알려 주는 복음 전파자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다(사 52:7).

14. **㉠ 노아가 방주 두경을 열고 지면에 물이 건진 사실을 알게 된 때는 홍수가 시작된 이후 몇 일 만인가? (13절)**

- ㉠ (1) 노아가 지면에 물이 건진 사실을 안 때는 그의 나이 601세 되는 해의 1월 1일, 즉 홍수 이후 314일 만이었다.
- (2) 그는 약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방주 안에 있으면서 고독하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처지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않았다.

(3)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바깥 세상에 날려보내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총을 확인해 갔다(6-12절).

(4) 이러한 노아의 태도야말로 암담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소유하여야 할 삶의 모습이다. 즉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당신의 은총으로 가득채워 주실 것이다.

15. Q 홍수가 끝나고 땅이 본래대로 완전히 회복된 때는 언제인가? (14절)

- A** (1)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지면에 물이 건진 것을 확인한 이후 약 57일 뒤인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말랐다.
- (2) 이때 노아는 지면에 물이 건진 것을 확인하고도 방주에서 내리지 않고 57일간을 더 머물렀다.
- (3) 즉 그는 설불리 방주에서 뛰쳐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참조, 마8:8-10).
- (4) 이처럼 인내와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뢰심이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건설될 것이다.

16. Q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15-19절)

- A** (1)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기나긴 방주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묘사하고 있다.
- (2)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은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모든 인격과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밝혀 주는 표현이다.
- (3) 또한 이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처럼(7:16), 나올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동하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 (4) 즉 노아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이다. 이것은 신앙 생활의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요소이다(참조, 요21:5, 6).

17. Q 방주의 문을 닫으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다시 여신 분은 누구인가? (15-19절)

- A** (1)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기 직전에 노아와 그의 식구 그리고 모든 짐승을 방주로 들여보내셨을 뿐 아니라 그 닫으신 문도 친히 여셨다.
- (2)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며 인정하시는 무리들을 죽음의 세력에서 온전히 보호하시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
- (3) 결국 이것은 인간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는 교훈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자신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다(롬3:24).
- (4) 더우기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떤 난관이 앞에 가로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끝내 구원하고자 마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참조, 수 1:5; 요 5:24).

18. Q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20절)

- A** (1)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처음으로 행한 일은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다.
- (2) 이것은 노아의 신앙을 잘 보여 주는 행위이다. 그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드리며 계속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원하였다.
- (3) 한편 노아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은 이미 아담 때부터 전해 내려온 제사법에 의한 것이다(3:21; 4:3-5).
- (4) 이러한 피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 부정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제사 제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

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19. Q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드렸던 ‘번제’란 무엇인가? (20절)

- A** (1) ‘번제’ (히, 올라)란 말은 올라간다는 뜻의 히브리어 <아라>에서 유래하였다. 즉 ‘번제’는 희생 제물을 불태워 여호와께 드릴 때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레 1:3-17; 6:8-13; 사 20:40; 렘 48:15; 암 4:10).
- (2)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이 될 수 있는 짐승은 흠없는 수소, 수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등이었다(레 1:3-14).
- (3)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한 규례를 주셨다(레 1-7장).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는 번제이다.
- (4) 번제의 목적은 죄의 속죄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 (5) 피흘려 드리는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히 9:11-22). 그러므로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해석해야 한다.

20. Q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제물의 향기를 흠향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1절)

- A** (1)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제사를 만족스럽게 받으신 사실에 대한 의인적 표현이다(참조, 레 26:31).
- (2) 이것은 노아가 드린 제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화려했다거나 풍성했다는 말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이다.
- (3)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제물이다. 믿음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히 11:6).

21. Q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21절)

- A** (1)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인간을 선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멸망시킨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 (2) 특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류 전체를 멸하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 모든 인간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인간의 원죄(原罪)를 꼬집으시는 하나님의 판단이다.
- (3) 사실 하나님께서 죄대로 보우하신다면 인간은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죄값으로 죽어야 할 존재에 불과하다(참조, 엡 2:1-3).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엡 2:4-8).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다.
- (5)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엡 2:8-10).

22. Q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온 피조 세계를 향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22절)

- A** (1) 하나님의 진노로 빚어진 홍수 사건은 자연 질서와 모든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렸다.
- (2)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이 다시 한번 완전하게 회복되어 정상적인 자연 법칙 아래 진행될 것과 생태계의 균형을 완전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그 즉시 성취되었다(출 23:16; 시 74:16, 17).
- (3) 오늘날 비록 갑작스러운 자연계의 변화로 사람들이 지구의 위기를 운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끝나는 순간까지 노아 시대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계속 지켜 나가실 것이다.
- (4)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제공한다.

23. **㉠** 홍수에 관한 하나님의 섭리가 7,8 장에 잘 나타나 있다. 두 장을 비교 설명하라.

㉠

	7장	8장
1	인간의 부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2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3	노아의 가족과 선택받은 짐승의 구원	새 생명 전체의 구원
4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예표
5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강조	보호받은 자들의 적극적인 삶

화보자료

점토판. 니느웨에서 발견된 점토판으로서 노아 홍수 기사와 유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고고학상의 귀중한 자료로서 고대 역사의 베일을 벗겨 주는 중요한 열쇠이다.



성경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노아 홍수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홍수라고 주장한다.

제 9 장 무지개 언약과 노아의 실수

단락구분 1-3 인간에게 축복하시다 / 4-7 피와 살인을 금하시다 / 8-12 하나님의 언약 / 13-17 약속의 무지개 / 18-19 노아의 세 아들이 반창하다 / 20-23 함이 술취한 노아를 풍보다 / 24-27 노아의 축복과 저주 / 28-29 노아의 죽음

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어있음이라

3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 채 먹지 말 것이니라

5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8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9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14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지라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18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19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좇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20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대

23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였으며 그들이 얼굴을 들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24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25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26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 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8 홍수 후에 노아가 삼백오십 년을 지내었고

29 향년이 구백 오십 세에 죽었더라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 황폐한 환경에 처한 인간에게 내리셨던 새로운 축복과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

(2) 이러한 축복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고 모든 살아 있는 것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3) 이 언약은 모든 피조물과 연관되어 있지만 그 결국은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한 사랑해 가신다.

(4) 이 언약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완전하고 성숙된 형태로 드러난다.

2. ㉠ 홍수 후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는가? (1, 2절)

㉠ (1) 하나님은 홍수 후 인류를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것(1:28)과 동일한 축복을 인류의 새 조상인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내려 주셨다.

(2) 이는 홍수가 휩쓴 황폐한 땅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3) 이 사건은 인류의 타락을 가장 통렬히 비판하는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독교의 역사관이 갖는 적극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등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4) 더우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죄악으로 부패한 세상을 멸하시는 공의(公義)로우신 분인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며 그들의 앞날마저 약속해 주시는 사랑의 소유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다.

3. ㉠ 하나님은 누구에게 만물의 지배권을 일임(一任)하셨는가? (2절)

㉠ (1)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셨다.

(2) 즉 인간들은 모든 피조물들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다.

(3) 반면에 모든 피조물들은 본능적으로 인간을 무서워하게 될 것이며 항상 인간 앞에서 피하는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다.

(4) 이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연 법칙이며 영원한 진리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피조물을 공공연히 숭배하고 있다(참조, 롬1:23).

(5)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자연 법칙을 파괴하고 피조물을 숭배 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이다(참조, 출 20:4, 5).

4. ㉠ 하나님은 홍수 이후 사람에게 무엇을 음식물로 먹을 수 있게 하셨는가? (3절)

㉠ (1) 하나님은 '산 동물'을 식용(食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하셨다. 즉 이제 식물뿐 아니라 동물도 인간의 음식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하셨다.

(2) 다시 말하면 이미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 의해 살해된 것을 제외하고(출 22:31; 레 22:8), 모든 동물을 음식으로 취할 수 있게 하셨다. 여기서는 모세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에 대한 구별은 없다(참조, 레 11장).

(3) 한편 인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육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본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처음 육식이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4)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얼마나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대변해주는 좋은 본보기이다(참조, 시 139:1-16).

5. ㉠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1) 피는 생명을 가리키므로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 성경에서는 피가 생명이 머무는 곳으로 간주되었고(레 17:11) 때로는 생명 그 자체로 일관된 사상이었으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규정이었다.

(2)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모세의 율법에도 규정되었으며(레 3:17; 7:26, 27; 17:10-14; 19:26; 신 12:16, 23, 24; 15:23) 신약 교회에서도 성령과 사도들의 권위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피를 먹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행 15:28, 29).

- (3) 한편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정하신 이유는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지닌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Calvin, Chrysostom).
- (4) 또한 하나님께서 하등 동물까지도 귀히 여기시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 줌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을 인간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이다.
- (5)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생명에 대한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이다(요 11:25;14:6).
- (6) 이런 점에서 제사에 있어서 피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질 수 있는 가장 귀한 제물이 되었다(신 12:27). 이를 통하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암시하게 되었다.

6. **㉠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셨는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자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표현하시므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셨다.
- (2) 즉 인간의 생명을 해친 자는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셨다(민 35:7).
- (3) 한편 사람을 살해한 자뿐 아니라 사람을 죽인 짐승도 반드시 죽이라는 규례는 후에 모세 율법에서도 볼 수 있다(출 21:28-32).
- (4) 이와 같이 철저하고 엄격한 규례는 단순히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조항이라기보다는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거기에 기록된 준수 사항을 볼 때마다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며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승리케하기 위해서 애쓰신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임을 깊이 인식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모든 규례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7. **㉠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살인은 사람 안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며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전 11:7).
- (2) 사실 사람이 생명의 존엄성을 그 무엇보다도 더 뚜렷이 제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1:26).
- (3) 이처럼 근본적이고 변경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사람을 사람의 자격으로서는 절대로 죽일 수 없다.
- (4) 더우기 그가 비록 고의적인 살인자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자격으로서는 그를 죽일 수 없다(출 20:13). 그를 죽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재판관의 판결과 증인의 참된 고백이 수반되어야만 한다(민 35:29-34).

8. **㉠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8-17절)**

- ㉠ (1) 그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말이다.
- (2) 즉 인간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과 의논하거나 타협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다.
- (3)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이다.
- (4) 결국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최대로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결된다(참조, 엡 2:7; 요일 4:10).

9. **㉠ 홍수 후에 주어진 언약의 주체자는 누구인가? (8-11절)**

- ㉠ (1)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과 그 후손 및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향하여 주권적으로 한 가지 언약을 맺으셨다.
- (2)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성실로 보증하는, 인간을 위한 당신의 약속이다.

- (3) 일반적으로 언약에는 약속의 당사자가 있다. 즉 언약이란 상호 계약이다(참조, 21:47; 수 24:25; 삼상 18:3; 왕상 20:34).
- (4) 이 언약에는 약속 당사자들끼리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따른다. 즉 조건이 먼저 이행되어야만 약속이 성취된다(참조, 출 20:4-6).
- (5) 그러나 이 부분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조건이 선행되지 않는 언약이다.
- (6) 이러한 사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 준다. 즉 이 언약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맺어졌다.

10. ㉠ 홍수 전의 언약(3:14-19)과 홍수 후의 언약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11절)

- ㉠ (1) 두 언약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점은 본질상 동일하나 내용상 차이가 있다.
- (2) 즉 홍수 전의 언약에는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 오는 고난이 주로 언급된 반면, 홍수 후의 언약은 심판으로부터 구원된 인간과 땅의 회복에 관한 약속이다.
- (3) 또한 홍수 전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세력을 징벌할 것을 강조하였다(3:15). 그러나 홍수 후의 언약은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8:21) 그들을 번성케 하시며 이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약속이다.

11. ㉠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은 신실하게 수행되고 있는가? (11절)

- ㉠ (1) 하나님의 언약 이후에도 지상에는 여러 번의 홍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홍수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었고 모든 생명을 멸절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 (2) 또 이런 홍수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띤 초자연적 대홍수와는 질적으로 다른 자연 현상일 뿐이다.
- (3) 일부 사이비 종파에서 그러하듯이 어떤 자연 현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억지로 끌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 (4)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노아 당시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오늘날도 계속 이행하고 계신 것은 분명하다.

12. ㉠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언제까지 그 효력이 계속되는가? (12절)

- ㉠ (1) 영세(永世)까지 계속된다. 즉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이 이 세상에 거하는 날까지이다.
- (2) 사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며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민 23:19).
- (3) 인간의 약속은 한계점이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까지 지속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한 분이기 때문이다(참조, 히 13:8).
- (4) 이처럼 하나님 자신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시 15:4).

13. ㉠ 하나님은 언약의 징표로서 무엇을 제시하셨는가? (13-17절)

- ㉠ (1) 하나님은 더 이상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징표로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다(13절).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의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셨다.
- (2) 빛의 분산 현상으로 나타난 무지개는 홍수 후의 변화된 대기 조건에 의한 새로운 현상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이 무지개에 언약의 증표라는 특수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
- (3) 한편 무지개는 시대와 장소의 제한이 없는 일반적 현상이다. 따라서 언약의 보편성을 보여 준다. 본장에서 주어진 언약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주어진 것이다(9, 10절). 즉 시간적, 지역적 제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 (4) 또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친절하신 배려에 의해 세상에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간이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물증(物證)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도 무지개와 같이 언제나 아름답다.

(5) 그리고 홍수 심판으로 인간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두려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무지개를 주셨다. 비가 그친 다음 주어진 무지개는 하나님의 진노가 서린 홍수 심판이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다. 이것은 결국 인류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참조, 마 14:27; 요 14:27).

14. **㉠** 구약에 나타난 언약을 순서대로 말하라 (17절).

- ㉠ (1) 아담 언약(창 2:16, 17) / 선약과 언약
- (2) 노아 언약(창 9:8-17) / 무지개 언약
- (3) 아브라함 언약(창 12:1-3) / 축복의 언약
- (4) 모세 언약(출 19:5) / 하나님 백성이 되는 언약
- (5) 다윗 언약(삼하 7:16) / 하나님 나라 언약
- (6) 메시아 언약(렘 31:31-34) / 구속의 언약

15. **㉠** 방주에서 생명을 보호받았던 노아의 아들들은 모두 몇 명인가? (18, 19절)

- ㉠ (1)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 등 3명이었다.
- (2) 이들 세 사람은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서 물로 멸망당한 세상에 새로운 자손들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였다(10, 11장).
- (3) 한편 노아가 홍수 이후에 다른 자손들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는 성경 계보에 나타나 있지 않다.
- (4) 여하튼 노아의 세 아들은 하나님의 축복(7절)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8-10절)을 직접 부여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새로운 세대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 (5) 이런 사실은 심판으로 인하여 최악된 세상이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설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주역으로 살게 될 모든 성도들을 예표한다(참조, 계 21:1-7).

16. **㉠**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인가? (18절)

- ㉠ (1)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다.
- (2) 노아의 손자들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만이 이 부분에 기록된 것은 그가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 (3) 가나안은 그 뜻이 '천한 자', '낮은 자'이다. 가나안이란 이름은 단순히 '저지대' 또는 '해변에 사는 사람'이란 의미를 가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혹자는(Gesenius) '땅과 같이 지위가 낮은 자'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한다.
- (4) 하여튼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러한 이름이 '영적으로 비천한 자'를 암시한다고 해석하는 데는 견해를 일치시키고 있다(Keil, Lange).

17. **㉠** 노아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20절)

- ㉠ (1) 노아는 포도를 주로 재배하는 농부였다.
- (2) 그런데 본질의 의미는 그가 인류 최초로 농업을 시작했든지 그때야 비로소 포도가 재배되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다.
- (3) 노아 전시대 사람들도 농사를 지었고(3:23; 4:3) 포도를 재배했었으나 홍수 이후 노아가 황폐해진 땅에서 다시 농사를 시작하였다는 것이 본질의 요지(要旨)이다.
- (4)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직업을 가졌으며 자신의 아들들이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신성한 의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 (5) 노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며 성실한 맘의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환영받을만 하다.

18. **㉠** 술을 마시고 추태(醜態)를 부린 노아의 행동은 정당한가? (21, 22절)

- Ⓐ** (1) 노아는 분명히 술이 가져다 주는 폐해(弊害)를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노아 이전에도 포도주(술)가 있었음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본절에 나온 포도주(히, 야인)라는 단어 앞에 관사 <하>가 붙음으로써 노아가 이미 포도주에 익숙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 (2) 사실 술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 술 자체가 죄악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술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된 것으로 취급된다.
- (3) 성경은 술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유익한 면을 취급하고 있기도 하다(삿 9:13; 잠 31:6; 딤후 5:23). 또한 술은 현세적이며 영적인 축복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했다(27:28; 사 25:3; 마 26:28, 29).
- (4) 하지만 성경은 술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롬 13:13; 엡 5:18). 술은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밝혀 주는 악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 (5) 이런 의미에서 노아가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린 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을 악하게 사용한 잘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노아의 죄는 그의 무지(無知)에서 되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무절제와 부주의 그리고 방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 ⓐ 노아가 술에 취하여 수치를 드러낸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1절)

- Ⓐ** (1)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으며(6:8)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한 자였다(6: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시대에 의인이었던(6:9) 그의 실수를 거리낌없이 기록하였다. 이것은 성경이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말씀임을 보여 준다.
- (2) 이처럼 제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도 실수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의 문제이다.
- (3)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라 할지라도 늘 깨어있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전 10:12).

20. ⓐ 노아의 아들 함이 저지른 실수는 무엇인가? (22절)

- Ⓐ** (1) 함은 술에 취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조롱거리로 삼았다.
- (2) 이처럼 함의 실수는 그가 아버지의 하체를 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본 것을 악의적(惡意的)으로 즐긴 데 있다.
- (3) 더우기 함의 더 큰 잘못이 있다면 그가 목격했던 사실을 자신의 형제에게 알림으로써 아버지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이다. 이것은 더 적극적이고 경박한 죄가 된다.
- (4) 범죄인들은 자기의 행동을 남들에게 강요함으로써 동질감을 느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
- (5) 여하튼 그는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를 무시한 채 악한 본성에 기초한 감정의 노예가 되어 가정의 위계 질서(位階秩序)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21. ⓐ 셈과 야벳의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3절)

- Ⓐ** (1) 두 사람은 웃을 취해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었다.
- (2) 두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인격이 있었다.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 (3) 하체를 보지 않고 덮은 것은 상대의 수치를 덮어 주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 (4)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은 죄로 인한 허물과 수치를 가리움 받은 자들이다(엡2:1). 그러므로 서로 허물을 덮어 주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긍휼의 대상이 되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

22. ⓐ 본장에 나타나 있는 셈과 야벳의 의로운 행위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비교할 수 있는가? (23절)

- A) (1)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 주는 셈과 야벳의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허물과 죄악을 그의 보혈로 덮어 주는 의로운 행위와 비교될 수 있다.
- (2)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형제들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 주며 용서해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신다.
- (3) 시32:1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을 자에 대한 예언이다.
- (4) 엡2:1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가 살리셨다'고 언급하였다. 허물과 실수를 덮어 주고 가려 주는 사랑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창조하는 것이다.
- (5) 남의 허물을 거둬 말하는 자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며 그것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이다.

23. Q 노아는 함의 불효에 대해서 어떤 저주를 하였는가? (25절)

- A) (1) 노아는 함을 향하여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저주하였다.
- (2) 여기서 '종들의 종'이란 최상급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즉 가장 비참한 취급을 받는 종을 일컫는다(참조, 계19:16).
- (3) 그리고 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은 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결국 자신도 형벌을 받는 결과가 된다(참조, 출20:5).
- (4) 그러나 이 저주는 함족 전체가 받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에게만 내려졌다. 여기서 가나안 족속은 팔레스틴의 옛 거주자들을 말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솔로몬에게 정복당했다(왕상9:20, 21).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거주지 안에서 가장 천한 노예로 전락하였다(수9:23).
- (5) 이처럼 타인에 대한 비방은 타인의 감정과 인격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삶 전체에 엄청난 손상을 끼친다(참조, 마5:22).

24. Q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6절)

- A) (1) 먼저 '찬송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랏>은 하나님께 적용될 때에 찬양의 뜻을 가지며(참조, 1:3)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그를 축복한다는 뜻이 된다(참조, 14:19, 20; 히7:6).
- (2) 그리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정확히 번역하면 '여호와 셈의 하나님'이다(참조, 24:27). 이것은 여호와가 셈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 (3) 살아 계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큰 축복이다(참조, 스후 3:17).
- (4)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고백이 없을 것이다(시18:1).
- (5) 한편 본질은 셈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한 간접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25. Q 노아는 자기의 수치를 가리워 준 야벳에게는 어떤 축복을 선언하였는가? (27절)

- A) (1) 노아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昌大)케하시라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는 말로 야벳을 축복하였다.
- (2) 사실 '야벳'이란 이름 자체가 '확장'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덧붙여 '창대케'되는 축복이 내려졌다. 한편 '창대'(히, 파타)라는 말은 '넓게 퍼지기 위하여 장소를 만들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3) 야벳 자손은 팔레스틴의 서방과 북방에 거주하여 아리아인, 즉 현재 유럽인의 조상이

되었다. 이들은 영토와 인구에 있어서 크게 팽창하였을 뿐 아니라 지적인 능력에 뛰어났다. 특히 인도인의 형이상학(形以上學), 그리스인의 철학, 로마의 군사적 근대 과학 등은 야벳 후손의 문화에 크게 힘입었다.

- (4) 그리고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야벳 족속이 셈 족속을 지배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라 그들이 셈 족속의 종교적 영향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다. 이 예언대로 그들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 (26절)를 믿게 되었다.

26. **㉠** 노아는 몇 년을 일기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는가? (28, 29절)

- ㉠** (1) 노아는 950세까지 장수하다가 죽음을 맞았다. 사실 장수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임에 분명하다(참조, 엡6:3).
- (2) 그는 최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오고오는 세대에 신앙의 표본이 될만한 자였다(6:9 히11:7). 더우기 그는 온 인류가 홍수 심판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의 가족과 더불어 목숨을 보호받을 수 있었다(8:18).
- (3) 비록 그가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자식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그 결과 자식들 중에 한 명의 장래를 망쳐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 보낼 수 있었다.
- (4) 그러나 그의 이러한 삶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죽음이라는 법칙(3:19)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죽음은 이처럼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이다(참조, 롬5:12).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결국 한 번은 이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에 대해서 초연(超然)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도들의 죽음은 그것이 완전한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으로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다(참조, 딤후4:7, 8).

연구자료

본장에 나타난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과 세상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화 명령이다(1-3, 7절). 본장의 문화 명령은 1:28의 것과 많은 유사점을 갖는다. 1:28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 그대로의 완전한 세상을 다스리고 문화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었으며 본장의 명령은 비록 죄가 들어오기는 했어도 홍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책임을 지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 내는 문명과 문화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문화만이 인간적(성경적 의미에서)이며 인간을 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10 장 인류의 확산과 각국의 기원

단락구분 1 노아 가문의 족보 / 2-5 야벳의 자손 / 6-14 함의 자손 / 15-20 가나안의 자손 / 21-31 셈의 자손 / 32 각각의 민족이 형성되다

- 1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여러 나라나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 2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 3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 4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남이라
- 5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 6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 7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삼다와 라아마와 삼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 8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결이라
- 9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군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군이라다 하더라
- 10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 11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 12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이는 큰 성이라)을 건축하였으며
- 13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뫼와 르하빔과 납두힘과
- 14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감도림을 낳았더라(블레셋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더라)
- 15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헛을 낳고
- 16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 17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 18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 19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고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 20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이였더라
- 21 셈은 에벨 은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 22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앗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 23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 24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 25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욥단이며
- 26 욥단은 알모닷과 셀렘과 하살마뻬트와 예라와
- 27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 28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 29 오빌과 하윌라와 요발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욥단의 아들이며
- 30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였더라
- 31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 32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1. ㉠ 본장에 기록된 족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 11:26까지의 족보 기록은 9장에서 언급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1)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이다.
- (2) 즉 홍수로 말미암아 멸종 위기에 놓였던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급속히 확산된 것과 그들이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원인이 밝혀져 있다(11:8).
- (3) 한편 이런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인류의 조상은 동일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인류가 비록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 인종적(人種的)인 관계, 신체적 특성 그리고

민족적인 기질이 제각기 다르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같이 노아, 노아가 아담에게서 나온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된다.

(4) 이러한 성경의 주장은 종(種)의 다양성을 주장하며 종의 변천을 근본 사상으로 하는 진화론(進化論)을 단호히 배격한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했다(행 17:26).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사상이다.

(5) 이러한 사실은 모든 인류가 형제애를 가져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룩해 나가야 함을 가르친다(엡 1:11; 계 4:11).

2. **㉠**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말하라(1-31절).

㉡ (1) 야벳, 함, 셈의 순서로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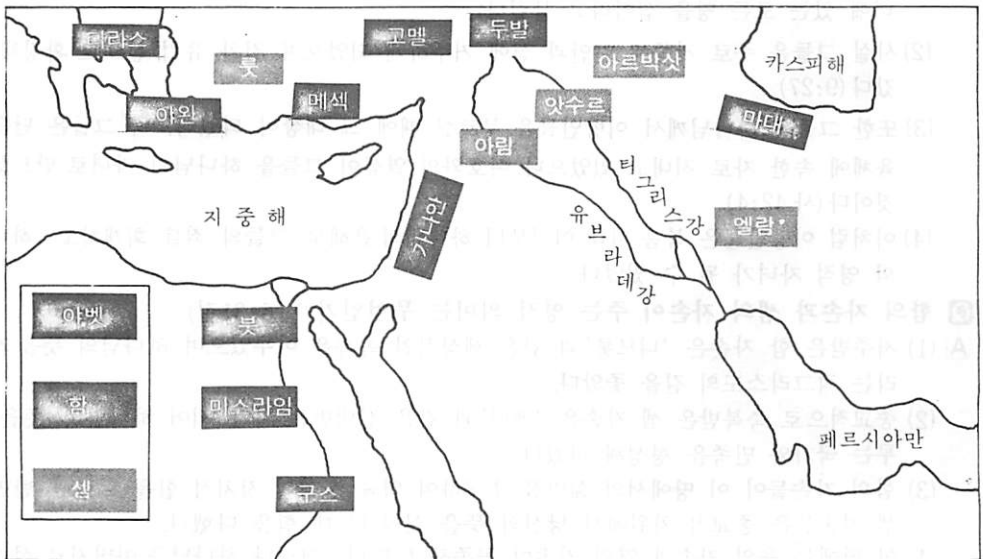
(2) 이 순서에서 볼 수 있듯이 셈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으나(9:26) 신정 정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언급이 적은 야벳의 족보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기록의 특징은 한 사람의 저자(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즉 모세는 이곳 외에도 셈의 후손보다 가인의 후손을 먼저 기록했고(4장), 이삭보다 이스마엘을(25:12-34), 야곱보다 에서의 계보를(36장) 먼저 기록하였다.

(4) 그리고 성경 기록자는 족보를 기록할 때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언약의 계승자와 관련이 있는 족보는 나중에 기록하였다. 본장에서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던 셈의 가계(家系)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

3. **㉠** 노아의 후예들이 분포해 있던 곳을 도표화하라(1-31절).

㉡



4. **㉠** '야벳'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2절)

㉡ (1) '야벳'은 '확장'이란 뜻이다. 그 이름에 어울리게 야벳의 후손들은 널리 퍼졌다.

(2) 이러한 사실은 9:27에 나오는 노아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다. 노아가 세 아들을 축복할 때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는 의미와 이름의 뜻이 서로 같다.

(3) 야벳의 후예들은 흑해와 카스피해로부터 스페인에 걸쳐 유라시아(Eurasia) 지방까지 흩어졌다.

5. **㉠** 야벳의 아들은 모두 몇 명인가? (2절)

- [A] (1)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 등 모두 7명이다.
 (2) 이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순서	이름	이름의 뜻	거주지	기타
1	고멜	끝, 마지막	터어키와 우크라이나 지방 동쪽 지역	겔 38:6
2	마곡	확장	흑해 동북 지역으로 아랄해 동부의 스킨디아인(S-cythians)의 땅과 동일시	겔 38, 39장 적그리스도의 본거지를 상징 (제 20:8-10)
3	마대	측량	카스피 해의 서남쪽	매대족 (The Media)
4	야완	거품이 일어나다	헬라인의 거주지	사 66:19; 겔 27:13; 욥 3:6, 헬라인의 조상으로 취급
5	두발	지도하다	소아시아 동쪽	겔 27:13; 32:26
6	메섹	떼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또는 흑해 지역	이베리안족 (Iberians) 과 모쉬족 (Moschi)으로 추정된다
7	디라스	파괴자	에게 해 주변 또는 타우루스 (Taurus) 근방	

6. [C] '야벳 후손들이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는 의미는 무엇인가? (5절)

- [A] (1) 야벳 자손들이 여러 이방 섬들을 할당받아 살게 되었다는 뜻이다(유대인들은 바다 건너에 있는 모든 땅을 섬이라고 불렀다).
 (2) 사실 그들은 주로 지중해 연안과 섬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점차 유럽 본토로 확장해 나갔다(9:27).
 (3)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실 때에 그 대상이 되었다. 즉 그들은 단순히 육체에 속한 자로 지내고 있었으나 여호와와의 열심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던 것이다(사 42:4).
 (4) 이처럼 이방인들은 복음 시대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될 수 있었다.

7. [C] 함의 자손과 셈의 자손이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6-31절)

- [A] (1) 저주받은 함 자손은 '니므롯' 과 같은 세상적인 족속을 이루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적그리스도의 길을 좇았다.
 (2) 종교적으로 축복받은 셈 자손은 '에벨' 과 같은 선택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국가와 민족을 형성해 나갔다.
 (3) 함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추구하여 악육 강식의 정치적 힘을 길렀던 반면에 셈 자손들은 종교적 차원에서 당신의 뜻을 실현하는데 힘을 다했다.
 (4) 이 땅에는 육의 자손과 영의 자손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데 있어서 도구로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8. [C] '함' 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6절)

- [A] (1) '함' 이란 이름은 '포근하다' 는 뜻을 지닌 <하마스>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뜨겁다' 는 의미이다.
 (2) 이 '뜨겁다' 는 의미 외에 '검은 피부' 라는 뜻도 있는데 애굽의 이름이 '검은 땅' 을 뜻하는 '켄' 이었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성경에서도 애굽을 '함의 땅' (시 78:51; 105:23; 106:22) 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3) 여하튼 그는 그의 이름처럼 다혈질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지나쳐 버리지 않았던 것 같다(9:22). 결국 그는 아버지의 저주를 받고 자기 뿐만 아니라 후손의 장래까지 망쳐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9:25).
- (4)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로 가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서쪽으로 퍼져 나갔으며 많은 민족들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거둬되는 시련과 박해 속에 생활하는 비극의 주인공들이다.

9. ㉠ 함의 아들은 몇 명인가? (6절)

- ㉠ (1)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등 4명이다.
- (2) 이들의 거주지는 후에 남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가나안, 붓(렘 46:9) 등이었으며 오늘날을 기준으로 하면 아프리카를 중심한 흑인종의 조상들이 살던 지역이다.
- (3) 이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순서	이름	이름의 뜻	거주지	기타
1	구스	검다	초기에는 나일 강 상류였으나 차츰 아라비아, 바벨론, 인도까지 퍼져나갔다	에티오피아인(Ethiopian). 검은 색의 피부에(렘 13:23) 견장한 체구를 가짐(사 45:14)
2	미스라임	애굽(인)	애굽 전역	
3	붓		아프리카 북쪽과 아라비아 남쪽 지방	리비아인(Libyans)을 지칭
4	가나안	붉은 색, 낮은 땅	가나안 땅 전역(15-19절)	가나안 땅에 거하는 민족들의 대표격으로서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10. ㉠ 니므롯의 행적(行蹟)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8-14절)

- ㉠ (1) 구스의 후손인 니므롯은 '반역하다'는 뜻을 지닌 그 이름에서 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는 조상들이 대대로 신망하여 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독립을 선언한 배교자(背敎者)로서 거친 성격의 소유자인 듯하다.
- (2) 또한 그는 '영걸'(英傑)로 불려졌는데 이 '영걸'(히, 기불)이란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를 가리킨다(삼상 14:52;삼하 23:8). 더우기 그는 속담으로 이야기 될 만큼 훌륭한 사냥군이었다.
- (3)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마도 그는 사냥이라는 구실 아래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모으고 그들의 권리와 재산을 약탈할 뿐 아니라 자유를 억압하는 강포한 지배자로 군림했을 것이다.
- (4) 그러나 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어보지 못하고 단순히 '특이한 사냥군'이라는 인정밖에 얻지 못하였다(9절).
- (5) 이처럼 오늘날도 인간들은 인간 이성(理性)과 과학 만능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떠나 버린 세속 문화를 창출해내지만 결국에 가서는 시들어버린 육체와 허무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참조, 렘 17:5).

11. ㉠ 당시의 영걸 '니므롯'이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은 어디인가? (10-14절)

- ㉠ (1)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레로부터 그의 점령 지역이 시작되었다(10절).
- (2) 그러나 그는 자신의 통치 영역을 10절에 언급된 바벨론 근방 지역서부터 앗수르까지 넓혀갔다. 특별히 그가 새롭게 건축한 '니느웨' 성은 후에 앗수르의 수도가 되었으며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크게 번영하였다(참조, 온 3:3;4:11).

(3)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만을 의지했던 니므롯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번영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이 번영은 종말이 분명한 것으로서 참된 번영이라 할 수 없다(참조, 눅 12:16-21).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 문화(기독교 문화)만을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문화마저도 당신의 계획에 포함시키시고 그것을 통치해 가신다. 이런 사실로 보더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 수 있다.

12. **㉠ 본장에서 가나안의 족보가 상세히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15-20절)**

- ㉠** (1) 가나안의 후예들이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실 팔레스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로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쳤다(참조, 신 7:1-4).
- (2) 한편 그들은 악한 조상의 후예이며(9:22), 무서운 저주를 상속받은 자들이었다(9:25). 그러나 본장에는 그들이 많은 무리를 형성하고 좋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려고 있다고 기록되었다.
-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도 땅에서만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 저변에 흐르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아야 하고 잘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믿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하나님을 떠나 욕심껏 행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선언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인내하여야 한다.
- (4) 땅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다(수 23:1). 이처럼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변하지 않기에 이러한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만이 참된 신앙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13. **㉠ 합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은 모두 몇 명인가? (15-20절)**

- ㉠** (1) 시돈, 헛, 여부스 족속의 조상, 아모리 족속의 조상, 기르가스 족속의 조상, 히위 족속의 조상, 알가 족속의 조상, 신 족속의 조상, 아르왓 족속의 조상, 스말 족속의 조상, 하맛 족속의 조상 등 11명이다.
- (2) 그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순서	이름(족속명)	이름의 뜻	거주지	기타
1	시돈	어장	두로와 베이루트 중간 지역	베니게의 수도가 된 거대한 상업 및 어업 도시(왕상 5:6; 대상 22:4; 사 23:2, 4, 12)
2	헛	공포	헤브론 부근(23:19)	아브라함이 그들에게서 막벨라 굴을 샀다(23:3)
3	여부스	밧힘, 타작마당	예루살렘과 그 근방	훗날 여호수아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그들의 세력이 약화되었다(수 15:8; 대상 11:4, 5; 왕상 9:20, 21)
4	아모리	평판	유대의 산악 지방	이스라엘과 여러번 충돌(14:7; 민 21:21-26; 신 2:26-36; 수 11:1-21)
5	기르가스	불명확	불명확(15:24; 신 7:1; 수 24:11)	가나안 후손 중에 가장 미약
6	히위	마을 사람	세겔과 기브온과 헬몬산 아래 지역(수 9:7; 11:3)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 당한 곳(34:2)

7	알 가	송곳니	레바논 산 아래 지역	
8	신	불명확	알가 근처의 센나 지역	
9	아 르 왓	도피처	베니게 연안의 최북부 지역	작은 바위섬으로 형성되었다(대상 1:16)
10	스 말	불명확	베니게 남방	
11	하 맛	오해	수리아 중부 오른테스 강을 끼고 있다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하고(수 13:5) 다윗과(삼하 8:9-12) 솔로몬에 의해 정복(대하 8:4)

14. **㉠** 가나안 땅의 초기 경계를 말하라(19절).

- ㉠** (1) 가나안의 지경(地境)은 시돈과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이며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였다.
- (2)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였다.
- (3) 가나안 땅은 그 당시 가장 아름다운 땅이었다.
- (4) 이처럼 넓고 아름다운 땅을 가나안의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그들의 일시적인 소유에 불과했으며 종국(終局)에 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
- (5) 이와 같은 역사의 수레 바퀴를 근시안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거기에 불의와 거짓이 팽배한 세상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15. **㉠** ‘셈은 에벨 은 자손의 조상이요’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21절)

- ㉠** (1) 셈의 자손이 하나님의 선민인 히브리인이 되었다는 뜻이다.
- (2) 그런데 셈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에벨’을 먼저 언급한 것은 본서의 기자인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계보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 (3) 즉 성경의 족보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취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당신의 구속 사역을 말해 주려는데 있다.
- (4) 한편 ‘에벨’은 ‘건너편’이란 뜻이며, ‘에벨’ 자손이란 말은 ‘건너온 자’라는 의미가 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Euphrates) 강 건너편에서 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불려진 것이다. 이 ‘에벨’이라는 말에서 <이브리>라는 말이 유래되었으며 이 말이 발음상 약간 변하여 히브리(Hebrew)라는 민족 이름이 되었다.

16. **㉠** 셈의 아들은 모두 몇 명인가? (22절)

- ㉠** (1) 엘람, 앗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즉 5명이다.
- (2) 이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순서	이 름	이름의 뜻	거 주 지	기 타
1	엘 람	고지	페르시아 만에서 카스피해 사이	페르시아인으로 불리워 지다
2	앗수르	성공한	티그리스 강 동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소아시아로 퍼져나간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들에게서 몰락

3	아르박삿	갈대아의 요새	앗수르 북쪽 소아시아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족속 리디안족 (Lydians)의 조상
4	롯	자손		
5	아 랍	고원, 높은 지방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수리아인으로 불리워지다 아브라함이 이들의 주거지에서 이주하다

17. ㉠ 에벨의 두 아들의 이름은 각각 무엇인가? (25절)

- ㉠ (1) 먼저 장남은 벨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 이름은 '나눈다'는 뜻의 히브리어(파라그)에서 나온 것으로 '분리'라는 의미이다. 그의 동생은 '작다'는 뜻의 욱단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다.
- (2) 이 두 형제에게서 아브라함 계통의 혈통(벨렉)과 아라비아계의 혈통(욱단)이 서로 분리되었다.
- (3) 한편 이들 당시에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분명 에벨의 장남인 벨렉의 이름과 깊은 연관이 있다. 즉 그가 살고 있을 때 세상이 나뉘어 진 사실이 그의 이름에 반영된 것이다.
- (4) 그러므로 에벨이 벨렉을 낳은 시기가 11:9의 바벨탑 사건과 인류의 분산(언어 혼잡)과 동일 시기임을 알 수 있다.
- (5)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 이야기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해 주고 있는 살아 있는 말씀임에 분명하다(참조, 눅 3:23-38).

18. ㉠ 성경에 나오는 주요 민족의 인종 구분을 하라(32절).

㉠

	족 속	인 종	
1	야 벳 족 (아리안족)	헬라인 (롬 1:14), 야완(이오니아인), 바대인 (행 2:9), 바사인, 메대인 (행 2:9), 로마인 (요 11:48)	
2	함 족	애굽인, 구스인, 리비아인	
3	셈 족	북부 셈족	바벨론인(시날, 악갓, 바벨, 에렉), 앗수르인(아술, 니느웨, 갈라), 아람인(수리아), 가나안인(암몬, 아모리, 가나안, 에돔, 히위, 이스라엘, 여부스, 모압, 베니게-그달, 나바테안, 미디안)
		남부 셈족	북부아람(아말렉, 이스마엘-그달, 나바테안, 미디안), 남부아람(시바)
4	분류 안된 족속	김메리아, 엘람, 헷, 호리, 블레셋, 두발, 메섹 등	

제 11 장 바벨탑 건축과 인류의 분산

단락구분 1-2 하나님의 언어 / 3-9 바벨탑의 건축과 언어의 혼란 / 10-26 셈의 자손을 / 27-30 데라의 후손 / 31-32 데라가 하란으로 이주하다

1 은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고

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6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이다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10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일백 세 곧 홍수 후 이 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1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오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2 아르박삿은 삼십 오 세에 셀라를 낳았고

13 셀라를 낳은 후에 사백 삼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4 셀라는 삼십 세에 에벨을 낳았고

15 에벨을 낳은 후에 사백 삼 년을 지내며 자

녀를 낳았으며

16 에벨은 삼십 사 세에 벨렉을 낳았고

17 벨렉을 낳은 후에 사백 삼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8 벨렉은 삼십 세에 르우를 낳았고

19 르우를 낳은 후에 이백 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0 르우는 삼십 이 세에 스룩을 낳았고

21 스룩을 낳은 후에 이백 칠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2 스룩은 삼십 세에 나훔을 낳았고

23 나훔을 낳은 후에 이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4 나훔은 이십 구 세에 데라를 낳았고

25 데라를 낳은 후에 일백 십 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6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훔과 하란을 낳았더라

27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훔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뜻을 낳았으며 28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29 아브람과 나훔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래며 나훔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 스가의 아비더라

30 사래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32 데라는 이백 오 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1. ㉠ 본장의 시대적 상황과 개요를 말하라.

- ㉠ (1)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서 시날 평지에 거주하였다. 그들은 그곳에서 높은 성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빛내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다.
- (2) 이처럼 인간이 하는 일은 언제나 악할 뿐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바벨탑을 쌓았다.
- (3)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명예와 안일만을 추구해 가는 현대인들과 거의 다를 바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였으며, '땅에 충만하라'(9:1)는 하나님의

지시에 반기를 들고 한 곳에 정착하려고 했다.

- (4)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언어가 혼란하게 되었으며 그들이 계획한 것과는 반대로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대신 자신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들은 그날이 길지 못하다(참조, 사 2:22).
- (5) 한편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를 향하여 당신이 계획하시고 건설하실 한 나라와 민족을 선택하시기 위해 한 가정(아브라함)을 조심스럽게 준비하셨다.

2. **㉠ 본장 전체에 나타난 홍수 후 시대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라(1-32절).**

- ㉠ (1) 먼저 인간 생명의 급격한 단축이다. 이것은 인간에게 죽음의 확실성을 기억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단순히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 (2) 또한 경건한 후손의 분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경건한 후손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한다.
- (3) 그리고 메시아의 약속이 구체화되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은 축복받은 백성이 되며 이것은 이방인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암시이다(갈 3:6-9).

3. **㉠ 온 땅의 구음(口音)이 하나였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지구 전체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오직 하나의 언어만이 존재했었다는 뜻이다.
- (2) 인간의 언어는 본래 하나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었다.
- (3) 그러므로 동물들의 단순한 언어와 인간의 언어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진화론(進化論)에 의해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 (4) 한편 인간은 이 언어를 통하여 의사 소통을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

4. **㉠ 노아의 후손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2절)**

- ㉠ (1) 시날 평지에 도착하여 거기 거하게 되었다.
- (2) '시날'의 뜻은 '두 강의 땅'이라는 의미인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지역인 바벨론을 가리킨다.
- (3) 결국 동방으로 옮겼다는 말은 노아의 후손들이 방주가 머문 아라랏으로부터 바벨론 쪽으로 나아간 것을 가리킨다.
- (4) 이곳은 대단히 비옥하여 고대 인류 문화가 찬란하게 빛났던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던 노아의 후손들은 결국 육욕적인 생활과 헛된 종교의 망상에 빠져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다(3, 4절).

5. **㉠ '서로 말하되'라는 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3절)**

- ㉠ (1) 이 말은 문자적으로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라는 의미가 있다. 즉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들과 의견을 나누었다는 뜻이다.
- (2)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끼리의 중지(衆智)만으로 일을 결정하였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조상들의 사건이 주는 교훈을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7:13-24).
- (3) 이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간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상승 작용(上昇作用)을 반복하였다.
- (4)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같이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교만과 술책만을 일삼게 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선하거나 기록할 수 없다.

6. **㉠** 시날 평지에 거하던 노아의 후손들이 성(城)과 대(臺)를 쌓기 위해 사용했던 재료는 무엇인가? (3, 4절)

- ㉠** (1) 그들은 벽돌과 역청(瀝靑)으로 구조물들을 건축하였다.
 (2) 여기서 그들이 벽돌을 사용한 이유는 바벨론 지역에 돌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그 당시 벽돌은 주로 햇빛에 건조하여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들이 불로 벽돌을 굽는 공정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문명이 상당히 진전했음을 알 수 있다.
 (3) 그리고 그들은 벽돌의 이음매를 메꾸기 위하여 역청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바벨론이나 사해(死海) 근처의 지하에서 얻어지는 탄화 수소 화합물이었다. 70인역(LXX)에서는 <아스팔트>로 표기되었다.
 (4) 이처럼 그들이 좋은 천연 자원과 자신들의 지혜를 동원하여 견고한 건축물을 만들고자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7:16-24)에서 모면해보고자 하는 악한 계획과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독립을 선언하는 인간 최대의 교만이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성(理性)과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 스스로의 만족과 이익에만 사용하려 들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죄악이 된다(참조, 롬 1:21-23).

7. **㉠** 노아의 후손들이 성과 대를 높이 쌓은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과 흠어짐을 면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성'은 도시를 의미하며 '대'는 탑을 가리킨다.
 (2) 한편 그들이 탑을 쌓는 제일의 목적은 명예심에 있었다. 이기심에서 출발한 명예욕은 파멸의 원인이 되며 신앙 생활에 장애가 된다(요 5:44).
 (3) 그리고 그들이 흠어짐을 면하려고 한 것은 땅에 널리 퍼져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9:1)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로 하여금 여러 민족으로 나누게 하시고 각자의 영역 내에서 자주권(自主權)을 주셨다(10장).
 (4) 따라서 각 개체들의 자주권을 억압하게 될 우주적 통일 제국의 형성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이는 분명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죄이다.
 (5) 이처럼 그릇된 명예심과 교만은 인간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들며 끝내 파멸의 길로 인도된다(참조, 약 1:14, 15).

8. **㉠**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의 성읍과 하나님의 성읍(도성)과의 차이를 설명하라 (4절).

㉠

구 분	인간의 성읍	하나님의 도성(히 11:16)
창 설 자	본래 악한 인간	하나님
원 인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	인간에 대한 사랑
목 적	명예심과 인간의 통일성	성도들의 안식처
재 료	역청과 벽돌	황금과 진주
기 간	사라질 때까지 존속	영원하다

9. **㉠**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뜻은 무엇인가? (4절)

- ㉠** (1) 하늘에 닿게 한다는 뜻은 높은 하늘 공간까지 대의 꼭대기를 치솟게 한다는 의미이다.
 (2) 이것은 우상 숭배를 목적으로 세워진 지구라트(Ziggurats)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것은 인간들의 명예욕의 상징으로 인간을 집합시키는 역할을 했다.
 (3) 인간은 그들이 만들어 보려는 건축물 만큼이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 있었다. 즉 그들의 교만은 끝이 없었다.
 (4) 이러한 인간의 교만을 꺾을 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인간

의 교만을 꺾을 수 있다(참조, 시 31:23; 약 4:6; 벧전 5:5).

10. ㉠ 여호와께서 시날 평지에 강림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인간들이 성과 대를 쌓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였다.
- (2) 이러한 표현은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자체를 의인적(擬人的)으로 표현한 것이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단순히 인간들이 쌓아 놓은 건축물을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만한 그들에게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였다(6-8절).
- (4) 이와 같이 범죄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내방(來訪)은 곧 심판과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오심은 곧 구원과 안식을 뜻한다.

11. ㉠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악이 죄악에 달하였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6절)

- ㉠ (1) 하나님은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르다'는 말로써 극도에 달한 인간들의 죄악을 꼬집어셨다.
- (2) 위의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부터는 그들로부터 어떤 것도 끊지 못하리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표현은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전치 못한 생각이 이제는 절정에 다다라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 (3)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3:22)는 말과 같은 양식의 문학적 표현이다.
- (4) 이와 같이 인간의 부질없는 명예심과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극도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판정밖에 얻지 못한다.

12. ㉠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한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7, 8절)

- ㉠ (1)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교만을 대변해 주는 탑 쌓기를 그치게 하려고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 (2) 즉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한 것은 결국 언어대로 인간이 흠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3) 언어는 시간성과 공간성을 가지는 문화적 산물(文化的 產物)로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각 언어의 근원적인 분리에 대한 설명이다.
- (4) 이 분리는 문화적인 이질성(異質性) 때문에 발생한 이차적인 언어 분리 현상보다 앞선 것이다.
- (5) 그러므로 오늘날 언어의 차이 때문에 겪는 많은 고통들은 단순한 문화적, 역사적 차이 점에서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빚어진 비극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3. ㉠ 인류가 지구상에 뿔뿔이 흠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8, 9절)

- ㉠ (1) 인간이 지구상에 흠어지게 된 원인은 언어의 혼란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드러난 이유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었다.
- (2) 즉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3, 4절)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 소통을 막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계획했던 탑 쌓는 일을 자연히 중단하도록 만드셨고, 또한 지구 전역으로 흠어지도록 하셨다.
- (3)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인류를 징계하시려는데만 그 주안점이 있지 않았다. 즉 하나님은 인류를 흠어지게 만드심으로 인해 그들을 땅에 충만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1:22) 명령하신 것(9:1)을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신 것이라 할 수 있다.
- (4)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계획하신 일은 기어이 성취하고자

마는 신실하신 분이다.

14. **㉠** ‘바벨’이란 이름은 무슨 뜻인가? (9절)

- ㉠ (1) ‘바벨’이란 말의 어원(語源)에 대한 견해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이 본귀질의 하반절에서와 같이 ‘혼잡’ 또는 ‘혼동’을 의미한 것이라고 한다(Calvin).
- (2) 즉 ‘혼잡하다’, ‘혼동하다’는 뜻을 지닌 <발랄>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바벨’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 (3) 반면에 어떤 학자는 <밥일>, 즉 ‘신의 문(門)’의 준말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Rosenmüller, Gesenius).
- (4) 그러나 본귀질의 하반절에 언급된 설명으로 볼 때 전자의 견해가 타당한 것 같다. 즉 인간의 교만한 의지를 꺾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는 의미에서 ‘바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 (5) 이처럼 인류는 아름다운 이름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4절) 결국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불명예스러운 어름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얻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다.

15. **㉠**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9절)

- ㉠ (1)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사 2:22).
- (2) 그러므로 우리는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자신의 명예를 탐하는 것은 멸망의 원인이 됨을 알아야 한다(행 12:20-23).
- (3)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그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거부하는 죄악된 일임을 알 수 있다.
- (4)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돌려야 할 많은 성도들도 자신을 위해 지식, 명예, 재물의 탐을 쌓는 자들이 많다. 이러한 자들의 결국은 실패뿐이다.
- (5)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인간이 하는 일은 실패뿐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격려한다.

16. **㉠**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명의 족장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을 말하고 나이를 밝혀라(10-26절).

㉠ ※ A = 후계자를 낳을 때의 나이 B = 후계자를 낳은 후의 생애

	이름	이름의 뜻	A	B	전체 생애
1	셈	유명한, 유명하다	100	500	600
2	아르박삿	갈대아의 요새(고지)	35	403	438
3	셀라	확대, 확장	30	403	433
4	에벨	이주자	34	430	464
5	벨렉	나뉘(분리)	30	209	239
6	르우	친구, 우정	32	207	239
7	스룩	포도 가지	30	200	230
8	나홀	헐떡거림, 숨이 차다	29	119	148
9	데라	전환	70	135	205
10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	100	75	175

17. 본장에 제시된 셈 가문의 족보는 주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10-26절)

- (1) 본장에 언급된 족보는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근원을 밝히기 위해 쓰여졌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 (2)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를 취급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족보 이야기가 끝날 바로 직후부터 그 족보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던 인물을 중심으로 한 세대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5:6-32;대상 1:1-9:44;마 1:1-16;눅 3:23-38).
- (3) 또한 많은 지면(紙面)을 할애해서까지 긴 족보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세대의 주인공이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임을 밝혀 주기 위해서이다.
- (4) 이런 과정에서 볼 때 본장에 언급된 족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근원을 밝히며 또한 그를 중심으로 위어져 갈 새 세대를 예견해 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5) 더우기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 족보를 통해서 오셨다(마 1:1-17). 그러므로 본장에 언급된 족보는 구속사(救贖史)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알려 주는 하나의 메시지이다.

18. **㉠** 셈의 후손 아르박삿은 몇 살 때 후계자를 낳았으며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0-26절)

- ㉠** (1) 홍수 후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아르박삿은 35세에 후계자 셀라를 얻었다.
- (2) 한편 홍수 전에는 평균 100세가 넘어서 족보의 후계자를 낳았으나 홍수 심판 이후에는 평균 50세가 못 되어 후계자를 낳은 것이 특이한 일이다.
- (3) 즉 홍수 이전까지의 족보(10명)에는 65세에서 187세(노아 500세) 사이에 후계자를 낳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5:6-32) 홍수 이후의 족보(10명)에는 29세에서 100세 사이에 후계자를 낳았다.
- (4) 이것은 인간의 수명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수명이 단축된 것이다. 홍수 전 족장들(10명)의 평균 수명은 858세였으나 홍수 후의 평균 수명은 317세였다.
- (5)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이유는 인간의 계속된 범죄의 결과로 보고 있다(참조, 잠 10:27).

19. **㉠** 홍수 후 10명의 족장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과 가장 짧게 살았던 사람은 누구인가? (10-26절)

- ㉠** (1) 셈에서 아브람까지 10명의 족장 가운데 셈은 600세를 살았고(가장 많이 살았다) 나홀은 148세를 살았다(가장 적게 살았다).
- (2) 홍수 전에 태어난 셈은 600세까지 살았으므로 홍수 전 장수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았다.
- (3) 그런데 홍수 이후에 태어난 아르박삿으로부터 아브람까지는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었는데 이를 통하여 인간의 수명은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 **㉠** 히브리 민족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이름을 가진 족장은 누구인가? (14-16절)

- ㉠** (1) 셀라의 후손 '에벨'이다. 즉 '에벨'이란 이름은 '건너간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야발>에서 유래되었으며 '건너온 자'란 의미를 갖는다. 이 말에서 '히브리'라는 말이 파생되었다(39:17;40:15;출 1:5).
- (2) 그는 단순한 이주자(移住者)였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히브리 민족의 선조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 (3) 즉 셈이 에벨의 조상으로 묘사됨으로(10:21) 셈의 후손인 에벨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히브리 민족이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또한 에벨이란 이름은 그의 후손들이며 아브라함의 조상들인 옛 히브리 선조들이 유프라테스를 건너 남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5) 한편 모세는 여호와를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출 5:1-3).

21. **㉠** 데라가 낳은 아들은 누구인가? (26, 27절)

- Ⓐ (1)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 그리고 하란 등 세 아들을 낳았다.
- (2)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 외에는 별로 주목할 것이 없다(수 24:2). 본절에 기록된 데라 아들들의 이름의 순서는 노아의 아들들과 같이 나이 순서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다(10:1).
- (3) 즉 세 아들 중에서 아브람이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의 중요한 위치 때문이다. 나홀이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한 것을 보면 나홀이 하란보다 어렸음이 분명한 것 같다. 또한 아브람은 32절과 12:4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데라가 130세 때 낳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은 하란이며 그가 맏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4) 한편 본장의 족보에는 맏아들 또는 중요한 아들들의 이름만 열거하여 상하 연계를 나타내는 데 그쳤으나 데라에 이르러서는 그의 세 아들이 모두 열거되었다. 그 이유는 언약의 직접적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들 세 아들의 후손이 서로 결혼하면서 히브리 민족의 시조를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22. ㉠ 아브람이 살던 갈대아 우르의 당시 상황을 말하라 (28절).

- Ⓐ (1) 갈대아 우르는 바그다드 남동쪽의 비옥한 땅으로 아브람 당시에는 고대 문화의 중심지로 부(富)와 이방 종교들의 집결지였다.
- (2) 특히 아브람 시대에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으며,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 우상을 섬겼다.
- (3) 이러한 사실은 홍수 후에도 인간 사회에는 우상 숭배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더우기 아브람은 당시 세워진 거대한 지구라트(Ziggurat-고대 바벨론의 탑 모양으로 쌓아 올린 신전)를 목격했을 뿐 아니라 그것의 숭배자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4) 왜냐하면 가족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은 부권(父權)의 행사가 절대적이었을 것이며, 따라서 우상 숭배자였던 데라는 온 가족에게 종교적인 영향력도 행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23. ㉠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은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8절)

- Ⓐ (1) 이 사건은 인간의 죽음을 연장자 순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보여 준다.
- (2) 사실 죽음의 순서에는 나이나 신분 등 아무 구별이 없다(욥 10:22).
- (3) 성도는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히 9:27).
- (4)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도 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한다(요 11:25, 26).

24. ㉠ 아브람은 누구와 결혼하였는가? (29절)

- Ⓐ (1) 아브람은 '나의 공주'라는 뜻을 지닌 자신의 이복 동생인 사래와 결혼하였다(20:12).
- (2) 이와 같은 근친 결혼(近親結婚)은 비교적 고대에는 지리적, 문화적 여건상 불가피하였거나 아니면 혈통 우월주의에 입각한 종족 보존의 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성경의 족장 시대에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전수와 관련되어 가장 이상적인 결혼 방법으로 채택되었다(24:4; 29:18-30).
- (3) 그러나 모세 시대에는 이미 그럴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한 가정의 성적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근친 결혼을 공식적으로 금지시키셨다(레 18:1-18).
- (4) 근친 결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날에는 인간의 성적인 무질서를 막으시려고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은 엄정히 적용되어야 한다. 물론 개개인의 사정과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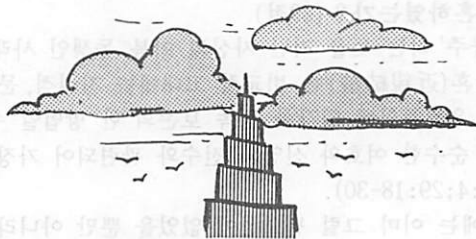
25. **㉠**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식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려고 했는가? (31절)

- ㉠** (1)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으나 도중에 하란에 거하고 말았다.
 (2) 그러나 히 11:8에 의하면 데라는 정확한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우르에서 출발한 것 같다. 그러므로 본 귀절에서 언급한 내용은 데라가 목적지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 바를 성경의 독자들에게 저자 모세가 미리 밝힌 것이다.
 (3) 더우기 ‘데라가…가고자 하더니’라는 말은 데라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동작을 묘사하는 말이다. 즉 그의 이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사심(私心) 없는 순종으로 되어진 일이다.
 (4) 그런데 데라는 분명히 우상 숭배자였는데도 불구하고(수 24:2)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은 어딘가 모순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준하여 본다면 이 같은 사건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5) 즉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한 인물(아브라함)을 죄악된 세계에서 구출해내어 당신이 건설하시는 나라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다.

26. **㉠**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어디에서 최후를 맞이했는가? (31, 32절)

- ㉠** (1) 데라는 나이가 많아 긴 여행을 오래 할 수 없었다. 그는 하란에서 잠시 지체하다가 원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의 일생을 마쳤다.
 (2) 그 당시 하란은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중요한 상업 도시였으며 우르와 마찬가지로 하란도 셈족 사이에 성행한 달 신(月神)을 섬기던 곳이었다.
 (3) 하나님은 아브람과 그의 가족이 비록 문명은 발달하였으나 이방 종교에 빠진 바벨론 땅에서 벗어나 미지의 땅인 가나안에서 새로운 가문을 형성하고 그곳에서 훈련받기를 원하셨다.
 (4) 이러한 목적 아래서 볼 때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람과 그의 가족을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위한 하나의 안내자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본장의 요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4절).

제 12 장 아브람이 부름 받다

단락구분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다 / 4-5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다 / 6-9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아브람 / 10-13 애굽으로 이주한 아브람 / 14-20 아브람이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다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에 좇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 오 세였더라

5 아브람이 그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 갔더라

6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 곳에 단을 쌓고

8 거기서 벨엘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벨엘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더니

9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10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11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래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14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인지라

16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17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8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19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 ㉠ 본장의 개요를 알기 쉽게 말하라.

- ㉠ (1) 본장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의 삶의 첫걸음이 기록되어 있다.
- (2) 더우기 본장에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 나라의 주역이 될 메시아가 아브람의 후손을 통하여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람은 '복의 근원'이라는 별칭(別稱)을 얻게 된다.
- (3) 한편 아브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닌 본성적인 나약함 때문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4) 이처럼 본장에서 아브람의 허물을 들추어 내는 까닭은 아브람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자이거나 '복의 근원'이 될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님을 밝혀 주기 위해서이다. 즉 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要旨)는 아브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은혜이다.

2. **㉠ 창세기에서의 본장의 위치를 말하라.**

- ㉠** (1) 창세기의 역사는 인류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인간의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을 거쳐 이제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아브라함 시대로 연결된다.
 (2) 이러한 사실은 계시 역사가 점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3) 본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족장 시대는 히브리 역사의 시작이며 출애굽 사건을 통해 구체화 된다.
 (4)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가정을 선택하시며 또한 한 민족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인간 역사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모형이다.

3. **㉠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여호와와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전(全)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라는 의미이다. 사실 그곳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들이 살던 곳이었다.
 (2) 또한 갈대아 땅에는 쎬의 후손들이 많이 거주했고 아브람의 친척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아브람에게는 그 친척들이 큰 힘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3) 하나님은 이런 현세적인 확실한 이권을 포기하고 오직 당신과 당신의 말씀만 믿고서 미지의 땅, 당시로서는 보다 미개하고 위험한 땅(가나안)으로 가라고 명하신 것이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다그치신 이유는 아브람을 죄악된 세계에서 따로 분리해서서 그로 말미암아 선택된 한 민족(이스라엘)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가끔은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시는 때도 있다(22:1-1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 손해를 입게 하시지는 않는다.

4. **㉠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고향을 떠날 때 목적지를 알고 떠났는가? (1절)**

- ㉠** (1) 하나님은 아브람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가야 할 땅의 이름조차도 계시하지 않고 그에게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하셨다.
 (2) 그래서 아브람은 나아갈 바(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히 11:8). 그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강한 신앙의 결단에서 비롯되었다.
 (3) 그러나 그의 강한 결단 이면(裏面)에는 눈에 보이는 행복보다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더욱 큰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4) 이런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신뢰)이 부분적이어서 안 된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히 11:6).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다(히 11:1).

5. **㉠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에서 '지시할 땅'은 어디인가? (1절)**

- ㉠** (1) 하나님께서만이 알고 계시는 땅으로서 아브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곳을 가리킨다.
 (2) 그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한다.
 (3)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브람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행복과 민족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 곧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아끼고 또 사랑하는 것을 버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눅 14:33; 18:29, 30).

6. **㉠**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2, 3절)

- ㉠** (1)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축복이다. 이는 족장 시대를 거쳐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착으로 성취되었다. 영적인 면에서 아브람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성도들의 수적인 증가가 이루어져 성취되었다.
- (2) 두번째로 복을 받고 사는 축복이다. 아브람은 일생 동안 그 순종의 생활을 통하여 큰 축복을 받고 살았다. 즉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아울러 받았다.
- (3) 세번째로 이름이 창대케 되는 축복이다. 아브람은 훗날 그 이름이 아브라함(열국의 아버지)으로 되는 새로운 칭호를 받았고 그 후에도 위대한 명칭을 부여받았다(17:5; 20:7; 23:6; 대하 20:7; 시 105:6; 약 2:23).
- (4) 네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다. 아브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아브람의 후손을 통하여 출생할 메시야가 주시는 구원의 복이 만민에게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갈 3:16).
- (5) 아브람이 받은 복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며 훗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영적 축복을 받게 되는 사실을 말한다.

7. **㉠** 아브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을 당시 '큰 민족'을 이룰만한 어떤 근거를 소유하고 있었는가? (2절)

- ㉠** (1) 그 당시 아브람은 아들이 없었으며 더우기 이미 늙은 몸이었다. 그리하여 그에게는 '큰 민족'을 이룰만한 아무 근거도 없었다.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이것은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은 인간 아브람의 능력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실 부분임을 보여 주는 약속이다.
- (3) 한편 아브람은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으로 수용하였다(15:5, 6).
- (4)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이러한 태도를 '의'(義)로 인정하셨다(참조, 행 13:39). 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롬 4:18). 하나님의 약속은 훗날 완전히 성취되었다(26:24, 25; 28:14, 15; 48:3, 4).

8. **㉠** 아브람의 이름이 유명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는 무엇인가? (2절)

- ㉠** (1) 아브람은 훗날 모든 세대를 통해 여러 위대한 명칭을 부여받았다. 즉 그 증거로
- ① 열국의 아버지(17:5)
 - ② 선지자(20:7)
 - ③ 하나님의 방백(23:6)
 - ④ 하나님의 종(시 105:6)
 - ⑤ 하나님의 벗(대하 20:7; 약 2:23)
 - ⑥ 믿음의 조상이며 메시야의 조상(롬 4:11-25) 등이다.
- (2)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람을 높이지겠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큰 일을 계획하시는 것에 의미가 있다.
- (3) 사람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명예만이 참 명예이다(49:26; 신 26:19; 빌 2:9).
- (4) 하나님을 떠나서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멸망의 근거가 된다(참조, 행 12:20-23).

9. **㉠**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2, 3절)

Ⓐ (1) 본문에 기록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는 복이 되라’라는 명령형이다. 즉 아브람이 타인에 대하여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Delitzsch, Keil, Murphy).

- (2) 그 구체적인 예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친구와 같이 여기시며, 그의 친구를 자신의 친구로 그의 적을 자신의 적으로 간주하신다는 결의를 말씀하셨다(엡 5:25).
- (3)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에게 당신이 친히 저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법적인 의미에서의 저주이다. 즉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의한 공적 저주를 받을 것이다.
- (4) 더우기 하나님께서 아브람으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람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복의 근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이다. 아브람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결국 아브람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신다는 것을 뜻한다.
- (5)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상태 아래 있었으나(3:17), 이제는 약속된 여자의 후손(3:15)의 조상이 되는 아브람으로 인하여 영적인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이 아브람의 가계(家系)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다.
- (6) 여하튼 아브람의 자손 중에서 출생할 메시아가 주시는 구원의 복이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마 1:1-16; 롬 4:11-25).

10. Ⓒ 아브람의 행동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4절)

- Ⓐ (1) 아브람은 ‘여호와와 말씀’에 따라 행동하였다.
- (2)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동일시 하였고 이에 순종하였다.
- (3) 이처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참조, 사 66:2),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인정(적용)하는 데 있다.

11. Ⓒ 아브람의 가나안 여정(旅程)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4.5절)

- Ⓐ (1) 아브람의 가나안 여정의 경로는 유프라테스 해안을 따라 시리아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이르는 길이었을 것이다.
- (2) 아브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 갔다. 신앙은 때로 모험적인 삶을 요구한다(히 11:8). 하나님은 이러한 모험을 통해서 아브람의 성숙한 신앙을 기대하셨다.
- (3) 또한 그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앙의 본향을 향하여 가는 것과 유사하다.
- (4) 아브람의 순종에는 질문이나 불만이 없었고, 주저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신속한 응답은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 (5) 마지막으로 아브람이 살던 갈대아는 세상의 모형으로,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브람이 안락한 갈대아를 과감히 버리고 험란한 가나안 길을 택한 것같이 성도들도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천국을 추구하여야 한다. 예수께서도 천국은 좁은 길이라고 가르치셨다(마 7:13).

12. Ⓒ 아브람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가? (5절)

- Ⓐ (1) 아브람은 하란에서 상당 기간을 머무르면서 재산을 축척한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주로 가축을 가리킨다. 당시 아브람과 롯은 유목민들이었다(13:1, 5).
- (2) 그리고 아브람이 ‘얻은 사람들’이란 종들이나 그들의 자식을 가리키는 말이다(겔 27:13). 유목민들이 많은 가축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이 필요했는데, 특히 부자들은 많은 종들을 소유했다.

- (3) 당시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위탁하며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보다 후대에는 종들이 재산의 일부분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참조, 출 21:1-11; 레 25:39-55; 신 15:12-18).
- (4) 여하튼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480km쯤 된다. 아브람이 이 먼 길을 많은 재산과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기에 충분하였다. 이처럼 믿음은 모든 주변 상황을 극복하게 만든다.

13. ㉠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어디인가? (6, 7절)

- ㉠ (1) 하나님께서는 합의 후손을 주축으로 한 원주민들이 거하던 가나안 땅을 아브람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 땅은 이미 우상 숭배자들로서 가득차 있었다(참조, 신 7:1-5).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될 아브람에게 그의 후손이 가나안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아브람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참된 의도였다.
- (3) 훗날 이 가나안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일체성(一體性)을 유지하는 근본 사상이 되었으며 출애굽의 원동력이 되었다.
- (4)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주권 의식은 자연적인 기득권(既得權)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허락에 근거한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 (5) 더우기 가나안에 대한 이러한 약속은 영적인 측면에서 장차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시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을 놓칠 수 없다.

14. ㉠ 아브람은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였는가? (7절)

- ㉠ (1) 아브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으로 제단을 쌓았다.
- (2)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장차 그의 후손이 그 땅을 소유할 것에 대한 감사이다. 이처럼 아브람은 보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숙하였다.
- (3) 한편 ‘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즈베하>는 ‘죽임의 장소’, 즉 ‘피 흘림의 장소’를 의미하는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던 곳인 십자가를 상징한다.
- (4)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모든 감사와 속죄는 직접 간접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연관을 맺고 있다.

15. ㉠ 아브람이 세겔 땅을 통과한 후 장막을 친 곳은 어디인가? (8, 9절)

- ㉠ (1) 아브람은 벨엘 동편 산으로 옮겨 그곳에 장막을 쳤다. 즉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벨엘(원래 이름은 ‘루스’인데 야곱에 의해 벨엘로 바뀌었으므로 모세는 이 지명을 미리 사용하였다)이 서쪽에 있었고 가나안 지방의 요새지인 아이가 동쪽에 위치한 별판이었다.
- (2) 여기서 아브람은 가나안 땅을 자손들의 기업으로 약속받았지만(7절) 아직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행 7:5; 히 11:9).
- (3) 그가 정착하지 못한 것은 그 지역 원주민들의 적대감(Luther, Calvin), 혹은 기근(Alford, Keil)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 (4) 그러나 그는 유리하는 중에서도 신앙 생활을 계속하였다. 그의 신앙 생활은 주로 단을 쌓는 것과 여호와와 이름 부르는데 있었지만,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 행위를 가리킨다(참조, 4:26).

- (5)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떤 정황 중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활이야말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참조, 행 16:25-34).

16. **㉠** 아브람이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척박한 가나안에는 가끔 가뭄이 찾아 들었다(26:1;41:56). 이 지방에는 11월이나 12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데 이때 비가 적게 오면 기근이 닥치게 된다.
- (2) 애굽은 팔레스틴보다 낮은 지대이고 나일 강이 있었으므로 가뭄 때에도 수확이 풍부하였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하란이나 우르로 돌아가지 아니한 것을 믿음의 행위로 평가하고 있다(히 11:15, 16).
- (3) 여하튼 아브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나 그의 앞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따랐다.
- (4)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항상 순탄한 길만 있을 수는 없다. 때로는 인내와 고난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지름길이다.

17. **㉠**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꾀를 구상했는가? (11-14절)

- ㉠** (1) 아브람은 자신의 아내 사래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 부르기로 했다. 왜냐하면 아내 사래가 미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왕의 신하들이 그 아내를 바로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를 죽일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 (2) 사실 사래는 아브람의 이복 동생이었다(20:12). 그러므로 아브람의 이 말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었다. 그러나 완전한 진실이 아니면 결국은 허위이다. 더우기 그의 계획은 인간적인 연약과 악한 본성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 (3) 아브람의 이러한 거짓말은 자기의 생명 보존에만 관심을 갖고 그의 부인의 순결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없는 비겁한 태도였다. 뿐만 아니라 아브람의 거짓말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였다(15절).
- (4) 이와 같이 아브람은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아브람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사랑을 보이셨다(13:1).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결코 아브람이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서 기인하였다.

18. **㉠** ‘바로’의 뜻은 무엇인가? (15, 16절)

- ㉠** (1) 본래 ‘큰 집’이라는 의미이다.
- (2) 왕은 큰 집(궁궐)에 살게 되므로 ‘큰 집’이라는 뜻의 말인 ‘바로’는 왕의 칭호가 되었다.
- (3) 그 당시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는 많은 첩을 두는 것이 관례였다.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궁으로 불러 들어간 것도 정식 결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간 것임을 알 수 있다.
- (4) 바로는 사래를 궁으로 데려오면서 아브람에게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관례적으로 주어 왔던 많은 결혼 예물을 선사하였다(참조, 출 22:15, 16; 룻 4:10; 삼상 18:23, 25; 호 3:2).
- (5) 그러나 아브람은 끝내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비겁한 침묵을 하고 말았다. 그는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아내와 양심을 팔아 넘기는 파렴치한 인간이 되었던 것이다.
- (6) 이처럼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입술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

19. ㉠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은 무엇인가? (17-20절)

- ㉠ (1) 정확하게 그 재앙의 내용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질병, 재앙, 또는 죽음과 같은 재난으로 볼 수 있다. 바로는 자신의 집안에 내린 재앙에 놀라서 비록 분노하기는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사래와 아브람을 해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다.
- (2) 여호와를 전혀 모르는 더우기 자신을 신과 동격으로 생각했던 바로가 놀라서 이런 행동을 취할 정도로 그 재앙의 방법과 원인에 대한 계시가 명확했던 것이다.
- (3) 그는 비록 모르고 행한 일이지는 했으나 언약의 대를 이을 가문을 모독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죄를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의적인 죄가 아니었으므로 하나님은 간접적인 경고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다(참조, 20:6, 7).
- (4) 하나님은 비겁한 거짓말로 위협을 모면하려고 한 아브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신적 간섭으로 보호하시는 사랑을 보이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죄는 철저히 보응하시지만 그 인간을 향한 당신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섭리하신다.

20. ㉠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17-1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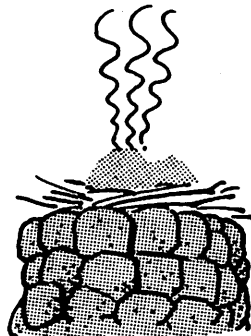
- ㉠ (1) 바로는 자기가 취하려던 사래가 아브람의 아내인 사실을 알았다.
- (2) 아브람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실 때문에 이방인인 바로의 책망을 들었다. 즉 아브람이 신앙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신했을 때 부끄러움과 천시를 받았다.
- (3)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천시 받게 되는 것처럼(참조, 마 5:13) 도덕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된다.

21. ㉠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로는 그의 신하에게 어떤 명령을 하였는가? (20절)

- ㉠ (1) 바로는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 및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 (2) 즉 아브람은 바로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것이다. 한편 아브람은 애굽에서 기근을 피할 수 있었고 많은 재산마저 얻을 수 있었다. 더우기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존재이지만 아직도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인격의 소유자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도덕적 부패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정을 끝까지 보호하셨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아브람의 후손에게 주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취해진 당신의 섭리로 볼 수 있다.
- (4)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신 바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당신의 사람들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가실 때도 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참조, 약 1:2-4).

본장의 요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7절).



제 13 장 아브람과 롯의 분리

단락구분 1-6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람과 롯 / 7-9 아브람과 롯이 갈라서다 / 10-13 롯이 소돔을 선택하다 / 14-17 아브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둔된 약속 / 18 아브람이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다

1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왔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2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3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벨엘에 이르며 벨엘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5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꿀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

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있는 고로 여호와 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14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1. ㉠ 본장에 언급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애굽에서 우여 곡절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다. 즉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얻은 아브람이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으나 함께 거할 만한 땅이 없었다.
 (2) 그들은 옛날 하란을 떠날 때(12:4)의 초라한 생활에서 벗어나 많은 재산과 종들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한정된 공간에서 지내기에 많은 불편을 느꼈다.
 (3) 이에 아브람은 용단(勇斷)을 내려 롯의 가정과 헤어지기로 하고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것은 분명 약속의 땅에 대한 아브람의 믿음을 대변하는 행동이었다. 아브람은 하란에서부터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신앙 인격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4) 한편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인간에 대한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욕심에 찬 인간의 눈으로 외형적인 선택을 했던 롯은 끝내 가정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19장).
 (5) 이처럼 물질적인 욕심에 이끌려 모든 판단 기준을 물질에 두고 생활하는 자들은 그 시 작은 화려한 것 같으나 마침내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우신 섭리에 따른 결과이다.

2. **㉠** 아브람이 애굽에서 추방되어 그 거처를 어디로 옮겼는가? (1절)

- ㉠** (1) 아브람은 그의 조카 롯과 더불어 '남방'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여기에서 '남방'이란 히브리어로 <네게브>인데 가나안의 남쪽 지방을 가리킨다. 즉 이곳은 애굽 쪽에서 보았을 때 북쪽 지역이다.
- (2) 이처럼 아브람이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 (3) 아브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이 애굽에서 범한 죄악의 무서운 성격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우기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좀더 고상한 신앙 인격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5:9, 18절).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으로 그 영향력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받은 자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과 변화를 거듭케 만든다(참조, 요 18:25-28; 21:15-19; 행 3, 4장).

3. **㉠** 아브람은 어떻게 육축과 은금을 풍부하게 소유할 수 있었는가? (2절)

- ㉠** (1) 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래의 일로 인해 애굽 왕에게서 많은 육축과 노비와 보석류를 얻을 수 있었다(12:16).
- (2) 이렇게 아브람이 받은 물질적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특별 은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나 애굽 왕 바로에게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소유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 (3) 여하튼 성도에게 있어서 많은 재물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물질을 사랑하거나 물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일 등은 성도의 삶에 합당치 않다(참조, 딤후 6:10).

4. **㉠** 아브람이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 (1) 아브람은 애굽에서부터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갑작스런 행동이 아니라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행하여 오던 그의 경건한 생활의 일면이다(12:7, 8).
- (2) 여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이다(참조, 왕상 18:36, 37).
- (3) 더우기 이러한 행위는 아브람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되고 순수한 신앙을 고백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그는 그의 삶을 통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것이다.
- (4) 또한 그의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자신의 가족과 미신의 세계에 살고 있던 가나안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파하고 가르친 것이었다(참조, 4:26).
- (5)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은 그것이 자신의 경건 생활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도 효과적이다(참조, 행 27:21-37).

5. **㉠** 아브람과 그 조카 롯이 더 이상 동거할 수 없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6절)

- ㉠** (1)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육축을 방목(放牧)할 땅과 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 것이다.
- (2) 그러나 이런 자연적 원인보다도 그들 두 가정이 서로 화목하지 못했다는 데서 더 큰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그들은 각각의 재산이 많아지자 서로의 재산에 애착을 가져 결과적으로 이때껏 아름다웠던 그들의 관계가 붕괴되고 말았던 것이다(참조, 약 4:1).
- (3) 이처럼 세상 재물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기적인 동물로 전락시키게도 만든다. 세상에는 재산 문제 때문에 우정과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흔하다.

(4)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명심하고 지나치게 물질에 얽매이는 생활을 삼가해야 한다(참조, 마 6:24-34).

6. **㉠** 아브람과 롯이 살고 있던 벨엘과 아이 사이에는 어떤 족속이 살고 있었는가? (7절)

- ㉠** (1)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었다(신 7:1-5).
- (2) ‘브리스 사람’은 촌락 또는 들에서 거하는 자들로서(삿3:5) 방랑 생활을 하는 유목민의 일족이었던 것 같다.
- (3)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런 떠돌이 백성들 앞에서 불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 (4)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세상 앞에 표시를 낸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 때에 그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7. **㉠** 아브람이 롯에게 서로 다투지 말자고 제의한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8절)

- ㉠** (1) 가나안의 원주민들 앞에서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제일주의에 근거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 (2) 또한 그의 제안은 서로 가까운 혈연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권보다 형제와의 관계를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 (3) 그리고 이 제안에서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분쟁을 해결하려는 아브람의 순수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예수께서도 화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큰 축복을 얻게 된다(마 5:9)고 말씀하셨다.
- (4) 사실 사랑과 용서와 평화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8. **㉠** 아브람은 조카 롯과의 화평을 위해서 어떠한 결단을 내렸는가? (9절)

- ㉠** (1)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우선적으로 고를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였다.
- (2) 이것은 불화와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아브람 자신은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태도이다. 그가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 땅의 기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 (4) 더우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제물로 희생되셨다(요일 4:10).
- (5) 결국 화평을 위해서 최대의 양보와 예절을 지킨 아브람의 온유한 마음은 모든 것을 얻는 지름길이 되었다(참조, 17:1-7; 마 5:5).

9. **㉠** 롯은 무엇을 기준으로 거주지를 선택하였는가? (10-13절)

- ㉠** (1) 롯은 요단 땅을 흐르고 있는 넉넉한 물줄기와 그 땅의 풍요로움 때문에 요단 온 들을 선택하였다.
- (2) 여기서 그가 선택한 풍요롭고 비옥한 요단 온 들 자체는 죄악된 것이 아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만드신 것으로 모두가 선하다(1:31). 더우기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감정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천성(天性)이다(참조, 전 3:11).
- (3) 그러나 롯의 선택은 하나님에게 죄가 되는 행위였다. 왜냐하면 그의 선택의 근본 취지는 이기적인 욕심이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소유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경계하고 있다(참조, 눅 12:15; 엡 5:3; 골 3:5).

(4) 이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이웃(아브람)의 손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봉사가 통하는 곳이다(참조, 요 15:13, 14).

10. **㉠**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보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0절)

- ㉠** (1) 그가 단순히 좌우를 둘러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 저것 세상적인 조건을 따졌다는 뜻이다.
 (2) 즉 그는 인간적인 탐욕의 눈으로 자기에 주어질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이다.
 (3) 이렇게 욕심으로 가득찬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과 행동을 수반한다(참조, 3:6). 탐욕에 가득찬 눈은 모든 죄의 시작이다(참조, 약 1:15).

11. **㉠** 아브람과 헤어진 롯은 그의 거주지를 어디까지 옮겼는가? (12, 13절)

- ㉠** (1) 롯은 아브람과 헤어진 후 그 장막을 소돔까지 옮겨갔다.
 (2) 그 당시 소돔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매우 비옥한 땅과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10절).
 (3)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온갖 불법과 더불어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참조, 겔 16:49, 50).
 (4) 롯은 이러한 소돔의 죄악상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물질적인 욕심으로 인해 그곳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포로 신세가 되었고 가족과 재산을 잃어버렸으며 또한 딸과의 통혼(通婚) 등 커다란 비극을 당하였다(18:20-19:35).
 (5) 이처럼 소돔이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선택된 땅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온 인격을 만족 시키기에는 부족한 곳이었다. 인간은 물질적에 충족에 의해서만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더우기 그곳은 죄를 전염시키는 죄악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신앙인에게는 더욱 피해야만 했던 곳이다(벧후 2:7, 8).

12. **㉠** 아브람을 찾아오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는가? (14-17절)

- ㉠** (1) 12:1, 7에서 말씀하셨던 축복을 거듭 약속하셨다.
 (2) 즉 팔레스틴 전역이 그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함께 영적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여기서 팔레스틴(가나안)은 일종의 하늘나라의 모형이다(히 11:8-10).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마 5:5; 고전 3:22; 딤후 2:12).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현세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현세적인 것 뿐 아니라 내세적(來世的) 축복마저 허락하신다(참조, 마 19:29).
 (4) 그러므로 우리는 공정한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생각하고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13. **㉠** 롯이 아브람을 떠났을 때 아브람에게는 누가 찾아왔는가? (14절)

- ㉠** (1) 혈통 관계의 모든 형제들이 다 떠나가고 아브람은 혼자 남아 있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위로하셨다.
 (2) 우리는 여기서 낯선 땅, 그것도 풍요롭지 못한 광야 지대에서 한 명의 자녀도 없이 고독하게 지냈던 아브람의 상황을 기억해야만 한다.
 (3) 그러나 아브람은 더 이상 고독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시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실 세상의 부모나 형제 자매는 우리를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참조, 시 27:10).
 (4) 그러므로 우리들은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힘써야 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신다.

14. **㉠** 아브람이 벨헬에서 어디로 장막을 옮겼는가? (1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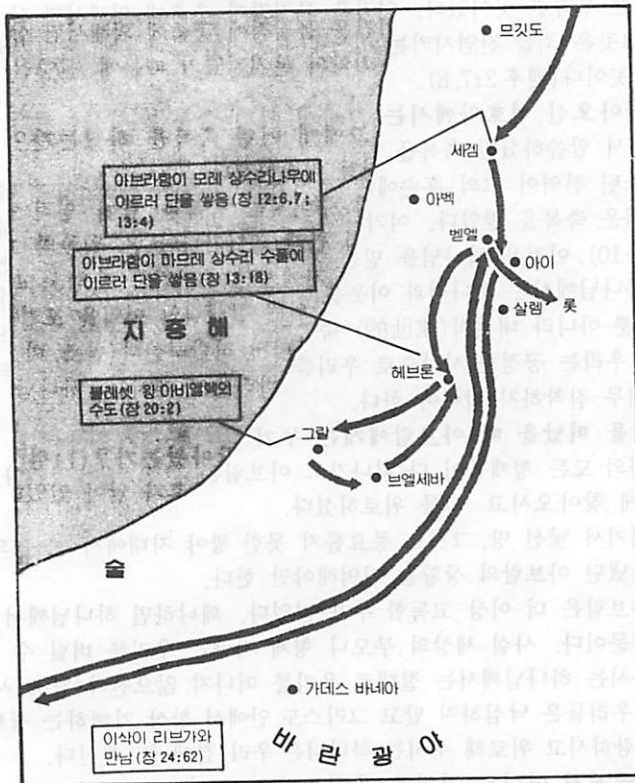
- Ⓐ (1) 아브람은 벨엘의 남쪽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겼다.
 (2) 헤브론은 고대의 중요한 도시로서 예루살렘 남방 약 36km 지점에 있다. 이곳은 애굽에 있는 소안보다 7년이나 앞서 세워진 오래 된 도시이다(민 13:22).
 (3) 이 헤브론은 현대 아랍어로 ‘엘 카릴’(El Khalil)인데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이다.
 (4) 여하튼 아브람은 하나님의 인도로 이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가 나그네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이곳에 대한 기억을 하였다. 그는 자신의 아내 사래의 묘실을 이곳에 마련하기까지 했다(23장).

15. Ⓒ 아브람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무엇을 하였는가? (18절)

- Ⓐ (1)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감사하였다. 여기서 단을 쌓았다는 말은 짐승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을 가리킨다(8:20).
 (2) 이와 같이 그는 장막을 이동할 때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12:7,8;13:4).
 (3)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아브람을 통하여 그의 후손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26:25;28:18).
 (4) 성도들은 후손들에게 재산이나 명예를 남겨 주려는 노력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바른 도리를 전해 주어야 한다.
 (5) 또한 아브람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 행위를 귀하게 여기며 항상 단을 쌓은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언제나 예배드리는 일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

지도자료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



제 14 장 가나안 남북 전쟁과 아브람의 활약

단락구분 1-11 시날 주변의 왕들과 소돔 주변의 왕들이 전쟁하다 / 12-13 포로가 된 롯 / 14-17 롯을 구한 아브람 / 18-19 멜기세덱의 축복 / 20-24 아브람의 십일조

1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2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3 이들이 다 잇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4 이들이 십 이 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십 삼 년에 배반한지라

5 제 십 사 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6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7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8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잇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9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10 잇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11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12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13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

수리 수풀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벨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14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삼백 십 팔 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 왔더라

17 아브람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었더라

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20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21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22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무론한 실이나 신들에게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24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벨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1. ㉠ 본장의 내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소돔 왕과 그 동맹자들이 시날 왕과 연합한 자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인 성경 최초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 (2) 한편 이 전쟁에서 소돔 왕을 주축으로 한 동맹군이 시날 연합군에게 패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 일가(一家)가(13:12, 13) 포로로 잡혀 가게 되었다.

- (3) 그러나 본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가나안 남북 전쟁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될 아브람의 활약이다. 아브람은 가나안 남북 전쟁을 통해 조카 롯의 가정을 구출해 냈을 뿐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님을 보여 주었다.
- (4) 즉 아브람은 가나안에 붙여지내는 떠돌이 유목민(遊牧民)이 아니라 다음 장(15장)에서 볼 수 있듯이 가나안의 역사를 이끌어 갈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다지게 된다. 그는 이러한 일련(一聯)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 (5) 사실 하나님은 아브람의 배후에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언약(12:1-3)을 한 가지씩 성취해 가고 계셨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이 교차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나라 건설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시며 그 삶을 통하여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신다.

2. **㉠** 가나안 남북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약술하라(1, 2절).

㉠

구 분	나라명(뜻)	위 치	통치자(뜻)	기 타
북 연 합 군	시 날	바벨론 지역	아므라벨 (강한 백성)	니므롯의 후손(10:10)
	엘 라 살	유프라테스 강의 왼쪽 제방	아 리 옥 (존경하다)	
	엘 람	바벨론의 동쪽, 페르시아 만 북쪽	그돌라오멜 (한 응금의 곡식)	북연합군의 중심 세력
	고 임 (나라들)		디 달 (두려움, 광채)	왕국을 형성치 못 한 부족 또는 혈연 연합체인 듯하다
남 동 맹 군	소 뉘 (삼탕, 큰 화재)	지금의 사해 근처	베 라 (은사)	하나님의 저주로 몰락
	고 모 라 (문화, 거주)	"	비 르 사 (악의 아들)	"
	아 드 마 (과일 지대)	"	시 납 (아버지의 이)	"
	스 보 임	"	세 메 벨 (높이 솟은)	"
	벨라(삼킴), 소알(작은)	"		소알이란 이름은 벨라의 나중 이름 이다

3. **㉠** 소위 가나안 남북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본문의 전쟁을 알기 쉽게 약술하라(1-12절).

㉠

- (1) 가나안 남북 전쟁은 사해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다섯 족장들(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곧 소알 왕)이 12년간을 섬겨 오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반기(叛旗)를 들므로 일어난 국지전(局地戰)이다.
- (2) 그 당시 바벨론 근방, 즉 가나안 북쪽 지방에 위치해 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남쪽 지방의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그리고 고임 왕 디달과 동맹을 맺고 반란이 일어난 다음 해(5절)에 출전한다.
- (3) 이들 북부 연합군의 침입 경로는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싯딤 골짜기를 목표로 북서쪽으로 우회한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많은 족속들(르바, 수스, 엠, 호리, 아모리, 아말렉 등)이 희생되었고, 결국 싯딤 골짜기에서 반란군 남부 5개 부족을 전멸시키고 많은 노획물을

있게 되었다.

- (4) 한편 여기 소개된 나라와 왕들은 통치 체제를 완전히 갖춘 국가나 왕들이 아니라 소규모 집단(부족 국가)과 그 우두머리(족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약탈 전쟁의 성격이 강하다.
- (5) 일부 학자들은 이 부분의 역사성을 의심해 왔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 B. C. 21-19세기 사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상당한 문화가 존재했으나 그 문화는 각 지역간의 갈등으로 인해 전쟁과 파괴로 종말을 고했음이 밝혀졌다.

4. **㉠** 가나안 남북 전쟁이 치루어졌던 곳은 어디인가? (3, 8절)

- ㉠** (1) 엘람 왕을 중심한 북연합군은 사해 동쪽 연안의 돌출된 반도(半島)의 남쪽 땅인 싯딤 골짜기에서 남동맹군과 혈전을 벌였다. 이 골짜기는 역청(瀝靑)이 많은 곳으로서 주저 지역으로는 부적합한 곳이다(10절).
- (2) 본서의 기자는 그곳에 대해서 '지금 염해(鹽海)'라는 부가 설명을 하였다. 여기서 '지금'이라는 것은 본서 기자인 모세의 시점에서 하는 말이다.
- (3) 이런 점에서 볼 때 그곳이 '염해'가 된 것은 그 사이에 지각 변동이 있었던 것 같으며, 지질학적(地質學的) 증거도 이것을 뒷받침한다(19:24, 25).
- (4) 이 '염해'는 보통 해수보다 6배나 되는 염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생겨났다(민 34:3; 신 3:17). 지중해 해면보다 약 392m가 낮은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있는 호수이다. 이 호수는 남북 약 85km, 동서 약 15.6km, 면적은 약 945km², 최고 깊이는 400m이다.

5. **㉠** 가나안 남북 전쟁은 어떻게 끝이났는가? (9-12절)

- ㉠** (1)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한 북연합군이 남동맹국을 제압하고 그 당시 문화가 번창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노략해 갔다.
- (2) 더우기 가축에게 적당한 장소로 여겨 요단들을 선택했던 롯마저도 소돔 주민과 같은 피해를 당했을 뿐 아니라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
- (3) 가나안 남북 전쟁이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되었던지 간에 그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참조, 삼상 17:47).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하여 재물을 쫓아갔던 롯에게 그 재물의 결국을 보여 주셨던 것이다.
- (4) 이처럼 세상에 속한 부와 번영은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한 만족과 안전을 얻도록 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것들은 인간을 불안과 파멸로 인도하곤 한다(참조, 약 1:10, 11; 벧 후 3:3-12).

6. **㉠** 본서의 저자 모세는 아브람을 가리켜 어떤 명칭을 사용하였는가? (13절)

- ㉠** (1) 모세는 아브람에게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기록하였다.
- (2) 모세는 본장에서 처음으로 '히브리'라는 민족의 이름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 (3) 이는 '건너온 자'라는 이름을 가진 아브람의 조상 '에벨'(11:10-14)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며,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들어온 그를 가나안 사람들이 '건너온 자'로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4) 그러나 아브람은 이방인으로서 혼자 가나안에 건너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팔레스틴)의 주인의 자격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건너온 것이다.

7. **㉠**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의 거주지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누구와 동맹을 맺었는가? (13절)

- ㉠** (1) 아브람은 아모리 족속 중에서 마므레와 에스골 그리고 아넬 3형제와 방위 동맹을 체결하였다.
- (2) 한편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이 3형제는 가나안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중요 인물이라

는 사실 외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 (3)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위하여 단을 쌓는 등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던 (13:18) 아브람과 동맹을 맺었다면 적어도 아브람의 하나님 여호위를 인정하고 그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즉 싸움에서 돌아온 아브람을 기쁘게 맞이했던 멜기세덱과 같이 순수한 신앙을 소유한 소수의 그루터기가 아닌가 한다 (18절).

8. **㉠** 아브람은 그의 조카 롯이 북연합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14-16절)

- ㉠** (1) 그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다메섹 원편에 위치한 호바까지 추적하여 가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던 북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포함한 그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다.
- (2) 여기서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란 문자적으로 ‘집에서 훈련받은 자’ 또는 ‘집에서 교육받은 자’이다. 즉 이것은 군사 훈련을 받았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아브람에 의해 어릴 때부터 훈계를 받고 신앙 생활을 해왔던 자들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아브람이 이렇게 군사적인 훈련조차 확실히 받지 않았던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소유하였던 북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 분명하다 (20절).
- (4)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삼상 17:47)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마저도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가능케 만드신다.
- (5) 우리는 아브람의 승리를 통해서 소수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최악의 세력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며, 또한 끝내 어떤 결과를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9. **㉠** 아브람이 자기 집안에서 사람을 양육시키고 있었던 사실은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14-16절)

- ㉠** (1) 이것은 당시에 아브람의 명예와 힘이 대단히 컸던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즉 그가 기르는 사람이 318명이라면 그의 집에 거하는 자는 적어도 1,000명 이상이 넘는 것 같다.
- (2) 또한 아브람이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음을 나타낸다.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나 언제 당할지 모르는 갑작스런 사태에 대비하여 종들을 잘 훈련시켰다.
- (3) 그는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적 교육과 더불어 그들의 영혼을 잘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였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평상시 잘 길러야 한다 (참조, 딤후 4:7, 8).

10. **㉠** 롯을 구한 아브람의 성품은 어떠한가? (14-16절)

- ㉠** (1) 그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관용과 고상한 영적 인격을 소유하였다.
- (2) 또한 아브람은 무례하고 욕심 많은 조카 롯이었지만 그가 곤경에 처하게 되자 형제애의 동정심이 불일듯 일어났다.
- (3) 그리고 자신의 형제 (조카)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롯의 모든 이웃들까지 모두 구해 준 박애 정신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남을 돕는 봉사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아브람은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소유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고 세상의 조건들에 개의치 않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게 되었다.

11. **㉠** 아브람의 원정과 오늘날 신약 교회와의 관계를 말하라 (14-16절).

- ㉠** (1) 적은 군사 : 그리스도인의 적은 군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이 땅에 그의 나

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해야 할 것을 보여 준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후 12:9).

- (2) 진실한 동맹군 :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뜻에 따를 경우에만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다(참조, 딤후 2:3).
- (3) 신속한 행군 :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에 주저함이나 지체함이 없어야 한다(참조, 사 6:8).
- (4) 기술적인 전략 : 교회가 제반 분야에서 활동할 때에는 그에 알맞는 재능이 요구되며 또한 말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전 12:12-31).
- (5) 놀라운 승리 : 교회가 차지하게 된 궁극적 승리와 축복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 땅에도 완전한 교회의 승리가 임하게 될 것이다(계 19:19-21).

12. ㉠ 소돔 왕은 북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어디에서 맞이했는가? (17절)

- ㉠ (1) 소돔 왕은 예루살렘에서 약 400m 떨어진 상류 기드론 골짜기로 추정되는 ‘사웨 골짜기’에서 아브람을 영접하였다.
- (2) 이곳은 ‘왕곡’ (王谷)이라고도 불리어졌는데 그 이유는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아브람을 영접하기 위해 여기에 왔기 때문이다.
- (3) 70인역 (LXX)에는 ‘왕들의 평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본장의 사건이 일어난 지 훨씬 후에 이곳에 압살롬의 기둥이 세워졌다(삼하 18:10).
- (4) 한편 소돔이 이곳까지 나와서 아브람을 영접한 까닭은 물론 자신의 원수들을 무찔러 준 은인(恩人)에 대한 예우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그는 포로와 전리품을 소유하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곳에 나왔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21-23절).
- (5) 이처럼 물질 만능주의(物質萬能主義)에 휩싸여 살아가는 자들은(13:13) 순수한 인간의 의리와 정(情)마저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다.

13. ㉠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가지고 나와 그를 영접했는가? (18절)

- ㉠ (1) 전쟁을 치룬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아브람과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영접하였다.
- (2) 여기서 ‘떡과 포도주’는 가나안 지역의 흔한 소산물이었으나(Lightfoot), 전쟁에서 지친 병사들에게는 극히 만족할 만한 음식물이었다.
- (3) 그런데 멜기세덱이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에 충분한 음식물을 아브람에게 가져온 것은 아브람이 그 땅에 평화와 자유와 재산을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이며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영접하였다.
- (4) 이처럼 감사는 자신의 지위가 어떠한 간에, 또한 그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은혜를 입은 자가 당연히 행해야 할 덕목이다. 이런 감사의 생활은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불러들인다(참조, 살전 5:18).

14. ㉠ ‘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18절)

- ㉠ (1) 이 말은 ‘평화’ 또는 ‘평강’이라는 뜻으로서 시온의 옛 이름이며(창 14:18), ‘예루살렘’의 줄인 명칭이다(시 76:2).
- (2) 성경 전체를 통해 이곳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 (3) 즉 이곳은 단순히 인간의 거주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룩한 곳이었다.
- (4) 그러므로 이곳은 공포와 파괴가 없는 완전한 ‘평화’가 실현되는 곳이라 할 수 있다(참조, 속 6:13).

15. **㉠** '멜기세덱'의 이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8절)

- ㉠** (1) '멜기세덱'은 히브리어로 <말키 체데크>인데 '의(義)의 왕'이란 뜻이다(히 7:2).
 (2) 살렘 왕 멜기세덱은 우상을 따르는 주위의 모든 종교적 유혹을 물리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킨 가나안의 왕으로서 실재한 인물이다.
 (3)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의 반차(班次, order, 계통 질서)를 좇은 것으로 설명되었다(히 5:10).
 (4)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은 모두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슥 6:12, 13). 또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명되었고(히 7:21),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불리었다(사 11:5-9; 히 7:2).
 (5) 또한 그들의 제사장직이 레위 계통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격들이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다.

16. **㉠**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위해 축복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 불렀는가? (19, 20절)

- A** (1) 먼저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 '천지의 주재(主宰)'라고 하였다.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스 5:11; 사 37:16; 행 17:24).
 (2) 또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온 세상에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의미이다(시 57:2; 단 3:26; 막 5:7).
 (3)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람의 승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4) 즉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요, 타향인으로 지내던 아브람이 그 당시 맹위를 떨치고 있었던 바벨론 근방의 족장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발견한 것이다.
 (5) 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또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

17. **㉠** 아브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축복을 비는 멜기세덱을 위해 무엇을 선물하였는가?(20절)

- ㉠** (1) 아브람은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따로 떼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2) 이와 같은 아브람의 행동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히 7:6)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였다.
 (3) 한편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십일조 제도는 모세 율법에 성문화되기 이전에(레 27:30-33; 민 18:21-32) 이미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특별히 십일조 제도는 어떤 형식에 얽매여 억지로 수행해야 되는 규례라기 보다는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자발적인 감사의 표시임을 가르치고 있다.
 (5) 사실 우리가 소유한 물질 중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후 9:7).

18. **㉠** 아브람이 전리품을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1-23절)

- ㉠** (1) 아브람이 전리품에 마음을 두지 않은 것은 소돔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이 같은 아브람의 태도는 그의 조카 롯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13:10, 11).
 (2) 더우기 아브람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간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유라는 사실을 밝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3)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자들은 세상의 부

귀와 영화를 초월할 수 있다(빌 3:7-9).

19. **㉠** 아브람은 전리품 중에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는 대신 누구의 분깃을 요청하였는가?
(24절)

- ㉠** (1) 아브람은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의 (13, 14 절) 분깃을 요구하였다.
 (2) 왜냐하면 아브람에게는 그 이익을 포기할 만한 인격과 믿음이 있었으나 그의 동맹자들에게는 그 권리를 포기할 만한 성숙함이 없었던 것이다.
 (3) 이것은 이웃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지도자의 선한 행동이었다.
 (4) 사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순수함을 지키는 자들이라도, 자신의 결정을 이웃에게까지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다. 즉 자기를 표준해서 이웃의 모든 판단과 행동을 단속해서는 안 된다(마 23:4).

화보자료

포로로 잡혀 가는 롯. 아래의 사진은 그들라오멜의 동맹군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 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상아에 새긴 세공품으로 가나안 지역에서 출토되었으며 현재 예루살렘의 록펠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토와 친척과 가족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조카인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은 바로 이 조카 롯을 인하여 많은 고생을 하게 된다. 본장에서처럼 포로로 잡혀 간 롯을 구하려고 전쟁을 치루기도 하며(13-16절) 또한 롯이 사는 성을 소돔의 멸망을 막아 보려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였다(18:22-32).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셨다(19:29).

제 15 장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다

단락구분 1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오시다 / 2-5 아브람에게 주신 자손의 축복 / 6-11 하나님이 아브람을 의롭다 하시고 가나안 언약을 반복하시다 / 12-16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생판에 대한 예언 / 17 가나안 언약의 확증을 위해 나타난 불 / 18-21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

1 이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3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4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년 된 암소와 삼년 된 암염소와 삼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진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 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12 해질 때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므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 네 자손은 사 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 해가 저서 어둠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19 곧 켄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20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 **㉠** 본장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라.
 - ㉠ (1) 본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미 12장에서 언급하였던 약속의 땅과 수많은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원대한 꿈을 함축하고 있다.
 - (2) 여기서 하나 특이한 사실은 아브람이 하나님께 위의 약속들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그 약속들을 제시하셨다는 것이다.
 - (3) 이처럼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것이지만 그 언약을 계획하시고 주도(主導)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 (4) 즉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한 인격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히신다.
2. **㉠** 아브람이 이상(異象) 중에 여호와와 말씀이 들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A** (1) 이상은 히브리어로 <마하제>인데 환상(vision)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2) 여기의 '이상'은 인간의 자연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시 통로로서 꿈으로, 실제 현상으로, 무아지경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일 것이다(참조, 민 12:6; 24:4, 16, 17).
 (3)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직접, 간접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다(출 3:2; 33:9; 신 5:1-5; 단 7:2).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인간의 수준을 이해하시고 그에 적합하게 계시하시기 위해서이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믿는 일이다(딤후 3:15-17).

3. C 이상 중에 들려 온 하나님의 첫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1절)

- A** (1)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니라'는 내용이었다.
 (2)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 볼 때 그 당시 아브람은 영적으로 매우 침체해 있었던 것 같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나 그 후에 벗어질 가나안 열국의 복수가 두려웠을 것이다.
 (3) 더우기 가나안과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4)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친히 아브람의 '지극히 풍성한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다. 즉 하나님 자신이 아브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임을 가르쳐 주셨다.
 (5)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시다(참조, 시 61:5; 119:111).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할 수 있는 행복이란 전혀 없다.

4. C 아브람은 하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 불렀는가? (2절)

- A** (1) 아브람은 이상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주 여호와'라고 호칭(呼稱)하였다.
 (2) 이 명칭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예호와>인데 일반적으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삼하 7:28; 사 40:10; 겔 11:17).
 (3) 이러한 단어를 통해 볼 때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한 상금이 되시며, 가나안의 약속(12:1-3)을 성취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던 것 같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한 묘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의 신앙 상태와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마 16:16).

5. C 아브람은 누구를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는가? (2, 3절)

- A** (1)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자신에게 아직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서 신임받는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하였다.
 (2) 그가 이처럼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12:1-3)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실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3) 한편 고대 근동에는 족장이나 부호가 자식이 없을 때 종을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재산과 권력을 상속하는 것이 관례였다.
 (4) 여하튼 아브람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설부른 판단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자 했던 것이다.
 (5)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범하는 인간적인 실수가 허다하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다(참조, 호 6:3; 약 1:4).

6. C 하나님은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는 아브람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가? (4, 5절)

- A** (1) 하나님은 아브람을 향하여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後嗣)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즉 아브람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늙어서 불가능한 일같지만 실제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21:2, 3) 그 아들로 말미암아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셨다.
- (3) 이 약속은 물론 육신적인 측면에서 아브람의 후손이 많아질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영적인 후손이 창대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롬 4:16).
- (4) 다시 말하면 아브람의 씨라 일컬어지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아지게 될 것을 가리킨다.

7. **㉠** 아브람이 의(義)롭다 하심을 얻은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그가 하나님의 언약(4, 5절)을 믿었기 때문이다. 즉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자기 후손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었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믿는다' (히, 아만)는 말은 '확신하다', '궁정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본절에서 '믿으니'에 사용된 시제는 미완결 과거 시제로서 그 순간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신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 (3)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브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취급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그가 당장 인격과 행동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을 뿐이다.
- (4) 이처럼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의 행위와 인품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이다(갈 2:16-18; 3:6-9).
- (5) 그러므로 아브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믿는 믿음은 오늘날 성도들이 그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일하다. 오직 인간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며, 이러한 기적은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비롯된다(참조, 롬 4:23-25).

8. **㉠**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의롭다 인정하신 후 그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啓示)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業)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로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다.
- (2)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자신이 친히 그의 인도자 되심을 밝혀셨다(참조, 신 8:2; 32:11, 12). 또한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실 분으로도 계시하셨다(12:1-3; 출 20:2).
- (3) 더우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면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를 고향에서 이끌어 내신 목적을 말씀하셨다. 즉 가나안을 그의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그를 부르시고 이끌어 내셨던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으로 한 인격을 부르실 때 목적 없이 부르고 인도하지는 않는다. 특별히 죄인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시켜서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이다(참조, 살전 1:3, 4; 살후 2:13; 벧전 1:3, 4).

9. **㉠** 가나안을 업(業)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브람이 '무엇으로 알리이까'라고 반문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7절)

- ㉠** (1) 이 말은 하나님에게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한 것이다.
- (2) 기드온, 마리아(삿 6:17; 눅 1:34, 35) 등도 이러한 요구를 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 더 큰 확신을 얻었다.
- (3)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적절한 증거로 확신을 주신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을 소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말씀)을

믿는 신앙과 그 신앙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한다.

10. **㉠** 표적을 구하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당신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고 명령하셨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아브람 간에 맺은 언약의 영원성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제물을 바쳐 제사를 하도록 명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아브람에게 표적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 (3)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물을 살펴보면 3년 된 성숙한 동물들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제물들은 후에 모세의 율법으로 확정되어졌다(레 1:2-17; 눅 2:24).
- (4)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적(확증)을 얻고자 하는 자와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고 그 요구의 이행(履行)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표적을 기대해야 한다.

11. **㉠** 아브람은 제사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10절)

- ㉠** (1) 아브람은 새를 제외한 모든 동물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다.
- (2) 이러한 의식은 언약에 따른 조인식(調印式)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언약(히, 베리트)이란 말은 '찍어내다', '선택하다'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바라>에서 유래되었다.
- (3) 이것은 언약을 맺는 쌍방이 희생 제물을 둘로 나눔으로써 그 언약을 체결한다는 표로 제물 사이를 지나가는데 만약 언약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언약을 어기면 희생 제물과 같은 꼴을 당하게 된다는 엄숙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참조, 렘 34:18-20).
- (4)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숙한 언약을 하신 이유는 아브람에게 확실한 표적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였다. 즉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해도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말씀(4, 5절)을 성취하시겠다는 절대적인 의지를 이러한 의식을 통해 보여 주셨다(히 6:17).
- (5)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약속)을 고치거나 번복치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므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가고 계신다(요 5:17; 약 1:17).

12. **㉠** 아브람이 드리는 제사를 방해한 것은 무엇인가? (11절)

- ㉠** (1) 아브람이 제사 드릴 때에 솔개가 제물을 보고 쪼아먹기 위해 제사 장소에 접근하였다.
- (2) 어떻게 보면 솔개의 행동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솔개는 죽은 시체를 즐겨 먹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어떤 학자들(Rosenmüller, Lange, Keil)은 이러한 상황이 원수들에게 고난받은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 (4) 또한 아브람이 솔개를 쫓아낸 행동에 대해서도 그것은 이스라엘이 원수들을 손쉽게 격파하게 될 것이며(Bush, Jonathan), 이스라엘의 멸망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Kalisch, Keil) 의미로 해석한다.
- (5) 여하튼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아브람은 제물이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은 채 하나님께 열납되기를 소원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일삼는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참조, 요 4:24).

13. **㉠** 아브람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가? (12절)

- ㉠** (1) 아브람은 저녁 해질 때(왕상 18:36)에 깊이 잠든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았다.
- (2) 이 '깊은 잠'(히, 탈데마)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기 위하여 아담을 재우셨을 때(2:21)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던 요나가 선창 밑에서 잠들었을 때(은 1:5) 사용되

었다.

- (3) 이런 중에 그가 계시를 받으면서 자신의 주위에 캄캄함이 임하는 것을 느끼고는 매우 두려워하였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경외가 아니라 감정적인 두려움(공포)이었다.
- (4) 혹자는 아브람의 이 같은 두려움을 애굽의 속박(Grotius, Keil, Calvin),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Wordsworth)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5) 그런데 이 모든 분위기들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으로 다음 절부터 계속되는 당신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인간의 수준에 적절한 환경과 메시지를 마련해 두신다.

14. **㉠**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계시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13-16절)

- ㉠** (1) 아브람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13절)과 그 400년 후에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14절) 4대(代) 만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것(16절)이라는 내용이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자손들을 종의 신분으로 삼으시고 애굽의 압박을 감수하게 하셨던 것은 당신만이 아시는 비밀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모두 통과한 후에는 더욱 성숙한 인격과 풍부한 재산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 (3) 더우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당신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극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아브람의 자손들에게 곧바로 주시지 않았던 것이다(16절).
- (4)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00여년 간의 노예 생활을 모두 마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참조, 출 12:31-40).
- (5)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 비록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그로 인하여 고난받는 우리들이라 해도 영원한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

15. **㉠** 아브람의 자손들은 몇 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였는가? (13-16절)

- ㉠** (1)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할 것을 예언하셨다(13절).
- (2) 즉 그들은 4대(100년을 한 세대로 계산) 만에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다(16절).
- (3) 한편 이 400년의 시작과 끝이 언제인지는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으나(참조, 출 12:40; 행 7:6; 13:19; 갈 3:7)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기간은 400년에 가깝다.
- (4) 이 기간은 아브람 자손들의 암흑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분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영적 부흥기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신다(참조, 시 23:3).

16. **㉠** 하나님은 아브람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15절)

- ㉠** (1)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장수하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 (2) 그의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이 같은 약속은 분명히 그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을 모두 살다가 평안히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복된 죽음이다(시 37:37).
- (3) 한편 그는 이러한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었으나 자신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 (4) 이와 같이 때로 하나님의 뜻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다.

17. **㉠** 쟁쟁 고기 사이를 지난 것은 무엇인가? (17절)

- ㉠** (1) 연기나는 풀무에서 나온 타는 햇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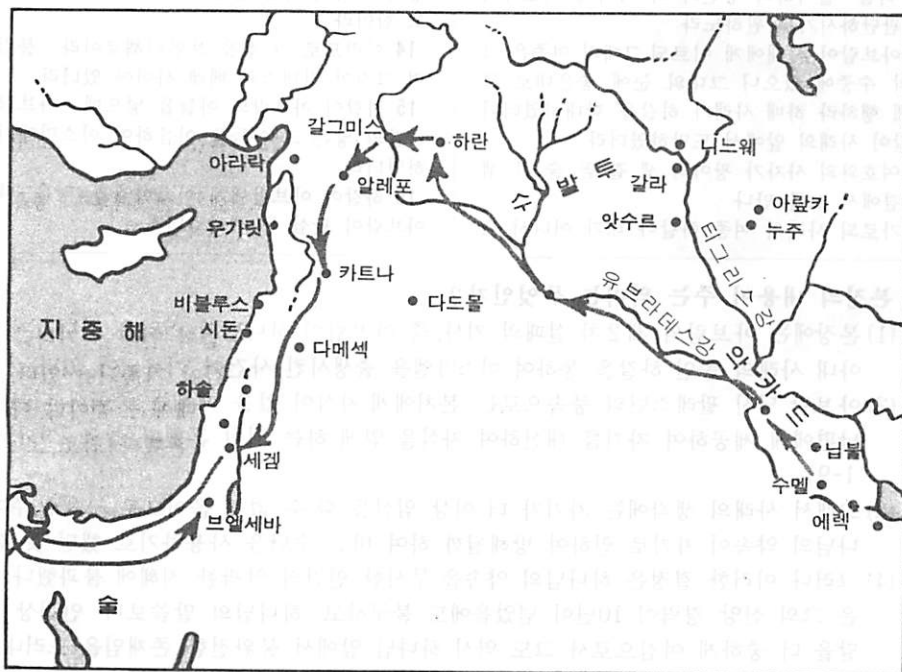
- (2)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출 19:18).
 (3) 즉 타는 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람의 재물을 받으신 것과 더불어 그 언약이 인준(認准)되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형상이다.
 (4)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 삶의 확신과 소망을 안겨준다(참조, 사13:23).

18. **㉠**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의 경계는 어디인가?(18-21절)

- ㉠** (1)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자손들에게 ‘에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시기로 하신 땅의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면서(19-21절) 그 땅의 현재 소유권이 이방 민족들에게 있지만 그것은 곧 아브람의 자손들에게 양도(讓渡) 될 것이라고 하셨다(참조, 신 7:1-11).
 (2) 한편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자손들(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을 당시에는 위에 열거한 땅을 모두 소유하지는 못했다(참조, 민 34:2, 3).
 (3)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 때에 위에 열거한 국경이 형성되었다(참조, 왕상 4:21; 대하 9:26).
 (4)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뿐더러 반드시 성취되고야 한다.
 (5) 즉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때에 분명히 성취된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인내할 따름이다(참조, 합 2:3).

지도자료

아브라함의 여정



제 16 장 이스마엘의 출생

단락구분 1-3 사래가 아브람에게 하갈을 첩으로 주다 / 4-6 잉태한 하갈이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다 / 7-14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하갈을 돌보시다 / 15-16 이스마엘이 출생하다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지 십년 후이었던라

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멀리한지라

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육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멀리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7 여호와와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 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8 가로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

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들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 이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뵈었고 함이라

14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람이 하갈의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 육 세이었던라

1. ㉠ 본장의 내용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아브람의 제 2차 실패의 기사, 즉 아브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않고서 아내 사래의 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출생시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아브람 당시 팔레스틴의 풍속으로는 본처에게 자식이 없을 때에는 종이나 다른 여자를 남편에게 제공하여 자기를 대신하여 자식을 얻게 하는 일이 흔했다(참조, 29:15-30; 30:1-9).
- (3) 그래서 사래의 생각에는 자기가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므로 모처럼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로 인하여 방해될까 하여 비상 수단을 사용하기로 했던 것 같다.
- (4)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인간의 알팍한 지혜에 불과했다. 아브람은 그의 신앙 경력이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정상 사람의 말을 더 중하게 여김으로서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 (5)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보다는 인간의 지혜를 더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실패와 고통

이 따른다. 조용하던 아브람의 가정에 이제부터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순간적인 결과는 지금까지도 중동 분쟁의 인종적 원인이 되고 있다.

2. ㉠ 본장의 첫머리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1절)

- ㉠ (1) 본장 초두는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생산치 못하였고'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
 (2) 아브람은 이미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적이 있다 (15:4). 그러나 그의 아내 사래는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다.
 (3) 그 당시만 해도 집안에 자식이 없는 것을 대단한 수치거리로 여겼으며 더우기 그것을 인간의 신체 구조의 이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표시로 여겼었다(참조, 20:17, 18).
 (4) 따라서 아브람과 사래는 신앙적으로 많은 갈등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갈등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몇차례 더 노출되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16세 정도 되었으므로 본장의 사건이 지난 뒤에도 최소한 15년 동안 아브람과 사래는 시련을 참아 내어야만 했을 것이다.
 (5)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편안한 생활 보다는 견뎌내어야 할 많은 시련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더 성숙한 인격과 삶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든다. 즉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참조, 약 1:2-4).

3. ㉠ 사래가 아브람에게 자식 생산을 위해 준 여자는 누구인가? (1, 2절)

- ㉠ (1) 사래는 자기가 종으로 데리고 있던 하갈이라는 애굽 출신의 여자를 아브람의 침소에 들여보냈다.
 (2) 아브람의 첩이 된 사래의 애굽인 여종은 아마 아브람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서 선물로 얻었던 노비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참조, 12:16).
 (3) '하갈'이 '탈출'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참조, 12:20). 그러나 혹자는 이 이름이 사래를 피하여 도망할 때 얻은 것이라고 주장한다(6절).
 (4) 여하튼 사래의 이러한 조처는 인간적인 선부름이 가져다 준 잘못된 결정이었다. 즉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으며 다만 그 성취의 결과와 방법만을 생각했다.
 (5) 이처럼 인간적인 선부름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잘못된 방법을 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일이 우리들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인내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시 90:4; 벧후 3:9).

4. ㉠ 사래는 하갈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면서 어떤 이유를 내세웠는가? (2절)

- ㉠ (1) 사래는 자기 남편에게 하갈을 동침시키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2) 즉 그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제(一夫一妻制)를 파괴하는 행위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임을 밝혔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하였다.
 (3) 사실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잉태를 주관하신다(참조, 29:31; 30:32; 시 127:3; 사 66:9).
 (4) 그렇다면 사래는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15:4)을 신뢰하고 그분의 잉태케 하시는 역사를 끝까지 기대해야 옳았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무시한 채 자신의 결정대로 일을 추진해 갔다. 이것은 분명히 그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처사였다.
 (5)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지만 생

활 속에서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생활할 때가 많다. 더우기 사래처럼 자신이 결정한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곤 한다.

- (6) 그러나 우리는 자기 합리화라는 함정에 빠져 하나님마저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항상 자신의 뜻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만족시키는 성도로서의 참 모습을 지녀야 한다(참조, 고후 9:13).

5. **㉠** 아브람은 사래의 간청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2-4절)

㉠ (1) 아브람은 하갈과 동침하라는 사래의 간곡한 요청에 순순히 응하였다(2절).

(2) 즉 그는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성취해 보고자 하는 아내의 말에 한 마디의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하갈과 동침하였다.

(3) 사실 아브람의 이러한 행동은 후손을 얻기 위한 고대의 일반적인 관습으로 당시의 윤리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특별한 언약을 맺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아내의 권유를 거절했어야 옳았다.

(4) 그러나 그도 역시 아내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청을 쾌히 수락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가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5)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지혜로 성취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지나친 교만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야 한다.

6. **㉠** 아브람이 사래로부터 하갈을 첩으로 받은 때는 언제인가? (3절)

㉠ (1) 아브람이 모레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부터 10년의 세월이 지난 때였다.

(2) 즉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에 대한 약속을 얻었던 때가 그의 나이 75세(12:4)였으니 그가 첩으로 하갈을 받은 때의 나이는 85세가 된다.

(3) 그리고 아브람과 사래의 나이 차이는 10세이므로 사래는 75세 되는 해에 자신의 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준 것이 된다.

(4)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 아브람과 사래는 10년 이상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적 태도를 드러냈다.

(5)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일 뿐이다.

7. **㉠** 사래의 종이었던 하갈이 자신의 주인을 업신여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1) 하갈은 비록 자신이 종의 신분이지만 아브람의 씨를 잉태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교만해져 자신의 주인인 사래를 업신여기게 되었다.

(2) 당시에는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치욕으로 생각했고 다산(多産)을 신의 은총으로 간주(21:6;24:60)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3) 또한 하갈은 사래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며 자신으로 말미암아 아브람의 부인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리라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른다. 결국 사래는 자신의 계획에 자신이 얽매이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4) 이처럼 인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5)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악한 생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들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할 것이다(참조, 마 11:28).

8. **㉠**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셨는가? (4절)

- Ⓐ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이다(2:18-25).
- (2) 구약 시대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다.
- (3)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따라서 그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성행되었다(참조, 29:21-30; 사8:30). 이것은 그 범죄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징벌을 내리시지 않은 것뿐이다.
- (4) 즉 하나님께서는 일부 다처제를 묵허(默許)하신 것이다. 이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허용(허락)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문책하지 않고 그들의 장점만 보셨다는 의미가 된다.
- (5)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리에 어긋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그 일을 치름으로 인해 겪게 될 고통과 비극마저 거두어 가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호응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에는 거기에 반드시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이 따르게 마련이다(참조, 30:1; 삼상 1:6).
- (6) 한편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일부 다처제는 분명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좋게 생각하거나 그 제도를 실제로 실행하는 자는 분명히 간음을 행한 것이 되며 그 간음은 육체적인 죄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서운 형벌을 감당해야만 하는 죄악이다(참조, 마 5:31, 32; 히 13:4).

9. ⓐ 사례가 하갈로부터 멸시됨 받고 남편에게 그 욕을 들리려는 자세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4, 5절)

- Ⓐ (1) 그녀의 이러한 태도에는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간사한 인간의 속성이 드러나 있다.
- (2) Living Bible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과오입니다’ (It’s all your fault)라고 묘사되어 있다.
- (3) 보편적으로 인간이 갖는 책임 회피의 악한 성격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3:13, 14). 즉 이것은 범죄의 결과로 빚어진 인간의 치부(恥部)이다.
- (4)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을 인간의 본성 탓으로 돌리지 말고 오히려 자신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반성과 더불어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는 일을 기꺼이 해야 한다. 성도는 매사에 책임질 줄 아는 자로서 생활해야 한다.

10. ⓐ 사례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어떠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다짐하였는가? (5절)

- Ⓐ (1) 사례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 맡겨 버리고 의연하게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비쳤다.
- (2) 언뜻보면 사례의 이 말은 자신의 행위와 아브람의 행위를 하나님의 공의(公義)에 따라 판단받으려는 정당한 언급으로 보인다.
- (3) 그러나 사례는 자신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참된 자아 성찰도 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미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 것이다(참조, 사 11:27; 삼상 24:15).
- (4)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죄로 규정하셨다(출 20:7).
- (5) 오늘날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그럴듯한 대의 명분(大義名分)을 내세워 자신의 추악한 계획을 추진해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교회라는 체제 안에서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곤 한다. 이 모든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중죄이다.

11. ⓐ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는 아브람의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6절)

- Ⓐ (1) 당시의 사회 관습에 따르면 하갈을 종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사례의 정당한 권리였다.
- (2) 따라서 이 말은 아브람이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례의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이다. 즉 이 말은 사례가 하갈을 다시 종으로 환원시켜도 좋다는 의미이다.
- (3) 또한 이 말은 하갈을 통하여 약속의 후손을 얻으려 했던 아브람과 사례 자신들의 계획(2절)이 잘못되었다는 스스로의 시인(是認)이기도 하다.

12. ⓐ 하갈이 아브람의 가정에서 도망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라(6절).

- Ⓐ (1) 이제 하갈은 첩의 신분에서 다시 종의 신분으로 전락되어 사례의 확대를 받게 되었다.
- (2) 이처럼 사람을 멸시하였던 하갈의 교만한 태도는 첩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람의 가정은 평화가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계속되었으니 사례의 확대를 피해 마침내 하갈이 도망가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 (4) 이러한 사실은 곧 죄의 결과는 번민이며 그 번민은 고통만 가져다 줄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 (5) 결국 사례의 인간적인 계획과 아브람의 무책임한 행위 그리고 하갈의 교만은 모두 죄악을 가중(加增)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13. ⓐ 도망하던 하갈은 노상(路上)에서 누구를 만났으며 그는 하갈에게 무슨 질문을 하였는가? (7, 8절)

- Ⓐ (1) 하갈은 '여호와와 사자' 곧 현현(theophany)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 (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셨다. 이 말은 아브람의 장막은 축복받은 장막이므로 그곳을 다시 기억하여 돌아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셨다. 이 말은 죄악과 우상 숭배가 심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뜻이다.
- (4) 결국 이러한 질문에는 하갈이 아브람의 가정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일이 옳지 않으므로 다시 아브람의 장막으로 되돌아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 (5)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음에는 하갈의 후손도 훗날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때에(참조, 행 11:1)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다.

14. ⓐ 하갈이 천사를 만난 곳은 어디인가? (7절)

- Ⓐ (1) 술(Shur) 광야 길이다. 이 길은 팔레스틴과 애굽을 연결하는 험한 소로(小路)로서 팔레스틴에서 이 길을 따라 애굽까지 가는 데 5, 6일이 소요된다.
- (2) 아마도 하갈은 애굽 여자였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하여 고향으로 가려고 하였던 것 같다. 그런데 이곳에 나타난 여호와와 사자는 하갈에게 그녀가 사례의 여종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 (3) 이에 하갈은 즉시로 사례가 그녀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교만했던 사실을 시인하고 회개하였다.
- (4) 당시 종의 참된 자유는 도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에 의해서만 획득되었다(참조, 신 15:12-18).

15. ⓐ 하갈은 여호와와 사자로부터 어떤 약속(축복)을 받았는가? (10절)

- Ⓐ (1) 하갈의 자손이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았다.
- (2) 그녀가 아들을 순산하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 (3) 또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동방 곧 고대의 근동 지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

았다.

- (4) 한편 하갈이 여호와와 사자로부터 받은 이러한 약속은 도망질을 포기하고 사래에게로 돌아가려고 결심한 그녀에게 있어서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 (5) 여기서 우리는 비록 한 때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그 이후에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잘 알 수 있다(참조, 눅 15:11-23).

16. **㉠**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11절)

- ㉠** (1) 이스마엘이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인데 이는 곧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의미이다.
- (2) 한편 성경상에서 이것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지어진 첫번째 경우이다(참조, 17:19; 왕상 13:2; 대상 22:9; 마 1:21; 눅 1:13).
- (3) 이 이름을 통해서 볼 때 하갈은 경건한 아브람과 동거하면서 그의 여호와 신앙을 답습하였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 (4) 그러기에 고통 중에서도 낙망치 않고 항상 기도한 하갈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것이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눅 18:7).

17. **㉠** 이스마엘이 들나귀처럼 살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12절)

- ㉠** (1) 여기서 ‘들나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페레>인데 이는 길들이지 않은 야생 나귀를 의미한다.
- (2) 이 들나귀는 주로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아라비아 지역에서 많이 서식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성질이 급하고 동작이 빨라서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이 인적이 없는 광야를 돌아다니는 습성을 갖고 있다.
- (3) 따라서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될 것이라는 말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베두인(Bedouin)들이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유목민으로서 자유롭게 이동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뜻한다.

18. **㉠** 여호와와 사자를 만난 후 하갈이 부른 하나님의 성호는 무엇인가? (13절)

- ㉠** (1)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엘 로이>인데 ‘내가 본 하나님’ 또는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 (2) 그러므로 이 말에는 ‘내가 나의 눈으로 확인한 하나님’이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살펴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살펴보신다’는 의미가 있다.
- (3) 아뭏든 하갈이 하나님의 성호에 대하여 이렇게 외친 사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놀라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9. **㉠** 브엘라해로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14절)

- ㉠** (1) 하갈이 여호와와 사자를 만난 곳의 샘물 이름이다.
- (2) 여기서 ‘브엘라해로이’(Beerlahai-roi)란 말은 ‘나를 보시는 산 자의 우물’이란 뜻이다.
- (3) 이 샘물이 있는 곳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의 광야이다.
- (4) 이곳은 브엘세바의 남쪽에 위치하였으니 오늘날의 ‘아인 가데스’에서 그 샘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20. **㉠** 아브람은 이스마엘을 비롯하여 많은 아들을 낳았었다. 그 행적을 연령별로 간단히 서술하라 (16절).

- ㉠** (1) 75세 :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하다 (12:4).
- (2) 86세 : 아브람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다 (16:16).

(3) 99세 :아브람과 사래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다 (17:1-15).

(4) 100세 :아브라함이 사래에게서 이삭을 낳다 (21:1-5).

(5) 137세 이후 :아브라함이 사래의 사후(死後) 후처 그두라에게서 6명의 서자(庶子)를 낳다 (23:1;25:1,2).

21. **㉠** 갈 4:23에서는 이스마엘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16절)

㉠ (1) '육체를 따라 난 자'로 묘사하고 있다.

(2) 이것은 약속을 따라 난 자인 '이삭'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된 말이다.

(3)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말은 율법 아래 곧 저주 아래에서 난 자들로서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을 의미한다.

(4) 궁극적으로 '육체를 따라 난 자'란 믿음 없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며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

22. **㉠** 하갈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선 그녀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7-1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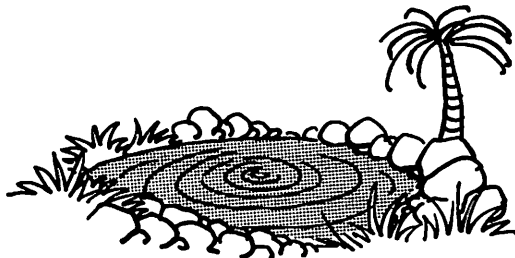
㉠ (1)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다. 하갈은 본래 애굽 여자로서 우상 숭배하는 범죄의 백성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선 그녀를 아브람의 가정으로 인도하시어 여호와 신앙으로 훈련받게 하셨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것을 뜻한다.

(2) 그리고 기본적인 순종을 가르치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갈로 하여금 다시 아브람의 가정으로 돌아가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이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다.

(3)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게 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 때 마음속으로부터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다. 그러나 불평만 하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배은 망덕한 자들이다.

(4)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고 은혜를 망각하면 불평이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살전 5:18).

본장의 요절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14절).

연구자료

성경적인 결혼관. 고대 세계에 있어서 결혼의 형태는 다양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취해진 것들이므로 성경에서 언급하는 결혼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관지어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성경은 그 당시의 다양한 결혼 형태, 즉 일부 다처제(一夫多妻制, 참조, 3절; 29:18, 25, 30; 30:1-5; 삼하 5:13-16; 왕상 11:1, 3; 대하 11:21 등) 나 모계 중심적인 결혼(참조, 24:28; 룻 1:8; 아 3:4)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율법은 일부 일처제(一夫一妻制) 및 가부장제(家父長制)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출 20:17; 21:5; 레 18:8, 16, 20; 20:10; 민 5:12; 신 5:21; 22:22; 24:5 등). 이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창 2:24) 하나님의 명령 및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씀과(고전 11:3) 조화되며 이혼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던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한다(마 5:32).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께서는 영이 유여하여도 한 영혼밖에 짓지 아니한 사실을 밝히면서 그분께서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수립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다고 말했다(말 2:15). 한편 아브라함은 애굽인 여종을 첩으로 취함으로써 평온했던 자신이 가정에 불화가 싹트고 있음을 깨닫고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좇아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 내었다(21:1-21). 그리고 다윗 왕도 많은 처첩을 두었으므로 수많은 자녀를 낳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녀들이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를 반역하기도 하였던 것이다(삼하 15장).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도 예외는 아니었다. 또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바알을 섬기는 왕후로 인해 술한 잘못을 범하여 선지자 엘리야의 책망을 받았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로서의 권위를 상실했을 때 발생한 불행의 대표적인 예이다. ‘남편’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알>은 ‘주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 준다. 한편 성경은 혼인 전의 순결(처녀성)을 율법으로 규명했다. 즉 혼인식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부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의식이 있었다. 여기서 신부의 처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녀의 아버지 집 문 앞에서 성읍 사람들에 의해 돌로 쳐죽임을 당했다(22:13-21).

결론적으로 결혼은 안식일 및 노동에 관한 규례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정하여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회적 관습에 따라 결혼을 습관적으로 이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 질서를 세우는 의미에서 이를 신성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제 17 장 아브람이 새 이름을 받다

단락구분 1-4 언약의 갱신 / 5-8 아브라함이란 새 이름을 받다 / 9-14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 15-22 사래의 개명(改名)과 이삭 탄생 예언 / 23-27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다

1 아브람의 구십 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3 아브람이 었드린대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4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지라

5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좃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좃아 나라라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 하였음이니라

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

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 아브라함이 었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 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증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열 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2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23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성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24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베 때는 구십 구 세 이었고

25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베 때는 십삼 세이었던라

26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성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 ◎ 본장이 지니고 있는 의의에 관하여 말해 보라.

㉠ (1) 본장에는 아브람과 사래의 이름이 각각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는 사건과 함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할례를 시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와 같이 아브람과 사래의 이름이 바뀌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이 할례를 시행한 것은 일종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어 늘 그들을 따라다니게 될 것을 뜻한다.
- (3)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리라는 약속(13:16; 15:5)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당시 적자(嫡者)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되었다.
- (4) 또한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좇아 믿음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게 되었으니 이로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2. ㉠ ‘아브람의 구십 구세 때에’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1절)

- ㉠ (1) 전장(16장)의 사건이 일어난지 13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을 뜻한다.
- (2) 따라서 이스마엘은 아브람의 나이 86세 되던 해에 출생하였으니(16:16) 아브람의 나이 99세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가 된다.
- (3) 이처럼 전장과 본장과의 시간적 간격은 13년이나 되는데 그 기간에 관해선 성경상의 언급이 없는 이유는 그 동안 아브람에게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4) 그러나 칼빈(Calvin)과 같은 학자는 그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지 않은 것은 아브람의 축첩 행위(蓄妾行爲)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으로 이해한다.

3. ㉠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는 말씀을 아브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무엇인가? (1절)

- ㉠ (1)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 샤푸다이>인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호칭이다.
- (2) 이처럼 본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4-6절; 13:16; 15:4, 5)을 이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기 위함이다.
- (3) 즉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근본 의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노쇠한 아브람을 통하여서도 능히 자손을 번성케 하실 수 있음을 주지(周知)시키시기 위함이다.

4. ㉠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확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하여 서술해 보라(1-8절).

- ㉠ (1)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한다. 즉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함과 대조되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속성이다.
-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될 것을 요구하셨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으로서로는 도저히 이르지 못할 영역이다. 따라서 여기서 요구되는 완전은 신적 완전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 (3) 신적 완전은 무한성(無限性)을 가지는 반면 인간에게 요구된 완전은 완전을 지향(志向)하는 노력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완전하게 된 결과를 요구하시지는 않지만 인간이 완전하게 되도록 노력할 것을 엄숙히 요구하신다(마 5:48).

5. ㉠ 아브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엎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아브람이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땅에 완전히 대고 엎드린 것(참조, 17절)은 경외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자세이다(참조, 왕상 8:54).
- (2) 이로 볼 때 아브람은 지난날 자신의 축첩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가정 불화 및 모든 잘못(16:3-6)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청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순전한 삶과 하나님께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4)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은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자세라 하겠다(참조, 렘 2:19).

6. **㉠** 아브람이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4, 5절)

- ㉠** (1)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high father)라는 뜻이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a father of many nations)라는 뜻이다.
 (2)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에는 아브람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3) 이와 같이 아브람의 이름이 바뀐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증이다. 즉 이것은 아브람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구원 역사에 대한 전조(前兆)이자 증거인 것이다.
 (4) 또한 이것은 아브람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히 11:8-19).

7.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인가? (6절)

- ㉠** (1)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며 열왕(列王)이 그에게로부터 나리라는 것이다.
 (2)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고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알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3) 하나님께선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에도 이러한 축복을 주셨고(1:28),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이σμα엘(20절), 이삭(26:4, 24), 야곱(28:3) 그리고 요셉(48:4)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셨다.
 (4)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같은 축복은 결국 이σμα엘과 그두라(25:1-6), 에서(36:9)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49장)를 통하여 성취되었던 것이다.
 (5) 한편 열왕이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좇아 나리라는 말은 그의 후손들이 여러 나라를 형성하게 되리라는 의미와 함께 그 나라의 유명한 통치자들도 그의 후손 중에서 배출되리라는 의미이다.
 (6) 이 같은 예언은 특히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결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8. **㉠** ‘나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은 오늘날 성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8절)

- ㉠** (1) 이 약속은 일차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적용된다. 즉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약속이다.
 (2) 그러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생활하여야 한다.
 (3) 이 말은 또한 성도가 생명의 유업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선 생명이시므로(요 14:6) 이런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계 21:6, 7).

9. **㉠** ‘할례’란 무엇인가? (10-14절)

- ㉠** (1) ‘할례’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몰로트> 그리고 헬라이어로는 <페리토메>인데 여자적(如字的)으로 ‘등글게 자르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2) 이는 남성 생식기의 끝 부분을 덮고 있는 표피를 인위적으로 잘라 내는 것을 가리킨다.
 (3) 이러한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유행되어 있던 풍습이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었다.
 (4) 한편 이 할례는 오늘날에도 일부 아프리카 사회에서 남자가 성년에 이르는 의식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10.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1)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는 표로 삼게끔 하시기 위함이 있다.

(2) 즉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그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들 간의 언약 관계를 성립시키며 확증시키기 위함이었다.

(3) 그러므로 할례를 시행하는 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11. Ⓢ 언약의 표징으로서 양피를 베는 할례에는 어떠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가? (11절)

Ⓐ (1)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다.

(2)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3) 또한 그들로 하여금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뜻이 있다.

(4) 게다가 이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상기시켜 준다.

(5) 마지막으로 이것은 신약 시대 교회의 세례에 대한 예표(豫表)가 된다.

12. Ⓢ 할례의 대상은 누구이며 생후 며칠 만에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는가? (12절)

Ⓐ (1) 할례의 대상은 남자이며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도록 되어 있다.

(2) 여기서 말하는 남자란 아브라함의 후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향(믿음) 아래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3)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보편적 성격을 지녔음을 나타낸다.

(4) 이 할례는 육체적 정결을 이루기 위한 의식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죄악을 벗어 버린다는 근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참조, 롬 2:25).

13. Ⓢ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어떻게 되는가? (14절)

Ⓐ (1) 백성 중에서 끊어짐을 당한다.

(2) 이 말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이다.

(3) 물론 할례 자체가 신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의식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준수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 이것을 경홀(輕忽)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는 자로서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4) 이러한 사실은 곧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14. Ⓢ 할례에 대한 신약 시대 초기(초대 교회)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9-14절)

Ⓐ (1)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면서부터 할례 문제는 초대 교회의 주된 논쟁거리가 되었다.

(2) 즉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행 15:1)는 잘못된 주장이 횡행(橫行)하였다.

(3) 이에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였으며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행 15:1-6).

(4) 회의 도중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음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사도들은 그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5) 이러한 토의 결과 예루살렘 회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하였다(행 15:19, 20).

(6) 한편 할례의 의미와 그 기능에 대하여 신학적인 견해를 제시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다.

15. Ⓢ 사도 바울이 말한 할례의 기능과 의미는 무엇인가? (9-14절)

Ⓐ (1) 사도 바울은 롬 4:9-13에서 할례와 의(義)의 문제를 설명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그의 할례 이후가 아니라 할례 이전이었으므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즉 구원을 얻는 것은 할례나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의거한다고 주장하였다.

(2) 따라서 아브람이 받은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확인하는 증표에 불과한 것이다.

- (3) 이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표면적이며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 (4)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할례를 대신하는 것은 세례이다. 그러나 이것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세례는 단지 믿음과 구원의 징표일 뿐이다(참조, 행 8:36).
- (5) 그러므로 세례는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다만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된 것을 상징하는 역할만을 하게 되는 것이다.
- (6) 즉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축복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그 믿음의 증표가 되었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세례가 그들의 믿음의 증표가 되는 것이다.

16. **㉠**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15절)

- ㉠** (1) '사래' 라는 이름이 '사라' 로 바뀌었다. 여기서 '사래' 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 또는 '여 주' (女主)인데 반해 '사라' 라는 이름의 뜻은 '공주'이다.
- (2) 이처럼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부인으로서만의 한정된 지위를 가졌음을 뜻하던 '사래'라는 이름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위를 가졌음을 의미하는 '사라'로 바뀐 것이다.
- (3) 여기서 우리는 '아브람'이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과 같은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사라를 통하여서 민족의 열왕이 나리라는 것은 곧 그녀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5).

17. **㉠**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15, 16절)

- ㉠** (1)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인데 이는 이스마엘의 경우와 같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지어진 두번째 경우이다(참조, 16장 ㉠16).
- (2)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는 자' 또는 '그가 웃는다'이다. 이 같은 이름이 붙여진 까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삭 출생의 예언을 전해 듣고 웃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소식을 들은 사라도 이에 대하여 웃음으로 반응하였다(18:12).
- (3) 이것은 분명히 일순간적인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4-6, 16절)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경책(經責)을 듣고서는 이내 자신들의 불신앙을 떨쳐 버리고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받아들였다(참조, 23절; 18:15).
- (4) 그런데 랑게(Lange) 같은 학자는 아브라함의 웃음이 불신앙에서 비롯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에서 비롯된 신앙에 찬 웃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5) 하지만 그 같은 주장은 영적인 해석에 치우친 무리한 견해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하여 웃었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이스마엘이나 아무 탈없이 잘 자라기만을 하나님께 기원하였었기 때문이다.

18. **㉠** 이스마엘로부터 쫓아 나는 12방백은 누구 누구인가? (20절)

- ㉠** (1) 느바웃, 게달, 앓브엘, 밍삼, 미스마, 두마, 맛사, 하닷, 데마, 여들, 나비스, 게드마(25:13-15)이다.
- (2) 느바웃은 이스마엘의 맏아들인데 그의 후손은 사해에서부터 홍해 연안, 심지어는 멀리 바벨론 지역에까지 진출하여 그곳에 거주하였다.
- (3) 또한 게달족은 성경상에서 활을 다루는 데 익숙한 족속으로 언급되어 있는데(사 21:17) 아라비아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영위(營爲)하였다.

(4) 그외의 족속들에 관하여서는 단편적인 지식밖에 알 수 없는데 나비스족은 아마도 스 2:50에 나와 있는 '느부심(Nephusim) 자손'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19.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누신 후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22절)

-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시적(可視的)인 형상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계시를 전달하신 후 하나님의 본연의 무형상적 실체로 돌아가셨다는 뜻이다.
 (2) 이와 유사한 표현이 35:13에도 나오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시적인 형상을 취하시고 인간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신다.
 (3) 그러나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어떤 형상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은 일은 무한자(無限者)를 유한자(有限者)의 차원으로 강등시키는 행위이다.
 (4) 아뭏든 본절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형상을 취하시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시를 전달하셨다는 것이다.

20. ㉠ 아브라함은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당일에 순종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주는 의미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라(23절).

- ㉠ (1)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순종이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성도들 곁에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
 (2)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날에 자신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였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보여 준다. 그는 '열국의 아버지'로서 자격을 갖추어 만큼의 큰 믿음을 가졌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땅히 주저함이 없는 행동을 수반한 순종을 보여야 한다.
 (3) 한편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기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그의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이와 같이 큰 믿음을 가진 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땅히 본받아야 할 점이라 하겠다.

본장의 요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0절).

제 18 장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단락구분 1-8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다 / 9-15 거둬진 이삭의 탄생 예언과 사라의 웃음 / 16-21 소돔에 대한 심판 예언 / 22-33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

1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 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시 마옵시고
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5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6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 아브라함이 뼈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있을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1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12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16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더불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0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2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24 그 성중에 의인 오십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25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26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오십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27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28 오십 의인 중에 오 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오 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사십 오 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사십 인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사십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30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삼십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31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이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이십 인을 인하여 멸

하지 아니하리라

32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십 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십 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 ㉠ 본장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인간의 형상을 취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이삭을 통한 구원의 언약을 확약하셨다(18, 19절).
 (2)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한 심판을 통고하셨는데 이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사는 죄인들을 위하여 담대하게 도고(禱告)의 기도를 드리었다(24-32절).
 (3) 이처럼 본장의 내용은 크게 둘로 나뉘어지니 1-20절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교통(交通)에 대해서, 21-33절은 이웃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4) 한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삶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족히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다. 그리고 이웃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며 이웃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치 아니하는 자로서는 진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5)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성도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2. ㉠ 아브라함이 본 세 사람은 누구인가? (2절)

- ㉠ (1) 여기서 세 사람이라고 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으로서 한 분은 하나님이고 나머지 둘은 천사이다.
 (2) 즉 세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三位一體)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두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수행한 것을 뜻한다.
 (3) 이처럼 하나님과 천사가 가시적(可視的)인 사람의 형상을 취한 이유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함일 뿐이다(참조, 17장 ㉠ 19).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형상적이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자로서 그 본연을 드러내신다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그분을 완해(完解)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3. ㉠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길 가는 나그네를 천사로 알고 대접하였는가? (3절)

- ㉠ (1) 아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들을 평범한 나그네인 줄로만 알았었다.
 (2) 이 일은 아브라함이 평상시에도 나그네 대접하기에 힘썼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3) 히 13:1은 이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아브라함이 부지중(不知中)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였다. 즉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항상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이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4) 이처럼 성도들은 자신과 이해 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외로운 사람이나 나그네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을 돌보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참조, 출 22:21-24).

4. ㉠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였는가? (1-8절)

- ㉠ (1) 매우 겸손하고 정중하게 대접하였다.
 (2) 나그네가 성가실 정도로 극진하게 대우하였다.
 (3) 또한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면서도 어디까지나 겸손하고 소박함을 잊지 아니하였다.
 (4) 한편 당시 아브라함은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으니 이러한 위치에 있는 그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그의 겸손한 인격을 잘 나타내 보여 준다.

5. ㉠ 아브라함이 세 나그네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 (1) 이 말은 아브라함의 겸손한 인격과 그들을 대접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나타낸다.
 (2) 공동 번역은 이 말을 ‘괜찮으시다면’이라고 번역하였고 Living Bible은 ‘제발 부탁드리는데’라고 번역하였다.
 (3)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남을 대접하면서도 오히려 대접받는 자보다 더욱 겸손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4) 여기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보게 된다. 즉 선을 행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아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의 원리이다(마 6:1).

6. Ⓞ 나그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절)

- Ⓐ (1)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에 방문하면 제일 먼저 그 손님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일반적인 풍속이었다.
 (2) 그리고 인도에서는 피곤한 여행자의 발을 씻어 주는 일이 손님 접대에 있어서의 최상의 예우(禮遇)였으며 팔레스틴에 있어서도 역시 그러했다.
 (3) 또한 고대 애굽인 가운데서도 부자들은 이러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금으로 만든 대야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4) 이상에서와 같이 나그네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은 나그네 대접에 있어서 최고의 대접을 한다는 의미이다.

7. Ⓞ 고운 가루 3스아를 오늘날의 용량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가? (6절)

- Ⓐ (1) ‘스아’(seah)라는 말은 히브리어 <세아>를 우리 말로 음역한 것이다. 1세아는 히브리어 용량으로 1/3 에바(ephah)이며 오늘날의 용량으로 7.33ℓ가 된다.
 (2) 그러므로 3스아는 약 22ℓ가 된다. 한편 여기서 ‘고운 가루’란 보통의 음식용 가루를 의미한다.
 (3) 그리고 이러한 가루로써 급히 떡을 만들었으니 이 떡은 발효시키지 않은 무교병(無酵餅)이었음에 틀림없다.
 (4)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참조, 고전 5:6)이 들지 않은 떡, 이로써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공제(供饋)하였다는 것은 자못 의미 심장한 일이다.

8. Ⓞ 하나님과 천사가 아브라함이 공제한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하여 설명하라(8절).

- Ⓐ (1) 그들이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다만 그들이 먹는 척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것은 마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신 것과 같은 행위이다(눅 24:41-43).
 (3) 물론 초자연적인 실체(實體)이신 하나님과 천사가 굳이 음식을 들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꺼이 음식을 드신 까닭은 아브라함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었다.
 (4) 이와 같이 성경상에서 볼 수 있는 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행동을 취하시는 이유는 대부분 인간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다(참조, 17장 ㉑ 19).

9. Ⓞ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대접한 음식은 무엇인가? (8절)

- Ⓐ (1) 버터와 우유 그리고 요리한 송아지 고기이다.
 (2) 그런데 여기서 ‘버터’(butter)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므아호>는 응고된 우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우유 속의 지방을 분리시켜 응고한 오늘날의 버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3) 그러므로 RSV와 NIV는 이 말을 ‘용유’(凝乳, curd)로 그리고 공동 번역은 ‘영긴 젓’으로 번역하고 있다.
 (4) 물론 이와 같은 음식들이 당시 최상의 음식물은 아니었지만 촉급한 시간 중에서 아브

라함이 최선을 다한 것이었으니 이로써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접은 절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다.

10. **㉠** 사라가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 (1) 자신이 속으로 웃은 사실이 드러났고 은밀히 말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2)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경스럽게 웃은 사실을 기억하고 당황하여 더욱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3) 그러므로 이러한 사라의 자세는 조금 전까지의 자신의 불신앙을 뉘우치는 태도로 이해될 수 있다.
 (4) 이 같은 사실은 훗날 그녀가 이삭을 낳고서 이날의 과오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신앙에 찬 웃음을 웃은 것(21:6)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11. **㉠**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나그네들은 어디로 갔는가? (16절)

- ㉠** (1) 소돔 성으로 갔다.
 (2) 이 소돔은 사해 남단에 있는 소알 성읍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성경에는 소돔이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과 더불어 싯딤 골짜기에 있었던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14:2, 3).
 (4) 그런데 소돔 성의 사람들은 극도로 타락하였으므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소돔은 '죄악의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다.
 (5) 특히 그 당시 소돔의 성적 타락은 극도에 달했었으니 남색(男色)을 가리키는 말인 영어 단어 'sodomy'도 바로 여기서 유래하였다.

12.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성 멸망 계획을 알려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 (1)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이었다.
 (2) 더우기 그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道)를 지켜 의와 공평을 행하게' (19절) 할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언과 경고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다.

13. **㉠**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절)

- ㉠** (1)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 법적 호소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리고 이 같은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실 여부를 알아보시겠다고 하신 것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불의한 자들로부터 억울함을 당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3)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한 특성이다. 즉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분의 공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억울함을 당한 자들의 호소를 들으시는 긍휼은 그분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참조, 출 34:7).

14. **㉠**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특성은 무엇인가? (20, 21절)

- ㉠** (1)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가증한 것이었다.
 (2) 그들이 지은 죄가 지극히 많았다.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범죄의 길에서 살았으며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범죄 지향적이었다(참조, 전 4:19).
 (3) 그리고 그들의 범죄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은 '벗은 것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만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악은 아무것도 없다(대하 16:9; 잠 15:3; 암 9:8).
 (4) 또한 그들의 죄의 퇴폐상이 지극히 특이하였다. 따라서 그 죄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었다.

15. **㉠** 아브라함은 처음에 의인 몇 명을 내세워 소돔에 대한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는가? (23, 24절)

㉠ (1) 의인 50명이었다.

(2) 당시 소돔 성의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소돔이 비옥한 평지에 위치했던 큰 성이었다는 점(참조, ㉠ 11)을 감안할 때 50명이라는 수자는 그 전체 인구 수에 비해 지극히 적은 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적은 수를 내세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인 50명이라도 크게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믿었기 때문이다.

16. **㉠**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라는 아브라함의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25절)

㉠ (1)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를 이루셔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언약의 은혜)에 의거하여 호소치 아니하고 재판상의 공정성에 의거하여 자비를 베풀 것을 간구하였다.

(2) 즉 아브라함은 악인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믿었던 것이다.

(3)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비록 적은 수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의인 때문에 소돔 성이 구원되리라는 확신을 가졌을 것이다.

(4)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성숙되기도 고차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는 맹목적이며 기복적(祈禱的)인 주술 신앙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선과 악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통찰하여 이에 강력하게 호소하였던 것이다.

17. **㉠**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세운 의인의 수는 몇 명으로 줄어들었는가? (24-32절)

㉠ (1) 처음에는 50인이었으나 45인, 40인, 30인, 20인 그리고 맨 나중에는 10인으로 줄어들었다.

(2) 그러나 소돔에 대한 아브라함의 안타까와 하는 심정이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더하도록 하였다.

(3) 실로 이러한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격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니 그의 중보(中保)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로 여겨지기에 충분하다.

18. **㉠**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2-32절)

㉠ (1) 첫째, 거룩한 용기이다. 아브라함은 긍휼과 사랑을 믿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호소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하게 그에게 나아갈 수 있다.

(2) 둘째, 신앙적인 겸손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능력과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면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서 간구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영혼은 그분의 긍휼 아래에서 늘 겸손해질 뿐이다(32:10; 삼하 7:18; 눅 7:6).

(3) 마지막으로 끈질긴 요구이다. 믿음의 자세로 끝까지 요구하는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마 15:22). 그러나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라 하겠다.

19. **㉠**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2-32절)

㉠ (1) 성도는 기도으로써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성도는 기도으로써 언제나 자유롭게 하나님과 더불어 선행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따라서 성도들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4) 또한 성도들은 언제나 이웃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기도하여야 한다.

20. **㉠**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의 신앙 인격은 어떠한가? (22-

32절)

- A (1) 아브라함의 간구는 동정심의 발로였다. 소돔에 대하여 무서운 징계가 선포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징계가 어떠한 성격의 것인가를 잘 알았을 것이다. 소돔 성이 당할 운명이 고통과 재앙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소돔 성에 대한 깊은 동정심에 사로잡혔다. 이처럼 그는 타인들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 (2) 또한 아브라함이 소돔 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기 때문이다.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소돔 성이 멸망하는 것은 당연했다. 왜냐하면 소돔의 죄악은 극에 달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공의보다는 사랑이, 심판보다는 긍휼이 더 고귀한 것임을 믿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함 3:2)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정신이 잘 반영된 기도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간구이다.
- (3) 한편 야고보도 이와 같은 정신을 잘 간파하였으니 그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약 2:13) 고 말하였다.

21. Q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연관지워 보라(22-33절).

- A (1) 소돔의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잘 반영하고 있다.
- (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 된 것, 즉 죄악의 담을 허시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희생하셨다.
- (3)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참조, 히 4:14-16).
- (4)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 그리스도께선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참조, 요 14:13-16).

화보자료

손님을 대접하는 유목민. 아래의 사진은 근동 지역의 유목민이 자기의 천막을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이다.



위의 사진과 같이 아브라함은 앉아서 손님들을 접대하지 않고 그들을 보자마자 몸을 땅에 굽혀 인사하고 영접한 것은(2절) 그의 겸손하고도 아름다운 성품을 잘 나타내 주는 한 증거이다.

연구자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 (Abraham)이란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17:5)이다. 그의 이름은 본래 ‘아브람’ (Abram, 고귀한 아버지)이었는데 그의 나이 99세 되던 때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셈의 후손인 데라(Thera)의 아들로써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Chaldea Ur)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그의 나이 75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다(12:1-5). 여러 가지 우여 곡절을 겪은 끝에 헤브론(Hebron)에 정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 번성의 축복과 함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약속하셨다(15장). 이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선민(選民)이 되었으며 그 증표로 할례 의식이 제정되었다(17:9-14). 이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Sarah) 간에는 약속의 자손인 이삭(Isaac)이 태어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100세였다(21:5).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75세를 더 향수(享壽)하였으니 사라를 상처(喪妻)한 것 외에는 비교적 순탄한 노년기를 보내다가 일생을 마쳤다. 그의 주검은 사라가 묻혀 있는 막벨라(Machpelah) 굴에 장사되었다(25:7-10).

2.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결코 인간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었다. 그는 바람직한 결혼 형태인 일부 일처 제도(一夫一妻制度)를 거스려 첩을 들으로써 가정 불화를 초래하였으며(16:1-6) 똑같은 거짓말을 2번이나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기도 하였었다(12:10-20; 20:1-18).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움 받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모든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에서 출생하였다(참조, 수 24:2). 그렇지만 그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2:1)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었다’ (히 11:8).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여 주셨다(12:7; 17:1-8; 18:1-33). 그리고 이러한 계시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義)로 여기셨다(15:6). 그 결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대하 20:7; 사 41:8; 약 2:23)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출 3:15; 마 22:32)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

리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경외심 때문이었다. 그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 및 경외심은 자신의 독자(獨子) 이삭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한 그의 믿음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다(22:1-18).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그분이 '천지의 주재시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14:22)이신 줄 알고 경외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릴 때마다 찬양과 기도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다(12:8;13:4). 즉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기도였던 것이다. 이 외에도 아브라함은 도량과 사랑이 풍부한 자였다. 그는 길 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셔 들어 극진히 대접할 줄 알았으며(18:1-8) 거주지를 정함에 있어서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는 아량을 베풀 줄 알았으며(13:1-12)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된 소돔 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 기도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었다(19:22-33). 결국 이러한 모든 점들이 그의 인간적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란 존호(尊號)를 얻을 수 있게 한 것이다.

3. 아브라함의 위치

아브라함은 약 4000년을 걸쳐 내려오면서 전세계의 종교에서 독특하고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오고 있다. 즉 그는 유대인들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조상으로, 이슬람교(Mohammedanism) 세계에 있어서는 위대한 선지자로 취급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에서는 그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의 한 사람으로 꼽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야기된다(시 105:5; 롬 4:13). 아브라함이 선민(選民)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사실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수차 강조되고 있다(사 51:2; 겔 33:24).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며(느 9:7) 그를 구속(救贖)했으며(사 29:22) 특별히 축복했다(미 7:20)는 사실이 의미 심장하게 나타나 있다. 외경 및 그 후기 문서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위대한 선지자이며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신과 인간 간의 계약을 맺은 사람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참조, 집회서 44:19-21). 탈무드(Talmud)에는 아브라함이 한 사람의 뛰어난 천문학자 또는 점성술사로서 동·서양의 왕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가르쳐 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뭇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 주신 계시(13:15, 16; 15:13-16)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이신 칭의(以信稱義)의 표본적인 인물로 설명한다(롬 4:1-16). 결국 이와 같은 모든 사실에 비추어 보아 아브라함은 못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제 19 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단락구분 1-3 롯이 두 천사를 대접하다 / 4-9 두 천사에 대한 소돔인들의 행패 / 10-13 천사들의 심판 선언 / 14-23 천사가 롯의 가족을 구출함 / 24-25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 26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 27-29 불타오르는 소돔과 고모라 / 30-38 모압족과 임문족의 기원

1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엎드리어 절하여

2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찌기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3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고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4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른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5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6 롯이 문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7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8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말라

9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겨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아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10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11 문 밖의 무리로 무른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12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13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 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15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한 더하심이었던라

17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8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21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22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23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24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향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25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없어 멸하셨더라

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27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여호와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28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웅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29 하나님들이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엮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엮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30 롯이 소말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말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31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좇아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없으니

32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참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33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

하였더라

34 이른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35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6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37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38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1)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마친 두 천사는 이제 소돔 성의 죄악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곳 성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자 마침 성문에 앉아 있던 롯이 그들을 발견하고서는 자신의 집으로 모셔 들어가 그들을 대접하였다(1-3절).

(2) 그런데 소돔 성의 거민들은 천사들의 용모를 보고서 정욕이 동하여 롯에게 그들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였다(5절).

(3) 소돔 거민들의 이러한 죄악은 결국 유향과 불에 의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초래하였는데(24, 25절) 그러한 와중에서도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4) 그 후의 내용은 모압족과 암몬족의 기원에 관한 것으로서 그들은 롯과 그의 두 딸 간의 근친 상간에 의해 형성된 족속이다(36-38절).

2. ㉠ 소돔 성에 도착한 천사는 몇 명이었는가? (1절)

㉠ (1) 2명이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3명의 나그네 중 1명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었는데 그분은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마치고서 하늘로 올라가셨다(18:33).

(2) 그리고 여기 소돔에 도착한 2명의 천사는 '분노의 천사'로서(참조, 삼하24:16) 장차 소돔 성을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파송되었다.

(3) 한편 이들 천사가 소돔에 도착한 때는 날이 저물 때, 즉 해가 기울고 어두워질 때였다.

3. ㉠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은 어디에 있었는가? (1절)

㉠ (1) 성문에 앉아 있었다.

(2) 고대 히브리인의 사회에서 성문은 재판, 사업 거래 또는 상업 등의 중심지였다(참조, 신21:19). 그래서 그 같은 성문에는 성 안에 살고 있는 지도층 인사들이나 불 일이 있는 사람들로 언제나 붐볐다.

(3) 따라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그가 소돔의 지도층 인사이었음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4. ㉠ 롯은 천사들을 보고서 어떻게 하였는가? (1절)

㉠ (1) 그는 천사들을 낚선 나그네로 알고 정중하게 영접하였다.

(2) 이러한 롯의 태도는 죄악의 도성인 소돔 성 사람들과는 전혀 구별된 의로운 행위였다.

(3) 천사들은 이러한 롯의 행위를 보고서 그가 의롭고 선한 사람임을 알았다.

(4) 이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도 비록 이 세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오히려 더욱 더 구별되며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

5. **㉠ 자기 집에 들어오기를 간청하는 롯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3절)**
㉠ (1) 나그네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그의 참다운 긍휼을 볼 수 있다.
 (2) 즉 그러한 롯의 행위는 나그네들이 거리에서 유숙하게 될 경우 방탕하고 폭력적인 소돔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알고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6. **㉠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싼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1)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은 완전한 사람의 형상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아름다웠던 것 같다.
 (2) 그러므로 동성애에 이끌린 소돔 사람들은 롯의 집을 에워싸고서 그들을 내어 놓으라고 아우성을 친 것이다.
 (3) 특히 이들이 노소(老少)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쌌다는 것은 소돔의 죄악이 넘쳐 흐른 것을 의미한다.
7. **㉠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5절)**
㉠ (1) '상관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이는 '안다'(know), 즉 '경험을 통하여 상대방을 안다'는 의미이다.
 (2)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이 '성 행위'(sexual intercourse)를 가리키는 완곡 어법으로 사용되었다.
 (3) 이처럼 동성애(同性愛)가 만연한 것은 소돔 성이 성적,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잘 보여 준다.
 (4) 성경상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죄악으로 간주(레 18:22)되어 왔으며 또한 인간 본성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다.
 (5) 모세의 율법에는 동성애를 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레 20:13) 성경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도 동성애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참조, 레 20:13; 롬 1:26, 27; 고전 6:9).
 (6) 한편 '남색'(男色)을 가리키는 말인 영어 단어 'sodomy'는 소돔 성의 타락한 성적 문란에서 파생된 말이다(참조, 18장 ㉠11).
8. **㉠ 소돔의 죄악의 특징과 현대인의 삶을 비교하라 (4-11절).**
㉠ (1) 소돔 사람들은 극히 비도덕적이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들의 방종한 생활 태도는 변태적인 것이었으며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용감하였다.
 (2) 특히 여기서는 공개적인 범죄 행위에 만족하는 그들의 사악성이 드러난다. 양심이 마비되어 부끄러움을 모르고(빌 3:19) 수치스런 죄악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그들의 심령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
 (3) 이처럼 폭력적이고 완고하며 자기 중심적인 죄가 소돔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었다.
 (4) 이상과 같은 소돔의 죄악상은 오늘날의 극히 비도덕적이고 현실의 안일과 쾌락을 추구하며 이기주의적인 현대인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양상이다.
 (5) 이러한 환경 속에 사는 성도들은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외롭고 고독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6) 소돔 성에 의인(義人) 열 명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의인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사랑을 우리는 죄악을 범하는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소돔을 벌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거울과 같은 교훈이 되어야 한다.
9. **㉠ 롯이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 (7, 8절)**
㉠ (1) 소돔 사람들에게 악을 행치 말라고 권유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나그네에게 무례

히 행하는 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가리킨다.

- (2) 그리고 두 딸을 줄테니 임의대로 하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죄악을 충족시켜 주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두 딸을 악의 희생물로 내어 주려는 그의 태도는 옳다고 볼 수 없다.
- (3)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목적과 더불어 수단이나 방법까지도 의로워야 한다. 뜻이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려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았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롯의 딸들이 죄악의 희생물로 던져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으며 또한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셨다.
- (5) 악을 방지하려고 또 다른 악을 도입하는 것은 역시 죄악이다. 그러므로 악에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는 복음적이어야 하며 신앙 안에서 의로워야 한다(참조, 롬 6:1-4).
10. **㉠**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는 소돔 사람들의 말을 통해 볼 때 그 동안의 롯의 생활은 어떠하였는가? (9절)
- ㉠** (1) 비록 본토인은 아니었으나 롯은 소돔 성에서 지도자로서 행세하였던 것 같다(참조, **㉠** 3).
- (2) 그러므로 그는 이전부터 그곳 사람들의 죄악에 대하여 경책하며 항의도 하였던 것 같다. 이 같은 롯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소돔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였을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이 앙심을 품게 되었을 것이다.
- (3) 그러기에 롯이 다시금 그들의 죄악을 저지하려 하자 '이놈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그들은 롯에게 대들었던 것이다.
- (4) 아몽든 롯의 경건한 생활과 마음가짐은 일전에 그가 아브라함과 같이 지낼 때(12:1-4) 받았던 신앙적 훈련의 영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었던 탓일 것이다.
- (5) 이처럼 평상시의 경건의 훈련은 신앙의 위기를 당할 때 우리의 신앙을 보호해 주며 죄악의 길로 빠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참조, 딤후 4:8).
11. **㉠** 자기 딸을 내어 주겠다는 롯의 제안에 대하여 오히려 롯을 해하려고 한 소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라 (9절).
- ㉠** (1) 이것은 롯 자신이 뿌린 씨앗에 대하여 스스로가 그 열매를 거두는 꼴이었다. 즉 악을 악으로써 진정시키려 하였던 롯의 제안은 오히려 소돔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더욱 자극시켰던 것이다.
- (2) 이처럼 어느 때이고 간에 악과 더불어 타협하는 것은 훗날 더욱더 큰 화(禍)를 초래할 뿐이다.
- (3)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고 권면한 것이다.
- (4) 물론 영적인 선한 싸움에 있어서 우리들이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다가 패하기 십상이지만 우리의 방패되시고 힘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더불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는 항상 승리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참조, 신 33:29).
12. **㉠** 롯을 해치려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11절)
- ㉠** (1)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다.
- (2) 그리하여 그들은 문을 찾으려고 허둥대었으니 이제 그들은 영적인 소경 뿐만 아니라 육신의 소경까지 되어 버렸다.
- (3) 이처럼 롯을 구하기 위하여 천사들은 그들의 능력을 나타내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완악하고 죄악된 상태에서 의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13. **㉠**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롯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공훈이 롯의 사위들에게까지 미쳤으나 그들이 그 은총을 무시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만다.
- (2)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설파(說破)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요일 4:5). 즉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 (3) 아뭏든 롯의 사위들은 세상 향락에 도취한 나머지 죄악으로 인해 임할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농담으로 받아들였었다. 한편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와 오고 있는 이때 성도들은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벧전 5:8).

14. **㉠** 소돔을 떠나라는 천사들의 말에 롯은 어떻게 하였는가? (16절)

- ㉠** (1) 즉각적으로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머뭇거렸다.
- (2) 본래 재물에 욕심이 많았던 그로서는 소돔에 자신의 수많은 재산을 놓아 두고서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 모양이다(참조, 13:1-11).
- (3) 이러한 롯의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노아(6:13-22)나 아브라함(12:1-4; 22:1-12)의 태도와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 (4) 그러나 누구든지 기억하여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신 28:1-6).

15. **㉠**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천사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16절)

- ㉠** (1) 롯과 그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서 그들을 소돔 성 밖으로 이끌어 내었다.
- (2)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그들에게 공훈(인자)을 더하여 주셨음을 뜻한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은혜로 롯과 그의 식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과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할 뿐이다.

16. **㉠** 천사들은 롯을 성 밖으로 이끌어 낸 후 어떤 경고를 하였는가? (17절)

- ㉠** (1)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다. 이것은 없어질 세상의 재물이나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경고이다.
- (2) 그리고 들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였다. 이것은 롯이 멸망받을 소돔 성에 가까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경고이다. 즉 이것은 그들이 멸망의 도성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어야 함을 가리킨다.
- (3) 또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였다. 이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즉 이것은 죄악의 도성과 구별되는 새로운 삶으로의 출발을 의미한다.

17. **㉠** 롯이 도망하여 우거한 성 이름은 무엇인가? (22절)

- ㉠** (1) '소알'(Zoar)이며 그 이름의 뜻은 '아주 작은 곳'이다.
- (2) 본래 이 성의 이름은 '벨라'(Bela, '삼키다'라는 뜻)였었는데(14:2, 8) 롯이 이곳으로 도망한 후에 '소알'로 바뀌었다.
- (3) 이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더불어 싯딤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었다. 혹은 소알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시에 함께 멸망되었다고 주장하나 성경상의 기록으로 볼 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다(참조, 23-30절).

18. **㉠** 소돔과 고모라의 성은 어떻게 멸망되었는가? (24절)

- ㉠** (1)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 모든 것을 불살랐다.

- (2)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을 의미한다.
- (3) 즉 이 불이 곧 여호와께서 나왔다는 것은 심판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 (4) 이처럼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거나 심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일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19. ㉠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되었는가? (26절)

㉠ (1)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이다.

(2)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동작으로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소돔에 있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까지도 의미한다.

(3)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 6:21)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경우와도 연관이 된다.

20. ㉠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실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26절)

㉠ (1)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헛된 것)을 동경하며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에 서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마음은 영적인 상태를 떠나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나타낸다.

(2) 그렇지만 이런 사실은 우리들에게 성도의 삶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어야 함을(눅 9:62) 교훈하고 있다.

(3)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무시한 결과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였듯이 비록 복음이 복된 소식이며 구원의 은총이긴 하지만 복음을 무시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21.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롯을 건지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29절)

㉠ (1) 소돔 성을 위해 간구하였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를 기억하셨다는 뜻이다(참조, 18:23-32).

(2) 이처럼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주신다.

(3) 특히 남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도고)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딤후 2:1-3).

(4) 한편 이렇게 하여 구원을 얻은 롯은 두 딸과 함께 잠시 소알 성에 머물렀다가 그 후 산에 올라가 굴에서 기거하였다.

(5) 이 산은 사해 동쪽에 위치한 모압 산이었는데 훗날 모압인들의 주요 거처 중의 하나가 되었다.

22. ㉠ '아버지로 딸미암아 인종을 전하자'는 롯의 큰 딸의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2절)

㉠ (1) 딸들의 도덕적 부패성을 느낄 수 있다.

(2) 즉 롯의 딸들은 소돔 성에 살고 있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 거민들의 죄악에 오염되었던 것 같다.

(3) 이는 주위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4) 그러므로 옛날 맹자(孟子)의 어머니는 아들의 교육을 위하여서 처음에는 묘지 근처로, 그 다음에는 시장 근처로, 마지막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하였다는 유명한 일화(逸話)도 있다.

(5)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항상 자신을 살펴 악에 물들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어두움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참조, 고전 11:31, 32; 엡 5:8).

23. **㉠** 롯의 큰 딸이 낳은 아들은 어떤 족속을 이루었는가? (37절)

- ㉠** (1) 모압 족속을 이루었다.
 (2) '모압'이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다.
 (3) 즉 그 말은 딸이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들에 의해 형성된 족속이 바로 모압족이라는 의미이다.
 (4) 이 모압 족속은 압복 강과 아르논 사이(신 2:20) 곧 사해의 북동쪽 지역에 거하였으나 후에는 아르논 남쪽에 거하던 암몬인에 의해 그곳으로부터 쫓겨났다.
 (5)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롯'은 이 모압 족속의 여자였다.
 (6) 그런데 모압 족속들은 '그모스'(Chemosh)를 그들의 신으로 섬겼다.

24. **㉠** 롯의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38절)

- ㉠** (1) '벤 암미'인데 그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의 아들'이다.
 (2) 이는 곧 그녀가 낳은 아들은 '같은 피의 후손', 즉 부모와의 근친 상간에 의해 태어난 자식이라는 뜻이다.
 (3) 그런데 암몬 족속은 모압족에 비해 약탈성이 강하고 이동적인 삶을 살았다(사 15, 16장).
 (4) 이렇게 불륜(不倫)으로 태어난 벤암미는 후에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신 2:19).
 (5) 한편 이 족속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받치는 '몰록'(Moloch)을 섬겼다(왕상 11:7).

25. **㉠** 술 취한 롯이 두 딸을 통하여 추악한 근친 상간을 범한 사실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30-38절)

- ㉠** (1) 롯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으나 소알의 주민들을 두려워하는 불신에 빠졌다. 그 결과 그는 동굴로 피신하여 자신의 딸들이 범죄할 수 있는 조건을 조장하게 된 셈이다. 지난 날 호기(浩氣)있게 소돔을 택한 롯의 말로는 과거에 비해 너무 처참하다. 즉 이제 그는 동굴로 피해 들어가 초라한 여생을 보내야만 된 것이다.
 (2) 물론 근친 상간 죄를 범한 롯의 딸들의 잘못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자신에 대한 긍휼을 체험한 롯이 방심하고 많은 술을 마신 것은 더 큰 잘못이었다.
 (3) 비록 술을 마시는 것이 죄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일에 무감각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오늘날 성도들도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금주(禁酒)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4) 술에 취했기 때문에 딸들이 자기와 더불어 동침한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롯의 죄악이 면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롯의 실수로 인한 죄악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한 민족들을 출현시켰다.
 (5) 소돔 성의 비도덕적이고 변태적인 죄악을 피해 구원받은 롯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수치스런 죄악을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주변의 사소한 실수와 죄의 영향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큰 죄를 범하도록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살전 5:22).

본장의 요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엮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엮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29절).

제 20 장 그랄로 이주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단락구분 : 1 아브라함이 그랄로 옮기다 / 2-7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 / 8-10 아브라함에 대한 아비멜렉의 책망 / 11-13 아브라함의 대답 / 14-18 아비멜렉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1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2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3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4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고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까

6 하나님께서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 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 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8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 하였더라

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관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함당치 않

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11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었

12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13 하나님께서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14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5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16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천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시라 생산케 하셨으니

18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달허셨음 이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대해서 살펴 보라.

㉠ (1)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한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아니기는 하다. 왜냐하면 사라는 사실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게서 태어난 이복 누이이기 때문이다 (12절).

(2)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점을 속이려 하였던 아브라함의 말은 명백히 거짓말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였다 (참조, 마 14:25-32).

- (4)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굳건한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방심하여 진리의 길을 이탈하게 되면 그 결과 무서운 잘못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 (5)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하여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경책하신 후(9, 10절) 다시금 믿음을 통한 의(義)를 그에게 덧입혀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이다.

2. **㉠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남방’ (south country)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겟>인데 ‘남쪽’이라는 뜻이다.
- (2) 일반적으로 성경상에선 팔레스틴의 남쪽 지방을 <네겟>이라고 칭하였다(12:9;13:1).
- (3)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18:1)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사한 까닭은 더 좋은 목장을 찾기 위함이었었던 것 같다.
- (4)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급작스런 풍요를 누렸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시기를 받아 그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나 남방으로 이주하였던 것 같다.

3. **㉠ 본절에 나오는 지명들에 관하여 살펴보라(1절).**

- ㉠ (1) 가데스(Kadesh) : 그 뜻은 ‘거룩한 샘’인데 일명 ‘가데스 바네아’(Kadesh-Barnea)라고도 불리운다(민 32:8). 이곳은 신 광야에 위치한 오아시스로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동안 머물기도 하였던 곳이다(신 1:46).
- (2) 술(Shur) : 또는 ‘수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성벽’이라는 뜻인 이집트어 <헤템>을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민 33:8에는 ‘술’이 ‘에담(Etham) 광야’라는 말로 지칭되어 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제일 먼저 거쳐간 곳이 바로 이곳이다(출 15:22).
- (3) 그랄(Gerar) : ‘거처’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곳은 팔레스틴 남부, 사해 서쪽에 위치하였던 조그마한 성읍이다(참조, 10:19).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을 피하여 내려갔던 땅이기도 하며(26:1-6) 또한 훗날 아사(Asa) 왕이 구스군을 추격해 왔던 곳이기도 하다(대하 14:13).

4. **㉠ 아브라함이 두번째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행동에 대하여 분석하라(2절).**

- ㉠ (1) 이것은 아브라함이 20년 전에 애굽에서 지은 죄의 반복이다(12:10-20). 이처럼 한 번 지은 죄는 쉽게 반복되어질 수 있다.
- (2) 그런데 그의 무익한 거짓말은 금방 탄로나고 말았다. 애굽에서 그의 거짓이 탄로나았을 때 그는 이방인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았었다. 여기서 우리들은 거짓말이란 반드시 드러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
- (3) 한편 아브라함의 이와 같이 잘못된 처신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거짓말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시행된 행위였다.
- (4) 즉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을 너무 두려워하여 그들을 감화시킬 염두조차 못낸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잘못을 범하였던 것이다. 아뭏든 우리는 공연한 의심과 두려움은 불신앙에 빠질 가장 큰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5. **㉠ 아비멜렉에 대해서 말하라(2절).**

- ㉠ (1) ‘아비멜렉’이란 말은 ‘아버지’란 뜻인 히브리어 <아브>와 ‘왕’이란 뜻인 <멜렉>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란 말은 ‘아버지 왕’ 곧 ‘왕은 그 나라의 아버지’라는 의미이다.
- (2) 이와 같은 말인 ‘아비멜렉’은 후일 블레셋 왕들의 칭호가 되었다(21:22;26:1;시 34 편).
- (3) 이것은 ‘바로’가 애굽 왕들의 칭호가 되었으며(창 12:15), ‘하물’이 세집 왕들의 칭호

가 된 것과 유사하다(창 34:4).

(4) 한편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를 저지하셨다.

6. **㉠**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하는 일이 부당함을 지적하셨다.
 (2)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방편으로 꿈을 사용하시는 일은 이방인들에게 대하여 특히 많았다.
 (3) 그러한 성경상의 예로서 우리는 바로의 꿈(41:1), 느부갓네살의 꿈(단 4:5)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이방인들에게 대한 꿈으로의 계시는 그 내용이 상당히 제한되었었다.

7. **㉠** ‘네가 죽으리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3절)

- ㉠** (1)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취한 사건은 외국인의 결혼권을 침해하는 죄가 된다.
 (2) 그리고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안에는 불임(不妊)의 화가 미쳤으니 이는 결국 ‘네가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적용된 사건이다.
 (3) 그러나 훗날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안에 임했던 이러한 불임의 화는 제거되었다(17절).
 (4) 한편 사라를 보호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장차 태어날 이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21:1-7).

8. **㉠**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는 아비멜렉의 질문은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가? (4절)

- ㉠** (1)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사실을 기억하고서 자신과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재앙이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2) 이것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3) 또한 이것은 아비멜렉이 살고 있던 성읍은 그 타락 정도에 있어서 주변의 성읍들에 비하여 다소 덜하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9. **㉠**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함에 있어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5절)

- ㉠** (1) 당시에는 왕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자기 내실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그의 말은 당시의 도덕적 표준으로 볼 때는 옳았을런지 모르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범하였다는 죄(참조, 7절)는 면하지 못할 것이다(참조, ㉠10).
 (3) 이러한 사실은 세상의 도덕적 표준이나 윤리적 기준은 그것이 아무리 합당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4) 그러므로 도덕적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참조, 롬 3:20).
 (5) 하나님의 도덕적 표준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가운데서만 가능하다(행 4:12).

10. **㉠**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칭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라(7절).

- ㉠** (1)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 또는 ‘영감(靈感)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2) 이 선지자들이 맡은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계

시를 받아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렘 10:1-5)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간에서 화해자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다(출 32:31, 32).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칭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한 것은 선지자의 거룩성과 하나님
 의 신성을 모독하는 범죄 행위였다.
- (5) 따라서 이러한 아비멜렉의 신성 모독 죄는 선지자 아브라함의 중재 기도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11. **㉠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아비멜렉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8절)**

- ㉠** (1)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아비멜렉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8절) 자신의 잘못
 을 신복들 앞에서 시인하고 그들을 주의시켰으니 이러한 그의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그의 겸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 (2)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솔직히 시인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또 다른 잘못을 종종 범하
 곤 하는 것이다.
- (3) 따라서 아비멜렉의 태도는 우리에게 참된 용기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 주고 있다. 자
 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자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죄함을
 받을 수 있는 제일 기본되는 자세이다(참조, 시 51편).
- (4) 그러므로 우리는 아비멜렉에게서 바로 이러한 자세를 배워야 할 것이다.

12. **㉠ 아브라함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다고' 책망한 아비멜
 렉의 말에 대하여 음미해 보라(9절).**

- ㉠** (1) 아브라함의 거짓된 말과 행위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은 간음죄를 범할 뻔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1가지 죄 곧 신성 모독 죄를 범하였다.
- (2)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불신앙적 행위는 언젠가는 불신자에게 수치를 당하고야
 만다.
- (3)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을 실족케 하는 자는 화를 면치 못한다. 남을 실족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마 18:6, 7).

13. **㉠ 족장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죄를 범한 것이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주는 교훈은 무
 었인가? (10-13절)**

- ㉠** (1) 아브라함이 비록 고상한 인격과 믿음을 소유한 자이긴 하지만 그도 역시 주변의 상황
 에 따라 범죄에 빠지었다. 이처럼 자기 주변에 있는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
 려운 일이다.
- (2) 또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이 처한 위기를 면하려 하였으나 결
 국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
- (3) 결국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의 삶도 믿음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삶으
 로만 일관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한다는 교훈을 준다.

14. **㉠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다'는 아브라함의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가? (11절)**

- ㉠** (1)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악을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다(잠 16:6).
- (2) 그러나 아브라함이 불신자의 행위를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한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잘못이었다.
- (3)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거듭되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
 시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일 수

밖에 없다.

15. ㉠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사회적, 종교적 위치를 비교하라(1-13절).**

- ㉠ (1) 아비멜렉은 한 족속을 다스리는 왕이며 그 백성의 아버지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었다.
 (2) 그리고 아브라함은 표면적으로는 유목을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언약을 받은 족장으로 '열국의 아버'가 되는 축복을 받은 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고귀한 신분의 사명자였다.
 (3)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두 맥을 이루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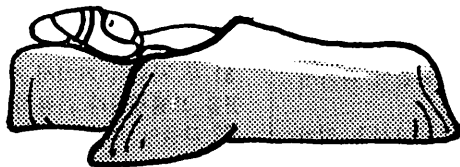
16. ㉠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은 천 개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속죄하는 속전(贖錢)으로 준 것이다.
 (2) 이것은 일종의 배상금이었다.
 (3) 또한 이것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아비멜렉의 화해의 선물이기도 하였다.
 (4) 한편 이와 유사한 보상 규제, 즉 속전 제도는 모세 시대에 이르러 공식적인 규제로 법규화되었다(참조, 신 22:28, 29).

17. ㉠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 (1) 자신의 거짓말과 아비멜렉의 불의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아비멜렉의 온 집안에 미쳤기 때문이다.
 (2)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란 아비멜렉의 온 집안에 생식 불능의 질병이 임한 것을 가리킨다(18절).
 (3) 이것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삭의 출생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4) 이리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으니 이에 아비멜렉의 집안에 미쳤던 하나님의 진노는 제거되었다.

본장의 요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3절).

제 21 장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축출

단락구분 1-7. 이삭이 태어나다 / 8-16.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다 / 17-19. 하갈을 위한 전사의 위로 / 20-21. 이스마엘의 성장 / 22-34.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청하다

1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였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 세라

6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리라

7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젓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8 아이가 자라매 젓을 떼고 이삭의 젓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9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 하는지라

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11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득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매워 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15 가족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 나무 아래 두며

16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 보며 방성대곡하니

17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22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3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4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5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능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26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27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8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2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쩍이뇨

30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31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32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으며

34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1. **㉠ 본장에 나오는 이삭 출생 사건의 의의에 관하여 살펴보라.**

- ㉠** (1) 본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간에 이삭이 출생함으로써 일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17:16;18:10).
- (2)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성취된 이삭의 출생은 그리스도 탄생의 한 모형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왜냐하면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로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영적 자녀들이 탄생케 되기 때문이다(갈 4:28-31).
- (3) 한편 본장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다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기사도 함께 실려 있는데 이것은 '성령을 따라 난 자'에 반하여 '육체를 따라 난 자'(갈 4:29)가 겪게 될 궁극적인 종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영적으로 상징해 주고 있다.

2. **㉠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 (1) 본래 '권고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파카드>인데 이는 '사랑으로 기억하다'라는 뜻이다(비교, 50:24; 출 4:31; 삼상 2:21).
- (2) 그런데 때로는 이 말이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의미할 때에도 사용되었다(참조, 출 20:5; 32:34).
- (3) 한편 KJV나 RSV에서는 이 말이 '찾아가다', '보러 가다' 등의 뜻(visit)으로 번역되어 있다.
- (4) 결국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셨다는 말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자신의 약속(17:16)을 기억하시고 그녀에게 잉태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의미이다.

3. **㉠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뜻한다(2절; 히 6:18).
- (2) 이처럼 성경은 생명의 잉태와 출산 또한 죽음 등과 같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다.
- (3) 아뭏든 사라의 잉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그녀의 믿음에서 비롯되었다(히 11:11).

4. **㉠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한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2절)**

- ㉠** (1) 이삭의 출생이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적 기간(17:21)을 가리킨다.
- (2) 이러한 언약적 기간에 의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태어나도록 되어 있다(17:17).

5. **㉠ 이삭의 탄생 사건이 지니고 있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1, 2절)**

- ㉠** (1)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거된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기한에 그분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2)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능력으로 성취되었다. 인간의 나약성과 절망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용기로 바꾸어 주셨으며 불가능한 상태를 가능한 축복으로 바꾸셨다.
- (3) 한편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인내의 신앙이 아름답게 승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하겠다.

6. **㉠ '이삭'이라는 이름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라(3절).**

- ㉠** (1)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는 자' 또는 '그가 웃는다'이다.
- (2) 이 이름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이름이다(참조, 17:19, 21).
- (3) 즉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리고 '시몬'이 '베드로'로 개명(改名)된 경우처럼 '이삭'이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주신 이름이다.
- (4) 이러한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 용모, 특징 등을 잘 반영하고 있다.

(5) 이삭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아들로써 온 가족들의 기쁨 중에 태어났는데 그는 단순한 한 가정의 계승자일 뿐만 아니라 먼 훗날 모든 민족에까지 확대될 언약의 상속자였기 때문에 이삭의 출생은 구속사적 의미에 있어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7. **㉠ 이삭은 언제 할례를 받았는가? (4절)**

- ㉠** (1)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준수자라는 표로서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삭도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2) 이삭은 언약의 아들로써 할례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할례 의식을 행하였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드시 할례 의식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17:9-14)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다.
 (3) 한편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증표가 되며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는 연유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이다.

8. **㉠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다'는 사라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6절)**

- ㉠** (1) 나이 많은 그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들을 낳은 사실에 대해 듣는 자들이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리라는 의미가 있다.
 (2) 그리고 이 말에는 먼 훗날 약속의 후손이신 메시아께서 탄생하심으로써 구속받을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9. **㉠ 아브라함이 대연(大宴)을 배설(排設)한 까닭은 무엇인가? (8절)**

- ㉠** (1) 당시에는 아이가 젖을 땔 때 종교 의식과 더불어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2) 그러므로 이때에 이삭의 나이는 세 살 가량 그리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열 일곱 살 가량이 되었을 것이다.

10. **㉠ 사라와 하갈로 인한 아브라함의 근심과 고통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9-21절)**

- ㉠** (1) 그 같은 근심과 고통은 아브라함의 가정 비극에서 오는 보응이었다.
 (2) 그리고 그 결과 사라와 하갈 사이에는 불화가 계속되었고 급기야 상속권 문제로 표면화되었다.
 (3)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첩을 둔 일로 인하여 비극이 초래된 것을 알 수 있다.
 (4)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은 분리되었으며 그는 그 후에도 분가(分家)된 하갈의 생활을 책임져야만 했다.
 (5) 아브라함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잘한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한 고통과 번민은 스스로가 감수해야만 했다.
 (6)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부 일처(一夫一妻)의 결혼 제도가 왜 준수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11. **㉠ 이스마엘은 왜 이삭을 희롱하였을까? (9절)**

- ㉠** (1) 이 일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일어난 듯하다.
 (2)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세 가량이었으니 이삭으로 인해 자신의 위치와 상속권이 깨어졌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3)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어린 동생 이삭을 희롱하며 못살게 굴었을 것이다.
 (4) 한편 이와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사실에 대해 신약 성경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다'고 기록하고 있다(갈 4:29).

12. **㉠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사라의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0절)**

- ㉠** (1) 이러한 일이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관습으로서는 이러한 요구가 합법적인 것이었다.

- (2) 그리하여 이스마엘의 상속권은 무효화되고 결국 이삭이 공식적인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되었다.
- (3) 그런데 이러한 일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요구를 받아들여도록 명하셨다.
- (4)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편에서 보면 매정하고 잔인한 일로 여겨질 수 있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장차 선을 이루게 됨을 깨달을 수 있다(롬 8:28).

13. ㉠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갈4:21-31에 의거하여 비교하여 보라(12, 13절).

- ㉠ (1) 이스마엘은 육신을 좇아 났고 이삭은 약속을 좇아 났다.
- (2) 이스마엘은 율법(법적 속박 상태) 아래에서 났고 이삭은 영적인 언약(은혜) 가운데서 났다.
- (3)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은 불신자들로 인하여 약속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꺾박당하는 것을 상징한다.
- (4)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헤어짐은 신자와 불신자의 궁극적인 분리를 말해 준다. 교회와 세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 (5) 성도들은 이스마엘처럼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다. 또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된 것처럼 성도들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14. ㉠ 하갈의 일로 인하여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와의 말씀은 무엇인가?(12절)

- ㉠ (1) '네 아이나 네 여종(첩)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 (2) 또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이것은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야가 날 것이라는 일종의 예언이다.
- (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에게서 12방백이 남으로써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25:12-16).

15. ㉠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보내는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본받을 점은 무엇인가?(14절)

- ㉠ (1)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해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선 그녀와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보냈다.
- (2)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난 후에는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번민하고 고통하던 그의 태도와는 다른 자세이다.
- (3) 한편 아브라함은 추방당하는 하갈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따뜻한 인정과 긍휼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으니 이스마엘에게 많은 재산을 주기도 했었다.
-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철저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함께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긍휼을 잊지 아니하는 그의 자비를 본받아야 하겠다.

16. ㉠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쫓겨 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디에서 방황하였는가?(14절)

- ㉠ (1)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였다.
- (2) 여기서 '브엘세바'란 이름의 뜻은 '일곱 우물' 또는 '언약의 우물'이다.
- (3) 이 브엘세바는 헤브론 서남쪽 약 44km 지점에 위치한 팔레스틴의 국경 도시였었다(참조, 삼상 3:20). 훗날 이삭은 이곳에 와서 살았다(26:23).
- (4) 특히 이곳은 하갈을 비롯하여 이삭, 야곱,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으로도 유명하다(21:17; 46:2; 왕상 19:5).

17. **㉠**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신 것에 대하여 음미하여 보라(19절).
- ㉠** (1)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샘물을 발견치 못했을 것이다. 이 샘물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생명의 샘이었다.
- (2)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혼의 샘물이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생의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참조, 요 4:10-14).
- (3)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우리를 지치게 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즉 믿음의 눈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축복을 얻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이다.
18. **㉠**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 난 이스마엘은 그 후 어디에서 살았는가? (20, 21절)
- ㉠** (1) 바란 광야에서 살았다.
- (2) 바란 광야는 시나이 반도의 동북부 지역으로서 가나안의 남쪽 경계와 애굽 사이의 브엘세바로부터 시작되어 가데스와 신 광야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의 명칭이다.
- (3) 이곳에서 그는 유랑 생활을 하면서 활 쏘는 자, 즉 사냥군으로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 (4) 또한 이곳에서 이스마엘은 하갈(어머니)과 같은 족속, 즉 애굽 여인을 맞아 결혼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라비아인들은 히브리인과 애굽인 간의 이중 혼혈 족이 되었다.
19. **㉠**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22절)
- ㉠** (1)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알고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 (2)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번성하며 그 세력이 날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알고서 그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아비멜렉과 비골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자 원하였던 것이다.
- (4) 한편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란 이름의 뜻은 '모든 자의 입(대변인)'이다.
- (5)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고자 원했던 것은 동맹 관계였다. 이는 그들의 생존과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20. **㉠** 아브라함의 우물이 누탈당한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한 사건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라(25절).
- ㉠** (1) 당시 팔레스틴에서 샘물의 소유권은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겨졌다.
- (2) 특히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은 물의 공급원을 빼앗기는 일이었다.
- (3) 그런데 아비멜렉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텃세를 부리며 강제로 빼앗는 일이 자주 있었다.
- (4)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을 마음에 두고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참아 왔던 것이다.
- (5) 그러나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동맹을 맺게 되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아비멜렉이나 그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알볼 수 없을 만큼 그의 세력이 크게 신장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누탈한 사실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한 것이다.
21. **㉠**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의 언약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물에 붙인 이름은 무엇인가? (31절)
- ㉠** (1) '브엘세바'이다.
- (2) 여기서 '브엘세바'란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의 우물'이란 뜻이다.
- (3) 특히 그 우물의 명칭을 '일곱의 우물'이라고 칭한 까닭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7마리의 암양을 주고서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 (4) 이 브엘세바는 현재 헤브론 남쪽 약 44km 지점에 있는 한 우물로 간주되고 있다.

22. **㉠**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후 어떻게 하였는가? (33절)

- ㉠** (1)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으니 이것은 신실한 언약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2)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 (3)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위는 믿음의 언약을 영원히 주관하시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간에게 안위와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 (4) 한편 에셀나무(tamarisk tree)는 위성류(渭城柳)를 가리킨다.

23. **㉠**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간의 언약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22-34절)

- ㉠** (1) 불신자인 아비멜렉은 성도인 아브라함이 장차 위대하게 될 것을 알고 그와 동맹 관계를 맺어 자신의 족속과 후손들이 안전하게 거하기를 희망하였다.
- (2) 그는 지혜롭고 정직하고 고귀한 사람이었다. 즉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아비멜렉에게는 두렵게 느껴졌으며 그 결과로 맺어진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은 평화와 안전을 가져 오게 되었다.
- (3) 이 언약이 있은 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두고 서로간의 언약이 지켜지기를 기원하였다.
- (4) 여기서 우리는 불신자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서로 협력하여 평화를 이룬 실례를 볼 수 있다.
- (5)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행실로 불신자를 감화시켜 그들과 평화를 나누어야 하고 나아가 그들에게 영적 진실과 믿음의 확실성까지도 증거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간의 언약이 지니고 있는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본장의 요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3절).



제 22 장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

단락구분 1-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요구하시다 / 3-10 아브라함의 순종 / 11-14 천사의 만류와 준비된 제물 / 15-19 시험 후의 축복 / 20-24 아브라함의 동생 나훔의 족보

1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4 제 삼 일 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는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11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은 대

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5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9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가하였더라

20 이 일 후에 흑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훔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21 그 말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22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브두엘이라

23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훔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24 나훔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1. ㉠ 본장에는 시험을 당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묘사되어 있다. 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1)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사랑하는 독자(獨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다(2절).

(2)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같은 시험을 당하여 놀라거나 당황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하나

님의 명령을 준행하려 하였다(3절).

- (3) 즉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하였을 때 믿음으로 행동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 목숨과도 같이 사랑하였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하였었다(10절).
- (4) 그러나 이 같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지켜 보신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 시험을 거두시고 그의 믿음을 의(義)로 여기시어 여러 가지 축복을 베푸시었다(11-18절).
- (5)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순종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첩경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2. ㉠ ‘그 일 후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 (1) 여기서 ‘그 일’이란 아브라함이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살면서(21:34) 겪었던 자신의 모진 시련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등을 가리킨다.
- (2) 따라서 우리는 ‘그 일 후’로부터 지금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결국 뒤이어 나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이제 이삭이 사흘간의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랐다는 것을 뜻한다.
- (4) 또한 이와 같은 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또 한번의 모진 시련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연단의 시험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기(豫期)할 수 있다.

3. ㉡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의 성격을 말하라(1-10절).

- ㉡ (1) 그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장차 큰 복을 받을 자에 대한 연단의 시험이었다.
- (2)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갑작스런 시험이었다. 예상치 않은 때에 갑자기 당한 그의 시험은 욥에게 임한 시험과 비슷하다(욥 1:13-19). 이처럼 시험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때에 임하게 된다.
- (3) 또한 이것은 견디기 어려운 영적, 도덕적 시련이었다. 즉 비인도적이라고 말할 만큼 극심한 희생이 요구되는 시험이었다.
- (4) 뿐만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복종(믿음의 조상으로서 필요한)을 요구하는 시험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믿음은 이처럼 완전한 순종의 자세에서 확인될 수 있다.

4. ㉢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이 말에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로서의 애정을 최고도로 일으키게 하여 그로 하여금 가혹한 상황에 빠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하에서라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셨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언뜻 보기에는 가혹하며 벗어날 수 없는 딜레마(dilemma)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 (4) 그러나 실상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신다(11-14절; 교전 10:13).

5. ㉣ 이삭을 재물로 바쳐야 할 장소는 어디인가? (2절)

- ㉣ (1)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한 산이다.
- (2) 여기서 ‘모리아 땅’이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악 지대를 가리킨다.
- (3) 따라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현재의 위치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으니 그곳까지는 3일 길이었다.
- (4) 한편 ‘모리아’는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모리>와 ‘여호와’를 가리키

는 말인 <예호와>의 합성어로서 그 뜻은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이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을 지정하시고 선택하셨음을 의미한다.

(5)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였던 이 장소는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대하 3:1) 예루살렘 북쪽의 암석이 많은 산꼭대기와 동일시된다.

6. **㉠**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번제는 제물을 죽인 후 각을 떼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속죄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봉헌을 의미한다(레 1:3-17; 6:8-13).
- (2) 본래 이와 같은 번제의 제물은 소나 양, 염소, 비둘기 등이었는데 모세의 율법에 규정되기 전에도 제물의 종류는 거의 비슷하였다.
- (3) 그러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마치 이삭을 소나 양, 염소처럼 죽여서 각을 뜯 후 불 위에 올려 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다.
- (4) 하지만 아브라함의 집에는 온갖 짐승이 많았다. 또한 종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으니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시련하려고 오는 불 시험' (벧전 4:12)인 것이었다.
- (5) 이처럼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testing)의 대상이 되었다.
- (6)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7. **㉠**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는가? (3절)

- ㉠** (1)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릴 모든 준비를 갖춘 후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을 향해 출발하였다.
- (2)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침착하게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
- (3)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yes) 만 있고 '아니라'(no) 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고후 1:17-19).

8. **㉠**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도중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한 내용은 무엇인가? (7절)

- ㉠** (1)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것이었다.
- (2) 이 말은 제사 제도가 모세 시대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이삭이 제사를 드리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필요한 제물이 무엇인지까지도 알고 있었음을 나타내 준다.
- (3) 아마도 그것은 이삭이 평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사를 보아 왔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부모의 일상 생활과 경건 생활이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산 증거이기도 하다.
- (4) 옛날부터 성도의 가정에서 매일 드러지는 가정 예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9. **㉠**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대답에 관해 생각하여 보라(8절).

- ㉠** (1) 이러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사전에 이삭을 대신할 다른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겠다고 자신에게 말씀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2)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이삭의 질문에 대해 아브라함이 허위 대답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나온 말일 뿐이다.
- (3) 즉 아브라함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그리고 선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이다(참조, 히 11:17-19).

(4)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히11:1)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

10. **㉠** 이삭이 아브라함의 손에 의해 결박되는 모습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9절)

- ㉠** (1) 자신이 결박당함으로써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이삭은 그 같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작정된 것임을 알고서 이에 순종하였다.
 (3) 이러한 이삭의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대속(代贖)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참조, 빌 2:8).

11. **㉠**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절)

- ㉠** (1) 번제는 제물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 그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했다.
 (2)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행위에 의해 이미 이삭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셨다.
 (3) 한편 이처럼 아브라함의 칼 앞에서도 잠잠해 하는 이삭의 모습은 갈보리 산에서 묵묵히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12. **㉠**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는 여호와와 사자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1절)

- ㉠** (1) 이 말은 곧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뜻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셨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2) 그리고 이로써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이제 끝이 났다. 즉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아브라함에 대한 더 이상의 시험은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믿음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명하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하여 주시었다.

13. **㉠** ‘여호와 이레’란 무슨 뜻인가? (14절)

- ㉠** (1)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그 뜻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로 풀이하고 있다.
 (2) 그러나 본래 ‘이레’라는 말은 ‘보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라아>에서 유래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돌보신다’ 또는 ‘여호와와 산에서 보게 되리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14. **㉠**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예언적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신 사건은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요 1:29)으로 예비하신 것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
 (2)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신을 제물로 드려(롬 12:1)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했을 때 비로소 그는 수양을 보게 되는 축복을 얻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삭)에 대한 그의 순종의 응답으로써만이 가능하였다.
 (3) 이와 같이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써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여기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예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15. **㉠** 이삭이 구출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가? (9-14절)

- ㉠** (1) 이삭을 구원하는 시기는 아브라함의 복종이 완전함을 드러낸 직후였으며 너무 빠르지

도, 너무 늦지도 않은 적절한 시기였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으시다.

- (2) 그의 구원은 수양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통한 방법이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어린 양을 대속(代贖)시켜 이삭을 구출한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죄 사역에 대한 예표이다.
- (3)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된다.
- (4)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로써 구출된 새 생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속죄받은 백성의 새 생명을 상징한다.

16. **㉠**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17-19절)

- ㉠** (1)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재확인이다(15:5).
- (2) 또한 아브라함의 씨(seed)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이 원수들을 이기고 그들의 성읍을 점령할 것과 장차 메시아를 통해 믿는 성도들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의미한다.
- (3)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천하 만민’이란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니 이는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로써 그들이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한다.

17. **㉠**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는가? (21-24절)

- ㉠** (1) 자신의 아내 밀가를 통해 8명 그리고 첩인 르우마를 통해 4명, 모두 12명을 낳았다.
- (2) 이 중에서 밀가를 통해 난 아들은 우스, 부스,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브두엘이며 르우마를 통하여 난 아들은 데바, 가함, 다하스, 마아가이다.
- (3) 한편 여기서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가문과 나홀 가문과의 근친 결혼으로 인하여 야곱, 요셉 등과 같은 언약적 혈통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 (4)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마엘에게도 12아들이 있었고(25:13-16) 나홀에게도 12아들이 있었으며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다는 것이다(35:22-36).
- (5) 그렇지만 이스마엘과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족장이 되었으나 나홀의 아들들은 모두 족장이 되지는 못하였다.

18. **㉠** 나홀의 아들 브두엘에 대하여 설명하라(22절).

- ㉠** (1) ‘브두엘’은 히브리어 <베투엘>을 음역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 (2)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가정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 간 자였다.
- (3) 이 브두엘이 바로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의 아버지이다(25:20).
- (4) 경건한 사람(가장)이 이끌어 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삭의 아내 될 여자(리브가)가 나온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 (5) 브두엘의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그의 가정과 경건한 신앙의 삶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 23 장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

단락구분 1-2 사라의 죽음 / 3-9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묘지됨 요구하다 / 10-18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다 / 19-20 사라의 장례식

1 사라가 일백 이십 칠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2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아르바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4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5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6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7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8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 그로 그 말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10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11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2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13 그 땅 배성의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14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15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사백 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6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좇아 에브론이 헷 족속의 듣는데서 말한대로 상고의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들린 수목을 다

18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19 그후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0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1. ㉠ 본장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그 장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헷 족속 중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서 막벨라 굴을 매입하였는데 (16절) 이 굴은 후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의 선영(先塋)이 되었다.
 (3) 한편 죽음에 이르렀을 때 사라의 나이는 127세였으니 이는 성경상에서 나이가 언급되고 있는 여자로서의 유일한 경우이다.
 (4) 아마도 그러한 연유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어머니이기 때문인 듯하다(참조, 히 11:11, 12).

2. ㉠ 사라가 죽은 곳은 어디인가? (2절)

- ㉠ (1)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 아르바이다.

- (2) 기랏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으로서 헤브론에 붙여진 이름이다(13:18).
- (3) 여기서 특별히 '가나안 땅'이란 말을 부가하고 있는 까닭은 사라가 블레셋 땅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죽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4) 사라의 죽음과 매장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까닭은 죽음의 필연성과 죽음의 의미, 즉 죄의 삯인 죽음은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3. **㉠**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피하며 애몽한 사실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라(2절).

- ㉠** (1)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내의 주검 옆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진정으로 슬피한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 (2) 아브라함은 자신과 일생 동안 같이 지내온 아내 사라가 먼저 죽은 사실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느꼈다.
- (3) 이것은 평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라를 아끼며 사랑했는지를 잘 대변해 준다.
- (4) 하지만 성도들이 죽은 자에 대하여 애몽하며 슬피하는 것은 절망 중에 몽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위로를 구하는 애도의 표시가 되어야 한다.
- (5) 즉 죽은 자와의 헤어짐은 슬프고 마음 아픈 것이지만 이 슬픔은 머지않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남의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신자의 슬피하는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다.

4. **㉠**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누구로부터 구입하였는가? (3절)

- ㉠** (1) 헷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였다.
- (2) 헷 족속은 가나안의 아들인 헷(Heth, 10:15;대상 1:13)의 후손으로서 고대 철기 문화로 유명한 히타이트족(Hitties)과 동일한 기원을 갖고 있다.
- (3) 이 가운데서 본장에 언급되고 있는 헷 족속은 본래의 거주지를 떠나 고대 근동 각지로 퍼져 나간 헷 족속 일파의 한 무리이다. 그런데 특히 헤브론 근처에 거주하였던 헷 족속은 훗날 완전히 셈족에 동화되었다.
- (4) 한편 후대에 이르러서 헷 족속은 가나안족과 동일시되기도 하였다(23:19;26:34). 즉 27:46의 '헷 사람의 딸들'이란 말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란 말과 같은 뜻이다.
- (5) 헷 족속은 역사상 B. C. 1400년경에 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여호수아 시대에는 대제국으로까지 성장하였으나 이내 쇠퇴하고 말았다.
- (6) 성경을 살펴보면 이 헷 족속은 구약 전반에 걸쳐 선민 이스라엘과 많은 관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수 1:4;삿 1:26;삼하 11:3;왕상 10:29;대하 1:17;겔 16:3, 45).

5. **㉠**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입할 때 헷 족속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가? (4절)

- ㉠** (1)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라'는 말을 하였다.
- (2) 물론 이 말은 헷 사람들 눈에 비친 아브라함 자신의 모습을 묘사한 말이지만 이는 영적인 의미 곧 아브라함 자신의 기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참조, 히 9:15).
- (3)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후 4:18)는 사실을 우리들은 항상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6. **㉠**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지를 헷 족속으로부터 매입(買入)한 사건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 (1) 사라의 매장지(묘실)가 된 막벨라 굴은 후에 여러 족장들(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묘실이 되었으며 리브가와 레아도 그곳에 묻혔다. 즉 족장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함께 묻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들이 비록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죽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참았다는 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 (2) 특히 라헬을 대신하여 레아가 이곳에 묻힌 것도 레아를 통한 후손(유다) 가운데서 메

시야가 나온 구속사적(救贖史的) 의미가 있는 것이다.

- (3) 결국 이런 사실은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모든 성도들이 약속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7. **㉠**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하여 헷 족속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6절)

- ㉠** (1)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시 엘로힘>인데 이는 ‘하나님께서서 방백의 지위에 임명한 자’란 뜻이다.
- (2) 이러한 말로 미루어 볼 때 헷 족속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 (3) 그러므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헷 족속의 좋은 묘실을 택하여 사자를 장사하라고 기꺼이 승락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묘지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장소를 요구하였다.
- (4) 아뭏든 헷 족속과 아브라함 간의 대화를 살펴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사회적 지위와 인품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8. **㉠** 아브라함이 요구한 막벨라 굴은 누구의 소유였는가? (9절)

- ㉠** (1)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였었다.
- (2) 여기서 ‘막벨라’라는 말은 본래 ‘이중의’ (double)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카팔>에서 유래한 것인데 은연중에 장소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가 되었다.
- (3) 한편 지명 뜻 그대로 이 막벨라 굴은 이중으로 된 굴이었던 것 같다.

9. **㉠**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소유하는 대가로 준가(準價)를 주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9절)

- ㉠** (1) ‘준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세프 말레>인데 ‘많은 은(銀)’을 가리킨다. 이것은 물물 교환의 매개체로 귀금속이 사용되었다는 성경상의 첫번째 기록이다.
- (2) 따라서 아브라함의 말은 ‘충분한 돈’, 즉 당시 거래되는 금액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의미이다.
- (3) 이것은 아브라함의 정당한 거래 행위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 없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 주고 있다.

10. **㉠**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이 있는 밭까지 팔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 (1) 아브라함은 매장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만을 사려 하였으나 에브론은 그 굴이 있는 밭까지 팔려 하였다.
- (2) 왜냐하면 당시 헷 족속의 법에는 밭의 소유권자가 밭에 속한 모든 것의 세금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막벨라 굴에 대한 세금을 에브론이 내야만 했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에브론은 밭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넘겨 주려 하였다.

11. **㉠**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그냥 주겠다는 에브론의 제안을 거절한 까닭은 무엇인가? (10-18절)

- ㉠** (1) 정의의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은과 금과 가축이 심히 많은 부자였다. 또한 사회적 명성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남의 재산을 값없이 소유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 (2)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조심성이 있는 처사였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자신의 삶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 (yes)와 ‘아니오’ (no)를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조심성 있게 행동해야 한다.

12. **㉠** 아브라함이 정성껏 사라의 매장지를 준비한 것에 대하여 고찰해 보라(7-19절).

- Ⓐ (1)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평상시에도 극진히 사랑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그도 역시 사랑하는 아내와 같은 장소에 장사되었다(25:7-10).
- (2)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부부애(夫婦愛)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준다.
- (3)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께 하듯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한 것과 같이 할 때(참조, 엡 5:22-25) 그 가정은 언제나 화목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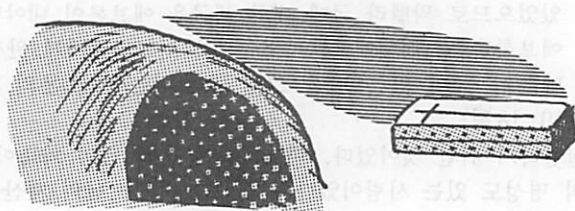
13. ⓐ **헛 사람 에브론에게 밭을 사는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7-20절)

- Ⓐ (1) 겸손하고 예의 바른 신앙 인격의 모습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훌륭한 덕성을 갖춘 사람으로 이미 명성이 나 있었지만 타인(특히 이방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의를 다하는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었다(7절).
- (2) 또한 아브라함은 상대방의 호의를 정중히 사양하고 자신이 생각한 태도를 분명히 밝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값을 받지 않고 땅을 주겠다는 에브론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며 당시의 시세에 따라 땅 값을 준 사실에서도 나타난다(16절).
- (3) 이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펴보며 스스로를 경책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14. ⓐ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19절)

- Ⓐ (1)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된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 (2) 이때 의인의 영혼은 온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뵈고 마지막 날에 있을 그 몸의 온전한 구속 곧 부활을 기다리게 된다(참조, 고전 15장).
- (3) 하지만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지운 바 되어 고통과 극한 흑암 가운데 남아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유 1:6).
- (4) 성경은 육신을 떠난 영혼들을 위하여 예비된 처소로서 이 두 장소 외에 다른 곳은 인정하지 않는다.

본장의 요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르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19절).

제 24 장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단락구분 1-9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지시한 이삭의 혼사 / 10-15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만남 / 16-27 엘리에셀이 라반의 집에 인도되다 / 28-49 엘리에셀이 이삭을 위하여 청혼하다 / 50-60 리브가의 쫓발 준비 / 61-67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들이다

1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2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3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5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좇아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 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6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7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택할지니라

8 만일 여자가 너를 좇아 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10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중 열 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훔의 성에 이르러

11 그 약대를 성밖 우물 곁에 꿰었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12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14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

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15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훔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16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느니라

17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네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리라

18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길는지라

21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22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 세겔중 금고리 한개와 열 세겔 중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23 가로되 내가 뉘 딸이나 청컨대 내게 고향라 네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24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훔에게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이다

25 또 가로되 우리에게 쉼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26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28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고하였더니

29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30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이 약대 곁에 섰더라

31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32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쟁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팔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33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34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36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37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38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39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좇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40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섭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41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설혹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42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 진대

43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44 그의 대답이 당시는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길으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45 내가 목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긴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즉

46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

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47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누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훔에게 낳은 브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48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라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49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음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50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름 말할 수 없노라

51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와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2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리어 여호와께 절하고

53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54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5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머니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56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7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58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59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60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 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61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62 때에 이삭이 브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음이라

63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목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64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65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66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67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

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 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1. ㉠ 본장에 나타나는 성도의 결혼 원리에 대하여 살펴보라.

- ㉠ (1)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곧 이삭의 배우자는 이방 여인이어서는 안 되고 자신과 같은 혈통의 여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3, 4절).
- (2) 이것은 성도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성도와 불신자가 한 몸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후 6:14-16).
- (3) 또한 아브라함과 그의 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였다(7, 27절).
- (4) 이처럼 성도들도 결혼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한다.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들이 구하는 것에 대하여 좋은 것으로 채워 주는데 하물며 신앙 안에서 동반자가 될 배우자를 달라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는가(마 7:8-11).
- (5) 한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엘리에셀을 만난 리브가와 그녀의 가정은 이삭과의 결혼 문제를 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관하여 먼저 살피었다. 그리고는 조금도 지체함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57-60절).
- (6) 이와 같이 성도들도 기도의 결과 자신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는 먼저 인간적인 조건들을 따지기에 앞서 냉철하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배우자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7) 그 후에야 비로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엡 5:31). 여기에 참된 결혼의 원리가 있는 것이다.

2. ㉠ 여호와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아브라함은 한평생 나그네 생활을 계속하였으며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는 보통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 오셔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되게 하시고 그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다. 이것이 그가 범사에 받은 축복이다.
- (2) 즉 물질, 권력, 건강에 대하여 그때그때 축복이 주어진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의미있는 것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승화된 것이 그가 범사에 축복을 받았다는 말의 더 깊은 의미이다.
- (3)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체적인 행복들도 함께 암시되고 있다.
- (4) 한편 아브라함은 한때 실수를 범하기도 했으며 인간의 나약성을 드러냈고 비굴하기까지 했다(20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으며 또한 그에게 믿음의 조상(근원)이 되는 은총을 베푸셨다.
- (5) 이것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 얻을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 적용되는 실례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범사에 받은 축복은 오늘날 구속의 은총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축복이다.

3. ㉠ '젊은 중'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2절)

- ㉠ (1) 엘리에셀을 가리킨다. 그는 아브라함 가정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였다.
- (2) 여기서 '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켄>인데 본래는 존경을 나타내는 칭호(sir)였다. <자켄>이란 말의 뜻은 '탁' 또는 '탁수염'이다.

- (3) 한편 이 말이 나중에는 ‘장로’라는 말로 번역되었다. 왜냐하면 장로의 턱에는 수염이 나 있고 또 그들이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 (4)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들 가운데 가장 신실한 종으로(15:2),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 상속할 아들이 없었을 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정하기도 했다.
- (5)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의 후손이 태어난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재산을 총관리하는 신임받는 종으로의 역할을 다하였다. 특히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일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여행하여 큰 성과를 얻고 돌아오는 충성심을 보여 주었다. 이런 그의 충성심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비롯되었다(12절).
- (6) 엘리에셀의 공적인 지위는 종(servant)이었으나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동역자요, 매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의 보조자였다. 언제나 신실함과 충성심과 신중한 태도로 주장 아브라함에게 헌신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말없이 봉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배우게 된다.

4. **㉠** 손을 환도뼈 밑에 넣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2절)

- ㉠** (1) 이것은 맹세를 표하는 고대의 관습이었다(47:29).
- (2) 그런데 여기서 ‘환도뼈’라는 말은 ‘성기’(性器)를 의미하는 완곡(婉曲)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환도뼈 밑은 곧 사타구니를 의미한다.
- (3) 한편 일반적으로 환도뼈는 ‘주권’이나 ‘권위’를 상징하며 그곳에 손을 얹는 것은 충성의 맹세나 상급자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

5. **㉠**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3절)

- ㉠** (1) 여호와께서만이 우주의 절대 주권자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2) 또한 이 말에는 뒤에 언급될 이삭의 결혼도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섭리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다.
- (3)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가나안 족속의 딸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도록 명령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방종한 생활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삭을 자기 혈통과 결혼시켜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그 같은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 (2)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약속의 후사(後嗣)를 보존하려 한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행위이다.
- (3) 한편 후일 모세의 율법에서도 이스라엘인이 가나안인과 결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다(출 34:16; 신 7:3).
- (4) 이와 같이 성도들의 결혼은 신앙 안에서 맺어져야 한다. 만약 성도들이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영적인 풍성한 삶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7. **㉠**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대하여 살펴보라(4절).

- ㉠** (1) 여기서 ‘내 고향’이란 갈대아 우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의 하란 지역을 가리킨다.
- (2) 그리고 ‘내 족속’이라는 말은 그 당시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이룩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는 후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8. **㉠**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6절)

- ㉠** (1)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삭의 아내 될 여자가 가나안까지 오기를 거절해도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뜻이다.

- (2) 이 말은 곧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가나안을 떠날 수 없다는 의미이다(7절).
- (3) 이처럼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였다. 이것이 신앙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올바른 자세이다.

9. **㉠** '사자(使者)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는 아브라함의 말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7절)

- ㉠** (1) 그 같은 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신앙 인격을 엿볼 수 있다.
- (2)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체험한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것을 믿었다.
- (3) 즉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이 단순히 개인의 행복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언약의 전승을 위한 일이었으므로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실 것을 믿은 것이다.
- (4)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 신앙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된다.

10. **㉠**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앞두고 엘리에셀과 맹세한 것에 대해 살펴보라(2-9절).

- ㉠** (1) 경건한 신앙을 지닌 부모가 자녀의 결혼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는 일은 중요하다.
- (2) 이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태도는 결혼이 갖는 중대성을 인식하고 영적인 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믿음의 가정에서 배필을 구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3, 4절).
- (3) 즉 결혼 문제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좇아 그 안에서만 실행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깨달을 수 있다.

11. **㉠**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나홀의 성에 이르러 어떻게 하였는가? (10-14절)

- ㉠** (1) 이삭의 신부 될 여인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 (2)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였던 엘리에셀의 신앙은 이처럼 매사에 기도하는 자세로 나타났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평상시에 기도하는 경건한 삶의 자세는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더욱 여전히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12. **㉠** '순적(順適)히'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12절)

- ㉠** (1) '쉽고도 적절하게'라는 뜻이다.
- (2) 이 말은 이삭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3) 이러한 말에서도 우리는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의 결혼 문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 (4) 이처럼 성도들은 언제나 자신의 의지와 뜻은 배격한 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히 기도해야 한다.

13. **㉠** 급히 물을 길어 엘리에셀과 약대에게 마시게 하는 리브가의 행동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라(18-20절).

- ㉠** (1) 리브가의 이러한 행동은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친절한 행동이었다.
- (2) 그리고 그녀가 지체하지 않고 급히 서둘러 친절을 베푸는 것은 엘리에셀의 기도에 부합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 (3) 이처럼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생각나게 해 준다.
- (4) 세리들과 죄인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푸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의

생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4. **㉠**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26절)
- ㉠** (1) 여호와와 인도하심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의 깊은 감사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2)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훌륭한 신앙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이에 대하여 감사하는 모습은 더욱 아름다운 신앙 자세이다.
 (3) 아무쪼록 성도들의 삶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에 감사하는 삶의 연속이어야 할 것이다.
15. **㉠** 엘리에셀이 말하는 주의 인자와 성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7절)
- ㉠** (1) 인자(仁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은혜’, ‘자비’, ‘궁휼’ 등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2) 그런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말할 때 특히 자주 쓰이는 말이다.
 (3) 그리고 ‘성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이며 여호와와의 진실과 진리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말이다.
 (4) 이 <에메트>는 곧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성실을 의미한다.
16. **㉠** 34-4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라.
- ㉠** (1) 본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에게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형편과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 등을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이러한 엘리에셀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 섭리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즉 그는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48절).
 (3) 이처럼 성도들의 말과 행동에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와 그분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마음이 나타나야 한다.
17. **㉠** 엘리에셀과 라반의 대화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34-49절)
- ㉠** (1) 엘리에셀은 자신의 신분이 종(servant)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34절) 자신을 보낸 주인(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합하여 설명하였었다.
 (2) 그러한 그의 말은 모두가 주인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만 진실되게 언급한 것들이다. 즉 그는 자신의 견해나 사상을 피력하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messenger)로서의 임무에만 충성을 다한 것이다.
 (3) 이와 같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에 열심을 다한 엘리에셀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께로부터 제각기 사명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본이 되는 모습이다.
18. **㉠** ‘가부(可否)를 말할 수 없노라’는 라반과 브두엘의 대답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가? (50절)
- ㉠** (1)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정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되어진 일이라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2) 참으로 이것은 브두엘 가정의 경건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말이다. 따라서 경건한 가정에서 리브가와 같은 현숙한 여인이 나온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3)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경건, 이것은 바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자세라고 할 수 있다.
19. **㉠** 리브가의 결혼 문제에 대해 그녀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50-60절)
- ㉠** (1) 결혼 당사자인 리브가는 먼저 가정의 식구들에게 자신이 청혼받은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을 것이다(참조, 28절).
 (2) 그러자 가족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루어져야 될 일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 (3) 결국 온 가족들의 기쁨 속에 리브가의 결혼이 결정되었다. 즉 가족 모두가 리브가와 이삭 간의 결혼에 동의한 것이다.
- (4) 그런데 결혼 날짜에 있어서 리브가의 부모와 엘리에셀 곧 양가의 의견들이 달랐다. 하지만 최후의 결정은 결혼 당사자인 리브가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 (5) 이처럼 리브가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그녀 자신과 그녀의 모든 가족들이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좇은 것은 오늘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성도의 가족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자세이다.

20. **㉠** '이삭이 들에 나가 목상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63절)

- ㉠** (1) '목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슈아흐>인데 이는 '생각한다', '기도한다', '애곡한다' 등의 뜻이 있다.
- (2) 아마도 이삭은 들에 나가 배회하면서 어머니 사라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며 또한 자신의 결혼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 같다.
- (3) 이삭의 그러한 모습에서도 그의 경건한 삶의 자세는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 (4)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오르사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목상하셨던 것과도 흡사한 모습이다(마 26:36-46).

21. **㉠**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운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65절)

- ㉠** (1) 이 당시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정혼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면박을 벗을 수 없었다. 따라서 리브가의 이런 행동은 예절 바른 여성의 모습을 보여 준다.
- (2) 또한 이것은 리브가의 정숙을 나타내 준다. 그녀는 자신의 교양과 섬세한 감정을 올바르게 드러내고 있다.
- (3) 이처럼 여성의 아름다움은 예의 범절을 잘 지킬 때 돋보이는 것이니 이것은 진주나 값진 옷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참조, 딤후 2:9, 10).

22. **㉠**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67절)

- ㉠** (1)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되 단순히 육체적인 정념(情念)만으로 사랑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피차간의 존경, 이해, 충정에서 비롯된 감정으로 사랑하였다는 뜻이다.
- (2) 사실상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도 존재하기 어렵다(참조, 요일 4:20).
- (3)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된 자는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여야 할' 것이다(엡 5:33).

본장의 요절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울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15절).

연구자료

순종의 모본이 된 이삭

1. 약속의 자손 이삭

이삭은 그의 이복(異腹) 형 이스마엘(Ishmael)이나 세레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출생 전에 이미 그의 출생이 예고되었고 그의 이름이 먼저 확정되어 있던 자였다. 하나님께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이삭 탄생에 대하여 예고하여 주셨다. 그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란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17:19; 18:10). 그러나 이 같은 약속에 대하여 두 사람은 웃음으로 일관(一貫)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사라의 경수(經水)는 끊어져 있었으니 다시금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18:11).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이제 그들은 기쁨의 웃음을 웃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21:6). 이처럼 웃음과 관련된 이삭의 출생은 '그가 웃을 것이다'라는 뜻인 '이삭'(Isaac)이라는 이름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아뭏든 이러한 에피소우드를 지니고 있는 이삭 출생은 큰 민족 이스라엘의 형성을 위한 역사의 첫걸음이 되었다.

2. 순종의 모본이 된 이삭

단 하나뿐인 독자(獨子)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귀하게 성장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이삭은 아브라함을 따라 모리아 산(Mount Moriah)으로 가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여행의 목적을 물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제물로 사용할 어린 양이 없다는 사실에 이삭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윽고 모리아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은 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얹혀 놓고 번제를 드리고자 했다. 이러한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다만 그 같은 명령을 준행하기 위한 행동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삭은 반항이라고는 전혀 없이 묵묵히 되어가는 모든 일을 순종함으로써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같은 순종의 결과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다. 하나님께선 이삭의 목숨을 온전히 보존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22:12, 18).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건으로서 이삭의 순종하는 자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그의 결혼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의 늙은 종 엘리에셀(Eliezer)을 시켜 이삭의 아내될 사람을 구하여 주었다. 당시에는 부모가 자녀들의 배필(配匹)을 구하여 주는 것이 통례이긴 하였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선 분명한 의도를 좇아 취해진 행동이었다. 즉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 동족인 셈족 계통의 처녀와 결혼함으로써 혈통적 순수성을 보존하기를 원하였던 것이다(24:1-4). 이삭은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였던 것 같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정해진 자기 배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그녀를 인도하여 장막으로 들이고 아내를 삼아 사랑하였다(24:67).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좇아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로서의 신실한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부모를 상심(傷心)시켰던 에서(Esau)의 태도와는 무척 대조적이다(26:34, 35). 이런 순종 가운데 결혼한 이삭이었지만 무려 20년 동안이나 자녀를 갖지 못하였다(25:20, 26). 그러나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달리 인간적인 해결책은 쓰지 아니하고(16장) 하나님께 오로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자녀를 갖게 되는 놀라운 신앙을 소유하였다(26:21). 아뭏든 이삭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으로써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엡 6:1)는 교훈과 아울러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는 계명에 있어서도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

3. 이삭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예표론적 형상

이처럼 순종의 모본이 된 이삭도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었으니 그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행하였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았다(26:6-11).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이 잘못을 범할 때에는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라도 경책하시고 그 같은 죄에서 돌이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은 아브라함의 신앙적 행위를 죽기까지 묵묵히 순종하려 한 이삭의 태도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로서 자신을 기꺼이 죽음에 내어준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사 53:4-7). 그러한 예표적인 형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자신의 외아들이자 이삭을 아무런 저항이나 불평도 없이 기꺼이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22장)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속하는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신 하나님(롬 8:32; 히 10:1-10). ② 자신이 제물이 될 줄 알면서도 침묵을 지키며 순종한 이삭과(22:9) 자기를 낫추사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며(빌 2:8)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리스도(마 26:39, 42; 막 14:36; 눅 22:42). ③ 자신을 불태울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이삭(22:6)과 자신이 못박힐 십자가를 지시고 끌고 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요 19:17). 이러한 비고를 통하여 우리는 왜 이삭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표하는가를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제 25 장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두 아들이 태어나다

단락구분 1-4 아브라함의 후처와 그 자손들 / 5-11 아브라함의 죽음 / 12-18 이스마엘의 자손 / 19-26 이삭의 두 아들 / 27-34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다

1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 두라라
2 그가 시므란과 욱산과 드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3 욱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앓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4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다라
5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6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7 아브라함의 향년이 일백 칠십 오 세라
8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9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르레 앞 헛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원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0 이것은 아브라함이 헛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11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 라해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12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13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웃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앓벨과 밍삼과
14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15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16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십 이 방백이었다라
17 이스마엘은 향년이 일백 삼십 칠세에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18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앓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 편에 거하였더라

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22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24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갖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이었던라
27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28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9 야곱이 죽을 썬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30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32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있더라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12장에서 시작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가 본장으로 끝맺게 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23장)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24장)과 함께 아브라함의 죽음은 새로운 이야기로의 전환을 암시하고 있다.
- (2) 본장에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죽음이 기록되는 한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 죽음과 출생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 (3) 여기서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교체되며 나아가 야곱에게로 승계(承繼)되는 새로운 흐름을 보게 된다.
- (4) 특별히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출생할 때 나타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섭리는(23절) 구원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닌다(참조, 롬 9:10-13). 즉 구원받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정된다(엡 1:5,9,10).

2. **㉠ 아브라함의 후처는 누구인가? (1절)**

- ㉠** (1) 그두라(히, 케투라)인데 그 이름의 뜻은 '향기'이다.
- (2) 여기서 후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필레게쉬>는 '첩'(<妾>)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3) 아마도 그두라는 하갈과 같이 아브라함 가정의 여종이었다가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과 결혼하게 된 것 같다(Lange).
- (4) 그녀가 아브라함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정식 부인이긴 했으나 계속하여 첩으로 불리우고(대상 1:32) 그의 아들들이 서자(庶子)로 분류된 이유는(6절) 그녀가 언약의 자손의 합법적 직계 모친인 사라와는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이다(Delitzsch).

3. **㉠ 후처 그두라를 통해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을 더 낳았는가? (2-4절)**

- ㉠** (1) 6명의 아들(시므란, 욱산, 므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등)을 낳았는데 이들의 후손은 앓수르, 미디안 족속 및 수아(욥 2:11), 스바(욥 1:15), 드단(렘 25:23) 등 아람 족속의 주종을 형성하게 되었다.
- (2) 이처럼 여섯 아들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어도 137세 이후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라가 127세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10세 더 많은 137세였기 때문이다.
- (3) 한편 아브라함이 후처인 그두라를 취한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일부 일처제)와 배치(背馳)되는 행위였다.
- (4) 이처럼 비성경적인 행위로 인해 오늘날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민족들이 서로 싸우는 증동 분쟁이라는 불행한 결과가 생기게 되었다.

4. **㉠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여 주었는가? (5,6절)**

- ㉠** (1) 아브라함은 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고 서자(庶子)들, 곧 하갈과 그두라의 소생 7명에게도 적당한 재산을 분배하여 주었다.
- (2)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 미리 유산을 나누어 준 것은 그들로 팔레스틴 동쪽 아라비아 지방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이삭과 동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3) 이로써 이삭은 팔레스틴에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한다(15:4).

5. **㉠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나이는 몇 살인가? (7절)**

- ㉠** (1) 175세이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장수한 것은 고대 신앙의 족장들에게 약속되었던 하나의 축복이었다(잠 10:27).
- (2) 이때는 이삭이 출생한 후 75년되는 해이며 사라가 죽은 후 38년되는 해이다. 또한 이

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출생한 해로 볼 때 15년 후가 된다.

(3) 따라서 19-26절에 나타난 에서, 야곱의 출생은 시간 순서상 7절 앞에 놓이게 된다.

6. **㉠**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었으며 그 죽음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8절)

- ㉠** (1) 아브라함은 '수(壽)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진(盡)하여 죽었다'고 성경은 말한다.
- (2) '수가 높고'라는 말은 '백발의 나이가 되어'라는 뜻이다. 백발이 다 된 그의 머리는 영화의 면류관이었다(잠16:31).
- (3) 또한 '나이 많아'라는 말을 직역하면 '만족했다'가 된다. 즉 아브라함은 만족할 만큼 수명을 채웠다는 뜻으로 그가 지상에서 복된 생활로 장수했으며 또한 영혼을 위한 준비를 성실히 했음을 보여 준다.
- (4) '기운이 진하여 죽어'라는 말은 '숨이 다하여 생명이 끊어진 것'을 의미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을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도 언젠가 이런 상태를 맞이해야만 한다.
- (5)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지상에서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신앙으로 살면서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7. **㉠**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 (1) 이 말은 육체적인 죽음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의 공동 묘지에 묻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 (2)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세계로 들어감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 (3) 따라서 이 말은 죽은 후에도 사람의 인격적인 삶이 계속됨을 나타낸다. 아브라함은 보다 더 좋은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죽었다(히11:13-15).

8. **㉠** 아브라함이 장사된 곳은 어디인가? (9, 10절)

- ㉠** (1) 헤브론과 같은 장소인 마므레 땅의 막벨라 밭에 있는 굴 무덤에 장사되었다.
- (2) 이곳은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 را를 장사하기 위하여 헛 족속 에브론이란 사람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밭이다(23:16-20).
- (3) 아브라함이 이곳에 장사된 것은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음을 뜻한다.
- (4) 이 영원한 안식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약속되어 있다(히4:9-11; 11:13-16).

9. **㉠** 아브라함의 장례식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인가? (9절)

- ㉠** (1)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 (2) 이스마엘은 당시 헤브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부친의 별세 소식을 들은 것이다.
- (3) 이전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참조, 21:9) 아버지의 장례식은 두 아들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기회가 되었다(참조, 35:29).
- (4) 형제들간에 혹은 신자들 상호간에 다툼을 하는 것도 죽은 후 주어질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전혀 의미 없는 행동임을 알게 된다.

10. **㉠**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 (1)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 나가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 (2) 따라서 여기 언급된 축복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 주어지는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번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3)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축복도 이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임을 기억해야 한다(롬4:12; 엡1:3).

11. ㉠ **이스라엘의 12방백을 설명하라(12-16절).**

- ㉠ (1) 이들은 이스마엘의 12아들로서 모두 다 큰 족속들을 이루어 각기 거주하던 성읍 이름의 근원이 되었다.
- (2) 이들의 이름은 느바웃을 위시하여 게달, 앓부엘, 밍살, 미스마, 두마, 맛사, 하닷, 데마, 여들, 나비스, 게드마 등이다.
- (3) 이처럼 많은 종족의 우두머리가 될 12 아들들을 이스마엘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흔치 않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 (4) 일찌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12방백을 낳고 크게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17:20) 이것이 정확히 성취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신실한 분인가를 알 수 있다.

12. ㉠ **이스마엘의 아들 중 미스마, 두마, 맛사의 뜻을 말하라(14절).**

- ㉠ (1) '미스마'는 '들으라'는 뜻이며 '두마'는 '침묵하라'이며 '맛사'는 '참으라'란 의미를 지녔다.
- (2) 이 이름들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비교할 때 갖는 신분상의 차이를 보여 준다. 즉 서자(庶子)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음을 발견한다.

13. ㉠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어디에 거주하면서 살았는가? (18절)**

- ㉠ (1) 그들은 동(東)으로는 하월라(10:29, 오늘의 예멘의 북부 지방), 서(西)로는 이집트에 가까운 술 광야에 걸쳐 살았다.
- (2) 이 사람들이 '그 모든 형제의 맞은 편'에 거하였다는 것은 서로간에 대립하며 적대적인 입장에서 생활했다는 의미이다.
- (3) 이것도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16:12).
- (4) 이 같은 이스마엘 족속 중에 한 사람인 마호멧(Mahomet, 570? -632)이 창시한 마호멧교는 '한 손에는 검(劍)을, 한 손에는 코란(Koran, 마호멧교의 경전)을'이란 구호를 부르짖는 호전적인 종교 집단을 형성했다.

14. ㉠ **이스마엘의 향년(享年)은 몇 세인가? (17절)**

- ㉠ (1) 137세로서 이삭의 향년(180세)에 비해서 43세, 즉 거의 반세기(半世紀) 정도나 수명이 짧다(35:21).

15. ㉠ **이삭은 몇 살 때 결혼하였는가? (19, 20절)**

- ㉠ (1) 이삭은 40세 때 결혼하였다. 이때는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 3년되는 해였으며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되는 해였다(참조, 23:1).
- (2) 이삭의 아내는 브두엘의 딸 리브가였다. 20절에 리브가가 브두엘의 딸로 다시 언급되는 것은 그녀가 이삭과 같은 혈통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3)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결혼 상대자를 신앙 안에서 만나야 할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교전7:39; 교후6:14).

16. ㉠ **이삭은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가? (21절)**

- ㉠ (1) 이삭은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세 때 결혼을 하였으나 리브가는 오랫동안, 즉 20년간이나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다(26절).
- (2) 여기에는 약속의 씨가 단순한 결혼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 (3) 결국 이삭은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잉태의 축복을 내려 주셨다.
- (4) 이 사실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간에게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5) 즉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시127:3)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만 잉태할 수 있는 것이다.
- (6) 한편 가정에서 부부가 아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막힌 담이 없으며 서로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벧전3:7).

17. **㉠** 이삭의 결혼 생활이 다른 족장들과 비교하여 다른 점은 무엇인가? (19-21절)

- ㉠** (1)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의 야곱처럼 첩(妾)을 취하거나 여종들을 통하여 후손을 남기지 않았다.
- (2) 즉 이삭은 한 아내와 더불어 평생을 살았던 것이다. 이러한 일부 일처(一夫一妻)는 또한 사람의 경건한 인물인 요셉에게서도 발견된다(41:45).
- (3) 이 제도는 구약 시대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이다(2:24; 마19:5).
- (4) 그런데 많은 구약의 족장들이 이를 어긴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해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가를 보여 주는 한 예이다.
- (5) 이런 의미에서 이삭의 모범된 결혼 생활은 다른 족장들에 비해 뛰어난 점이였다.

18. **㉠** 리브가의 태(胎) 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2, 23절)

- ㉠** (1) 태 속의 두 아이는 쌍둥이로서 나중에 두 국민, 두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인데 동생이 형보다 더 강하여 형에게 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이것은 후에 동생인 야곱의 자손이 형 에서의 자손을 정복하였던 일에서 성취되었다(삼하8:12, 13).
- (3) 결국 이 말씀은 단순한 사건의 예언에서 그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선택의 진리를 보여 주는 중요한 말씀이다(말 1:2; 롬 9:13).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 예언하신 것은 사람의 구원이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 준다(롬 9:10-13; 엠 1:4-6; 2:8, 9).

19. **㉠**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들인 야곱과 에서의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24-26절)

- ㉠** (1) 두 사람의 이름 모두 그들이 출생할 때의 모습에서 유래하였다.
- (2) 먼저 나온 아이는 그 모습이 붉고 온 몸이 갓옷 같았다. 여기서 '갓옷' (hairy garment)이란 가죽 옷, 털 옷을 가리킨다. 따라서 '털이 많은'이란 뜻을 가진 '에서'라는 이름이 붙혀졌다.
- (3) 뒤따라 나온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빼앗은 자'란 뜻을 가진 '야곱'이란 이름이 붙혀졌다.
- (4)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단지 에서의 발꿈치를 바삭 뒤쫓아서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Dewette, Knobel). 그러나 호 12:3 말씀은 이미 모태에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다고 단정한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가능성 있는 일로 인정되었다.

20. **㉠** 에서와 야곱의 성격은 각각 어떠했는가? (27, 28절)

- ㉠** (1) 에서는 그 이름이 나타내어 주듯이 매우 야성적(野性的)인 사람으로 자라났다. 그는 사냥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사냥한 고기를 즐기던 아버지 이삭에게 더 사랑을 받았다.
- (2) 반면에 야곱은 '종용(從容)한 사람'이었다. '종용하다'(히, 탐)는 말은 '조용하다'(quiet) '단순하다'(simple)란 뜻이다. 따라서 야곱은 가정에서 조용히 지내며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다.
- (3) 이러한 두 사람의 대조적인 성격과 생활은 부모로 하여금 편애(偏愛)하게 만들었다.
- (4) 우리는 이러한 부모의 편애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 두 아들의 생애와 그 후손이 보여 주는 역사에서 볼 수 있다.

21. **㉠** 야곱이 쑤운 죽(粥)은 어떠한 것인가? (29, 30 절)

- ㉠** (1) 에서는 야곱이 쑤운 죽을 가리켜 '그 붉은 것'이라고 불렀다(30절).
 (2) 이 '붉은 것'은 히브리 원어로 <아돔>인데 적갈색의 콩 혹은 팥으로 만든 죽을 말한다. 지금도 시리아나 이집트에서는 이러한 죽이 그들의 음식으로 애용되고 있다(참조, 삼하 17:28; 23:11).
 (3) 이 죽에서 붉다는 뜻을 가진 에서의 별명 '에돔'이 유래되었다.
 (4) 이 에서의 별명인 에돔은 팔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의 경솔함과 불신앙을 길이 기억하게 한다.

22. **㉠** 장자의 명분(名分)이란 무엇인가? (31절)

- ㉠** (1) '장자의 명분'(birthright)이란 족장 시대(B. C. 2100-1900경)에 있어서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장자권(長子權)을 가리킨다.
 (2) 아브라함 가문에서 장자권은 3가지의 특권을 포함한다. 즉 ①가나안 땅의 상속권(17:8) ②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27:4) ③아들을 축복할 권리(27:19; 48:19) 등이다.
 (3) 이 장자권은 후에 모세의 율법하에서 분명히 규정되었으니, 즉 ①아버지의 권위 계승 ②아버지 재산 중 두 몫의 분깃을 상속 ③가정의 제사 직무 수행 등이다(출 22:29; 민 8:14-17; 신 21:17).
 (4) 이러한 장자권은 중한 죄를 지을 경우 박탈되거나 교환될 수가 있었다(대상 5:1).
 (5) 따라서 장자권은 반드시 육적으로 맏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다(참조, 48:17-22).
 (6) 결국 이 장자권은 그리스도의 권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소유하신 분이며 온 우주의 상속자이신 것이다(롬 8:29; 골 1:15; 히 1:2, 6).

23. **㉠** 장자의 명분을 팔아 버린 에서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32절)

- ㉠** (1) 에서의 마음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2) 이 말은 에서의 육적인 생각을 보여 주는 말로 에서는 장래의 영적인 축복을 현재의 물질적인 것에 비교하여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3) 이때 에서는 굶주림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배를 채우기에만 급급하였다.
 (4) 이러한 그의 욕망은 급기야 장자권을 팔죽 한 그릇에 팔아 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히 12:16, 17).
 (5) 이처럼 육적인 욕망을 채운다는 것은 항상 영적인 손해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참조, 8:5-7, 12-14).

24. **㉠**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輕忽)히 여겼더라'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34절)

- ㉠** (1) '경홀히 여기다'란 말을 직역하면 '무가치하게 여기다', '멸시하다'(despise)가 된다.
 (2) 이처럼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던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한 죄가 된다.
 (3)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곧 죄가 된다.

제 26 장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단락구분 1-5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다 / 6-11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 / 12-22 이삭의 번영과 우물로 인한 분쟁 / 23-25 하나님의 계시 / 26-33 아비멜렉과의 화친 / 34-35 에서의 결혼으로 인해 이삭이 근심하다

1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3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6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7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다

8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9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였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10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11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12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13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17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18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뚫던 우물들을 다시 뚫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21 또 다른 우물을 뚫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시나라 하였으며

22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뚫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고 하였더라

23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25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뚫더라

26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훈사와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7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므로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

6. **㉠**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인가? (3, 4 절)

- ㉠** (1) 이삭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 (2) 즉 ①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 ②가나안 땅을 소유케 하는 축복 ③자손을 번성케 하리라는 축복 등이다.
- (3) 이러한 축복은 일찌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과 동일한 것으로 (12:3;13:15;15:5) 후에 야곱에게도 약속되었으며 (28:15)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갈 3:16).
- (4) 따라서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완성된 의미에서의 축복을 받게 된다.
- (5) 완성된 의미의 축복은 ①성령이 내주(內住)하시는 축복 (갈 2:20) ②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 (마 5:3, 10) ③풍성한 삶을 누리는 축복 (요 10:10)이다.

7. **㉠**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무엇을 상기(想起) 시키셨는가? (5절)

- ㉠** (1)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상기시키셨다. '명령' (charges), '계명' (commandments), '율례' (statutes), '법도' (laws)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 (2)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대대로 계승될 수 있었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기대하셨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期待)이기도 하다.
- (4) 사실 가장 위대한 신앙적인 삶은 거창한 외형적 성취에 있지 않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삼상 15:22).

8. **㉠** 이삭은 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는가? (7절)

- ㉠** (1) 그랄 사람들이 상당한 미모(美貌)의 여인인 리브가(24:16)를 가로채기 위하여 그녀의 남편인 자신을 해치울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이미 부친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에서 두 번씩이나 저질렀던 실수를 재연(再演)한 것이다 (12:13;20:2).
- (3) 이 사건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간의 연약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4) 이삭은 비록 물리적 힘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음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 29:25).

9. **㉠** 이삭의 거짓말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8-10 절)

- ㉠** (1) 이삭의 거짓말은 폭로되고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은 결국 이방인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다.
- (2) 이것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을 당시 그랄 왕에게 들었던 책망과 비슷하다 (20:9).
- (3) 이처럼 위기를 당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면 신안인이 불신양인에게 책망을 받는 결과를 가져온다.

10. **㉠** 아비멜렉의 명령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11절)

- ㉠** (1)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고 엄명(嚴命)을 내린 사실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
- (2) 즉 아비멜렉이 이렇게 엄한 명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죄의식을 일깨워 주신 결과였던 것이다 (참조, 10절).
- (3) 이 같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役事)는 리브가를 통해서 이어질 메시아 혈통을 보존

하시기 위함이다(17:21;21:12).

- (4)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비록 매우 불완전하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참조, 요 14:13,14).

11. C 이삭은 그랄에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12-14절)

- A (1) 본래 이삭은 유목민(遊牧民)이었으나 블레셋 땅에서는 농사를 지었다.
 (2) 따라서 그는 남의 땅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풍년이 들었다.
 (3) 이것은 이삭의 농사 기술이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진 것이다. 즉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12절) 부자가 되었다.
 (4) 사실상 성도들의 물질적 풍요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물질적 풍요 중에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신 8:17, 18).

12. C '백 배나 얻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2절)

- A (1) 이삭이 뿌린 씨의 양과 비교할 때 100배나 더 많이 거두었다는 뜻이다.
 (2) 팔레스틴 지방에는 곡식의 수확 비율이 보통 30배에서 100배에 이른다(마 13:23).
 (3) 따라서 이삭의 곡식 수확량은 거둘 수 있는 최대의 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 파격적(破格的)인 수확을 거둔 셈이다.

13. C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A (1)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거부(巨富)가 되었기 때문이다.
 (2) 이같이 남이 잘된다는 이유로 시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참조, 고전 13:4).
 (3) 더구나 이삭과 같이 객지(客地)에서 살아가는 외롭고 연약한 나그네를 시기하는 것은 무자비한 폭력이나 다름없다.
 (4)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같은 행위를 거듭 금지하고 있다(출 22, 23장; 신 10장). 이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덕목(德目)이다(히 13:1-3).

14. C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14, 15절)

- A (1)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 놓았으며(참조, 21:25, 30) 당시 이삭이 사용하고 있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 버렸다.
 (2) 물이 귀한 팔레스틴 땅에서의 이러한 행위는 곧 선전 포고(宣戰布告)나 다름없었다(왕하 3:25; 사 15:6).
 (3) 또한 이것은 이삭에 대한 간접적인 추방 명령이기도 했다.

15. C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16절)

- A (1) 아비멜렉은 그랄의 왕으로서 이삭에 대한 추방 명령을 공식적으로 표명(表明)했다.
 (2) 그는 처음에 이삭을 후대(厚待)하였으나(10, 11절) 이삭이 형통하고 큰 축복을 누리자 그를 경계하고 추방하였던 것이다.
 (3) 후에 애굽에서 번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이유로 바로의 시기와 압박을 받아야 했다(출 1:9).
 (4)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또한 고난을 수반한다. 이러한 고난은 축복받는 자로 하여금 패락과 안일에 빠져 잠자지 않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참조, 고후 12:7).

16. C 이삭이 옮겨간 '그랄 골짜기'는 어느 곳인가? (17절)

- A (1) '골짜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나할)은 산기슭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낮고 평평한 분지(盆地)를 가리킨다.
 (2) '그랄 골짜기'는 가자(Gaza)에서 남동쪽으로 약 15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17. C 이삭이 다시 판 우물은 어떤 우물인가? (18절)

- A (1) 이 우물들은 전에 아브라함 때에 판 것들이기는 하나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 버린 그

우물들과는 다르다(15절).

- (2) 즉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있는 우물 외에도 다른 우물을 팠었는데(21:31) 아브라함이 죽은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매워 버렸던 것이다.
- (3) 그러나 이삭에게 있어서 새 우물을 파는 것보다 막혀 있던 우물을 복구(復舊)하는 것이 더 쉬웠다.
- (4) 우리들도 비록 막막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지만 이삭처럼 믿음의 선조(先祖)들이 행한 자취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8. **㉠** '에섹'이란 무슨 뜻인가? (19, 20절)

- ㉠** (1) 히브리 원어로는 <에셀>인데 '다툼'이란 뜻이다. 이 말의 동사형은 <아샤>으로 어떤 것을 얻기 위해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
- (2) '에섹'은 우물의 이름으로서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그랄 목자, 즉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주장하여 다툼 사건에서 유래되었다.
 - (3)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성실한 사람을 시기하여 박해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자행되는 죄악이다.

19. **㉠** '잇나'란 우물의 이름은 어떤 사건에서 유래하였는가? (21절)

- ㉠** (1) 이삭은 처음 팠던 우물 '에섹'을 그랄 사람에게 양보하고 근처에 또 다른 우물을 팠다.
- (2) 그러나 끈질긴 그랄 사람들은 거기까지 쫓아와 다시 다투며 대적하였다.
 - (3) 이 우물에 대하여 '대적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잇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말은 원수같이 기다린다는 뜻을 가진 <사탄>을 어원(語源)으로 하고 있다. 마귀인 <사탄>도 여기에서 파생되었다.
 - (4) 앞에 나온 '에섹'과 함께 '잇나'는 우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받던 이삭의 상황을 대변해 준다.

20. **㉠** '르호봇'의 의미와 교훈을 말하라 (22절).

- ㉠** (1) 이삭은 두 번이나 그랄 사람들에게 우물을 양보하고 다시 옮겨 세번째 우물을 팠다.
- (2) 거기에서는 그랄 사람들이 다시 다투러 오지 않았으므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장소를 넓게 하셨다'고 말하면서 '장소가 넓음', '넓은 공간'이라는 뜻의 '르호봇'이라는 우물 이름을 붙였다.
 - (3) 여기에서 우리는 이삭의 은유함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된다.
 - (4) 즉 이삭은 계속되는 그랄 사람의 부당한 처사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림으로(잠 16:32)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다(시 37:11, 29, 34).
 - (5) 이러한 '르호봇'의 교훈은 은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8복(福) 교훈과도 통한다(마 5:5).

21. **㉠** 이삭이 자신의 우물을 판 후에도 그곳에 거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 이유는 무엇인가? (23절)

- ㉠** (1) 블레셋 사람들의 끊임없는 압력 때문이다(27절).
- (2) 이삭은 그랄 골짜기를 떠나 브엘세바로 거처를 옮겼다. 브엘세바는 지중해와 염해(사해) 사이의 중간 지점으로 옛날 아브라함이 정착하여 살았던 곳이다(21:33).
 - (3) 이런 이삭의 이주 사실 속에는 압력을 받으며 다투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이삭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은유하며 남을 용서하는 삶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참조, 고전 6:7).

22. **㉠**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24절)

- Ⓐ (1)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참조, 17:7).
 (2)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로 계승될 것으로서 이삭도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
 (3)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롬 4:16).
 (4) 그러므로 이삭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다.

23. ⓐ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24절)

- Ⓐ (1)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왕들과 싸운 후에 주어진 격려의 말씀과 같다(15:1).
 (2)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대립으로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데 본장에서서의 이삭도 비슷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3)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마음의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4)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주위 상황의 변화로 공포를 느낄 때가 있다.
 (5)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자.

24. ⓐ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받은 이삭은 무엇을 하였는가? (25절)

- Ⓐ (1) 언약을 받은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을 말한다.
 (2) 이삭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제사를 여호와께 드렸던 것이다.
 (3) 그리고 그의 종들은 그곳에서 우물을 팠다. 우물을 팠다는 것은 유목민으로서 한 지역에 정착할 준비를 갖추었다는 뜻이다.
 (4)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며 동시에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제시한다.

25. ⓐ 23-25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계속 반복하신다(창 12:1, 7; 15:1-6; 22:18). 그 이유는 무엇인가?

- Ⓐ (1)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며 영원히 변함이 없다(마 5:18; 24:35; 참조, 민 23:19).
 (2) 그러나 마음이 약하여 흔들리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기마다 나타나셔서 그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다.
 (3)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당신 위주로 하지 않으시고 언약한 인간들 위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된다(참조, 히 4:15).

26. ⓐ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인가? (26절)

- Ⓐ (1) 아비멜렉은 그의 전임자와 아브라함이 맺은 우호 조약(21:22-32)을 새롭게 함으로 이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방문했다.
 (2) 특별히 아비멜렉이 절친한 친구 아후삿(Ahuzzath)과 군대 장관 비골(Phicol)을 대동(帶同)하고 온 것은 매우 정중한 예의를 갖추었음을 나타낸다.
 (3)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이삭은 비록 아비멜렉으로 부터 쫓겨 났으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번영하여 그 세력이 아비멜렉을 압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참조, 28절).
 (4) 이처럼 힘이 있다고 교만했던 아비멜렉은 낮아지고 평화를 사랑하여 다툼을 피한 이삭은 오히려 크게 번영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온유한 자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이다(시 37:11; 마 5:5; 눅 1:51-53).

27. ⓐ 아비멜렉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29절)

- Ⓐ (1)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흔히 상대방을 높일 때 사용하는 어법(語法)이었지만(참조, 24:31)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가 첨가되어 있다.
 (2) 즉 이방인인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달을 정도로(참조, 28

a절) 이삭은 큰 축복을 받았고 그의 생활이 경건하였던 사실을 시사(示唆)한다.

(3) 이와 같이 우리들도 세상의 빛이 되는 생활을 함으로 불신자들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마 5:16).

28. ㉠ 이삭은 찾아온 아비멜렉을 어떻게 대우하였는가? (30, 31절)

- ㉠ (1) 처음에는 옛날 일을 생각해 그를 책망하였으나(27절) 후에 잔치를 베풀며 환대하였다.
- (2)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에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양측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의식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잔치와 공동 식사가 행해졌다(31:54).
- (3) 여기에서 이삭은 과거에 행한 아비멜렉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16절) 그와 언약을 맺어 서로 평화하였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도록 힘써야 한다(롬 12:17, 18).

29. ㉠ '세바'는 어떤 우물에 붙여진 이름인가? (32, 33절)

- ㉠ (1) 이삭과 아비멜렉이 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새로 파기 시작한 우물로부터 물이 나온다는 보고를 하였다(32절).
- (2) 이는 이삭이 아비멜렉과 서로 평화할 것을 맹세하고 난 직후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결국 '맹세'를 뜻하는 '세바'라는 이름이 그 우물에 붙여졌다.
- (3) 그리고 이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맹세의 우물이란 뜻)라고 부르게 되었다.
- (4)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嚴南端)에 위치하고 있어 후에 이스라엘 남쪽 국경을 상징하는 말로 자주 쓰였다(삼상 3:20; 대하 30:5; 암 8:14).

30. ㉠ 본장의 브엘세바와 아브라함 당시의 브엘세바를 비교하여 설명하라(33절; 21:31).

- ㉠ (1) 브엘세바란 이름은 전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할 때 우물에 붙였던 이름이었다(21:31).
- (2) 이삭은 그 사실을 상기(想起)하여 새 우물에 '세바'라는 이름을 붙였다.
- (3) 그러므로 본장의 우물과 21장의 우물은 다른 우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 두 우물은 '브엘세바'라고 칭하여진 한 성읍과 거의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 (4) 이삭은 부친이 붙였던 초기의 이름을 확인하고 영원히 그렇게 부르기를 바랐다.

31. ㉠ 에서는 몇 살 때에 결혼했는가? (34절)

- ㉠ (1) 40살 때에 결혼하였다. 이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와 같은 나이였다(25:20).
- (2) 이때에 이삭은 100세의 나이였다(참조, 25:26).

32. ㉠ 에서는 40세 때 누구와 결혼했는가? (34절)

- ㉠ (1) 헷 족속 출신의 두 여인, 즉 유딧(브에리의 딸)과 바스맛(엘론의 딸)과 결혼하였다.
- (2) 이들 헷 족속은 가나안의 원주민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無知)하였다.

33. ㉠ 에서의 결혼은 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었는가? (35절)

- ㉠ (1) 며느리들의 성격상 차이라기보다는 그들이 가나안 헷 족속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 (2) 그들은 경건한 이삭의 가정에 이방 우상을 비롯한 이방의 생활 방식을 갖고 들어와서 이삭과 리브가의 영혼에 피로움을 주었던 것이다(참조, 28:8). 원문에 '마음'〈루야흐〉는 영혼을 뜻하는 말이다.
- (3) 또한 에서의 일부 다처(一夫多妻)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죄악으로(창 2:24) 에서가 육적인 쾌락에 기울어진 생활을 했음을 보여 준다.
- (4) 이처럼 신앙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경건한 신앙을 가진 부모에게 큰 영적 고통을 끼치게 된다.

제 27 장 이삭을 통해 축복받는 야곱

단락구분 1-4 이삭이 예서로 사냥을 나가도록 하다 / 5-13 리브가가 야곱으로 염소 새끼를 가져오게 하다 / 14-17 예서로 가장(假裝)한 야곱 / 18-23 야곱이 예서의 축복을 가로채다 / 24-29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 / 30-40 예서에게 주어진 예언 / 41-46 예서의 분노와 야곱의 도피

1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 하더니 말아들 예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이야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2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3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5 이삭이 그 아들 예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예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6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 예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7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8 그런즉 내 아들이야 내 말을 좃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9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 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10 내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러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11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예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12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뵈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야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좃고 가서 가져 오라

14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 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버지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15 리브가가 집 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말아들 예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

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17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18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이야 내가 누구냐

19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말아들 예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20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야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21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야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예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22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예서의 손이로다 하며

23 그 손이 형 예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4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예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25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 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 가매 그가 마시고

26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야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27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와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8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30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31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32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말아들 에서로소이다
 33 이삭이 심히 크게 떨쳐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 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34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방성 대곡하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도 그리 하소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35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36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37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들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38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

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39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40 너는 칼을 밧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41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향 때가 가까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42 말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43 내 아들아 내 말을 좃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44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45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46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헛 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잃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헛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1. ㉠ 본장의 문맥(context)을 설명하라.

- ㉠ (1) 12-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26장에는 이삭의 생애가 다루어진 후 본장에서부터는 야곱의 생애가 본격적으로 전개(展開)되기 시작한다.
- (2)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가 이미 25:19-34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본장의 내용은 확실히 그 부분과 연결성을 가진다.
- (3) 본장은 25:19-34의 부분과 함께 하나님의 선택 원리를 가르쳐 주는 야곱의 생애에 대한 서론(緒論) 역할을 한다.
- (4) 즉 거저되고 허물 많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다(참조, 롬 9:11; 엡 2:8, 9).
- (5)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허물에 대한 대가를 치루기 위해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 계속 되는 기나긴 고난의 생애를 살아야만 했다.

2. ㉠ 본장의 별명(別名)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장자(長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둘러싸고 에서와 야곱, 이삭과 리브가 사이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인간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택자(擇者)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묘사되어 있다.
- (2) 이처럼 본장의 중심적인 화제(話題)가 축복이기 때문에 본장을 '축복장'(祝福章)이라고 할 수 있다.
- (3) 그런데 본장에 나타난 축복의 개념은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자

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에 주목해야 한다(엡 2:8, 9).

(4)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이 선하기 때문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성경적 원리를 가르쳐 준다(엡 2:10).

3. **㉠** '이삭이 나이 많아' 라고 했는데 당시 이삭은 대략 몇 살쯤 되었는가? (1절)

㉠ (1) 이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로 추정된다.

(2) 즉 요셉이 39세 때 야곱은 130세였으니(45:6;47:9) 요셉은 야곱이 91세 때 출생했다.

(3) 그런데 요셉의 출생 연도는 야곱이 밋단 하란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 지 14년 되는 해였으므로(29:18, 21, 27;30:25) 야곱은 77세 때에 집을 떠났다는 계산이 나온다.

(4) 이삭이 야곱을 60세에 낳았으므로(25:26) 이삭의 당시 나이는 137세가 된다.

(5) 이처럼 이삭은 매우 늙어 자기의 임종을 느낄 정도였다(참조, 2절). 그러나 그는 이후로 43년을 더 살았다(35:28, 29).

4. **㉠**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가? (1절)

㉠ (1)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기력이 쇠하여진 노인의 특징으로 야곱과 엘리가 다 그러하였다(48:10;삼상 3:2).

(2) 그러나 모세의 경우는 120세나 되어 임종을 맞이할 때에도 그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었다(신 34:7).

(3) 본절에서 이삭은 '잘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는 보이는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말이다(pulpit 주석).

(4) 이처럼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웠다(18, 19, 23절). 그러나 모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눈이 어두운 것이 곧 임종 시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 또한 이삭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을 보아 비록 눈은 어두워도 신체는 강건했던 것 같다(참조, 4절).

5. **㉠** 이삭이 죽기 전에 하려고 했던 일은 무엇인가? (1-4절)

㉠ (1) 이삭은 137세의 고령(高齡)이 되자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으로 여겼다(2절). 그는 아마도 그의 형제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은 사실을 회상했던 것 같다(25:17).

(2) 죽음이 임박함을 느끼자 그는 곧 죽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생각했다.

(3) 그것은 자신의 상속자를 축복함으로써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었다(참조, 27-29절). 즉 이것은 이삭에게 있어서 후손에게 물려줄 최대의 유산이었다.

(4) 우리가 잘 아는대로 디모데가 위대한 인물로 장성하게 된 배후에도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의 유산이 있었다(딤후 1:5).

(5) 이러한 사실은 물질주의가 만연(蔓延)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유산을 물려줌에 있어서 꼭 명심해야 할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보여 준다.

6. **㉠**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했는가? (1절)

㉠ (1) 만아들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

(2) 이는 육신적인 혈통만 생각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25:23)는 하나님의 예언을 가볍게 여긴 처사이다.

(3) 또한 이것은 에서의 외형적인 성품을 좋아하는 이삭의 편애가 크게 작용했다(25:28).

(4) 이와 같이 우리들도 사람에게 대한 육신적인 편애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가 많다(갈 5:17). 이러한 육신적 편애는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다.

7. **㉠** 사냥의 도구를 말해 보라(3절).

㉠ (1) 먼저 본절에 나온 '전통'(筋箭)과 '활'이 있다. 전통은 화살을 담아 등에 메는 원통형의 기구를 말한다.

- (2) 이밖에 칼도 주요한 사냥 도구였으며(욥 41:26-29) 함정(삼하 23:20), 울무(시 91:3; 124:7), 그물(잠 6:5; 암 3:5), 덧(렘 5:26) 등도 짐승을 잡는데 사용되었다.
- (3) 예서는 특별히 활 솜씨가 뛰어난 익숙한 사냥군이었다(25:27).

8. ㉠ '별미' (別味)란 무슨 뜻인가? (4절)

- ㉠ (1) 별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맘암립>으로서 '맛있는 음식들' (delicacies)을 뜻한다.
- (2) 이 낱말은 맛보다도 어떤 것에 호감(好感)을 갖는다는 의미를 지닌 어근에서 파생된 낱말이다.
- (3) 따라서 별미란 말은 예서의 사냥한 고기가 특별히 맛있었다는 것보다 이삭이 예서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그가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준다.
- (4) 이삭이 '나의 즐기는 별미'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의미로 보아야 한다.

9. ㉠ 별미와 축복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4절)

- ㉠ (1) 근래(近來)에 한국 교회의 어떤 부흥 집회에서는 부흥사에게 특별 안수 기도를 받는 조건으로 바치는 '별미 헌금'이라는 신조어(新造語)가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
- (2) 즉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흥사가 즐겨 먹도록 별미 헌금을 바쳐야만 한다는 것이다.
- (3) 이는 참으로 엉뚱한 착상(着想)에서 비롯된 웃어 넘길 수 없는 그릇되고 비성경적 은어(隱語)가 아닐 수 없다.
- (4) 본장에서 볼 때 별미를 갖다 바친 야곱은 바로 그 별미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했지만(12절)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축복받았던 것이다(참조, 25:23; 롬 9:12, 13).
- (5) 그러므로 본장에 나타난 이야기에서 별미와 축복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 오히려 별미를 가져온 야곱의 거짓된 행위는 저주를 받을 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 ㉠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 새끼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어떠한 의도에서였는가?(5-10절)

- ㉠ (1) 리브가의 이러한 행동은 맏아들 에서 대신 작은 아들 야곱으로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 (2) 이때 리브가는 약 77년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으며(25:23) 그것이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
- (3) 그러나 그녀에게는 참울성이 부족하였다. 그녀는 이삭이 예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말을 듣고 조금한 마음에 하나님의 수단이 아닌 자신의 수단을 통하여 야곱에게 축복을 돌리려 하였던 것이다.
- (4) 이것은 대단한 실수였다. 이 거짓된 꾀와 방법만을 본다면 야곱으로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 충분했다(12절).
- (5) 이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으로 정당한 목적을 추구할지라도 조금한 마음으로 그릇된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되고 만다.
- (6)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役事) 때문이다.

11. ㉠ '염소의 좋은 새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 ㉠ (1) 염소 고기는 야생 동물의 고기와 그 맛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리브가는 염소로 별미를 만들려고 했다.
- (2) 또한 본절의 '좋은 새끼'에 해당하는 원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좋은(염소) 새끼 두 마리'가 된다(KJV, two good kids of the goats).
- (3) 따라서 리브가는 두 마리의 염소 새끼로 이삭이 즐기는 '맛있는 음식들' (별미, delicacies)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12. ㉠ 리브가의 제안을 들은 야곱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11, 12절)

- ㉠ (1) 야곱은 리브가의 제안에 대해 난색(難色)을 표했다.
 (2)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만져볼 경우 에서로 가장한 자신의 정체(正體)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3) 이러한 야곱의 반응은 언뜻 보기에 정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4) 그러나 야곱은 리브가의 제안대로 행했기 때문에 (14절) 부친을 속이는 행위가 저주받을 일로 알았던 야곱의 정당한 지식은 (12절) 결국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5) 모르면서 잘못 행하는 것보다 알면서 잘못 행하는 것이 더 악하다(참조, 눅 12:47, 48). 성경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했다(약 4:17).

13. ㉠ 리브가가 다시금 야곱의 행동을 재촉한 말에는 그녀의 어떠한 심정이 나타나 있는가? (13절)

- ㉠ (1) 그녀의 극한 모성애(母性愛)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집착심(執着心)이 나타나 있다.
 (2) 즉 그녀의 제안에 대해 야곱이 저주에 대한 염려를 하자 그녀는 그 저주를 자기에게 돌리겠다고까지 말했던 것이다.
 (3) 사실 이때 리브가는 이미 남편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야곱을 에서로 분장시킬 교묘한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참조, 15-16, 23절).
 (4) 그러나 이 교묘한 방법은 야곱으로 하여금 더 악한 죄를 짓도록 했을 뿐(20절) 그 이상 아무 것도 아니다.
 (5) 이러한 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결과로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준다.
 (6) 여기서 우리는 모성애나 신앙적 열심마저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리석은 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교훈을 받게 된다.

14. ㉠ 결국 리브가의 제안을 실행에 옮긴 야곱의 마음을 분석해 보라(14절).

- ㉠ (1) 야곱은 리브가의 제안이 아버지를 속이는 행위라고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그것에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였다.
 (2) 이는 선한 일을 하려는 욕구보다 축복을 받고 싶은 욕심이 더욱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3) 우리는 여기에서 육적인 욕망이 도덕심과 싸워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게 된다(롬 7:23).
 (4)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발생되어지는 내적 투쟁(內的鬭爭)이다. 이 곤고와 절망과 사망의 몸에서 성도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다(롬 7:24, 25; 8:1-4).

15. ㉠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 동안 에서는 무엇하고 있었는가? (14절)

- ㉠ (1)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 동안에도 에서가 돌아오지 않은 것은 그가 꽤 오랫동안 사냥터에 나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2) 이때 에서는 곧 자기가 축복받을 줄 생각하고 사냥감을 찾는 데 열을 올리고 있었을 것이다.
 (3) 이 장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그저 축복만을 구하는 자들의 헛된 노력을 연상케 한다(참조, 전 2:26).

16. ㉠ '에서의 좋은 의복'이란 어떤 옷을 말하는가? (15절)

- ㉠ (1) '의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젠>은 곤돌 사람들이 입던 겹옷을 가리키는데(39:12, 13, 15; 41:42) 매우 아름답고 값진 천으로 만들어졌다(참조, 왕상 22:10).
 (2) 특별히 에서의 의복은 신분이 높은 사냥꾼들이 입던 예복으로 이 옷에서는 들의 향취가 풍겨나와 사냥군임을 느끼게 했다(참조, 27절).

17. **㉠** ‘입히고’ 라는 동사의 의미를 말하라 (15절).

- ㉠** (1) 이 동사는 히브리 문법에서 사역형 능동을 의미하는 히필(Hiphil) 형으로 사용되었다. 즉 리브가가 야곱 자신으로 옷을 입게 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 (2) 그러므로 야곱은 타의에 이끌려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사로서 리브가의 계획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 (3) 이 사실은 야곱의 허물을 명백히 드러내 주고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의 행위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18. **㉠** 리브가는 무엇으로 야곱의 손과 목의 매끈한 피부를 예서처럼 위장하였는가?(16절)

- ㉠** (1)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위장했다.
- (2) 팔레스틴의 염소 가죽은 그 털이 검고 윤기가 나며 매우 부드러워 사람의 머리처럼 보이고 감촉마저도 사람의 머리털과 거의 같다(Baker 주석).
- (3)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것으로 머리 장식이나 가발(假髮)을 만들어 사용했다. 이 염소 가죽으로 위장한 야곱의 팔은 이삭이 만져 보고도 분별치 못했다(22, 23절).
- (4) 이처럼 리브가의 지혜는 매우 뛰어났다. 그러나 실상 이 꾀는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의 죄악성을 드러내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약 3:16).
- (5) 우리는 첫째 성결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참조, 약 1:5; 3:17, 18).

19. **㉠** 야곱이 부친 이삭에게 가져간 음식은 무엇 무엇이었는가? (17, 25절)

- ㉠** (1) 리브가가 만들어 준 별미와 떡과 포도주였다. 떡과 포도주는 히브리인들에게 일상적인 음식이었다(참조, 창 14:18).

20. **㉠** 야곱의 거짓말을 3 단계로 나누어 비판해 보라 (18-20절).

- ㉠** (1) 이삭이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야곱은 대담하게도 ‘나는 아버지의 만아들 예서로소이다’라고 거짓말을 했다(19a절). 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게 된다.
- (2) 즉 그는 뽀뽀스럽게 염소 새끼의 고기를 ‘내 사냥한 고기’라고 속였다(19b절).
- (3) 또한 쉽게 별미를 만들 수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짐승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고 둘러댔다(20절).
- (4) 이처럼 거짓은 거짓을 놓고 이 거짓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가증한 죄악을 범하였던 것이다(출 20:7, 16).
- (5) 그러므로 거짓말은 마치 사단에게 문을 열어 주는 것과 같이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요 8:44).

21. **㉠** 야곱의 거짓말이 빚은 결과를 말해 보라 (18-20절, 참조, 29:21-25; 31:7; 37:31-36).

- ㉠** (1) 먼저 우리가 혼동치 말아야 할 점은 후에 야곱이 이삭을 통하여 받은 축복은(27-29절) 결코 야곱이 거짓말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이다(롬 9:11).
- (2) 야곱은 비록 축복은 받았으나 그의 거짓말의 대가로 이후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고(47:9) 또한 친히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여러 번 속임을 당해야만 했다.
- (3) 즉 그는 외삼촌 라반의 결혼 조건에 속임을 당하여 7년간 더 노동을 해야 했고(29:21-25) 품삯에 대해서도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았으며(31:7) 아들들에게마저 속임을 당했던 것이다(37:31-36).
- (4)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22. **㉠** 야곱이 이삭을 속이지 못한 점은 무엇인가? (22절)

- ㉠** (1) 야곱이 다른 모든 것은 이삭을 속일 수 있었으나 음성만은 속일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삭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예서의 손이로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 (2) 그런데 이삭은 음성보다도 감촉을 중요시하여서 야곱을 축복하였다.
- (3) 여기서 우리는 선택한 자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삭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그의 감각을 무디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
- (4) 이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수많은 허물과 싸여 있으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다(엡 1:3; 딤후전 1:13, 14).

23. ㉠ 야곱의 마지막 거짓말은 무엇이었는가? (24절)

- ㉠ (1) 이삭은 약간의 의심스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확인 질문을 하였다. '네가 참 내 아들 예서냐?'
- (2) 이때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거짓말을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었으나 야곱은 자기 양심의 소리에 마비되어 있었듯이 '그러하니이다'라고 다시 거짓말로 답변했다.
- (3) 루터(M. Luther)는 야곱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있어 그의 뻔뻔스러움에 당혹(當惑)하면서 '나 같으면 놀라서 도망갔을 것이고 집시를 땅에 떨어뜨렸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24. ㉠ 이삭의 결단이 주는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25절)

- ㉠ (1) 이삭은 드디어 자기가 축복할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축복하기로 결단했다.
- (2) 오늘날 목사들의 기능에도 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 즉 목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면서도 화해되는 사람을 분간치 못할 때가 많다.
-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분과 권세를 그들에게 맡기시기는 했으나 신령한 역사(役事)를 그들 자신의 판단과 지배 아래 두지는 않으시기 때문이다(Calvin).

25. ㉠ 입맞춤의 풍습을 설명하라 (26, 27절).

- ㉠ (1)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입맞춤은 행위는 남녀간의 애정의 표현을 넘어서서(아 1:2; 8:1)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 (2) 즉 친구간의 우정의 표시이기도 했고(삼하 20:9; 마 26:48; 눅 7:45; 15:20; 행 20:37) 친척간 우애(友愛) 표시(29:13), 왕에 대한 신하의 충성의 표시(삼상 10:1; 시 2:12), 선생에 대한 제자의 존경의 표시(마 26:49)이기도 했다. 본절에서는 특별히 부자(父子)간의 애정을 나타내는 표시였다.
- (3) 한편 유대의 랍비들은 3종류의 입맞춤만 허락하였는데 존경할 때, 맞이할 때, 이별할 때 등이다(pulpit 주석).
- (4) 이러한 입맞춤의 풍습은 초대 기독교인 사이에도 실행되었고(롬 16:16) 오늘날의 서구인(西歐人)들에게는 일반적인 풍습이나 동양인에게는 애정의 표현 이외에는 실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26. ㉠ '그 옷의 향취(香臭)'란 무엇인가? (27절)

- ㉠ (1) 야곱이 입은 예서의 의복(15절)에서 나는 가나안 땅의 들 냄새를 가리킨다.
- (2) 이삭이 이 옷의 향취를 맡은 것은 야곱과 입맞추면서 우연히 되어진 일이다.
- (3) 여기서 야곱이 그 형의 신분으로 축복을 받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을 받게 된다(Ambrose).
- (4) 다시 말해 성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옷을 받아 입고 그 옷의 향기로 인해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참조, 롬 13:14).

27. ㉠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을 시(詩)의 형태로 표현해 보라 (27-29절).

- ㉠ (1)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은 예언이자 기도문이며 동시에 시(詩)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 (2) 오! 내 아들의 향기, 그 향기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로 너를 축복하사

땅이 기름지게 되고 오곡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모든 백성이 너를 섬기고
 모든 민족이 네 앞에 엎드리게 되리로다.
 너는 네 겨레의 영도자가 되며
 네 모든 형제들이 네 앞에 굴복하리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로다.
 (공동 번역 참조)

28. ㉠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의 의미를 말해 보라(27-29절).

- ㉠ (1)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2) 첫째는 자연을 통한 일반 은총의 축복이다(27, 28절). 천지 기상(天地氣象)과 농사의 흥풍(凶豐)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행 14:17).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말 3:10-12; 고후 8:14; 빌 4:12, 17).
 (3) 둘째로 복음을 통한 특별 은총의 축복이다(29절). 야곱과 그의 후손은 복음을 말한 제사장 나라로서(출 19:6; 롬 3:2)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4) 이러한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도 적용된다(행 3:25; 갈 3:8-14).

29. ㉠ 에서의 말과 18절에 있는 야곱의 말을 비교할 때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가? (31절)

- ㉠ (1) 18절에서 야곱은 '내 아버지여'라고 간단히 불렀으나 에서는 '아버지여 일어나서... 잠수시고... 축복하소서'라고 길게 말하였다.
 (2) 여기서 에서의 말은 야곱보다 훨씬 친근감이 있고 애정이 넘치는 느낌을 준다.
 (3) 이처럼 에서와 이삭은 매우 친근한 사이였지만 축복은 야곱에게로 돌아갔다.
 (4) 이 사실은 아무리 인간 관계가 좋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

30. ㉠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3절)

- ㉠ (1) '심히 크게 떨었다'란 히브리 원문(에헤라드 하라다 게들라)를 직역하면 '두려워하고 크게 두려워하며'가 된다. 즉 헤아릴 수 없는 공포심으로 떠는 모습을 말한다(Lange).
 (2) 이삭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깨달았으며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다(Calvin).
 (3) 그렇기에 그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 이미 선언했던 축복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4) 이와 같이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비록 나약하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속성을 가지고 능력을 나타낸다(딤후 2:9; 히 4:12).

31. ㉠ 에서가 방성 대곡(放聲大哭)하였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암시하는가? (34절)

- ㉠ (1) '방성 대곡'이란 매우 큰 소리로 비통하게 울부짖는다는 뜻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 수고한 모든 일이 허사가 되었기에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우는 에서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2) 이처럼 에서는 울면서 축복을 구했지만 결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히 12:16, 17).
 (3)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즉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버림 받은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마 25:1-13).

32. ㉠ '간교하게'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35절)

- ㉠ (1) 이 말의 원뜻은 '지혜롭게, 사기(詐欺)로' 등의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사기로'라는 뜻이 더욱 적절하다.
 (2) 그러나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교활하게 이삭을 속여 빼앗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3) 오히려 야곱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해진 뜻에 따라 축복되어진 것으로 하나

님의 신실성을 입증해 준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참조, 민 23:19).

33. **㉠** 이삭은 축복을 조르는 에서에게 무엇을 예언했는가? (39, 40절)

- ㉠** (1) 이삭의 말은 에서에게 주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저주에 가까운 예언이었다.
 (2) 즉 28절에 있는 야곱에게 준 축복과는 대조적으로 에서는 물질적 풍요에서 제외될 것이며(39절)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으로(40절) 예언되었던 것이다.

34. **㉠** 에서에 대한 예언은 후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40절)

- ㉠** (1) 이삭은 에서 후손의 성격과 미래를 예언하였는데 모두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2) 즉 '갈을 밧고 생활하리라'는 예언과 같이 에서와 그의 후손은 전쟁과 약탈을 계속하며 황무한 땅에서 살았다(렘 49:7-22).
 (3) 또한 '에서 곧 에돔이 야곱을 섬기리라'는 예언은 다윗 시대에 성취되었다(삼상 14:47; 삼하 8:14; 참조, 왕상 11:16; 왕하 14:7-10; 대하 20:22-25).

35. **㉠** 에서는 야곱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가? (41절)

- ㉠** (1) 에서는 야곱을 심히 미워하여 결국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2) 그런데 그 시기를 아버지가 죽은 후로 미룬 것은 늙은 부모의 비탄에 잠긴 모습을 보고 자기가 느껴야 할 가책이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3) 이렇게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생각보다 그때를 기회로 삼아 동생을 죽이겠다는 에서의 마음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회개치 않았음을 보여 준다(Calvin).
 (4) 이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그 마음에 영생(永生)이 없다는 증거이다(요일 3:15).

36. **㉠** 하란으로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42-46절)

- ㉠** (1) 이러한 상황은 결국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보아야 한다.
 (2) 이후에 야곱은 '몇 날 동안'(44절)이 아닌 '20년간'(31:28) 하란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였고 리브가가 다시 야곱을 만났다는 기록을 볼 수 없다(참조, 35:8, 27).
 (3)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허물은 그에 상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4)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다(딤펴전 1:15).

본장의 요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
 의 향취로다’ (27절).

제 28 장 야곱의 도망과 사닥다리 환상

단락구분 1-5 야곱이 축복을 받고 밧단아람으로 떠나다 / 6-9 에서가 세번째 아내를 얻다 / 10-17 사닥다리의 환상과 여호와의 언약 / 18-19 야곱이 벵엘에 돌기둥을 세우다 / 20-22 야곱의 서원(誓願)

1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2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브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3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6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7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좇아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8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는지라

9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웃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들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6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 곳이 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 야곱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 그곳 이름을 벵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20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21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 ㉠ 본장의 중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1) 본장에서부터 야곱의 기나긴 나그네 생활이 시작된다.

(2) 야곱은 부모와 헤어져 홀로 먼 지방 밧단아람으로 떠나야만 했고 길가에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 고난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3) 이러한 야곱의 고난은 그가 전장(前章)에서 축복받기 위해 아버지를 속였던 행위가 빚어낸 결과였다.

- (4) 이처럼 처량한 신세가 되고만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사다다리의 환상을 보여 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셨던 것이다(참조, 호 12:4).
- (5) 본장에는 자기 죄로 인해 고난받는 야곱과 그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
- (6)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죄로 인해 고난받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으로 만나 주신다(사 55:6; 렘 29:13, 14; 참조, 겔 16:6).

2. **Q**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 A** (1) 이삭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자는 리브가의 의견(27:43, 46)에 동의(同意)하여 야곱을 불러 축복(3, 4절)과 부탁(1, 2절)의 말을 하였다.
- (2) 특별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다는 것은 전장(前章)에서 그가 행했던 축복(27:27-29)을 다시 확실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3) 이 사실은 이삭의 축복이 인간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 준다(롬 9:11).
- (4) 즉 이삭의 착각과 야곱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은 여전히 유효(有効)하다.
- (5) 이와 같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도 인간의 허물과 실수와는 상관없이 성취되어진다(참조, 엡 1:3-6).

3. **Q**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가게된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A** (1) 본래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였다(27:42-45).
- (2) 그런데 그 이유가 어느새 전환되어 가나안의 이방인과의 결혼을 피하고 선민(選民) 곧 동족과의 결혼을 하기 위한 것이 더 큰 목적으로 되어 버렸다(참조, 27:46).
- (3) 야곱은 후에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어 그 목적을 이루었다(29:23, 28).
- (4)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롬 8:28).

4. **Q** 밧단아람이란 어느 곳을 가리키는가? (2절)

- A** (1) 히브리어로 <밧단아람>은 '아람의 평야'라는 뜻이다(호 12:12).
- (2) 이곳은 하란에서 서쪽으로 16km쯤 떨어진 곳으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참조, 24:15, 29, 47).
- (3) 야곱이 나홀의 후손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것은 이삭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5. **Q**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은 무엇인가? (3, 4절)

- A** (1) 첫째는 후손이 여러 족속을 이루리라는 번성의 축복이고(3절), 둘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는 기업(基業)의 축복이다(4절).
- (2) 이러한 이삭의 축복은 이미 아브라함(12:2, 3)과 이삭(26:2-5)에게 주어진 언약의 정통성이 야곱에게 계승되어짐을 의미한다.
- (3) 한편 이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계승되었다(갈 3:8, 9).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세상의 나그네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이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롬 12:12; 히 10:23-25).

6. **Q**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호칭을 사용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3절)

- A** (1) 이 호칭은 히브리어로 <엘 사다이>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적으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17: 1-8).

- (2) 따라서 이삭이 이 호칭을 사용한 것은 야곱의 자손이 오직 여호와와 능력으로 번성하기를 축원했음을 의미한다.
- (3) 또한 이것은 언약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계열에 속한 믿음의 후손들이 궁극적으로 야곱을 통하여 확장될 것을 암시한다.

7. **㉠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3-4절; 출 38:26; 수 11:23)**

- ㉠** (1) 먼저 번성의 축복은 야곱이 낳은 12아들을 통하여 성취되어 약 400년 후에는 수백만의 인구를 가진 열 두 족속을 이루게 되었다(29:31-30:24; 35:16-26; 출 1:7; 38:26).
- (2) 또한 기업을 축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에 정착함으로써 성취되었다(수 1:6; 11:23).
- (3)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한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참조, 민 23:19; 렘 11:5; 단 11:36; 눅 1:45).
- (4)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신약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신천 신지(新天新地)를 통하여 허락하실 것이다(엡 1:3; 계 21:1).

8. **㉠ 에서가 세번째 아내를 얻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6-8절)**

- ㉠** (1)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말을 듣고 자기의 결혼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 (2)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가나안의 여인들로 두 아내를 얻었고(26:34, 35), 신앙이 없는 그녀들은 부모의 마음에 늘 근심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27:46).
- (3) 그래서 에서는 뒤늦게 부모의 환심(歡心)을 사기 위해 세번째 아내를 얻으려 하였다.
- (4) 이는 매우 잘못된 결혼의 동기이다. 남편은 본래의 아내를 잘 권고하여 시부모(媳父母)를 바로 섬기도록 해야지 에서처럼 또 다른 아내를 얻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면 안 된다.

9. **㉠ '본처(本妻) 들 외에'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9절)**

- ㉠** (1) 에서가 법적인 본래의 아내들과 이혼하거나 사별(死別)하지도 않고 또다시 결혼한 사실이 잘못된 일임을 밝히고 있다.
- (2) 이처럼 중혼(重婚)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2:24) 범죄 행위이다.

10. **㉠ 에서의 결혼이 보여 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6-9절)**

- ㉠** (1) 결혼은 매우 신성한 제도이므로(참조, 2:20-25)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2) 그런데 에서는 단순히 자기 부모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했다.
- (3) 결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여 두 남녀의 진실한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참조, 2:23; 엡 5:22-33; 히 13:4).

11. **㉠ 에서의 세번째 아내는 누구인가? (9절)**

- ㉠** (1) 아브라함의 서자(庶子)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이니 에서와는 4촌간이다. 이로써 에서의 아내는 유딧, 바스맛, 마할랏 등 3명이 되었다(26:34).
- (2) 그런데 마할랏은 이미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제거된 사람의 딸로서 결코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는 못했다.
- (3) 이처럼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참조, 요일 2:11).

12. **㉠ 에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라 (9절).**

- ㉠** (1)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판 실수(25:34)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실수(26:34)에 대하여 잘못을 깨달아 후회는 하였으나 회개하지는 않았다(히 12:17).
- (2) 이와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판 실수를 깨닫고 후회만 하였지 진정

한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다(마 27:3-5).

(3) 이것은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다. 참된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택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증거다(행 11:18; 롬 2:4; 딤후 2:25).

(4) 우리는 베드로와 탕자에게서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마 26:75; 눅 15:11-32).
우리 자신의 회개의 모습은 어떠한가?

13. ㉠ 하란을 향해 떠난 야곱의 여행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10절)

㉠ (1) 야곱은 부모의 지시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 집을 떠나 의지할 곳이 없게 된 그는 이제 부모가 지시해 준 하란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2) 마음 속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간직하고 험한 여행길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모습은 초신자가 신앙 생활을 출발하는 것을 연상시킨다.

(3)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4) 이제 그의 여행은 언약을 믿는 소망의 행로(行路)가 되었다. 현대의 성도들도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의 길에서 장차 받을 영광스런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신앙의 삶을 계속해야 한다(요 14:2; 벧전 1:4).

14. ㉠ 야곱이 유숙한 곳은 어디인가? (11절)

㉠ (1) '한 곳' (a place) 이라고 했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5km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루스'라고 불리었는데 (19절) 야곱이 출발한 브엘세바에서는 85km쯤 된다.

(2) 따라서 야곱은 집을 떠난 날 이곳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의 여행을 한 후에 도착하였던 것이다(참조, 22:4).

15. ㉠ 야곱은 어떻게 밤을 보내야만 했는가? (11절)

㉠ (1) 야곱은 하란까지 가야하는 머나먼 여행 길에서 동반자도 없었고 쉼 곳도 없었다.

(2) 그는 날이 어두워지자 돌로 베개삼아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외롭고 슬픈 밤을 보내야만 했다.

(3) 우리는 여기서 버림 받은 예서가 남아서 물질적인 유산을 차지한 반면 축복받은 야곱은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4)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너무 거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 항상 야곱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거짓된 모습을 깊이 회개해야 할 것이다(Calvin).

16. ㉠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꿈을 설명해 보라 (12절).

㉠ (1) 꿈은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20:6; 37:10; 민 12:6; 삼상 28:6; 왕상 3:5; 단 2:2-45; 마 2:22).

(2) 이처럼 계시의 초기 단계에는 꿈도 계시의 한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성경이 완결된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 수단으로서의 꿈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17. ㉠ 야곱은 꿈에 무엇을 보았는가? (12절)

㉠ (1) 그는 땅 위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였다.

(2) 이 사닥다리는 땅에 있는 죄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요 1:51; 14:6).

(3) 이처럼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늘의 모든 충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통로이다.

(4) 따라서 야곱은 구약의 그리스도를 목격한 것인데 고난의 나그네 길을 가는 그에게는 최대의 위로였다.

(5) 오늘날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찾아오셔서 고독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신다(고후 1:5).

18. **㉠**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 주셨는가? (13-15절)

- ㉠** (1) 자기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 처량한 나그네 신세가 되어버려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2) 그 말씀의 요점은 두 가지로서 자손이 번성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는 축복과 (13, 14절)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15절).
 (3) 이 말씀은 야곱의 행위에 전혀 관계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또한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롬 9:11-13; 참조, 25:23; 말 1:2).
 (4) 이와 동일한 사랑과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다 (참조, 갈 3:14).
 (5) 따라서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 하며 반대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 해도 그것의 근원이 자기의 행위와는 관계 없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겸손해야 한다.

19. **㉠**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분으로 밝히셨는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세상의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밝히셨다 (참조, 2:4).
 (2) 그런데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그저 인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인격(人格)의 하나님이셨다.
 (3)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시려는 것이다. 이는 얼마 전에 야곱이 이삭을 통하여 받은 축복의 당연한 결과이다 (27:27-29).
 (4) 이처럼 조상의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자신을 밝히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말씀으로 나타내셔서 언약 관계를 맺으신다 (롬 4:16).

20. **㉠**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13, 14절)

- ㉠** (1) 3대 축복으로서 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기업(基業)의 축복 ② 후손을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번성의 축복 ③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메시아적 축복 등이다.
 (2) 이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던 축복으로서 (13:15, 16; 26:3, 4) 야곱에게도 계승된 것이다.
 (3) 이로써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정통성을 확실히 인정받았다.
 (4)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신약의 성도들도 (마 26:28) 야곱과 같이 이 3대 축복을 받게 된다.

21. **㉠** 야곱이 받은 3대 축복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13, 14절)

- ㉠** (1) 첫째 야곱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림자이다 (히 11:16; 12:22).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시민권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엡 1:11-14; 빌 3:20).
 (2) 또한 번성의 축복은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의미한다 (요 10:10; 참조, 시 1:3; 23:5). 야곱이 잘리워진 가지처럼 곤궁(困窮)하였으나 수많은 무리를 이루었듯이 (32:10) 성도들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 (고후 6:10).
 (3) 마지막으로 메시아적 축복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즉 메시아(그리스도)께서는 성도 안에 내주(內住)하시면서 성도의 삶을 통해 복음을 나타내심으로써 성도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갈 2:20). 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축복인 임마누엘(Immanuel)의 축복이다 (참조, 사 7:14; 마 1:23).

22. **㉠**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셨는가? (15절)

- ㉠** (1) 야곱은 그의 일생동안 결코 잊을 수 없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

께 제서서 평생토록 그를 떠나지 않으시리라는 약속이다.

(2)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제서서 그를 지켜 주실 것이다.

(3) 그리고 그를 이끌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의 평생에 허락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이다.

(4) 이 약속들은 구구 절절(句句節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을 몽클하게 한다.

(5) 이제 우리의 생애에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평생에 허락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참조, 마 28:20).

23. ㉠ 사닥다리 환상과(12 절) 하나님의 약속은(13-15 절) 어떤 관계에 있는가?

㉠ (1) 말씀이 없는 환상은 생명력이 없고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환상들을 생기있게 만드는 영혼과 같다.

(2) 그러므로 사닥다리의 환상은 뒤이어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할 때 열등한 종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3) 즉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환상과 표적은 그 말씀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권위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지닌다.

(4) 오늘날 일부 신비주의 교파에서 환상, 표적, 신유(神癒, 병고침)를 강조한 나머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영혼 없는 몸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24. ㉠ 야곱은 잠이 깬 후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다고 고백하였는가? (16 절)

㉠ (1) 야곱은 자기가 돌 베개를 베고 잔 그 쓸쓸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2) 이는 야곱에게 있어서 매우 놀라움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3) 비록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고 자기 여행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기는 했어도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우 비천(卑賤)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참조, 딤후 4:16-18).

25. ㉠ 야곱은 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는가? (17 절)

㉠ (1)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

(2)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모세(출 20:18, 19), 욥(욥 42:5, 6), 이사야(사 6:5), 베드로(눅 5:8), 요한(계 1:17, 18) 등도 비슷한 두려움을 느꼈다.

(3)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말씀을 듣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진 한편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기 위한 진정한 겸손과 자기부인(自己否認)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

(4)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항상 이 같은 경건한 두려움으로 감동되어야 한다(참조, 빌 2:12; 히 12:28; 벧전 1:17).

26. ㉠ 야곱이 꿈을 꾸 장소를 ‘하나님의 전(殿)이요 하늘의 문(門)’이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17 절)

㉠ (1)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형상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여 ‘전’ 또는 ‘문’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2) 즉 야곱은 하나님이 거하신 장소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입구라는 의미에서 ‘하늘의 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혹은 집)’(the house of God)이라는 뜻을 가진 <벧엘>이란 지명(地名)이 유래되었다(참조, 19절).

(4) 신약 시대에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

이라고 할 수 있다.

- (5)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광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롬 10:13-17; 벧전 2:11).

27. **㉠ 야곱은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무엇을 하였는가? (18절)**

- ㉠** (1) 그는 베개하였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2) 여기서 돌기둥을 세운 것은 우상이나 신적 예배의 대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다만 꿈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Calvin, Keil; 참조, 31:45; 35:14; 수 4:9, 20; 24:26; 삼상 7:12).
 (3) 또한 그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은 미래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과 장차 제사를 드릴 것을 서약하는 상징적 행위였다(참조, 35:7, 15).
 (4) 이처럼 야곱의 고난과 실패와 슬픔을 나타냈던 돌 베개가 이제는 소망과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
 (5)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잠시 환난을 받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바꾸어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다(행 14:22; 롬 8:18; 고후 4:17, 18).

28. **㉠ 돌기둥에 부은 기름은 어떤 기름인가? (18절)**

- ㉠** (1) 혹자는 인근 도시에서 구입한 기름이었다고 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당시 야곱이 잠을 잔 장소에는 사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2) 그러므로 이 기름은 야곱이 식료품으로 휴대한 기름으로 보아야 한다. 야곱은 자기 비상 식량을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헌신을 고백했다.

29. **㉠ 야곱은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 ㉠** (1) 그는 자신이 고백했던 말 중 ‘하나님의 전’에 해당하는 ‘벧엘’이란 명칭으로 그곳 이름을 불렀다.
 (2) 즉 ‘벧엘’은 ‘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베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 <엘>의 합성어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진다.

30. **㉠ 벧엘과 루스는 어떻게 다른가? (19절)**

- ㉠** (1) 야곱이 여행할 당시에는 근방에 아무 성읍도 없었다. 그렇기에 야곱은 들판에서 잠을 잤던 것이다.
 (2) 야곱은 잠에서 깨어난 후 그곳을 ‘벧엘’이라고 불렀으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다.
 (3) 그러던 중 그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야곱의 사건을 알지 못하는 거민들이 ‘루스’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4)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벧엘’의 이름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가나안 정복 후에는 ‘벧엘’이란 이름을 사용했고, 가나안 족속은 ‘루스’란 이름을 사용하였다.
 (5) 히브리어로 <루즈>는 편도 나무(almond tree)를 뜻하는데 그 이유는 그 주위에 편도 나무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1. **㉠ 야곱은 무엇을 서원했는가? (20-22절)**

- ㉠** (1) 야곱은 먼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15절) 기억하면서 ①하나님의 보호(‘나를 지키시고’)와 ②일용품의 공급(‘양식과…옷을 주사’)과 ③인도하심(‘나로…돌아가게 하시면’)을 간구하였다.
 (2)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 주시리라고 확신하면서 ①참된 예배(‘나의 하나님’)와 ②성전 건축(‘하나님의 전’)과 ③십일조를 드리기로 서원했다.
 (3) 이는 올바른 서원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4) 칼빈(J. Calvin)은 말하기를 ‘올바른 서원은 우선 바른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다음으로 서원하는 내용이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야곱의 서원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5)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간구를 앞세우므로 서원 이행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했고, 또 예배를 위한 올바른 목적, 성전과 십일조라는 가능한 내용의 서원을 했던 것이다.
- (6) 오늘날 성도들도 이런 서원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32. 야곱의 서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0-22절)

- A (1)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는 야곱의 서원이 처음이다.
- (2) 본래 서원(誓願)이란 말은 '묶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שבא>에서 유래되었다. 즉 자신의 결심으로 세운 의지(意志)에 자신의 인격을 묶는다는 뜻이다.
- (3)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서원하게 된다.
- (4) 본장에서 야곱은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다 해도 지난 밤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서원을 드릴 수 있었다.
- (5) 이러한 사실은 우리 신앙인에게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알게 된다는 진리를 보여 준다.

화보자료

꿈꾸는 야곱. 아래의 그림은 도메니코 페티가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꿈을 꾸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서 디트로이트 예술원에 소장되어 있다.



야곱은 벳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시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서원했지만(20-22절)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즉 그는 하란에서 돌아온 후 벳엘로 가지 않고 숙곳(33:17)을 거쳐 세겜에 거하다가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34:2, 30) 다시 벳엘로 가게 된다(35:1-7).

제 29 장 야곱의 결혼

단락구분 1-8 하란에 도착한 야곱 / 9-14 라헬을 만나 라반의 집으로 인도되다 / 15-20 라헬을 위한 7년간의 봉사 / 21-30 라반의 약속 위반과 야곱의 이중 결혼 / 31-35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네 아들

1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2 본족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
 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3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들
 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4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
 로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5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훔의 손
 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6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나 가
 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7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쫓기라
 8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들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9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버
 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더라
 10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
 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들
 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11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12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
 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고하매
 13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
 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
 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14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
 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15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
 이 네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16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
 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레아는 곱고 아리
 따우니
 18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봉사하리이다
 19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
 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이라
 20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칠 년을 수
 일같이 여겼더라
 21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왔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
 나이다
 22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23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24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5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
 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
 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
 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쩔이
 니이까
 26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
 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27 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칠 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28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 일을 채우매 라
 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29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30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
 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칠 년을 라반
 에게 봉사하였더라
 31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섯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32 레아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
 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
 랑하리라고 하였더라
 33 그가 다시 임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
 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음으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
 였으며

34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1. **㉠ 본장의 개요와 문맥의 흐름을 말하라.**

- ㉠** (1) 본장에는 가나안을 떠난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 생활하던 14년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2) 물론 이 14년간에 일어났던 일들 중 야곱의 11아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본장 31절에서 30:24까지 따로 언급되고 있다.
 (3) 본장에서 중요한 이야기의 맥(脈)은 라반의 집에서 객지(客地) 생활을 하는 야곱이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후손을 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데에 있다.
 (4)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계승되던 하나님의 언약(13:15, 16; 26:3, 4)이 야곱에게 이르러 본격적으로 성취되어가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5) 우리는 이러한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본장에 기록된 야곱의 결혼과 본장 31절에서 30:24까지 이어지는 11 아들의 출생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2. **㉠ 1-9절 사이에 기록된 내용의 요점은 무엇인가?**

- ㉠** (1) 이 부분의 내용은 야곱과 하란 목자들 간의 대화로서 언뜻 보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2)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여기서도 우리는 야곱의 길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
 (3) 즉 목자들이 하란 사람이었고 (4절) 라반을 알고 있었으며 (5절) 라헬이 마침 그곳에 나타났었던 사실 (6절) 등은 야곱으로 하여금 순조롭게 목적지인 라반의 집에 도착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 준다.
 (4) 이처럼 야곱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의 생활도 매우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신다.

3. **㉠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 ㉠** (1)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처럼 세심하게 인도하셨던 이유는 야곱이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2)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씨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를 약속하셨기에 (28:17) 야곱 안에 계신 메시아를 인하여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이다 (28:18).
 (3) 야곱 안에 약속된 메시아가 계셨듯이 신약 시대의 증생한 성도들 안에는 성취된 메시아가 계신다고 할 수 있다 (갈 2:20).
 (4)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은 마치 야곱의 경우와 같이 모든 생활에 있어서 세심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4. **㉠ ‘발행하다’란 말의 뜻을 원문에 입각하여 설명하라 (1절).**

- ㉠** (1)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은 <잇사 라글라우>로서 직역하면 ‘그의 발을 들었다’ (KJV, lifted his feet)가 된다.
 (2) 이는 여행의 새로운 출발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표현으로 야곱이 처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브엘세바를 떠날 때와는 달리 (28:10) 새로운 소망과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벧엘을 떠나 출발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5. **㉠ ‘동방(東方) 사람의 땅’이란 어느 곳을 가리키는가? (1절)**

- ㉠** (1) 보통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하면 아라비아 (25:6) 혹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

하는데 (겔 25:10) 여기서서는 메소포타미아 서북쪽 하란 근방을 가리킨다.

- (2) 이곳은 브엘세바에서 약 720km 떨어져 있는데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대전까지 돌아오는 거리와 비슷하다.
- (3) 그러므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출발, 요단 강을 건너 아라비아 광야의 북부를 거쳐 하란 부근에 도착하는 오랜 여행을 하였던 것이다.
- (4) 야곱이 하루 평균 40km를 여행했다고 간주할 때 약 20일간 여행을 하였을 것이고 많은 일을 겪었을 터이지만 그 모든 일은 과감하게 생략되었다.
- (5) 그 이유는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야곱의 일대기를 보여 주려는 데 있지 않고 그를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救贖史)를 증거하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6. **㉠** 고대 근동에 있는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방법을 말하라(2,3절).

- ㉠** (1) 특히 팔레스틴에서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우물이 있는 곳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목자들은 양 떼를 몰고 가서 공동으로 물을 먹였다(3절).
- (2) 먼저 도착한 목자는 우물 옆에서 다른 양 떼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다(8절).
- (3) 목자들이 다 모이면 힘을 합하여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을 굴러내고 차례대로 양 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양 떼가 물을 마시면 다시 돌로 우물을 막았다(3절).
- (4) 이러한 행위는 목자들끼리 이미 약조된 것이었다(8절).

7. **㉠** 야곱이 본 우물을 엘리에셀이 본 우물과 비교하라(2절;24:11).

- ㉠** (1) 야곱이 본 우물은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서 리브가를 만났던 그 우물이 아니다.
- (2)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났던 우물은 개방된 구조의 우물로 즉시 퍼서 마실 수 있는 것이었다.
- (3) 그러나 이곳의 우물은 양 떼들을 위해 특별히 파 놓은 우물이며 돌로 입구가 막혀 있는 우물이었다.

8. **㉠** 야곱과 목자들의 처음 대화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4절)

- ㉠** (1) 야곱은 '나의 형제여'라고 먼저 말을 걸었다. 외로운 목자 세계에서는 낯선 사람을 만나도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
- (2) 거주지를 묻는 야곱의 질문에 하란에서 왔다는 목자들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한다.

9. **㉠** 야곱과 하란 목자들은 어떤 언어로 대화했는가? (4-8절)

- ㉠** (1) 목자들이 사용한 언어는 갈대아어였으며(참조, 31:47) 야곱이 사용한 언어는 히브리어였다.
- (2) 이 두 언어는 다같이 한 계통인 셈족 언어였는데 야곱 당시에는 아직 큰 차이가 없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데 별반 어려움이 없었다.

10. **㉠** 야곱은 목자들을 보내기 위하여 어떤 말을 하였는가? (7절)

- ㉠** (1) 야곱은 아직 낮이 많이 남았고 양을 모아 우리에게 넣을 밤이 되지 않았으니 양에게 풀을 뜯기러 가도록 목자들에게 부탁했다.
- (2) 이것은 라헬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홀로 라헬을 만나기 위한 야곱의 계략(計略)이었다(Keil, Lange).
- (3)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부지런하고 꼼꼼한 성품의 단면(斷面)을 보게 된다. 이러한 성품은 훗날 야곱의 생활에 계속 나타나게 된다.

11. **㉠** 야곱은 라헬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9-11절)

- ㉠** (1) 야곱은 라헬과 그 양 떼를 보고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힘을 내어 돌을 옮기고 라헬이 몰고 온 양 떼에게 물을 먹였다(9절).

- (2)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외롭고 위험한 여행을 한 후에 자신의 친척을 만났다는 기쁨과 감정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
- (3) 또한 야곱은 사촌 여동생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 (4) 야곱이 울었던 이유는 자신이 외가집 친족을 발견한 기쁨과 동시에(비교, 34:30; 45:2, 14, 15), 한편으로는 이곳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의 발로(發露)였다.
- (5) 이처럼 오늘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험한 나그네 길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기쁨과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고후 1:3, 4).

12. ㉠ 야곱이 라반에게 고한 ‘자기의 모든 일’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 절)

- ㉠ (1) 집을 떠날 때 리브가가 라반에게 말하도록 부탁한 모든 말일 것이다(27:42-46).
- (2) 독자들은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신지? 그때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친족 중에서 아내를 구하는 목적을 갖고 떠나도록 인도하셨다(27:46; 28:1, 2).
- (3) 아마도 야곱은 이런 상황을 모두 라반에게 설명하여 몇 날 동안 머물기로 허락받았을 것이다(참조, 27:44).
- (4) 이처럼 야곱이 라반에게 모든 일을 말하고 그의 집에 머물도록 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볼 수 있다.

13. ㉠ ‘골육’(骨肉)이란 무슨 뜻인가? (14 절)

- ㉠ (1) ‘골육’(히, 에쩍 우바사르)이란 ‘뼈와 살’이란 뜻으로 혈연 관계를 가진 매우 가까운 사이를 가리킨다(참조, 2:23; 사9:2; 삼하 5:1; 19:12).
- (2) 그러므로 본절에서 라반이 야곱더러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라고 말한 것은 처음 보는 야곱을 틀림없는 리브가의 아들 곧 자신의 조카로 인정하는 말이다.

14. ㉠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문 후 어떤 제안을 받았는가? (14, 15 절)

- ㉠ (1) 라반의 집에서 생활한 한 달 동안 야곱은 훌륭한 목자로 인정되었다.
- (2) 따라서 야곱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라반은 야곱과 말하자면 일종의 고용계약(雇傭契約)을 맺자고 제안하였다.
- (3) 이처럼 야곱은 비록 잠시 머물지도 모르는 기간이었으나 매우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라반측에서 먼저 보수를 제안토록 만들었던 것이다.
- (4)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야곱의 근면과 성실의 자세를 본받아 어떤 입장과 처지에 있던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생활을 해야 한다(롬 12:11; 14:18; 참조, 엡 6:5-8).

15. ㉠ 라반의 두 딸에 대하여 설명하라(16, 17 절).

- ㉠ (1) 큰 딸의 이름은 ‘레아’로 ‘지친, 우둔한, 애모(愛慕)하는’의 뜻을 지니고 있다.
- (2) 레아는 ‘안력(眠力)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직역하면 ‘레아의 눈이 부족하다’가 된다. 이는 시력이 약하거나 눈의 충기 또는 광택이 없음을 말한다. 이 사실은 레아에게 여성적인 매력기 부족했음을 지시한다(비교, 삼상 16:12).
- (3)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인데 ‘암양’이라는 뜻이다.
- (4)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고 했는데 직역하면 ‘모양이 아름답다’이다. 라헬은 레아와 비교할 때 눈도 반짝거리며 외모도 아름다웠거니와 성품 전체가 총명하였던 것 같다(비교, 39:6; 삼상 16:18).
- (5) 이 두 여인 가운데에서도 구속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 즉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택하셔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참조, 35절; 마 1:2).

16. ㉠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기 위해 몇 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했는가? (18-20 절)

- Ⓐ (1) 야곱은 7년 동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 (2) 당시 고대 근동(古代近東)의 관습에 따르면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만 했다(24:53; 34:12; 삼상 18:25).
- (3) 그러나 야곱에게는 아내를 위해 지불할 만큼 재산이 없었기에 7년 동안 머슴 일을 자청했던 것이다.
- (4) 결국 야곱은 7년이란 긴 세월 동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고된 일을 하였으나(31:40, 41) 7년을 수 일(數日)같이 여겼다(20절).
- (5) 진정한 사랑은 시간에 관계 없이 언제나 외롭지 않으며 그 사랑의 힘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준다(참조, 고전 13:4).
- (6) 야곱의 이러한 인내는 오늘날 모든 결혼을 앞둔 성도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

17. Ⓒ 야곱 당시의 결혼 잔치에 대하여 설명하라(22절).

- Ⓐ (1) 잔치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체테>는 ‘마시다’란 뜻의 <샤타>에서 나온 말로 ‘마시고 노는 축제(feast)’를 의미한다(참조, 19:3).
- (2) 당시 근동 지방에서 결혼 잔치는 보통 7일간 계속되었다(삿 14:10; 참조, 27, 28절).
- (3) 이 부분에서 라반이 흥청거리는 잔치를 베푸는 것은 소란한 분위기를 통해 야곱을 속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Lange).
- (4) 즉 라반은 잔치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첫날밤에 신랑 방으로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냈던 것이다.

18. Ⓒ ‘들어간다’란 무슨 뜻인가?(21, 23절)

- Ⓐ (1)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보>는 본래 ‘들어간다’(come in)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보내다’, ‘성 교제를 갖다’ 등의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참조, 수 15:18).

19. Ⓒ 첫날밤에 레아가 야곱에게 들어간 사실에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가?(23-25절)

- Ⓐ (1) 야곱은 라헬인 줄만 알고 첫날밤을 보낸 후 아침에 일어나 보니 뜻밖에 레아였다.
- (2) 당시에는 신부가 면박 베일을 하고 신랑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베일이 매우 길어서 신부가 누구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참조, 24:65).
- (3) 그렇더라도 야곱이 밤중에 레아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4)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옛날 이삭이 그랬듯이(27:22, 23) 레아의 음성을 중시(重視)하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다.
- (5) 이리하여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이것은 레아를 통해 메시아의 족보를 형성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다(참조, 35절; 마 1:2).
- (6) 이처럼 구속사의 전개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作定)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잠 16:33; 참조, 잠 16:1, 9).

20. Ⓒ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당한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가?(25절)

- Ⓐ (1) 라반은 탐심이 많은 사람으로(참조, 31:7) 일 잘하는 야곱을 오래 붙들여 놓으려는 심산(心算)에서 야곱을 철저히 속였다.
- (2) 한편 레아도 평소 야곱을 짝사랑하고 있어서 라반의 제안에 동의(同意)하여 야곱을 속였음에 틀림없다(pulpit 주석).
- (3) 결국 야곱은 7년 전에 자기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의 씨앗을 뿌렸는데(28:18-20) 이제 그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 것이다.

(4) 우리는 이 사건에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교훈을 얻게 된다(참조, 28장 Q).

21. Q 라반이 말한 결혼 풍습은 무엇인가? (26절)

- A (1) 라반은 자기 지방에서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보내지 않는 풍습이 있다고 말했다.
 (2) 이런 풍습이 고대 인도, 이집트 및 하란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라반의 변명을 정당화시킬 수 없었다.
 (3) 즉 라반은 마땅히 처음 약속할 때 (19절) 이런 풍습을 얘기했어야만 옳았기 때문이다.
 (4) 이러한 라반의 거짓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라반은 7년 전에 야곱의 요구를 들어 주면서 이미 야곱을 속일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pulpit 주석).

22. Q 라반이 레아에게 준 시녀의 이름은 무엇인가? (24절)

- A (1) '실바' (히, 질파)로서 '떨어짐, 몰약 냄새가 나는 즙'이란 뜻이다.
 (2) 당시에는 결혼 선물로 평생 수종들 몸종을 붙여 주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다.
 (3) 이 실바는 후에 야곱을 통하여 두 아들(잇사갈, 스블론)을 낳았다(30:18-20).

23. Q 레아에 이어 라헬도 야곱의 아내가 된 의미는 무엇인가? (28절)

- A (1) 이것은 당시 사회 제도인 중혼 제도(重婚制度)의 인정에 의한 것이다.
 (2) 중혼 제도는 첩 제도와 다른 것으로 중혼 제도에 의한 부인들은 모두 정식 아내의 특권을 가졌다.
 (3) 그러나 중혼 제도도 첩 제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한 일부 일처제의 법(창 2:23)이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진 것을 나타낸다.
 (4) 이처럼 구약 시대에 만연되었던 중혼 제도, 축첩 제도 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은 것뿐이다.

24. Q 야곱이 고된 양치는 일을 14년 동안이나 하면서도 불평 없이 묵묵히 일한 것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27-30절)

- A (1) 순수한 사랑은 참 희망을 준다. 그 사랑이 권력 또는 재산과 관련 없는 따뜻한 사랑일 때 인간은 비록 당장은 그 사랑의 대상을 소유할 수 없다 해도 그것은 희망이 있으므로 행복할 수 있다.
 (2)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봉사와 희생조차 기쁘게 행할 수 있다.
 (3) 야곱이 라헬을 열애하였듯이 우리 각자를 뜨겁게 사랑하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연인(戀人)이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주께서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과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다.
 (4) 라헬을 사랑한 야곱이 그 거친 목동 생활도 기쁘고 즐겁게 보낸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체험한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기쁘고 즐겁게 살며 주를 위하여 고난도 즐거이 받아야 한다(참조, 롬 8:7; 빌 1:29; 벧전 3:14).

25. Q 라헬에게 준 시녀의 이름은 무엇인가? (29절)

- A (1) '빌하'로서 '수줍어 함, 예의바름'이란 뜻이다.
 (2) 빌하는 후에 야곱에게 두 아들(단, 납달리)을 낳았다(30:6-8).

26. Q '레아에게 총(寵)이 없음'이란 무슨 뜻인가? (31절)

- A (1)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을 가리킨다. 영역 성경은 '미움 받았다'(was hated)라고 번역했으며(KJV, RSV) 공동 번역은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의역했다.
 (2) 이처럼 레아는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시고 간섭하여 많은 아들을 낳는 축복을 주셨다.
 (3) 하와, 사라 및 리브가(4:1; 21:1; 25:21)도 여호와께서 간섭하시므로 아들을 얻은 바 있다.
 (4) 우리는 여기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메시아 혈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해 주관되

고 있음을 보게 된다.

- (5) 이처럼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자연 질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에 의한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 (6) 우리 모든 성도의 구원도 이같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절대 확실하여지는 것이다(요 6:44, 65; 10:28, 29).

27. ㉠ 레아가 낳은 여섯 아들의 이름과 뜻을 설명하라(32-35절; 30:18-20).

㉠ 다음 도표를 참조하라.

구분	이름	뜻	레아가 낳으면서 한 말	해당성구
첫째	르우벤	르우(보라) + 벤(아들) '보라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29:32
둘째	시므온	'들으심'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29:33
셋째	레위	라야(연합하다)에서 파생 '연합'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29:34
넷째	유다	'찬송함'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29:35
다섯째	잇사갈	'값'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30:18
여섯째	스블론	'거함'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30:20

28. ㉠ 레아가 메시아의 조상인 유다를 낳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5절)

- ㉠ (1) 아마 유다를 낳을 때 레아의 특별한 신앙심은 남편 야곱에게 매우 감화를 주었을 것이다(참조, 31:4, 14; 49:31).
- (2) 레아는 비록 남편에게 총애를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으나(33절) 드디어 그녀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유다를 낳는 영광을 차지했다(참조, 마 1:2).
- (3) 여기에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타나 있다(참조, 삼상 2:8; 눅 1:52).
- (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낮은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던 것이다(눅 4:18-19; 참조, 마 9:13).

29. ㉠ 레아의 생산이 멈추었다는 뜻은 무엇인가? (35절)

- ㉠ (1) 이 말은 레아가 다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 (2) 단지 생산(生産)하는 일이 얼마 동안 중지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 (3) 이후에도 레아는 야곱의 아홉째, 열째에 해당하는 두 아들(잇사갈, 스블론)을 더 낳았다(30:18-20).

제 30 장 야곱의 자녀와 물질 축복

단락구분 1-4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 / 5-8 라헬의 여종 빌하의 두 아들 / 9-13 레아의 여종 실바의 두 아들 / 14-21 레아가 다시 두 아들과 딸을 낳다 / 22-24 라헬이 요셉을 낳다 / 25-36 야곱과 라반의 품삯 계약 / 37-43 야곱에게 임한 물질 축복

1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할
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
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
겠노라

2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발하여 가로되 그대
로 성대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내
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3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
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
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4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
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5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
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
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7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
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8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
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9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
더니

10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
으매

11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
이라 하였으며

12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13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도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14 맥추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
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
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15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
앗은 것이 작은 일이나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
면 형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
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16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
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17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
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18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
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잇사갈이라 하였으며

19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
에게 낳은지라

20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은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
을 스블론이라 하였으며

21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22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
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23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
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와는 다시 다
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있더라

25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26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
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
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7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
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28 또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29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
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30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떼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
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31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

굽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고 지키리이다

32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두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내며 염소 중에 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삶이 되리이다

33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흑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짐이 없는 자나 양 중 짐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34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딸대로 하리라 하고

35 그 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 무늬 있는 자와 짐 있는 자를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의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36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울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37 야곱이 버드나무와 삼구나무와 신흥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태니

39 가지 앞에서 새끼를 태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40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41 실한 양이 새끼 낼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들을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태게 하고

42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르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43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과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전장(前章)의 끝 부분(29:31-35)에 이어 야곱의 12아들의 출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1-24절) 아울러 야곱의 재산이 증가된 사실을 밝혀 주고 있다(25-43절).
- (2) 이러한 본장의 내용은 일찌기 야곱에게 허락된 이삭의 축복이(27:27-29;28:3, 4) 본격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 (3) 이로써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준비를 갖추게 되었으며(28:4, 13-15, 21) 31장에서는 가나안으로 귀향(歸鄉)하는 여정(旅程)에 오르게 된다.
- (4) 이러한 본장의 내용과 문맥은 본장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예언과 축복이 성취되는 사실을 밝혀려는 데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 라헬이 레아를 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레아는 네 명의 아들을 낳았으나(29:31-35)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다.
- (2) 아브라함의 후손은 언약의 축복과 자손의 번성함에 대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12:2; 13:16) 성숙한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고 수치스런 일로 간주되었다(23절; 삼상1:6; 사4:1).
- (3) 그러므로 라헬은 후손의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자신이 제외되는 것처럼 느꼈고 마침내 레아를 투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 (4) 이러한 라헬의 투기는 잘못된 것이었다(참조, 잠14:30). 그녀는 투기하는 대신 한나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했다(삼상1:10, 11).
- (5) 우리 성도들은 이 일을 거울삼아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갈5:26).

3. ㉠ 라헬은 야곱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1절)

- ㉠ (1) 라헬은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게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고 말하면서 자식을 낳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 (2) 이것은 대단히 경솔한 말로서 라헬의 믿음 없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3) 즉 라헬은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시127:3)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4)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하나님의 한 도구에 불과한 사람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여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은 불신앙의 어리석은 행위이다 (참조, 시146:3-5).

4. **㉠** 야곱의 대답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절)

- ㉠** (1) 야곱은 라헬의 불신앙적 태도를 꾸짖으면서 아이를 낳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 (2)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네 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즉 그는 구름과 마음과 무덤과 태(胎)를 열고 닫으시는 열쇠를 갖고 계시다(Matthew Henry).
- (3) 하나님께서는 이 열쇠들을 스스로 지니고 계시지 어떤 천사들이나 인간에게 맡기지 않으신다(제3:7; 참조, 욥11:10;12:14).

5. **㉠** 라헬이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첩으로 준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3절)

- ㉠** (1)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 주지 못할 때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풍습이 있었다(16:2).
- (2) 그러나 라헬이 언니인 레아를 투기함으로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갖겠다는 것은 자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잘못된 욕심이다.

6. **㉠** 야곱이 빌하를 첩으로 삼은 처사는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인가? (4절)

- ㉠** (1) 야곱은 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기는 했지만(2절)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보다 아내에 대한 동정(同情)으로 치우쳤던 것이 사실이다.
- (2) 전장(前章)에서 언급했다시피(참조, 29장 **㉠** 23)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아내와 중혼(重婚)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규례(2:23)에 어긋난 범죄였는데 결국 야곱은 세번째 아내를 얻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다.
-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가 일단 소홀히 취급되면 그로부터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경고를 듣게 된다.

7. **㉠** 빌하가 낳은 첫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5, 6절)

- ㉠** (1) ‘단’이며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둔>에서 온 말로 ‘판단, 판단자’라는 뜻이며 개역 성경 난외주에는 ‘억울함을 푸심’으로 되어 있다.
- (2) 이는 하나님께서 라헬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공정하게 판단해 주셔서 이제 자신의 수치가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 (3) 즉 라헬은 자신의 몸종 빌하가 아들을 낳은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단’이라 이름 지었다.
- (4) 자신의 아들 없는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만이 판단해 주셨다는 신앙은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방법은 잘못된 것이다.
- (5)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

8. **㉠** 빌하의 두번째 아들은 누구인가? (8절)

- ㉠** (1) ‘납달리’ (Naphtali)로서 개역 성경 난외주에는 ‘경쟁함’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뜻을 좀더 정확히 밝히면 ‘나의 경쟁’이 된다.
- (2) 이 이름에는 레아와 경쟁하여 이기었다는 라헬의 자만심이 나타나 있다.
- (3) 사실 라헬은 자식을 많이 낳는 집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레아보다 열등(劣等)한 것이 분명한데도 그녀는 자기의 다산성(多産性)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 (4) 이처럼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대부분 남의 재능을 깎아 내려 과소 평가(過小評價)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

9. **㉠** 레아가 자기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 ㉠** (1) 이 사실은 라헬의 교만하고 도전적인 경쟁을 본 후 레아가 실바를 통해 새로운 경쟁을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 (2)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고대 근동의 풍속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범죄 행위로서(참조, Q 5) 야곱 가정의 죄악이 점점 심해져 감을 보여 준다.
- (3) 즉 레아와 라헬의 이기적인 경쟁 의식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거침없이 무너뜨리고 이제는 축첩제(蓄妾制)의 악습마저 연출하여왔던 것이다.
- (4) 우리는 여기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 과정을 볼 수 있으며(약1:15) 결국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도 죄악에서 시작된 민족으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참조, 롬1:16).

10. Q 실바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은 무엇인가? (10-13절)

- A (1)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갓'으로 야곱에게는 일곱째 아들이 된다(11절).
- (2) '갓' (Gad)은 레아가 말했던 '복되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가드>에서 파생된 이름으로서 다산(多産)을 축복으로 여겼던 당시의 가치관을 반영해 주고 있다.
- (3) 또한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셀'인데 야곱의 여덟째 아들이다(13절).
- (4) '아셀'은 '기쁨'이란 뜻으로 다산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상(思想)을 나타내 주고 있다.
- (5) 이 이름들은 레아의 처음 네 아들의 이름과 비교해 볼 때 경건성이 결여되어 있다.
- (6) 이 사실은 레아와 라헬이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불경건한 수단을 통해 아이를 낳고 있음을 확증시켜 준다.

11. Q '맥추(麥秋) 때'란 언제를 가리키는가? (14절)

- A (1) 10-4월의 우기(雨期)가 끝난 직후인 밀 추수를 시작하는 5월 초순 경을 가리킨다.
- (2) 이때에 르우벤은 약 8세쯤 되었는데 추수하는 집안 사람들을 따라 들에 나갔다가 합환채(合歡菜)를 얻어 어머니인 레아에게 드렸다.

12. Q '합환채'란 무엇인가? (14절)

- A (1) 합환채(히, 두다임)는 '만드라고라' (mandragora)라는 식물의 열매로, '만드라고라'는 지중해 동부 지역의 황무지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이다(참조, 아7:13).
- (2) 이 식물은 향긋한 냄새가 나며 회거나 붉은 꽃이 핀 후 사과와 같은 노란색 열매를 맺는다.
- (3) 열매는 5월과 6월 사이 맥추 때에 완전히 익는데 '사랑의 사과'라고도 불리며 최음제(催淫劑)로 사용되었다.
- (4) 왜냐하면 야곱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합환채가 부부간의 사랑을 증대시키고 자녀 출산을 증진시킨다고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었다.

13. Q 합환채로 다루는 두 여인의 대화에서 야곱 가정의 어떠한 면을 볼 수 있는가? (15절)

- A (1) 라헬은 레아에게서 합환채를 얻는 대신 야곱이 레아와 함께 동침하도록 양보했다.
- (2) 이와 같이 합환채와 남편을 사이에 두고 여자 사이에 흥정을 했던 사실은 야곱 가정이 성적으로 문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 (3) 나중에는 심지어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였던 빌하와 통간을 하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35:22).
- (4) 이러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야곱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교만함을 버리게 하며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게 만든다.

14. Q 하나님께서 레아를 들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7절)

- A (1) 합환채 사건 당시 야곱은 라헬만을 매우 편애(偏愛)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레아는 남편을 빼앗겼다고 말할 정도로(15절) 심한 소외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 (2) 이때 레아가 기도를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은 18절을 고려해 볼 때 그다지 큰 의미를 갖

지 못한다.

(3) 그보다는 레아의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上達)되고 그동안 잉태하지 못하던 레아는 다섯번째 아이를 잉태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참조, 16:11).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소외당하고 압박당하는 자 편에 서서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신원(伸冤)하여 주신다(시 10:17, 18).

15. Q 레아가 낳은 다섯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18절)

A (1) '잇사갈' (Issachar)로서 '값이 있다, 샀다 있다' 라는 뜻이다.

(2) 레아가 이러한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그녀가 자기 몸종 실바를 남편에게 준 대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레아의 무지를 나타낸 것이다. 즉 그녀는 야곱에게 첩을 소개함으로써 신성한 결혼의 규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값이 아니라 무상(無償)의 은혜로써 아들을 주셨던 것이다(Calvin).

16. Q 레아의 아들 스블론에 대하여 설명하라(19, 20절).

A (1) 스블론은 레아가 낳은 여섯번째 아들이며 야곱에게는 열번째 아들이다.

(2) 그가 태어날 때 레아는 좀더 신앙적이 되어서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후한 선물'로 인정했다.

(3)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자기와 연합되어 거할 것을 기대하면서 '거함'이라는 뜻으로 '스블론'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4) 사실 합법적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연합시키는 이음 고리이다.

17. Q 레아가 낳은 딸의 이름은 무엇인가? (21절)

A (1) '디나' 인데 <단>의 여성 명사형으로 '여자 재판관'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2) 야곱의 딸이 디나 한 명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7:35과 46:7에 보면 그에게 다른 딸들도 있었던 것 같다.

(3) 그러나 성경에 이름이 언급된 야곱의 딸은 '디나' 한 명 뿐인데 그 이유는 족보 기사에서 여인의 이름을 보통 생략했기 때문이다.

(4) 여기서 특별히 디나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훗날 그녀의 불행한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이다(34:1).

18. Q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의미와 그 교훈을 말하라(22절).

A (1) 생각하셨다는 것은 애정을 갖고 기억하였다는 뜻이다.

(2) 라헬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고통, 즉 아이를 낳지 못하는 피로움을 아시고 라헬에게 은총을 주시게 되었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사는 축복만큼 큰 행복은 없다.

(4)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사랑을 따라 모든 성도들은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마 5:48; 22:37-40; 눅 10:37).

19. Q 라헬이 낳은 첫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24절)

A (1) 라헬이 낳은 첫아들은 야곱에게는 열 한번째 아들이었는데 그 이름은 '요셉'이다.

(2) 이 이름은 '더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야삽>에서 유래되었는데 여기에는 아들을 한 명 더 낳기를 바라는 라헬의 소원이 함축되어 있다.

(3) 이러한 라헬의 소원은 후에 막내 아들 베나민을 낳음으로 이루어졌다(35:16).

(4)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라헬의 생산이 함환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14, 15절)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태를 여시는' 주권적인 역사(役事)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22절).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방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

는 것이다(잠16:1, 9, 33).

20. ㉠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란 언제쯤 말하는가? (25절)

- ㉠ (1) 이때는 라헬을 위한 7년의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으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지 14년쯤 되는 해가 된다.
- (2) 그러므로 야곱은 라반과 새로운 근로 계약을 맺게 되고(27절) 이후에 6년간 더 일을 하게 된다(31:38, 41).

21. ㉠ 야곱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25, 26절)

- ㉠ (1) 야곱은 요셉을 낳고 계약 기간을 채우게 되자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2) 왜냐하면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이곳 하란까지 왔으나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가나안의 후계자로서의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사명을 느꼈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비록 인간적인 결합과 부족이 많았던 야곱이었으나 그는 언약에 대한 믿음만은 굳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 (4)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언제나 삶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참조, 갈2:20).

22. ㉠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라고 한 라반의 말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27절)

- ㉠ (1) 라반은 비록 이방 미신을 섬기고 있었으나(31:19, 32)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인정했다.
- (2) 왜냐하면 야곱이 들어온 이후로 라반의 재산이 번창하여졌고(30절) 야곱은 언제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었기에 결국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 (3) 이와 같이 복의 근원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주위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된다(갈3:14; 참조, 마 10:13).

23. ㉠ 품삯을 정하라는 라반의 말에 대하여 야곱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28-30절)

- ㉠ (1) 야곱은 자신의 보수를 선뜻 요청하지 않고 지난 자신의 공적을 다시 언급하면서 자신의 요구 조건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은연중 과시하였다.
- (2) 즉 야곱이 오기 전에 라반의 가축은 적은 수에 불과했으나 야곱이 일한 14년 동안 그 수가 급격히 늘어 누가 보더라도 야곱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 수 있었다.
- (3) 그렇기에 탐심이 많은 라반도 야곱의 말에 수긍(首肯)하고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31절)면서 품삯에 대한 계약 체결을 보채게 되었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어떤 직장에서든 인정을 받게 되고 정당한 보수를 받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롬 14:18).

24. ㉠ ‘내 집을 세우리이까’란 말은 무슨 뜻인가? (30절)

- ㉠ (1) 이 말은 남의 식솔(食率)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집의 가장(家長)으로 독립하는 것을 가리킨다.
- (2) 이는 야곱이 라반 밑에서 편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에게 약속된 땅에서 독립된 언약의 가문(家門) 세우기를 열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참조, 히 11:24-26).
- (3) 우리도 잠깐 머물다 가는 여관 같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히 11:13-16).

25. ㉠ 야곱은 라반에게 자기의 품삯으로 무엇을 요청했는가? (31-33절)

- ㉠ (1) 야곱은 자신의 품삯으로 일정한 액수의 일시 지불이 아니라 라반의 재산 전체에서 비율 분배적 몫을 요청하는 기발한 제안을 했다.

- (2) 즉 야곱은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 그리고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가 태어나면 그것들을 자기에게 주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 (3) 이는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불리한 조건이었다.
- (4) 왜냐하면 양은 희고 염소는 검은 것이 보통으로 점이 있거나 아롱진 것은 비율이 적기 때문이다.
- (5) 뿐만 아니라 양, 염소 같은 단색 동물에 대해서 점박이 동물은 유전 법칙상 열성(劣性)에 속한다.
-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러한 품삯을 요청했던 것은 그의 신앙 때문이었다.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비록 불리할 것 같지만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다(31:10-12).
- (7) 따라서 야곱은 보상을 주겠다는 라반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였다는 얘기가 된다(참조, 시 146:3-5).
- (8)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많은 허물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하여 큰 축복을 받았던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참조, 43절).
- (9)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롬 1:17; 갈 3:9, 14).

26. ㉠ 야곱이 자기 양 떼를 늘리기 위하여 사용한 나무 가지는 무엇인가? (37절)

㉠ (1)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평나무의 가지를 사용했다.

- (2) 여기서 버드나무(히, 리브네)는 포플라(poplar)나무를 가리키며 살구나무(히, 루즈)는 알몬드(almond) 나무 또는 개암나무를(43:11; 출 25:33, 34) 그리고 신평나무(히, 아르몬)는 플레인(plane) 나무, 즉 플라타너스(platanus)를 말한다.

27. ㉠ 야곱은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양 떼를 늘렸는가? (37-39절)

㉠ (1)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평나무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양 떼들이 교미할 때 그것을 두어 새끼를 배게 하였다.

- (2) 이것은 야곱이 짐승들의 생식 행위 당시의 심리적 욕구를 자극하여 얼룩 무늬 새끼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 가나안 목자들이 사용하던 방법으로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 (3) 이러한 방법은 야곱 자신이 생각해 낸 속임수라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준 대로 그가 실행한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31:12).
- (4) 결국 얼룩 무늬의 새끼들이 많이 태어남으로써 야곱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어떤 인간적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작용한 결과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별로 과학적이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 복을 받게 된다.

28. ㉠ 야곱은 어느 정도의 부자가 되었는가? (43절)

㉠ (1) 본문에 의하면 야곱에게 양 떼와 노비(남, 여 종들)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다고 했는데 이는 야곱이 불과 6년 만에 이미 큰 부자(巨富)가 되어 있었음을 가리킨다(참조, 31:1).

- (2) 고대 사회에서는 부의 척도가 가축과 노비였으므로 그것들의 수자는 부(富)의 정도를 나타낸다(참조, 욥 1:3).
- (3) 사실 야곱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았음을 생각해 볼 때(13:2; 26:12-22) 야곱의 부는 언약적 축복의 계승을 의미한다(27:28).
- (4)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후에 자신의 노력이나 재능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부자가 되었음을 고백한다(31:5).
- (5)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많은 부를 축척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축복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허공에서 바람

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무의미하다(전 2:9-11).

29. **㉠**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서 배울 수 있는 인간 관계는 어떠한가?

- ㉠** (1) 가까운 친척간이면서 서로의 이해 타산을 앞세우는 이기심이 팽배해 있다. 두 사람은 서로 속고 속이며 부를 축적해 나가는데, 라반의 탐욕이 눈앞의 이익이라면 야곱의 탐욕은 계약에 의한 미래의 부(富)를 꿈꾸는 것이다.
- (2) 성도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만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세상에 살 때에도 성도들은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단순한 물질뿐 아니라 영육간의 평온과 종말론적 영생까지를 포함한다.
- (3) 또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라반을 속이고 재능을 발휘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 다만 인간적이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있는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은 것뿐이다.
- (4)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 범사에 공명·정대하게 대하여 모든 행동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실을 증거하여야 한다(마 5:16; 요 13:35; 14:21).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모든 불신자들 보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했음을 기억하자(14:19; 26:26-29; 30:27).

화보자료



합환채(mandrake). 이것은 감자류에 속하는 것으로 팔레스틴 남부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잎은 진한 녹색이며, 꽃은 자색, 열매는 작은 도마도와 같다. 뿌리는 인삼처럼 사람의 다리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것은 여자의 수태력을 촉진시킨다 하여 옛날부터 약으로 이용되었다.

본장에 나오는 라헬과 레아 간의 대화에는 이 합환채가 사랑의 약으로 묘사되어 있다(14-16절).

제 31 장 야곱의 귀향과 라반의 추격

단락구분 1-3 귀향하라는 하나님의 지시 / 4-16 가족들과 의논하는 야곱 / 17-22 야곱이 몰래 하란을 떠나다 / 23-25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다 / 26-35 라반이 드라빔을 찾다 / 36-42 야곱의 항의 / 43-55 언약을 맺고 헤어지는 두 사람

1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느니라

2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4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5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6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7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삷을 열 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8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샅이 되리라 하면 은 양떼의 낙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샅이 되리라 하면 은 양떼의 낙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0 그 양떼가 새끼 뱄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11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3 나는 뱄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14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

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15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16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17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18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할새

19 때에 라반이 양떼를 쫓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20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21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22 삼 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23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칠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24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5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느니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26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27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8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네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29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30 이제 내가 네 아버지를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31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32 외삼촌의 신은 뉘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소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33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34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35 라헬이 그 아버지에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36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37 외삼촌께서 내 물건은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집물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38 내가 이 이십 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양양들이나 양양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9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40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불일 겨울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41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이십 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 사 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육 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열 번이나 변역하셨으니

42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43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리라

44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45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46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47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라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니

48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며

49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50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51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52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53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훔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54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함을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야하고

55 라반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1. **◎ 본장의 주요 사건이 주는 영적 의미를 말해 보라.**

㉠ (1)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객지 생활을 하던 야곱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3, 13절).

(2)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던 야곱에게 라반의 추격이라는 큰 시련이 닥쳐왔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으로(24, 29, 42절) 야곱의 귀향 길에는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았다.

- (3) 이러한 야곱의 20년 하란 생활과 귀향의 사건은 후에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400년간 번성하다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출애굽 사건과 함께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고 있다(참조, 출1장).
- (4) 즉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객지 생활과 같은 것으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준다(고후5:1; 벧전1:17).
- (5) 성도들의 고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나라로서(요14:2, 3; 히11:13-16; 12:22, 23; 계21:2)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의 여정(旅程)을 주권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도착하게 하실 것이다(딤후4:18).

2. **㉠** 야곱이 귀향을 서두르게 된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 (1) 첫째는 야곱의 물질적인 축복(30:43)에 대해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였고 라반도 야곱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미움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 (2) 둘째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조상의 땅 곧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하시기 때문이다.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에 머물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신 후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였음을 의미한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피할 길을 지시하시므로 보다 새로운 삶의 비전(vision)을 보여 주시는 분이다(고전10:13).

3. **㉠** 야곱이 귀향하게 된 배경을 출애굽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 보라 (1-3절).

- ㉠** (1)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일약 거부(巨富)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 미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귀향하게 되었다.
- (2) 이와 비슷하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인보다 수적으로 더 많고 강하게 되었을 때(출1:7) 바로에게 미움을 받았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지시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게 되었던 것이다(출1:8-14; 3:7-10; 12:37).
- (3)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4)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간섭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됨을 기억해야 한다(딤후4:18).

4. **㉠** 야곱이 거부(巨富)가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거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보드>로 영광, 번영, 유명해지는 것 등의 뜻이 있다.
- (2) 즉 야곱은 물질적인 번영으로서의 부(富) 뿐 아니라 사회적인 명성과 권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다.

5. **㉠** 야곱에 대해 라반의 안색이 변해 야곱을 적대시한 사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절)

- ㉠** (1) 야곱이 처음 14년간 라반을 위해 양 떼를 보살피며 일할 때 라반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재계약을 맺어 야곱의 몫을 따로 결정한 6년 동안에 야곱과 라반의 위치가 바뀔 만큼 야곱도 큰 부(富)를 이루자 라반의 마음은 변했다.
- (2) 재물 때문에 혈육의 정까지도 파괴되는 이런 일은 오늘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를 준다. 즉 돈만을 사랑하는 소유욕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참조, 눅12:15; 딤후6:9, 10).
- (3) 한편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야곱의 마음은 더욱 고향으로 가고 싶은 충동을 받았으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시에 즉시 순종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이것은 세상의 꾀박이 오히려 성도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한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마 5:10-12).

6. **㉠** 야곱은 고향으로 떠나는 일에 대하여 누구와 의논했는가? (4절)

- ㉠** (1)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신중히 의논했다.
- (2) 즉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자기 목장(牧場)으로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과 꿈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5-13절).
- (3) 이와 같이 가정의 중대사를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은 우리 모든 신앙의 가정이 본받아야 할 점이다.
- (4) 성도는 늘 경건의 시간(Quiet Time)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러 성도들과 적합한 장소에서 들은 말씀을 나누는 일(Sharing)을 해야 한다.

7. **㉠** ‘힘을 다하여’ 라반을 섬겼다는 야곱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6절)

- ㉠** (1) 이 말은 숨이 차도록 전심 전력을 다해서 라반을 섬겼다는 뜻이다.
- (2) 즉 자신은 간교하게 속임수를 써서 라반의 가족을 빼앗은 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에 따라 성실하게 고용 계약을 이행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 (3)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직장 생활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힘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엡 6:5-8; 골 3:22-25).

8. **㉠** ‘열 번이나 변역하였다’는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7절)

- ㉠** (1) 여기서 ‘열 번’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꼭 10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러 번, 가끔, 종종’ 등을 의미한다(민 14:22; 욥 19:3).
- (2) 또한 ‘변역’(變易)이라는 말은 ‘바꾼다’는 뜻인데 라반이 야곱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 (3) 이와 같은 라반의 계약 위반 행위는 거짓된 수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詐欺)와 다름없는 악하고 불의한 일이었다(참조, 레 26:25; 롬 1:31, 32).
- (4) 오늘날도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많지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의해 결국 성실한 자들은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시 7:8-11; 49:10; 마 5:5).

9. **㉠** 10-12절의 꿈의 내용과 13절의 꿈의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10-13절)

- ㉠** (1) 10-12절의 꿈의 내용은 야곱이 라반과 재계약(30:28-34)을 맺기 직전에 꾸는 꿈의 내용으로 야곱이 옛 일을 회상하며 아내들에게 그 꿈을 말하고 있다.
- (2) 그러나 13절의 꿈의 내용은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서(참조, 3절) 10-12절의 꿈과는 약 6년간의 시간 간격을 가진다.
- (3) 이처럼 두 꿈은 서로 다른 시기에 꾸는 꿈이지만 야곱은 자기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시키기 위해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던 것처럼 말하였다.

10. **㉠** ‘벤엘 하나님’이란 명칭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13절)

- ㉠** (1) ‘벤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들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가리킨다(28:19).
- (2)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슬픔에 빠진 야곱에게 후손의 축복과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의 축복을 언약하셨다(28:13-15).
- (3)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20년간 야곱에게 후손의 축복을 주시고 그를 보호하여 주신 후 남은 언약인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의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 ‘돌아가라’고 명하시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벤엘 하나님' (히, 벤엘 하엘)이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 명칭이다.
- (5) 오늘날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수많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벤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후 1:20; 히 10:23).

11. **㉠**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이유를 말했다 때 아내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14-16절)

- ㉠** (1) 모두 전적으로 찬성하였다.
- (2) 결혼한 여자들로서 남편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고 그에 따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엡 5:22-24).
- (3) 특히 친정 아버지 라반의 불의한 일을 경험한 딸들은 더욱더 야곱의 의견에 동조하게 되었다.
- (4)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환경은 물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사실을 보여 준다.
- (5) 비록 성도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많은 환난과 난관이 있을지라도(행 14:22)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도를 위하여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며 역사하신다(참조, 롬 9:18).

12. **㉠** 야곱이 가나안을 향하여 하란을 떠날 때 라반은 어디에 있었는가? (19절)

- ㉠** (1) 양털 깎는 시기였으므로 라반은 양털 깎는 축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양 떼가 있는 들에 나가 있었다.
- (2) 고대 근동에서 양털 깎는 일은 여러날 걸리는 큰 행사였다. 이때에는 친구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며 축제 분위기를 갖는다(비교, 38:12; 삼상 25:4).
- (3) 야곱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라반 몰래 도망한 것이다.

13. **㉠** 라헬이 그 아버 집에서 훔친 것은 무엇인가? (19절)

- ㉠** (1) '드라빔'이라는 우상이다. 이것은 사람 형상을 닮은 조그만 우상인데 족장 시대에 가정의 수호신으로 널리 숭배되었다.
- (2) 이 우상은 은 또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삼상 19:13-16) 이것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했다(겔 21:21; 슥 10:2).
- (3) 한편 최근의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이 드라빔이 우상으로써 뿐만 아니라 재산 상속권의 증표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 (4)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종교적인 이유보다는 재산권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5)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와서 드라빔을 찾은 이유도 그것이 재산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며 후에 언약을 세울 때에도 드라빔을 통한 재산 상속권 문제가 피차간에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약속하였던 것이다.

14. **㉠**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여 만난 때는 야곱이 출발한 후 며칠 만인가? (22, 23절)

- ㉠** (1) 10일째 되는 날이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간 3일 후 그 사실을 알았으며 7일 동안 뒤쫓아왔다.
- (2) 라반이 야곱을 따라 잡은 장소는 길르앗 산으로 이곳은 밧단아람에서 약 480km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 (3) 라반은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약 70km씩 7일간 매우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온 셈인데 이는 그의 마음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 준다.
- (4) 그러므로 야곱은 심각한 위협에 봉착하여 20년간 천신 만고(千辛萬苦) 고생 끝에 얻은 재산 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잃어버릴지 모를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참조, 29절).

(5) 이처럼 우리 인생은 아무리 애써 원하는 것을 이루어 놓았을지라도 언제 그 모든 것을 상실할지 알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다(참조, 눅 12:20; 약 4:14).

15. **㉠**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무엇이랴 말씀하셨는가? (24절)

㉠ (1)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2) 여기서 '선악간' (善惡間)이란 문자적으로 '선에서 악한 것으로' (King James II Version, from good to evil)가 되는데 야곱을 만났을 때 평강의 인사를 욕설이나 포악한 행동으로 대신하지 말라는 뜻이다.

(3)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라반의 분노를 누그러뜨렸으며 야곱을 파멸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참조, 29, 42절).

(4) 하나님께서는 이와 비슷하게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정조를 범치 못하게 하시므로 약속의 가문을 보호하신 적이 있다(20:3).

(5) 이처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하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머리털 하나도 상함을 받지 않게 된다(마 10:29-31; 눅 21:17, 18; 참조, 단 3:27).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위험을 만날지라도 오른팔로 굳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신앙으로 행하여야 한다(참조, 시 3:5-8).

16. **㉠**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가서 만난 후에 그를 책망한 내용은 무엇인가? (25-30절)

㉠ (1) 인사도 없이 몰래 도망친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책망하였다(26-28절).

(2) 또한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야곱을 도둑으로 간주하였다(30절).

(3) 이처럼 라반은 자신이 추격해 온 주 원인인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고 몰래 떠난 야곱의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과 드라빔을 가져간 행동만 꾸짖고 있다.

(4) 이것은 이미 라반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야곱에 대해서 가졌었던 적대감(敵對感)과 분노를 버린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5) 이런 의미에서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무력을 소유하거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도이다(롬 8:31-39; 참조, 대상 29:12; 고전 1:25).

17. **㉠** 라반은 우상인 드라빔을 '나의 신(神)'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30절)

㉠ (1) 라반과 그의 가족도 여호와를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버리지 않았었다(참조, 34:31, 50; 30:27). 그러나 후에 드라빔을 만들어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참신(여호와)을 이 땅의 헛된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참조, 롬 1:23).

(2) 결국 라반은 야곱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드라빔의 우상을 '나의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졌다(29절).

(3) 그 결과로 라반은 물질에만 욕심을 부려 조카까지 시기하다가 재물을 잃고 명예도 더럽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상은 영적인 것에서 떠나 육적이고 감각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우리의 관심을 흐리게 한다(롬 1:21-23).

18. **㉠** 라반의 책망에 대하여 대답한 야곱의 말 중에 중대한 실수는 무엇인가? (31, 32절)

㉠ (1)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매우 큰 실언(失言)이다.

(2) 이 말은 '내가 내 손으로 그를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리라', '내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 주어 죽게 하리라'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pulpit 주석) 만일 드라빔이 발견된다면 드라빔을 훔친 자는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3) 그리고 이 말에는 '그가 제 명(命)을 채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예언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으므로 이루어졌다(35:16-19).

- (4)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의 결백에 대하여 지나친 자만심을 가졌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확인해 보는 신중함을 가졌어야 했다.
- (5) 이와 같이 사람의 말 한 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성도들은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하고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약 3:2-12; 참조, 잠 10:19; 17:27; 약 1:19).

19. **㉠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33-35절)**

- ㉠** (1) 라반은 야곱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다.
- (2) 이러한 절대적 위기에서 라헬은 재빨리 드라빔을 꺼내어 약대 안장 아래 감추고 아버지 라반이 장막 안에 들어오고 나갈 때 일어나 영접하지 않으면서 경수(經水)가 나기 때문에 일어설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 (3) 이리하여 결국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야곱 가정은 야곱의 실언(失言)이 빚어 낼 비극(32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 (4) 당시 약대 안장 중에 여성용 안장은 광주리나 요람처럼 생긴 것으로 두꺼운 천이 포개져 있었는데 작은 물건을 그 안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었다(Baker 주석).
- (5) 여기서도 우리는 야곱 가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게 된다. 즉 야곱의 실언과 라헬의 거짓말을 생각하면 멸망당해 마땅할 야곱 가정의 운명이었던만 오직 하나님께서 조건없는 은혜로써 라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기에 야곱 가정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 (6) 이와 같이 성도들도 어떤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을 때에 무조건적인 은혜로써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참조, 롬 11:36; 엡 1:6, 13, 14; 딤후 4:18).

20. **㉠ 경수(經水)에 대하여 설명하라(35절).**

- ㉠** (1) '경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테레크 나섬>은 '여자의 길' (the way of women) 이라는 뜻으로 여자에게 매월 한 번씩 나타나는 생리 현상인 월경(月經)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비교, 18:11).
- (2)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여자에게 경수가 있을 때에는 의식적(儀式的)으로 부정(不淨)한 것으로 취급되었다(레 15:19).
- (3) 한편 율법 이전 족장 시대에 아람 사람들간에도 이러한 규례가 있어서 라반은 라헬과 같이 경수하는 여인에게 접촉하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21. **㉠ 야곱이 라반에게 즉각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36절)**

- ㉠** (1) 라반에게 도둑의 혐의를 받고 큰 위기에 처했다가 벗어난 야곱은 이제 입장을 바꾸어 라반을 향해 화를 내면서 책망하고 항의를 했다.
- (2)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기지(機智)를 엿볼 수 있다. 즉 야곱은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해 어색해 하는 틈을 타 여유를 주지 않고 라반을 몰아 세워 자신의 정당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3) 결국 라반은 그 먼 길을 쫓아와서 오히려 야곱에게 무안만 당하고 말았다.
- (4) 사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말을 통하여(36-42절) 20년 동안 라반이 야곱에게 행했던, 부당한 대우를 책망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노사 관계(勞使關係)에 있어서 성실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탐욕스런 경영자

는 결국 라반과 같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부끄러운 자리에 이르고 말 것이다(레 19: 13, 14; 신 24:15; 말 3:5; 약 5:1-4).

22. **㉠**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36-42절)

- ㉠** (1)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책(責) 잡힐 만한 허물이 자신에게 없음을 밝히기 위해 (36, 37절) 자기가 성실한 목동이었으며 (38-40절) 자기의 수고를 감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였다(41, 42절).
- (2) 우리는 여기서 근로자로서의 야곱이 행한 진실성과 성실성을 볼 수 있다.
- (3) 야곱은 품삯을 열 번이나 속이는 불의한 주인 밑에서 일을 하면서도 부당한 이득을 챙기거나 횡령(橫領)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일했을 뿐 아니라 ‘눈붙일 겨를도 없이’ (40절) 불철 주야(不撤晝夜)로 성실하게 일하였던 것이다.
- (4)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터에서 일하든지 간에 상사(上司)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해야 하며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야 한다 (엡 6:5-8; 골 3:22, 23; 뱀전 2:18).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다(골 3:24).

23. **㉠**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란 무슨 뜻인가? (38절)

- ㉠** (1) 암양은 고사하고 수양 한 마리도 몰래 잡아 먹은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 (2) 암양은 털과 고기 외에도 젖과 새끼를 낳아 주기 때문에 수양보다 훨씬 경제적 가치가 컸다.

24. **㉠** 야곱이 말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 관하여 설명하라(40절).

- ㉠** (1) 야곱이 일했던 하란은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막 기후의 영향을 받아 낮에는 매우 더운 반면에 밤의 추위는 대단히 혹독했다.
- (2) 이와 같이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했던 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기후가 갖는 특징이었다 (참조, 출 13:21, 22; 시 121:6).

25. **㉠** 라반과 야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43, 44절)

- ㉠** (1) 라반과 야곱이 맺은 언약은 그 내용에 있는 책임과 권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 (2) 왜냐하면 52절에 있듯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는 있으나 실상 두 사람은 그 거주지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불가침 조약이란 별반 의미가 없다.
- (3) 다만 이 언약은 야곱의 귀향을 라반이 승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4) 즉 이 언약을 통해서 라반은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려 했으며 야곱의 귀향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했던 것이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는 합법적(合法的)으로 온전하게 해결하여 주신다.

26. **㉠**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은 장소의 이름은 무엇인가? (46-49절)

- ㉠** (1) 라반은 그 장소를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다. 이는 아람어로써—‘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인데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언약을 맺을 때 돌 무더기를 쌓았었기 때문이다(46절).
- (2) 같은 의미로 야곱은 그곳을 ‘갈르엣’이라고 칭하였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무더기란 뜻인 <갈>과 증거란 뜻인 <에드>의 합성어로 역시 ‘증거의 무더기’란 뜻이다.
- (3) 이곳은 또한 ‘미스바’ (히, 미츠파)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망대’(望臺)를 가리키는 말로(대하 20:24) ‘감찰하다’란 뜻을 가진 <차파>에서 유래되었다(창 31:49; 시 66:7).
- (4) 따라서 이 명칭들은 라반과 야곱 사이의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50절) 감찰하시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5)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사람 사이의 모든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자와 판단자가 되어 주심으로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참조, 시 7:10, 11; 10:14).

27. **㉠** ‘갈르엣’ 혹은 ‘미스바’는 어느 곳에 있는가? (48, 49절)

- A** (1) 성경에서 미스바라는 지명은 서로 다른 네 성읍을 일컫는 명칭이다.
 (2) 첫째 북 길르앗에 위치한 성읍이 있고(삿 10:17; 호 5:1), 둘째는 팔레스틴 북부의 한 지방을 가리키며(수 11:3,8), 셋째는 유다 지파 분깃 내에 있는 성읍이며(수 15:38), 넷째는 유대와 이스라엘의 경계상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을 가리킨다(수 18:26; 삼상 7:5; 왕하 25:23).
- (3) 본문에 나타난 '미스바'는 '갈르앗'이라고도 부르는 곳으로 (2)항의 첫째 성읍에 해당한다.
 (4) 이곳은 사사 시대에 입다가 살았던 곳으로 유명하다(삿 10:17; 11:10, 11).
- 28. C** **드라빔 사건 (30-35절)과 갈르앗 언약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48, 52절)**
- A** (1) 당시 드라빔은 종교적 우상일 뿐 아니라 재산 문서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라반은 종교적, 경제적 목적에서 드라빔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2) 그러나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한 라반은 앞으로 혹시 드라빔을 찾을지라도 그 효용 가치를 무의미한 것으로 돌리고, 서로간에 해(害)하는 일이 없도록 언약 체결을 제의했던 것이다.
 (3) 그렇기에 라반은 돌 무더기를 증거로 삼고 그것을 경계로 하여 야곱과 자신 사이에 지켜야 할 불가침 조약을 언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켰던 것이다(52절).

화보자료

종주권 언약(宗主權言約)이 새겨진 점토판. B. C. 672년경 니르롯에서 출토된 것으로 고대 근동의 계약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야곱과 라반이 맺은 계약은 종주(Suzerainvassal) 권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대 근동의 계약의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43-52절).

제 32 장 천사와 씨름한 야곱

단락구분 1-2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다 / 3-5 에서에게 회진을 청하다 / 6-8 에서가 사백 인을 거느리고 오다 / 9-12 두려워하는 야곱의 간구 / 13-20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선물 / 21-32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새 이름 이스라엘을 얻다

1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3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 보다 앞서 보내며
 4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5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6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 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7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를 나누고
 8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9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11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뿐이니이다
 12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경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3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에게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14 암염소가 이백이요 수염소가 이십이요 암양이 이백이요 수양이 이십이요
 15 젖나는 약대 삼십과 그 새끼요 암소가 사십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이십이요 그 새

끼나귀가 열이라

16 그것을 각각 떼로 나뉘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17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엿 것은 뉘 것이냐 하거든
 18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요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19 그 들째와 세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같이 그에게 고하고
 20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던라
 21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가운데서 경야하다가
 22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 한 아들을 인도하여 암복 나무를 건널새
 23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넬고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26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나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28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었음이니라
 29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31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들었고 그 환도때로 인하여 절었더라

32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때 큰 힘들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때 큰 힘들을 먹지 아니하더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보라.

- ㉠ (1)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였다. 전장(前章)에서 본 바와 같이 외삼촌 라반에게 해(害)를 당할 의기를 간신히 벗어난 야곱은 본장에서 또다시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 (2) 20년 전부터 야곱을 죽이려고 버르던 야곱의 형 에서(27:41)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오고 있었던 것이다.
- (3) 라반은 야곱의 재산을 노렸지만 에서는 야곱의 생명을 찾고 있었으니 야곱으로서는 생애에 있어서 절대 절명(絶對絶命)의 위기를 만난 셈이었다.
- (4) 이러한 위기에서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도 강구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구했다.
- (5) 드디어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는 끈질기고 결사적인 기도 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얻어 변화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 (6)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신앙 생활도 이같이 멀고 험한 나그네 길이다.
- (7) 인생의 나그네 길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일생 일대의 절박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야곱의 결사적인 기도를 본받아 기도함으로써 변화된 새로운 삶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자.

2. ㉠ 야곱이 길르앗을 떠나 길을 진행할 때에 누구를 만났는가? (1, 2절)

- ㉠ (1) '하나님의 사자(使者)들' (the angels of God), 즉 천사들을 만났다.
- (2) 야곱은 이 천사의 무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군대'라 불렀다. 여기서 '군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하네>로서 이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떼' (50:9), '진' (陣, 삼상 14:15) 등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 (3) <마하네>라는 말로부터 그 땅의 이름 '마하나임'이 유래되었는데 히브리어 <마하나임>은 <마하네>의 복수 형태로서 천사의 많은 무리 또는 두 무리(two camps)를 의미한다.
- (4) 이러한 마하나임의 어의는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행하던 야곱에게 천사의 무리들이 양쪽으로 정열하여 그를 호위하였던 당시의 장면을 연상(聯想)케 한다.
- (5) 후에 이 마하나임은 열 두 지파 중 갓의 영토 안에 속한 유명한 도시가 되었는데(수 13:26) 성경 여러 곳에 언급되고 있다(삼하 2:8; 17:24, 27; 19:32; 왕상 4:14).

3. ㉠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난 목적은 무엇인가? (1, 2절)

- ㉠ (1)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야곱에게 용기를 주고 필요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2)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필요에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히 4:16).
- (3) 즉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부리는 영(靈)인 천사들을 보내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모든 환난과 핍박 중에서 보호하도록 하시며 승리하도록 도와 주신다(히 1:14).

4. ㉠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使者)들을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에서는 당시에 세일 땅에 살고 있었다. 세일은 사해 아래쪽에 있는 세일 산 부근의 거칠고 험한 산간 지대를 의미하는데(14:6; 36:8, 9) 종종 에돔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데 쓰이기도 한다(33:14, 16; 36:30).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였다.

- (2) 아마도 야곱이 가나안을 떠난 후 에서도 역시 부모의 곁을 떠나 호리 족속이 살고 있던 세일 산지를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하여 수렵 생활을 하였던 것 같다(참조, 27:40; 신 2:4).
- (3) 기민한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보다 앞서 사절단을 보냄으로써 형의 환심을 얻으려는 한편 형 에서가 어떠한 태도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알아 보려고 했던 것이다.
- (4) 이러한 야곱의 기민한 방책도 사실상 문제 해결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 다만 야곱은 여기서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면서 재물이 자신을 구원치 못함을 깨달았고(눅 12:15), 철저히 겸비해지는 상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 (5) 성도들이 환난과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낮추시고 신앙을 온전케 하시려는 섭리에 의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다(신 8:2).

5. **㉠ 야곱은 에서를 무엇이라 불렀는가? (4, 5절)**

- ㉠** (1) 야곱은 에서를 네 번이나 '주' 라고 부름으로써 그를 높이고 자신은 종이라 하여 (4절) 스스로를 낮추었다.
- (2) 여기서 '주' (主) 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도니>로서 일반적으로 종(servant) 이 주인을 부를 때에 쓰는 호칭이다.
- (3) 이처럼 야곱은 그가 소유한 장자(長子)의 명분이 무색하리 만큼(25:33) 에서가 쌍둥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 (4) 사실 이러한 겸손은 야곱처럼 궁색한 처지에 있을 때 현실 타개의 수단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언제든지 성도가 나타내어야 할 신앙의 덕목(德目)이다(엡 4:2).
- (5)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빌 2:3)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이다(롬 12:10).

6. **㉠ 에서가 4백 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절)**

- ㉠** (1) 에서는 이미 강력한 족장으로 성장했음을 보여 준다.
- (2) 그는 그의 천부적인 무술(武術)의 힘을 이용하여(25:27) 자기 아들들과 종들과 동맹인들로 군대를 조직하여 호리 족속을 정복, 점령하여 세일 산 일대의 지배자가 되었던 것이다(36:20, 21; 대상 1:38).
- (3) 이처럼 강력한 족장이 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온다는 것은 야곱을 치려는 계획이 분명하였다.
- (4) 400이란 수자는 전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 동원했던 병력의 수인 318인을 훨씬 상회한다(14:14).

7. **㉠ 4백 인을 거느린 에서가 온다는 보고를 듣고 야곱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7, 8절)**

- ㉠** (1) 비록 일시적이긴 했으나 야곱은 대단히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당황하였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처럼 당황하였을 것이다.
- (2) 그러나 야곱은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곧 두 가지 행동을 취했다. 즉 7, 8절에서는 인간적인 기지를 사용해서 에서에게 선물을 보냈고, 9-12절에서는 위기에 처한 자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를 드렸다.
- (3)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최선의 행동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것이다(시 37:5; 잠 16:3).
- (4) 야곱이 이처럼 현명하게 대처한 것은 순간적인 임기 응변이 아니다. 그는 하란을 떠날 때부터 이와 같은 극한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다. 이처럼 성도는 굳은 신앙과 함께 앞날에 대한 신중한 태도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8. **㉠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의 기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9-12절)**

- Ⓐ (1) 야곱의 기도는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다(9절). 즉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막연히 위기를 모면하게 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약속을 하시며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였다.
- (2) 겸손하게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다(10절). 자신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감사의 기도이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 되어졌다는 교만한 생각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이것은 위선이나 천박한 겸손이 아닌 진실한 믿음의 기도였다.
- (3)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였다(9, 12절). 즉 그는 아브라함(13:16; 15:5), 이삭(22:17)을 통해 계승되어 온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을 호소하였다.
- (4) 이러한 야곱의 기도는 그 기도 제목이 분명하고 직접적이었으며 기교가 전혀 없었다. 또 짧고 간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그의 믿음에서 나온 기도였으며 어린 아들이 어머니의 품을 찾듯이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였다.
- (5) 다음 장(章)에서 볼 수 있듯이 야곱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의 구원을 이루게 한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한 기도의 성격을 본받음으로 야곱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9. Ⓒ ‘처자(妻子)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의 특징을 설명하라(11절).

- Ⓐ (1)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은 <엠 알바님>으로서 문자적 의미는 ‘아이들 위에 어머니’(mother upon the children)나 ‘자식들을 거느린 어머니’(mother with the children)가 된다.
- (2) 이것은 적이 가까이 올 때 아이들을 본능적으로 보호하는 어머니의 순간적인 모습을 매우 생생하게 표현한 말이다.
- (3) 이와 같이 히브리어는 시제, 문장 연결, 태(voice), 감정 선택이 극도로 간결, 명확한 언어이다.
- (4) 따라서 애매 모호한 표현이 거의 없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 가장 완벽한 언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평(正評)이다.
- (5) 이 점에 있어서는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도 동일하다. 따라서 성경의 참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 성경을 참조하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된다.

10. Ⓒ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3-16절)

- Ⓐ (1) 형의 축복을 빼앗은 결과로 빚어진 형제간의 불화를 없애고 형 에서의 분노에 대하여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선물(580마리의 짐승)을 보내어 형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까지 담겨 있다.
- (2)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참조, 잠 17:8; 18:16; 19:6). 그는 가장 좋은 짐승을 특별히 식별하여 준비했으며 기술적으로 암·수를 골라 적절히 배열하였고 여러 때로 나누어 신속하게 보냈다. 결국 야곱의 계획은 적중했고 이들 형제는 뜨거운 포용으로 감격의 만남을 이루게 되었다.

11. Ⓒ 압북 나무(the ferd Jabbok)에 관하여 설명하라(22절).

- Ⓐ (1) 압북은 ‘싸우다’라는 뜻을 가진 <야바크>에서 유래되었는데(Keil) 아마 야곱이 강둑에서 씨름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pulpit 주석).
- (2) 지금은 이 강을 ‘와디 젤카’(Wady Zerka)라고 부르는데 깊고 푸른 계곡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맑은 물을 가르키는 말로 ‘푸른 강’이라는 뜻이다.
- (3) 이 강은 요단 강으로 흘러가며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면서 세짐을 맞은편에 두고 있다. 이 강의 물줄기는 쉰 편인데 때로 강둑에 유도화 꽃이 만발하기도 한다.

(4) 또한 '나루'는 얇은 개울 지대로 사람이나 가축이 배를 통해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를 말한다.

12. ㉠ 야곱은 누구와 씨름을 했는가? (24절)

㉠ (1) 본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호세이는 천사라고 불렀고(호 12:4),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30절).

(2) 따라서 야곱이 씨름한 대상은 보통 사람이나 천사가 아니라 사람 형태로 오신 하나님을 가리키며 육신을 입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3)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사 6:3; 계 4:8; 15:4) 인간과는 구별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사람 모습으로 낮추셔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는 것이다(참조, 빌 2:5-8).

(4) 그러므로 본질에 '어떤 사람'으로 묘사된 화육(化肉)의 사자(使者)가 주는 진정한 의미는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13. ㉠ 야곱의 씨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4, 25절)

㉠ (1) 당시 야곱은 모든 소유와 처자들을 건너게 하였고 자신만이 홀로 남아 밤을 새워 기도하려고 했다.

(2) 따라서 그의 씨름은 고민하며 울부짖는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며 한 연약한 인간의 고독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호 12:4).

(3) 그렇더라도 이 '씨름'은 단순한 문학적 표현 또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임재의 형상과 야곱이 실제로 씨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야곱의 씨름이란 영과 육이 혼연 일체가 되어 하나님께 매어달린 결사적인 기도를 묘사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5)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사적인 기도를 하셨는데 온 몸의 힘을 다 쏟아 씨름하듯 기도하신 나머지 땀을 흘리셨다(참조, 마 26:37, 38).

(6) 따라서 야곱의 씨름은 우리에게 기도하되 특별히 간절한 기도를 하도록 촉구한다(참조, 눅 11:5-7; 18:6-8; 골 4:2). 밤새워 씨름하듯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참조, 롬 1:4).

14. ㉠ 환도(環刀) 뼈는 어떤 신체 부위를 말하는가? (25절)

㉠ (1) 환도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프예레크>로 직역하면 '엉덩이의 구멍[空洞]'(the hollow of hip)가 된다. 여기서 '구멍' 혹은 '공동'이란 뜻을 지닌 <카프>란 말은 살 속을 관통하는 뼈에 대한 상징적인 말이다. 따라서 환도뼈는 허리 아래 넓적다리 상단(上端)에 위치하는 뼈를 가리킨다.

(2) 한편 <예레크>는 허리의 아랫 부분으로 '엉덩이' 혹은 '대퇴부'(大腿部, 넓적다리)를 가리킨다. 이 말은 생식기를 상징하는 말로도 쓰여 자녀들을 '허리에서 나온 자들'(히, 요츠에 예레크)(46:26; 출 1:5; 삿 8:30)이라고 불렀다(참조, 민 5:16-21).

(3) 이렇게 환도뼈(히, 예레크)는 생식 기관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거지를 상징하고 있기에 서약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서약에 대한 보증과 신실성은 환도뼈 아래 서약자의 손을 넣는 행동에 의해서 표현되었던 것이다(24:2; 47:29).

(4) 이러한 신체 부위의 이름이 개역 성경에서 '환도뼈'라고 번역된 것은 그곳이 병사들이 칼을 차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삿 3:16; 시 45:3; 야 3:8).

15. ㉠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이유는 무엇인가? (25절)

㉠ (1) 본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2) 여기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이셨다는

것은 인간의 방식을 따른 표현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대하여 합격 판정(合格判定)을 내리셨다는 뜻이다.

- (3) 그러나 이 합격 판정으로 인해 야곱이 교만해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넓적다리를 쳐서 환도뼈가 위골(違骨)되게 하셨다.
- (4)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저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야곱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 (5)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시험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지만 그와 함께 고난의 흔적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참조, 고후 12:7-10; 갈 6:17).
- (6) 만일 우리들 자신의 힘이 남아 있고 피해를 입거나 위골되는 상처가 없다면 우리 육체는 즉시 교만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될 것이다(Calvin).

16. ㉠ '그 사람'이 날이 새려 할 때 떠나 가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26절)

- ㉠ (1)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야곱의 손을 벗어나 떠나 가실 수가 있었다.
- (2) 그러나 그가 굳이 야곱에게 그것을 요청한 것은 야곱의 승리를 확인시켜 주는 애정어린 표현이었으며 아울러 야곱에게 마지막 소원을 말하도록 암시(暗示)한 말이다.
- (3) 한편 '날이 새려 하니' 라고 하여 아침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씨름의 환상적 체험이 야곱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낮이 오기 전에 마쳐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 씨름이 대낮까지 계속될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을 것이요 헛된 호기심이 자극되었을 것이다.
- (4) 또한 동이 트는 시간은 야곱이 그의 식구들을 데리고 떠나야 할 시간이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더 이상 지체하는 일이 없어야 했던 것이다.
- (5) 이제 바야흐로 야곱의 결사적인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체적이고 결론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처럼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하나님 안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전 3:1).

17. ㉠ 야곱이 축복을 강청(強請)하였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6절)

- ㉠ (1) 야곱은 씨름에서 이긴 후 천사가 떠나려 하자 무엇보다도 그에게 축복해 주기를 강청했으며 울면서 간구하였다(호 12:4).
- (2) 이것은 그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모습이며 한편으로 야곱이 자기의 씨름 상대자를 보통 천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모습이다.
- (3) 이러한 가운데서 야곱은 전에 자기의 지혜와 간교한 수단으로 훔쳐온 하나님의 축복을(27:19, 35) 이제는 신령한 영적 축복으로 확인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추구했던 것이다(Keil, Lange).
- (4) 만일 우리에게도 합당하지 못한 수단으로 영적인 목적을 이루었다면 그 수단에 대하여 회개하고 다시금 정당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18. ㉠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가? (27절)

- ㉠ (1)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한 존재의 속성과 생명과 전인격(全人格)을 대표한다.
- (2) 따라서 하나님의 이 질문은 야곱의 전인격에 대한 변화와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암시하는 질문이다.
- (3) 결국 이 질문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의 허물과 죄로 물든 성품을 대표하는 자기의 옛

이름을 고백하게 했으며 드디어 새로운 성품을 대표하는 새 이름을 얻게 했다.

- (4)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 변화를 촉구하고 계신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2-24; 골 3:8-10).

19. ㉠ 야곱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28절)

- ㉠ (1)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실수와 고난으로 점철된 생애를 살아가던 야곱에게 드디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셨으니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다.
 (2) '이스라엘'의 뜻을 개역 성경 난외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풀이했는데 문상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Keil, Lange).
 (3)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스리다, 싸우다 등의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사라)와 하나님의 명칭인 (엘)의 합성어이기 때문이다.
 (4) 한편 이 이름이 주어진 배경은 '이스라엘'이 확실히 야곱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인 것을 보여 준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주시는 이유를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5) 따라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구원과 승리의 확실성을 의미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신분을 상징하고 있다(요 1:47; 롬 9:6-8).

20. ㉠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28절)

- ㉠ (1) 새로운 이름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새 관계를 의미한다. 간교한 인간적인 '야곱'이 아니라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이스라엘'이 되었다.
 (2) 이전까지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망설였고 약속 이행에 대해서도 주저하는 일이 많았다. 이런 이중적인 심리 상태의 야곱에게 하나님은 투쟁을 전개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케 만들었다. 그 후 그는 완전한 언약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확신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된 것이다.
 (3)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 세번째 족장이 되었으며 그의 아들 유다를 통하여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얻었다. 이스라엘이라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은 롬 9:4, 5에 잘 나타나 있다.

21.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이 누구를 이겼다고 말씀하셨는가? (28절)

- ㉠ (1)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 라고 하셨다.
 (2) 이 말씀의 문자적 의미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었고, 사람들과 겨루었다. 그리고 이겼다'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살려 NIV는 '네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men and have overcome) 라고 번역했다.
 (3)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과만 겨루었는데 '사람들과' 도 겨루어 이겼다고 표현된 것에는 대단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은 모든 사람들과의 씨름에서도 이길 것이 이미 과거 사건처럼 확실하다는 것이다.
 (4)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겨 주신' 이유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써 자기 종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으시고 여러 가지 인간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22. ㉠ 야곱은 '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가? (29절)

- Ⓐ (1)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받은 후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라고 질문했다.
- (2) 이것은 야곱의 담대한 믿음과(히 4:16;10:19) 하나님께 대한 영적 지식의 욕구를 보여 준다.
- (3) 이때 사실 야곱은 자기와 씨름한 상대가 하나님 <엘>이란 것을 알았으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더욱 깊은 뜻을 알기 원했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외형적 신앙 고백에서 머물지 말고 구체적으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와 인격적 교제를 갖는 적극적인 신앙 생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롬 12:1, 2;엡 5:10, 17).

23. ㉠ 야곱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29절)

- Ⓐ (1)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반문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셨다.
- (2)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인간의 방식으로 밝히실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출 3:14, I am who I am)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부여하실지언정 어느 누구에게도 이름을 부여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 (3) 사사기에서 천사가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내 이름은 기묘니라’ 고 대답한 것도 그런 의미이다(삿 3:18). 즉 ‘기묘’란 죽어야 할 인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뜻이다.
- (4) 또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밝히는 대신에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것은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에 포함된 축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을 뜻한다.
- (5) 이리하여 야곱은 이제 모든 불안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확인받은 언약적 축복의 주인공으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삶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24. ㉠ 야곱은 천사와 씨름한 곳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30절)

- Ⓐ (1) ‘브니엘’ (히, 페누엘)이며 얼굴을 뜻하는 <파네>와 하나님이란 뜻의 <엘>이 합쳐진 말로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다.
- (2) 본래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으며(요 1:18) 또한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딤후 6:16).
- (3)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는 단절이 생겼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은 죽음 곧 심판을 의미했다(참조, 출 33:20; 삿 6:22; 13:22; 사 6:5).
- (4)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나 죽지 않았다. 이 사실을 감격하여 그는 그곳을 ‘브니엘’ 이라고 불렀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5) 이처럼 야곱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성격을 상징한다. 오늘날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빌 2:6;골 1:15).

25. ㉠ 야곱의 씨름이 현대의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30절)

- Ⓐ (1) 야곱과 씨름한 하나님은 본체가 아니며 사람의 형태로 오신 하나님이였다.
- (2) 즉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이지만 낮은 형태를 취하셔서 인간과 교제하신 것이다.
- (3) 성도들이 기도할 때 친구와 대화하듯이 또는 의논하듯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 사람의 형태를 취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빌 2:6-8).
- (4)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요일 4:10).

26. ㉠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도때 큰 힘줄을 먹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32절)

- ㉠ (1) 야곱이 압북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받은 위골상(違骨傷)을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 (2) 이 상처는 야곱의 승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그 승리의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주어진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 (3)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축을 요리할 때 엉덩이와 다리로 연결되는 부분의 힘줄을 끊어내고 먹는다.
- (4) 그러나 그들은 불쌍하게도 이 관습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 (5) 이런 사실은 우리가 교회의 규례를 지킬 때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도록 우리를 일깨워 준다(참조, 마 15:1-9).

연구자료

구약에 언급된 용사. 용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에는 힘센 자를 의미하는 〈엘레〉와 (출 15:15; 욥 41:25), 특이하게 강하고 용감하거나 키가 큰 자를 의미하는 〈깁보르〉가 있다(6:4; 수 1:14; 6:2; 8:3; 10:7; 사 5:13; 삼상 2:4; 삼하 1:19; 23:8; 왕상 1:10; 왕하 5:1; 욥 16:14; 시 33:16; 사 42:13 등). 그런데 구약에서 용사라 하면 보통 〈깁보르〉 또는 그 복수 형태인 〈깁보림〉을 말한다. 성경에서 〈깁보림〉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은 6:2로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자식, 즉 〈네피림〉이 〈깁보림〉으로 불리워졌다. 본장에 언급된 ‘니므롯’도 역시 ‘영걸’로 번역되어 있으나 원문에서는 〈깁보르〉인데, 이는 세상에 처음으로 뛰어난 〈깁보르〉였다(8절). 그리고 가나안의 옛 거인족(신 2:11; 3:11; 수 12:4; 13:12; 15:8; 17:5; 18:16), 팔레스틴 서남 지방의 거인들(삼하 21:16-22)과 권능있는 자들도 〈깁보림〉이라고도 불리워졌다. 그렇지만 구약에서 가장 활약이 컸던 〈깎보림〉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30인이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적용된 〈깎보림〉이란 명칭은 뛰어나게 강한 무사, 즉 영웅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30인의 〈깎보림〉 외에 다윗은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600인의 〈깎보림〉을 두었으므로 재위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참조, 삼하 17:8; 23:8-39).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용사들인 〈깎보림〉, 즉 십자가의 정예병(精銳兵)들이 되어야 한다.

연구자료

이스라엘이라 칭함 받은 야곱

1. 야곱의 출생

‘야곱’(Jacob)이란 이름은 히브리어 〈야곱〉으로부터 유래하였는데 ‘발꿈치를 잡다’는 뜻 외에 ‘속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는 아버지 이삭(Issac)과 어머니 리브가(Rebekah) 사이에서 그의 형 에서(Esau)와 더불어 쌍둥이로 태어났다. 리브가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 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24:60)란 라반(Laban)의 축원(祝願)과는 달리 자녀를 잉태치 못하였었는데 이삭이 그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기적적으로 야곱을 잉태하여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25:2).

2.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야곱

야곱의 일생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생활사’였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선 쌍둥이를 잉태한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25:23)고 예고하셨다. 이러한 예언을 성취하기라도 하려는 듯 야곱은 출생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몸짓에도 불구하고 간발의 차로 에서보다 늦게 세상에 태어난 연고로 동생이 된 그는 장자권(長子權)을 에서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장자권을 쟁취하려 하는 야곱의 열망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그 같은 열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야곱에게 이르렀다. 사냥을 다녀온 고로 시장한 에서에게 야곱은 팔죽 한 그릇에 그가 지니고 있던 장자권을 자신에게 팔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에서가 순순히 응하므로 야곱은 손쉽게 장자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25:29-34). 이렇게 하여 장자권을 쟁취한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무엇보다도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 축복’을 받는 것이었다. 죽기 전에 에서를 축복하겠다는 이삭의 말을 엿들은 리브가는 제책을 꾸미어 결국 야곱이 ‘장자 축복’을 받도록 하였다(27:1-29). 그러나 야곱은 이 일로 인하여 에서의 분노를 샀으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하란(Haran)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곳으로 가는 도중 야곱은 베엘에서 꿈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러한 축복에 대하여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 주시어 다시금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자신의 소득 중 1/10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약하였다(8:10-22).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려 하는 그의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면모를 볼 수 있다. 한편 야곱은 사랑을 쟁취함에 있어서도 역시 적극적이었다. 그는 외삼촌의 딸 라헬(Rachel)을 보자

마자 첫눈에 반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녀를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하였으나 그녀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數日) 같이 여겼었다(29:20). 그러나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 야곱은 7년을 더 봉사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라헬과 레아(Leah) 두 아내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월은 흘렀고 이윽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31:13). 그는 자식과 아내, 그리고 자신의 수고의 대가인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는 일전에 형에게 범하였던 잘못으로 인하여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32:7). 압복(Jabbok) 강 나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곱, 이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나타나시어 그와 겨루시었다. 환도뼈가 부러진 가운데서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니 이후 그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 '이스라엘'(Israel)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받았다(32:28). 이처럼 '투쟁의 생활사'를 보여 준 야곱은 그 후 에서와 화해하였고 헤브론(Hebron) 근처에 거주하면서 노년을 보냈었다(37:1). 이때를 전후한 야곱의 생애는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등의 사건으로 엮여져 있다. 먼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Deborah)가 벨엘에서 죽었으며(35:8) 그 뒤를 이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12아들 중 막내인 베냐민(Benjamin)을 출산하고 산고(産苦)로 인하여 에브랏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35:16-19). 그리고 이즈음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장례식을 위하여 그의 형 에서와 다시 한번 만난 이후(35:27-29) 그들 형제는 후손들과 더불어 영원히 반대되는 방향으로의 제 갈 길을 가게 된다. 이제 야곱의 남은 여생은 그의 자식들과 관계된 삶으로 점철(點綴)되는데 이에 관한 기사는 37-49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Joseph)의 초대로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은 도중 브엘세바에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는다. 그것은 곧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46:3)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써 야곱이 획득하였던 이름인 '이스라엘'을 자연스레 연상시켜 준다. 이처럼 야곱의 일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삶이었으니 사도 바울은 야곱을 가리켜 은총의 자식으로 일컬었다(참조, 롬 9:10-13). 이후 야곱은 애굽 땅 고센(Goshen)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말년을 보냈으며 147세를 끝으로 일생을 마쳤다(47:8; 49:33).

제 33 장 야곱과 에서의 재회(再會)

단락구분 1-7 야곱과 에서의 만남 / 8-11 에서가 야곱의 예물을 받다 / 12-17 평화롭게 헤어진 두 형제 / 18-20 야곱이 세겜에 정착하다

1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4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5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6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7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로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8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나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9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10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은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12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13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14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15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네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16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17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되라

18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19 그 장막 친 밤을 세겜의 아비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일백 개로 사고

20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 엘이라 하였되라

1. ㉠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라.

- ㉠ (1) 홀로 밤을 새우며 씨름하듯 처절(懷絶)하게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은 본장에서 큰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다.
- (2) 즉 20년 동안이나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버르고 있던 형 에서가 돌변(突變)하여 야곱이 보낸 예물을 받고 야곱과 20년 만에 화해하였던 것이다.
- (3) 이로써 에서와 야곱은 사이좋은 형제지간으로 회복되었고 그 후 평화롭게 지내면서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을 함께 치루기도 하였다(35:29).
- (4) 우리는 이 아름다운 화평의 관계가 야곱의 결사적인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 (5)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악 중에 있는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가르쳐 준다(롬 5:1; 엡 2:13-16).
- (6)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평케 하는 일에 힘

써야 한다(참조, 마 5:9; 고후 5:18-21).

2. **㉠ 본장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면이 묘사되고 있는가?**

- ㉠ (1) 본장에는 축복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묘사되어 있다. 즉 야곱이 일생 최대의 위기인 에서의 칼날에서 보호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였기 때문이다(32:29).
- (2)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야곱은 본래 벨엘까지 들어가려던 예정 행로를 변경하여 세겜 성에 머무르고 마는 실수를 저질렀다(18절).
- (3) 이 때문에 34장의 디나 사건이란 비극(悲劇)이 발생하여 또 한번의 위기를 자초한 후 야곱은 35장에서 겨우 벨엘에 도착하게 된다.
- (4) 이처럼 야곱의 계속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마침내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닌다.
- (5) 비록 성도들이 하늘 나라로 가는 여정(旅程)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그로 인해 많은 위기를 당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에 의해 구원받게 될 것이다(딤후 4:18).

3. **㉠ 에서와 만날 때 야곱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어떠한 전략을 세웠는가? (2절)**

- ㉠ (1) 에서를 맞이하는 장소에서 야곱은 가장 앞쪽에 두 여종과 그 아들들을 두었다.
- (2) 두번째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었다.
- (3) 세번째는 라헬과 요셉을 두었다.
- (4) 이러한 순서는 야곱이 그들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른 것이다. 즉 그가 더 사랑하는 대상들은 뒤쪽에 두었다.

4. **㉠ 야곱이 에서에게 일곱 번 땅에 굽힌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3절)**

- ㉠ (1) 이러한 인사는 고대 근동의 큰 절을 가리키며 머리가 땅에 닿도록 깊이 숙여 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이것은 대단한 존경심과 경외심의 표현으로 왕 또는 점령자에게 표하는 예의였다.
- (3) 야곱은 위선이나 야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는 뜻으로 자신의 온 성의를 다한 것이다.
- (4) 성도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와 특히 대인 관계에 있어서 예의에 어긋남이 없이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롬 12:16, 17).

5. **㉠ 야곱을 맞는 에서의 태도는 어떠한가? (4절)**

- ㉠ (1)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울었다.
- (2) 사실 에서는 불 같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충만한 나머지 군대를 몰고 나왔었는데 이처럼 야곱을 맞아들였다는 것은 정말 뜻밖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 (3) 여기서 우리는 에서의 마음을 주장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야곱의 겸손한 태도를 측은히 여기도록 하셨던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에 앞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한다(마 10:28; 눅 21:36).
- (5) 만일 야곱처럼 기도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사람과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진다(참조, 시 3:5, 6; 118:6; 사 59:1, 2; 히 13:6).

6. **㉠ 야곱과 에서의 상봉 장면은 무엇을 느끼게 하는가? (4절)**

- ㉠ (1) 복수심과 미움이 두려움과 애정 속에서 녹아버리더니 결국 한 덩어리가 되어 억누를 수 없는 형제의 사랑으로 바뀌었다.
- (2) 야곱과 에서가 서로 부둥켜안고 입을 맞추며 우는 모습은 요나단과 다윗(삼상 20:41), 탕자와 아버지(눅 15:20)의 관계처럼 아름답기 그지 없는 장면이다.

- (3) 이처럼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아무런 사심(私心) 없이 마주 대하는 기쁨은 죄로부터 용서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뵈는 것처럼 큰 것이다.
- (4) 군사를 거느린 의기 양양(意氣揚揚)한 예서의 모습과 두려움에 떨었던 야곱의 모습이 형제의 사랑 가운데서 기쁨의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과 두려움을 사랑으로 녹여서 기쁨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요일 4:18).

7. **㉠ 야곱과 예서가 화평케 된 사실에서 어떤 교훈을 받게 되는가?** (4절)

- ㉠** (1) 미움과 증오는 자신과 남들에게 고통을 주지만 사랑과 용서는 모두에게 화평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
- (2) 이런 의미에서 화평케 하는 자(peace maker)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마 5:10).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을 낮추어서 언제나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롬 12:16-18).

8. **㉠ 야곱이 예서에게 준 예물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8, 9절)

- ㉠** (1) 예물은 아랫사람이 웃사람에게 공경의 표시로 바치는 것이며 이 예물을 웃사람이 받아 주는 것은 아랫사람에 대해 은혜를 베풀고 계속 협조하겠다는 보증이기도 하다.
- (2) 지난 밤 기도하기 전에 야곱이 예물을 택했던 것은(32:13) 단순히 인간적인 슬책일 수도 있었다.
- (3) 그러나 지금의 야곱은 형에 대한 진실한 사랑의 증거로 예물을 주고 있으며 받는 예서도 물욕(物慾) 때문이 아니라 형제 재회의 기쁨에 대한 증거로 생각하며 받았다.
- (4) 이처럼 모든 예물은 그 예물을 주고 받는 동기와 목적에 따라 너물 혹은 부정 거래(不正去來)가 될 수도 있고, 순수한 사랑의 증거도 될 수 있다.

9. **㉠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야곱의 말은 무슨 뜻인가?** (10절)

- ㉠** (1) 이 말은 형 예서의 얼굴에 나타난 친절이 하나님의 얼굴에 보이는 친절과 같다는 뜻이다.
- (2) 여기서 야곱은 예서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말함으로써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가 보여준 호의(好意)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 (3) 동시에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서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 (4)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 주신 권위를 존중하여 진정한 겸손을 나타내어야 한다(참조, 롬 13:1, 2).

10. **㉠ 야곱이 예서에게 예물받기를 강권(強勸) 한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 (1) 고대 근동 지방에서 예물을 주고 받는 것은 우호 관계의 표시이다.
- (2) 따라서 웃사람에게 예물을 바칠 때 그 사람이 받게 되면 그와의 계속적인 우호 관계가 성립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도리어 적대 관계에 서게 된다.
- (3) 이런 이유에서 예서와 계속적인 우호 관계를 바랬던 야곱은 예서에게 자기 예물을 받도록 강권하였던 것이다.

11. **㉠ 예서의 제안을 거절한 야곱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12, 15절)

- ㉠** (1) 야곱을 인도하며 호위하겠다는 예서의 제안을 야곱이 정중하게 거절한 것은 야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 호위되고 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32:1, 2).
- (2)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인도자가 되시며 보호하신다는 야곱의 신앙은 압북 강에서의 씨름 사건 이후 급격히 성장되었음을 보여 주며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그의 삶이 영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뀐 것을 나타낸다.

(3)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필요하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시 118:8,9).

12. **㉠** 야곱이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가? (13절)

- ㉠** (1) 목자들은 새끼가 딸린 어미 양이나 소를 천천히 몬다.
- (2) 만일 이러한 짐승을 하루만 심하게 몰면 숨이 가빠서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 (3) 또한 야곱은 젓 먹이는 문제를 걱정하였는데 이런 상황으로 보아 본 사건은 젓 먹이기에 까다로운 겨울에 벌어진 것 같다(pulpit 주석).
- (4) 후에 야곱이 숙소에 가축 떼를 위한 장막을 만든 사실은 (17절) 위와 같은 짐승들의 속성과 본 사건의 시기를 암시해 준다.

13. **㉠** 행보(行步) 대로 가겠다는 야곱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4절)

- ㉠** (1) 행보대로 간다는 말은 평화롭게 걷는 짐승과 아이들과 아내들의 속도대로 안전하게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즉 형 에서와 화해한 야곱의 마음은 이미 고요한 물처럼 평화로운 상태이며 여유와 기쁨이 충만하였다.
- (3) 평온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행동은 언제나 자신과 확신이 넘치며 건전한 신앙의 삶이 영속되도록 이끈다.

14. **㉠** 야곱은 숙곳에서 얼마나 머물렀는가? (17절)

- ㉠** (1) 숙곳은 수 13:27에 의하면 요단 골짜기에 있으며 가나안 정복 후에는 갓 족속에게 분할되었다.
- (2) 야곱은 이 숙곳에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는데 이는 그가 오래 머물려고 작정하였음을 의미한다. 이곳에서 그는 세겜으로 옮기기까지 약 10년간 머무른 것 같다.
- (3) 우릿간은 갈대로 짓기도 하며 긴 풀이나 천막으로 짓기도 하는 천막(天幕)으로서 개역 성경 난외주에는 그냥 '막'(幕)이라고 해설되어 있다.
- (4) 여기에서 '막(幕)들'(booths)이란 뜻을 가진 지명(地名) '숙곳'(히, 수코트)이 유래되었다.

15. **㉠** 야곱이 정착한 곳은 어디인가? (18절)

- ㉠** (1) 가나안 땅 세겜 성이 있는 곳이었다.
- (2) 이 세겜 성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12:6) 히위 족속들의 추장 하몰이 이 성읍을 세워 그의 아들 세겜의 이름을 붙였다.
- (3) 세겜은 예루살렘 북쪽 약 58km지점의 예발 산과 그리심 산 사이에 위치한다.
- (4) 야곱은 본래 사해 남쪽의 세일에 거주하고 있는 형 에서를 먼저 만나서 용서를 받고 사해를 돌아 남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브엘세바에 도착하려고 했다.
- (5) 그러나 에서를 만난 후에 야곱은 행도를 바꾸어 요단 강을 건너 직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세겜으로 갔다.
- (6) 이것은 야곱의 실수였다. 그는 자기가 하란으로 떠날 때 서원한 대로(28:19-22) 즉시 벨엘로 갔어야 했다.
- (7) 세겜에서 야곱의 가정은 큰 환난을 당하였다. 즉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추장)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은 벨엘로 올라가게 된다(35:1).

16. **㉠** '은 일백 개'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가? (19절)

- ㉠** (1) '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케시타>는 일정한 무게나 가치를 표현하는 화폐의 단위를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수 24:32; 욕 42:11).
- (2) 야곱 당시 세겜 등지에서는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족장들 사이에 화폐의 단위로 사용되었다.

- (3) 따라서 ‘은 일백 개’라고 함은 양 100마리 정도의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 고대에 사용된 동전들에는 가축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그 가축 한 마리에 해당하는 가치를 나타내었다 (Baker 주석).

17. **㉠** 야곱이 세겜 성의 장막 앞에 쌓은 단의 이름은 무엇인가? (20절)

- ㉠** (1) 그 단의 이름은 ‘엘엘로헤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다.
 (2) 야곱이 이렇게 단을 쌓은 것은 오랫동안의 여로(旅路) 가운데서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3)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새 이름 ‘이스라엘’을 상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념하고자 단을 쌓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4)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택하신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신다.

화보자료

설형 문자로 기록된 매매 증서(賣買證書). 헷 족속은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땅에 널리 퍼져 살던 사람들인데, 한 때는 애굽을 침공하여 히소스 왕조(B.C.1786-1580)를 세울 만큼 강력한 족속이었다. 이들에 대한 자료를 발견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곧 족장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아래의 사진은 바로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매매 증서에 관한 것이다.



족장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그 장막친 밭을 하물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개로 샀다(18-20절). 이때 토지 구입에 지불되었던 액수 뿐 아니라 증인들의 목록이 새겨진 증서를 교환하는 것이 당시의 통례였다.

제 34 장 디나의 사건과 세겜 성(城) 약탈

단락구분 1-3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욕을 당하다 / 4-12 하물이 야곱에게 정식으로 청혼하다 / 13-17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 승낙하여 할례를 요구하다 / 18-24 세겜족이 모두 할례를 행하다 / 25-29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 거민을 살육하다 / 30-31 야곱의 책망

1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2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이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3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4 그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5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6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7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

8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따음으로 너희 딸을 연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9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10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11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용하리니

12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빙혹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용하리라

13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14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됴이니라

15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16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17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18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19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버지 집에 가장 존귀함일리라

20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으로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21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만 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22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23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24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25 제 삼 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26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27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28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

과 들에 있는 것과

29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 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30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

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넘세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31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이까

1. ㉠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 중심 사상을 말해 보라.

- ㉠ (1) 본장에는 벨엘까지 돌아가려던 예정 행로를 바꾸어 세겜에 머무르던 야곱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 (2) 즉 야곱의 실수로 인해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 (3) 또한 이 비극은 복수심에 불타 올랐던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 족속을 몰살시키고마는 참극을 연출하고 말았다.
- (4) 이로써 야곱의 가정은 인근의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미움을 받아 멸망당할지도 모르는 매우 절박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30절).
- (5) 결국 이러한 위기에서 야곱은 옛날 하나님께 서원했던 벨엘(28:20-22)로 올라가서 그의 신앙을 재정비하게 된다(35:1).
- (6) 우리는 본장에서 야곱 가정의 정조를 유린(蹂躪)한 이방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과 함께 허물 많은 야곱 가정을 약속의 땅 벨엘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게 된다.

2. ㉡ 디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말하라(1절).

- ㉡ (1) 디나의 사건은 디나가 세겜 성의 여자들과 교제하기 위해 외출했던 단순한 일로부터 비롯되었다.
- (2) 디나는 요세브보다 먼저 태어났으므로(30:21) 이때 그녀의 나이는 약 17세쯤 되었던 것 같다. 야곱은 숙곳에서 2년간, 세겜에서 8년간 머무르던 것으로 추정된다(pulpit 주석).
- (3) 또한 학자들은 당시 세겜 여자들이 마을에서 베풀 잔치를 즐기기 위해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Josephus) 아마도 이러한 사고 모임이 디나의 마음을 유혹했던 것 같다.
- (4) 즉 디나는 세겜 여자들의 옷치장과 그들의 춤추는 것과 무엇이 유행되고 있는가를 '보러 나간 것'이며 한편으로 자기를 '보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Matthew Henry).
- (5) 이러한 젊은이들의 호기심과 허영심은 그들로 하여금 많은 함정에 빠지게 하며 때로 무서운 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적인 욕심과 호기심에 이끌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법도에 마음을 두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할 것이다(시119:36, 37; 마7:13, 14).

3. ㉢ 디나는 누구에게 욕을 당하였는가? (1, 2절)

- ㉢ (1) 외출나간 디나는 세겜 성의 추장 세겜의 눈에 띄었고 결국 강제로 끌려 들어가 강간(強姦)을 당하고 말았다.
- (2) 옛날 사라와 리브가도 애굽과 블레셋 땅에서 비슷한 입장에 처하였으나 하나님의 보호로 무사하였던 적이 있다(12:15; 20:2; 26:6-11).
- (3) 그러나 디나의 경우는 처녀의 몸으로 부주의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그녀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으며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 (4) 경건한 야곱의 딸이 헛된 호기심과 부주의함으로 이러한 징벌을 받았다면 겁없이 사고모임을 열심히 쫓아 다니며 청춘의 정열을 불태우는 요즈음의 연약한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는가!
- (5) 여인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집밖으로 나다니는 것은 좋지 않다. 여자들은 집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딘전 5:13; 딘후 3:6).

4. **㉠ 디나를 욱 보인 후 세겜은 어떻게 하였는가? (3, 4절)**

- ㉠** (1) 디나를 깊이 사랑하는 세겜은 그녀를 위로하였다.
 (2) 또한 세겜은 자신의 아버지 하물에게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3) 동서 고금을 통하여 결혼은 인간의 가장 큰 일 중의 하나이다. 정욕에 이끌려 분별없이 하는 결혼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4) 비록 세겜이 디나를 깊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녀와 동침한 후에 결혼을 청원한 것은 잘못이다.
 (5) 특히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선민을 더럽혔다는 의미에서 세겜의 행위는 묵과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취급된다.

5. **㉠ 세겜이 그 아버 하물에게 디나와의 결혼을 요청한 것은 당시 어떤 결혼 풍습을 반영한 것인가? (4절)**

- ㉠** (1) 당시 팔레스틴의 결혼 풍습은 옛날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당사자의 의사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양측 부모의 의사로 결정하는 점이다.
 (2) 한편 당시에 신부는 중요한 노동력의 소유자였으며 또 아이를 낳아 줄 여인으로서 그 경제성을 인정받았으므로 신랑측 부모는 신부의 부모에게 상당한 예물을 주어야 했다.
 (3) 또 약혼과 결혼 사이에는 보통 1년쯤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 같다.

6. **㉠ 야곱은 어떻게 디나의 소식을 들었는가? (5절)**

- ㉠** (1) 디나의 일행 중에 한 목격자가 디나의 욱을 당한 사건과 세겜에 의해 붙잡혀 있는 사실을 야곱에게 전했을 것이다.
 (2) 왜냐하면 디나는 계속해서 세겜의 집에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26절).

7. **㉠ 디나의 소식을 들은 야곱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5, 6절)**

- ㉠** (1) 딸 디나가 세겜 성에서 욱을 당하고 감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슬퍼하였다.
 (2) 그러나 야곱은 침착하게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3)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는 어려운 일과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얼마나 침착하게 대처하며 또한 서두르지 않느냐에 따라 그 일의 해결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4) 즉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시 37:7; 약 5:13).

8. **㉠ 세겜의 아들 하물이 야곱에게 정중하게 청혼을 한 사실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6절)**

- ㉠** (1) 6, 8-12절의 내용을 볼 때 하물은 야곱에게 여러 번 거듭하여 정중히 청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세겜이 이처럼 야곱에게 와서 정중하게 청혼하고 있는 이유는 야곱의 세력이 그 당시 매우 강했음을 의미한다.
 (3) 즉 야곱은 비록 나그네로서 세겜에 와서 살고 있지만 예서 당시까지 살아있던 이삭 등의 세력도 있었거니와 야곱 자신도 상당한 실력을 갖추어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원주민의 세력을 능가할 정도였다.
 (4) 이러한 사실은 과거에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27:27, 28; 28:15).
 (5)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동행하는 사람은 어느 곳,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풍성한 삶

을 누리게 된다(참조, 사 41:8-10; 요 10:10).

9. **㉠** 하물의 청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12절)

- ㉠** (1) 하물은 자기 아들 세겔의 제의에 따라 야곱에게 세겔과 디나와의 결혼을 요청했다.
 (2) 이 청혼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사이의 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잡혼(雜婚)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3) 바로 이 잡혼을 통하여 노아 시대의 타락이 시작되었으며(6:1-4)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금지되었다(신 7:3, 4; 참조, 레 19:19, 20; 신 22:9-11).
 (4) 이러한 잡혼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의미하는데(마 6:14) 이는 성도들에게 합당치 않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합당치 않은 일이라면 단호히 거절해 버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10. **㉠**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는 결과적으로 잔인한 학살극을 유발하고 야곱 가정을 큰 위기로 몰아 넣었다. 분노에 대한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를 말하라(6절).

- ㉠** (1) 사람의 분내는 성향(性向)은 하나님의 용서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사랑에 대하여 반대되는 것이다(마 5:22-25). 또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고전 13:5)이다.
 (2) 그러나 모든 분노가 죄는 아니다. 분노 중에는 죄를 짓지 않는 분노도 있는데(엡 4:26) 이러한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고통을 느끼며 좀 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나오는 통분이다. 이러한 목적 이외의 모든 분노는 합당하지 않다(참조, 골 3:8).
 (3) 그렇기 때문에 노(怒)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이다(잠 14:17).
 (4) 분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서로 분한 마음을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원하셨던 것이다(마 5:24).
 (5) 혈기를 잘 내는 사람은 인간 관계와 사회에서 밀려나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6) 분노와 혈기는 심령을 어지럽히며 영혼의 감사한 상태를 파괴해 버린다.
 (7) 그러므로 성도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한다(약 1:19).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참조, 마 5:5; 고전 13:4; 약 1:20, 21).

11. **㉠** 야곱의 아들들이 세겔과 그 아비 하물에게 제안한 결혼 조건은 무엇인가? (14-17절)

- ㉠** (1) 세겔 성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였다.
 (2) 이러한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은 그들을 속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즉 모든 세겔 성의 남자들이 할례 의식을 행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들을 떨리기 위한 것이었다.
 (3)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의식'인 할례를 부당한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이다.
 (4) 이와 같이 인간적인 복수심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나 교회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하는 무서운 죄악에 해당한다(출 20:7).

12. **㉠** 할례란 무엇인가? (14절)

- ㉠** (1) 할례(割禮, circumcision)는 일반적으로 남자 성기의 표피 윗부분을 잘라내어 귀두 부분이 덮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으로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된다(17:9-14).

- (3) 그러나 할례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던 관습으로 아브라함 때에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다.
- (4)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처음으로 할례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것으로 할례는 육신의 죄와 더러운 것을 제거함에 대한 상징적인 의식이 되었다(골 2:11).
- (5) 할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인으로부터 구별됨을 가리키는 데에 있고 또한 그들이 언약의 후손으로서 여호와와의 언약을 대대로 준수하며 메시아의 소망을 알게 하는 데 있다.
- (6) 후에 이방인들은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언약의 백성에 참여하고자 할 때 이 할례의 식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표징으로 삼았다(출 12:47, 48).
- (7)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하고 단순히 외적 의식으로만 세계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였던 셈이다.

13. **㉠** **하물과 세겜이 할례의 요청을 좋게 여긴 이유는 무엇인가? (18, 19 절)**

- ㉠** (1) 직접적인 이유는 세겜이 디나를 사랑한 데 있었다(19절).
- (2) 그러나 한편 야곱의 경제적, 사회적 실력이 대단하였으므로 그의 세력을 세겜 지역으로 흡수하려는 의도도 크게 작용하였다(참조, 21-23절).
- (3) 당시는 아직 국가 조직이 미약했으므로 각 성 단위로 또는 단독의 능력만으로 경제, 외교, 국방을 수행해야 했다.
- (4) 그러한 상황에서 야곱과 같은 실력자가 그들과 동화(同化)한다는 것은 세겜족으로서 큰 수확이었던 것이다.

14. **㉠** **세겜은 자기 성을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는가? (21-24절)**

- ㉠** (1) 세겜은 성문에 백성들을 향하여 야곱과 동맹 관계를 맺음으로 야곱이 지닌 경제력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말로 설득했다.
- (2) 이러한 설득에 대해 세겜 사람들은 경제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할례받을 것을 기꺼이 응락했다.
- (3) 여기서 하나님의 신성한 제도인 할례를 둘러싸고 서로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추구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 (4) 하나님의 신성한 제도를 결혼을 위한 수단으로,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던 세겜과 그의 백성들은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참조, 25절).
- (5) 육적이고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적인 규례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불의의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15. **㉠** **‘계 삼일’에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5절)**

- ㉠** (1) 세겜 성안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후 3일이 되는 날’이라는 뜻이다.
- (2) 할례를 행한 후 세째날은 염증이 가장 심하며 그로 인한 열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된다.
- (3) 그러므로 할례를 행한 후 세째날을 ‘위기의 날’이라고 부른다.
- (4)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이날에 세겜 성을 엄습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

16. **㉠** **세겜 성의 약탈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25-27절)**

- ㉠** (1)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 이 일을 추진하였다. 시므온과 레위는 성을 기습 공격하여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
- (2) 또한 다른 야곱의 아들들도 성 안에 들어가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재물을 약탈하였다.
- (3) 이러한 대량 학살은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이라는 사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 (4) 또한 여기에는 종교적인 열심과 육적인 정열 그리고 복수심에 불탄 간교함이 혼합되어 있어 야곱 아들들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5) 비록 종교적인 열심과 정열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복수심과 같은 감정에 혼 합되었을 때는 오히려 매우 야만적인 행동으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17. ㉠ **히위 족속에 대한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 행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는가? (25-27절)**

- ㉠ (1) 비록 시므온과 레위의 신속한 복수 행위가 일면으로는 잔인하고 비열한 행동이기는 했으나 또 다른 면에서는 당시의 가나안 거민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 심판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 (2) 즉 부정과 폭력이 난무하던 가나안의 이방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도덕적 순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 (3) 그러므로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 행위는 인간의 허물을 노출시킨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인간을 사용해서서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사건이다.
- (4) 사실상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칼 잡은 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예기치 않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모든 불의에 대해서 준엄하게 시행되는 것이다(참조, 롬 13:4).

18. ㉠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꾸짖은 내용은 무엇인가? (30절)**

- ㉠ (1) 야곱의 가족이 세 겹 성을 멸절시킨 사실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알려져 야곱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 (2) 이것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의 죄악 그 자체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그 보복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미칠 환난을 더 염려한 것이다.
- (3) 특히 야곱은 '나' (개역 성경)란 표현을 7번이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는 염려하지 않고 자신의 안일과 존재만을 염려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 (4)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만날 때 자기 중심적인 불안과 염려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두려움을 가짐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위에 서야 할 것이다(참조, 시 42:5).

19. ㉠ **본장에 나타난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복수 행위를 재평가(再評價)하면서 그 영적인 교훈을 말해 보라.**

- ㉠ (1) 분노가 아무리 합당하다 하더라도 복수하는 일 자체는 의롭지 못한 행위이다.
- (2) 복수나 징벌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속하므로 하나님께서만이 그의 공의에 합당하게 행하실 수 있다(롬 12:19).
- (3)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분노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즉 화를 내는 것, 욕설을 하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 등은 모두 살인죄와 동등한 형벌을 면치 못한다(마 5:22).
- (4)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부당하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였을지라도 우리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먼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롬 12:19-21).

본장의 요절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이까’(31절).

제 35 장 야곱이 베엘로 올라가다

단락구분 1-5 하나님의 명령 / 6-8 야곱이 베엘에서 단을 쌓다 / 9-15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축복하시다 / 16-20 베냐민의 출생과 라헬의 죽음 / 21-22 르우벤의 서모(庶母) 통간 / 23-27 야곱의 열 두 아들 / 28-29 이삭의 죽음

1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3 우리가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 겹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5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6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엘에 이르고
 7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베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8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그를 베엘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긱이라 불렀더라
 9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12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13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

나 올라가시는지라
 14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엘이라 불렀더라
 16 그들이 베엘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17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며
 18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19 라헬이 죽으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20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1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벨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간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 둘이라
 23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블론이요
 24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25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26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27 야곱이 기랏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28 이삭의 나이 일백 팔십 세라
 29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진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1. ㉠ 본장의 문맥에 비추어 야곱의 생애를 정리해 보라.

㉡ (1) 본장을 마지막으로 하여 27장에서 시작된 야곱의 주요 생애가 마무리 되어지고 36장에

부록으로 에서의 후손이 소개된 후 37장부터 요셉과 유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야기가 50장까지 전개된다.

- (2) 사실상 야곱의 생애는 벨엘에서 시작하여 벨엘로 끝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 (3) 즉 야곱이 처음 나그네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곳이 벨엘이었는데 (28:13-15) 그 후 30년간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받은 장소도 벨엘이었던 것이다(9-12절).
- (4)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곱의 모든 나그네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향해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참조, 수 1:9; 사 41:10; 마 28:20).

2. ㉠ 본장의 주요 사건을 요약하라.

- ㉠ (1) 세겜 성의 살륙 사건으로 인하여 신변(身邊)의 위협을 느끼던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세겜 생활을 청산하고 벨엘을 향해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 (2) 이때에 야곱은 먼저 모든 우상과 이방 풍습을 버리고 가정의 신앙 개혁을 단행한 후 벨엘로 올라가 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재확인받기에 이른다.
- (3) 특별히 본장에서는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야곱의 12아들이 형성되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와 라헬과 그리고 이삭이 죽은 사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족장 시대의 한 세대가 끝나 가는 경계선을 느끼게 한다.
- (4) 한편 르우벤의 간통 사건은 그의 장자권이 상실됨을 암시하며 야곱의 후시대(後時代)가 유다와 요셉에 의해 주도될 것을 예고한 사건이다.
- (5) 이러한 본장의 주요 사건들은 아브라함(12:2), 이삭(26:4), 야곱(28:14)에게 허락하셨던 선민(選民) 건설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3. ㉠ 벨엘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벨엘에서 서원했던 그 내용들(28:20-22)을 기억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 (2) 그러나 세겜에 안일하게 머물면서 벨엘에 가기를 지체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시련을 주시고(34장) 결국 야곱이 세겜을 떠나도록 촉구하셨던 것이다.
- (3) 편안한 상태에 오래 있을 경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린 서원마저 잊고 이행하지 않을 때가 많다.
- (4)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옛 기억을 일깨워 주심으로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계 2:4, 5; 3:19, 20).

4. ㉠ 벨엘과 세겜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1절)

- ㉠ (1) 벨엘은 세겜에서 남쪽으로 약 48km에 위치하고 있다.
- (2) 야곱은 30년 전에 다시 벨엘로 돌아오겠다고 서약했었다(28:22).
- (3)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은 벨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 (4)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는 것은 그들이 너무 약하기 때문도 아니며 하나님의 계명이 어렵기 때문도 아니고(요일 5:3) 오직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참조, 마 15:8, 9).

5. ㉠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행한 3가지의 신앙 개혁은 무엇인가? (2절)

- ㉠ (1) 야곱은 자기 가족 뿐 아니라 모든 종들에 이르기까지 이방 신상, 즉 모든 우상을 버리라고 명하였다.

- (2) 그리고 다음 단계로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했다. 이는 ‘스스로를 씻다’ (Living Bible, wash themselves)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문자적 의미는 목욕하여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을 가리킨다.
- (3) 마지막으로 의복을 바꾸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으라는 뜻이다.
- (4)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앙의 개혁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약 1:25).

6. **㉠**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이방 신상’은 곧 ‘낯선 신상’ (KJV, the strange gods)이라는 의미이다. 라헬이 가지고 온 드라빔을 비롯한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들로서 하나님 이외의 신의 형상을 상징하는 모든 우상들을 가리킨다.
- (2)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적되는 모든 숭배 대상들을 먼저 제거해야만 한다. 돈이나 명예나 지식 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가 된다 (참조, 엡 5:5; 딤후 3:4).
- (3) 우리가 탐심을 버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격과 생활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참조, 눅 12:15; 요 10:10).

7. **㉠**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이방 풍습에 젖어 있던 모든 사회적 행위와 미신적 행위로 인한 불결 등을 제거하라는 뜻이다.
- (2) 벨엘로 올라가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는 야곱에게 정결케 하는 의식은 반드시 필요했다.
- (3)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규례는 후에 모세의 법에서 ‘결례 율법’으로 규정되어졌다(레 14:4; 15:13; 민 19:11, 12).
- (4) 성도들의 삶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삶은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는 회개와 기도 생활로부터 시작된다(참조, 마 4:17; 벨전 1:14, 15).

8. **㉠** ‘의복을 바꾸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이 명령은 후에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옷을 짧고 기다리라고 하신 명령과 유사하다(출 19:10, 14).
- (2) 또한 율법 시대에 있어서 몸을 씻는 것과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혁신과 의를 행하는 것으로 상징되었다(겔 36:25; 히 10:22; 유 1:23; 계 19:2).
- (3) 여기서 몸을 씻는 것이 회개와 기도의 생활을 의미한다면 의복을 바꾸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말이다.
- (4) 우리는 모든 합당치 못한 육신의 일을 벗어 버린 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활을 통하여 예수의 인격과 사랑과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롬 13:12-14).

9. **㉠** 야곱의 개혁의 정도는 어떠했는가? (2절)

- ㉠** (1) 야곱은 자신의 온 가정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도 개혁을 촉구하였다.
- (2) ‘야곱과 함께 한 자’는 모든 종들과 포로로 잡은 세겔 사람(34:29) 등도 포함된다.
- (3) 이것은 야곱의 개혁이 철두 철미했음을 보여 준다.

10. **㉠** ‘일어나 벨엘로 올라가자’는 야곱의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3절)

- ㉠** (1) 야곱의 서원을 성취케 해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 (2) 이것은 야곱이 벨엘에 나타나셨던 여호와를 비로소 기억하고 그 당시 자신이 서원했던 기도(28:20-22)를 생각하고 서둘러 벨엘을 향하여 출발하고자 했다.
- (3)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헌신의 고백으로 여러 가지 서원과 약속을

하나님께 기도한다.

- (4)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이 혹시 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고 계시며 그것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즉시 그것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11. **㉠** 야곱이 상수리나무 아래 무엇을 묻었는가? (4절)

- ㉠** (1) 모든 집안 사람들이 내어놓은 이방 신앙과 귀걸이 등을 묻었다.
- (2) 이것은 불살라 버리거나 파괴하지 못하고 상수리나무 아래 묻어야 할 만큼 상당히 많은 분량이었다.
- (3) 이 사실은 세겜에서 살던 당시 야곱 가정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하게 번져 나가고 있었는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4)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야곱이 결단을 내려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파생된 모든 불신앙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도록 해야 한다(참조, 골3:5-9).

12. **㉠** '귀에 있는 고리'란 무엇인가? (4절)

- ㉠** (1)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착용하던 귀걸이는 신앙의 모습과 신비스러운 글자가 새겨진 것이었다.
- (2) 가나안 사람들은 이 귀걸이에 마력(魔力)이 있다고 여겼으며 이것을 미신적인 목적으로 달고 다녔으니 일종의 우상으로 볼 수 있다.
- (3) 이처럼 세겜의 상수리나무는 특별히 종교적인 유래를 지니고 있다. 이곳에 야곱이 우상을 묻어 버린 것도 역시 그의 종교적 변화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던 것이다.
- (4)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축복된 생활을 할 때 항상 그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의 제단, 찬양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자(히 13:15, 16).

13. **㉠**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말하라 (4절).

- ㉠** (1) 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이곳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다(12:6, 7).
- (2) 그리고 후에 여호수아는 이곳에 자기의 기념 기둥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를 삼았다(수 24:26).
- (3) 이처럼 세겜의 상수리나무는 특별히 종교적인 유래를 지니고 있다. 이곳에 야곱이 우상을 묻어 버린 것도 역시 그의 종교적 변화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던 것이다.

14. **㉠** 야곱이 벧엘에 도착하여 단을 쌓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절)

- ㉠** (1) 이는 약 30년전 야곱이 여호와께 서원한 약속(28:20-22)을 지킨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2) 야곱은 그때의 약속을 따라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을 쌓았을 것이다.
- (3)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축복된 생활을 할 때 항상 그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의 제단, 찬양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자(히 13:15, 16).

15. **㉠** '엘 벧엘'의 의미를 말하라 (7절).

- ㉠** (1)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대로 이곳 벧엘에 다시 돌아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벧엘'이라고 불렀다.
- (2) 이 말은 '벧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 (3) 그러나 벧엘 전체를 하나님의 성별된 장소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은 곳을 '엘 벧엘'이라고 부른 것이다.

(4) 즉 야곱은 그곳(벧엘)이 하나님(엘)께 바쳐졌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다.

16. **㉠** 드보라는 누구인가? (8절)

- ㉠** (1) ‘꿀벌’이라는 뜻을 가진 드보라는 유모였다.
 (2) 드보라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갈 때 리브가를 따라갔었다.
 (3) 그런데 후에 리브가가 죽은 후 자진하여 야곱에게로 왔다.
 (4) 드보라는 야곱 가정에서 큰 일을 맡아 일하다가 벧엘에 돌아온 후 죽었다.
 (5) 그녀는 벧엘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묻혔다.
 (6) 그리고 그 상수리나무를 ‘알론바곳’이라고 불렀다. 이는 ‘눈물의 상수리나무’라는 뜻이다.

17. **㉠** 야곱이 벧엘에 돌아온 후 여호와께 받은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9-12절)

- ㉠** (1)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압복 강에서의 축복을 재확인하셨다(32:28).
 (2) 또한 생육하며 번성하여져서 많은 국민과 왕들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는 선민의 축복도 재확인해 주셨다(27:29;30:14).
 (3)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가나안을 야곱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도 다시금 확실하게 해주셨다.
 (4) 이와 같이 여기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의 생애를 결산하는 의미를 지닌다. 야곱은 이러한 신적인 축복을 그의 열 두 아들에게 분배하여 계승한다(참조, 49:1-27).
 (5) 이렇게 계승된 축복은 야곱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 성취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다(엡 1:3).

18. **㉠**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 ㉠** (1) 아브라함에게 능력으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17:1;18:14) 지금도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이미 약속한 언약을 그를 통하여 성취하시겠다는 의미이다.
 (2) 즉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뜻이며, 후에 메시아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신실성은 입증되었다.
 (3)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성도들과의 약속(구원과 축복)을 신실히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참조, 히 13:8).

19. **㉠**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11절)

- ㉠** (1)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번성할 것을 가리킨다.
 (2)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메시아를 통한 복음으로 구원얻는 백성의 수가 증가될 것을 의미한다.

20. **㉠**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 ㉠** (1) 역사적 사실을 통해 볼 때 다윗과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들이 야곱의 후손에서 나왔다.
 (2) 한편 영적인 의미에서는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

21. **㉠**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절)

- ㉠** (1)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에 택하신 가시적(可視的)인 행동을 가리킨다.
 (2)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직접 임재와 행동에 의한 계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특징적인 계시 형태였다.
 (3) 성경이 완비된 시대의 성도들은 이보다 더 우월한 계시 형태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4) 즉 오늘날의 성도들은 성경을 통하여 구약 시대보다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22. **㉠**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무엇을 행하였는가? (14절)

- Ⓐ (1) 하나님을 만나 축복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그 장소에 돌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奠祭物, drink offering)과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 (2) 여기서 전제란 포도주를 부어 바치는 제사를 말하며 그 제물은 보통 포도주 약 5홉 정도가 된다(참조, 출 29:40, 41; 레 23:13, 18, 27; 민 6:15).
- (3) 이처럼 야곱이 축복을 받고 제사 의식을 행한 것은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또한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
- (4)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만 급급해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생각지 않는다.
- (5)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동시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딤후 2:15).

23. ⓐ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인가? (15절)

- Ⓐ (1)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곳은 예루살렘 북편 세겜을 향해 19km, 실로 남쪽 29km, 아이 서편 3km에 있는 돌산으로 오늘날에는 베이틴이라고 불리운다.
- (2) 야곱이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미 이전에도 있었다. 즉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는 길에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꿈꾼 후 벧엘이란 이름을 붙인 것이다(28:19).
- (3) 당시 야곱은 이곳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장차 십일조를 바칠 것을 서약했다(28:16-22).
- (4) 본절에서도 야곱은 다시 벧엘로 올라가 과거에 하나님께 경배한 그 자리에 단을 쌓고 전제물을 붓고 또한 기름을 부었다. 이러한 사실은 야곱이 과거의 신앙을 회복하였음을 보여 준다.

24. ⓐ 에브랏에 대하여 설명하라(16, 19절).

- Ⓐ (1) 에브랏은 히브리어로서 ‘수확이 풍부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다(19절; 48:7).
- (2) 이 성읍은 예루살렘 남쪽 약 11km 지점에 위치하며 다윗(삼상 16:18)과 예수 그리스도(마 2:1)가 탄생하신 곳으로 유명하다.
- (3) 또한 여기서 라헬이 베냐민을 난산(難産)한 후 죽어 장사되었는데 지금도 에브랏(베들레헴)에는 라헬의 무덤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작은 무덤이 있다.

25. ⓐ 라헬이 낳은 야곱의 막내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18절)

- Ⓐ (1) 라헬은 아들을 낳을 때 너무 심한 고통을 느낀 나머지 낳는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즉 ‘내 슬픔의 아들’라고 불렀다.
- (2) 그러나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렀다. ‘베냐민’은 ‘내 오른손의 아들’ 또는 ‘내 행복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각별한 애착과 사랑을 보여 주는 이름이다.

26. ⓐ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의 ‘지금까지’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0절)

- Ⓐ (1)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이 글을 쓸 때까지를 의미하며 라헬의 무덤의 위치는 사무엘 때까지 정확하게 알려졌다(삼상 10:2).
- (2) 오늘날에도 베들레헴 근처에는 라헬의 무덤으로 알려진 유적이 있는데 이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유적의 하나이다.
- (3) 그러나 라헬의 무덤은 있어도 그 묘비는 남아 있지 않다.

27. ⓐ ‘에델 땅대’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21절)

- Ⓐ (1) 이곳은 베들레헴 남쪽 약 2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2) 이곳에는 당시 목자들이 양 떼를 지키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높은 망대가 있어서 그 일대를 '에벨 망대'라는 명칭으로 불렀다(왕하 18:8; 대하 26:9; 27:4).

28. Ⓒ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저지른 치명적인 범죄는 무엇인가? (22절)

- Ⓐ (1) 르우벤은 자기의 서모(庶母), 즉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통간(通姦)하는 상식 이하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 (2) 이것은 근친 상간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패륜 행위(悖倫行爲)로서 모세의 율법에서 관계한 두 남녀를 모두 죽이도록 엄히 규정되어 있다(레 18:8; 20:11).
- (3) 결국 이 사건을 인해서 르우벤은 후에 그의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말았다(49:4; 대상 5:1).

29. Ⓒ 르우벤이 빌하를 통간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이스라엘)의 '침묵'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2절)

- Ⓐ (1) 자식이 아내와 범죄한 일로 비탄에 빠져 있으며 아버지로서의 심한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하는 행위로써 경건하게 족장 가족을 이끌어 가는 야곱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되었다.
- (2) 그런데 야곱은 침묵으로 사태를 처리하였다. 이것은 매사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신앙적인 태도이다. 사실 이런 대죄는 인륜(人倫)의 차원을 넘어서 언약의 상속자로서 종교적 순결까지 더럽힌 것이었으므로 야곱은 인간적인 제재를 아예 포기했다(레 18:8). 이렇게 처리하는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을 것이다.
- (3) 그러나 마침내 야곱은 그의 임종시에 르우벤의 상속권을 박탈하였으며 저주를 유산으로 주었다(49:3, 4). 가문을 욕되게 한 일과 하나님의 뜻에 역행한 아들에 대한 그의 적절한 징계였다.

30. Ⓒ 야곱의 12아들을 따라 구분하여 보라(23-26절).

Ⓐ

어머니	아들	출생 순서	비고
레아	르우벤	1	간통 사건으로 장자권 상실
	시므온	2	세겜 진멸 사건 주도
	레위	3	세겜 진멸 사건 주도
	유다	4	메시아의 직계 조상
	잇사갈	9	합환채의 대가로 낳은 아들
	스블론	10	
라헬	요셉	11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
	베냐민	12	난산 중에 출생
빌하 (라헬의 여종)	단	5	
	납달리	6	
실바 (레아의 여종)	갓	7	
	아셀	8	

31. Ⓒ 본장에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지니는 모계(母系)에 따라 언급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3-26절)

- Ⓐ (1)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각 사람의 이름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특별한 출생 배경과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름의 의미는 그 인물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 (2) 특별히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주권 또는 소유권을 확인하는 행위였다. 이런 관

점에서 빌하와 실바의 아이들까지 레아와 라헬이 이름을 지어 준 사실은 그들이 서자(庶子)가 아니라 적자(嫡子)로 대우받았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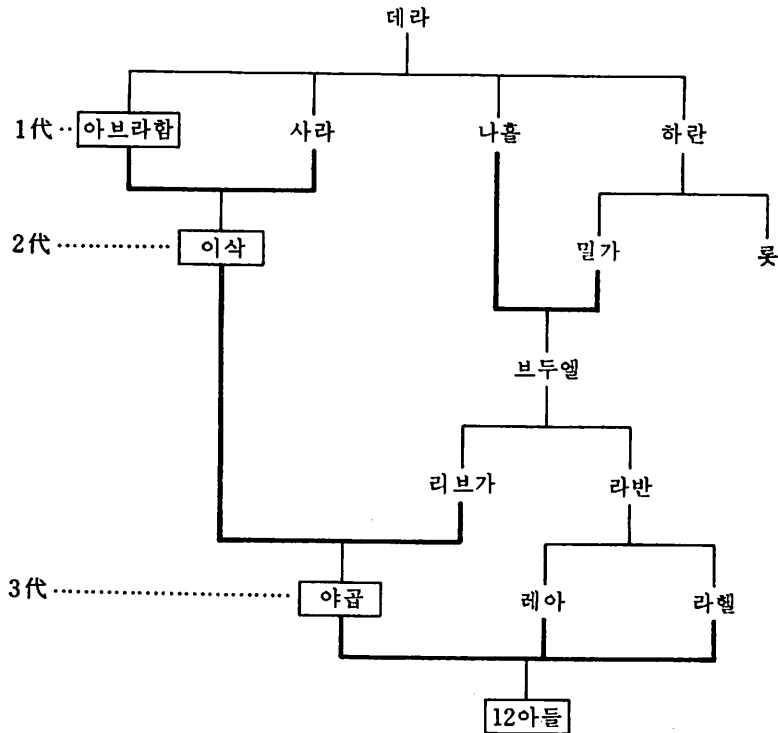
(3) 따라서 야곱의 12아들이 본장에 일일이 언급되는 이유는 그들이 서로 다른 모계를 통해 태어났고 또 많은 허물과 죄에 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적자라는 사실을 밝히려는 데에 있다.

32. ㉔ 이삭의 죽음과 장례에 대하여 말하라(27-29절).

- ㉔ (1) 이삭은 기럇아르바, 즉 아브라함이 우거하던 곳인 헤브론에서 죽었다.
- (2) 그는 아브라함처럼 나이 많고 기운이 진하여 죽었으며, 죽을 때 나이는 180세였다.
- (3) 이때 에서가 이삭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 그가 거하던 세일 산에서 내려와 야곱과 함께 그 아비 이삭을 장사하였다.
- (4) 이리하여 이삭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는데 그곳에는 아브라함, 사라, 리브가 및 레아 등도 장사되어졌다(49:31).

연구자료

족장 시대 근친 결혼의 계통



— 세대 관계 즉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 결혼 관계 즉 부부사이를 나타냄.
 족장을 가리킴.

제 36 장 에서의 후손들

단락구분 1-5 가나안에서 태어난 에서의 아들들 / 6-8 에서가 세일 산으로 이사하다 / 9-19 에서 가문의 족장들 / 20-30 세일 땅의 원주민과 족장들 / 31-39 에돔 왕의 계보 / 40-43 에서 자손의 구역별 족장

- 1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 2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헛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 3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뿃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 4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 5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 6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 7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 8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 9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 10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 11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 12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 13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 14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 15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데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 16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 17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 18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 19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 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 20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 21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 22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람과 로단의 누이 딤나요
- 23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합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 24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 천을 발견하였고
- 25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 26 디손의 자녀는 험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 27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 28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 29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 30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 31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 32 브을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딤하바며
- 33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 34 요밥이 죽고 데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 35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윌이며

- 36 하답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 37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하숫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 38 사울이 죽고 악불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 39 악불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므헤다벨이니 마므렛의 딸이요 메

- 사합의 손녀더라
- 40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딘나 족장, 알와 족장, 여벳 족장
- 41 오희리마마 족장, 엘라 족장, 비는 족장
- 42 그나스 족장, 데만 족장, 밍살 족장,
- 43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세일 땅에 정착한 후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룬 사실이 족보의 형태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비교, 대상 1:35-42).
- (2) 이것은 일찌기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胎中)에 ‘두 민족’이 있다고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어 감을 의미한다(25:23).
- (3)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중심으로 언약의 민족이 이루어지듯이 에서를 통해서도 이방 민족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 (4) 본장이 이방 민족에 불과한 에돔 족속을 이처럼 상세히 언급한 것은 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민족까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 준다(참조, 27:40;사 42:1, 6;49:6;눅 2:30-32).

2. ㉠ ‘에서 곧 에돔의 대략(大略)은 이러하니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에서는 ‘털이 많다’는 뜻이며 에돔은 ‘붉다’는 뜻인데 특별히 에돔은 팔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 버린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그의 별명이다(참조, 25:25, 30-34).
- (2) 또한 ‘대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물레뿔>인데 ‘계보’, ‘족보’라는 뜻이다. 영역 성경에는 ‘계보’ (KJV, the generations), ‘후손’ (RSV, the descendants)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참조, 민 3:1).
- (3)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론적 구절을 통하여 본장의 내용 전체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 버리고 이방 민족으로 전락되어 버린 에서의 후손에 대한 기록임을 알게 된다.

3. ㉠ 에서의 아내에 관하여 말해 보라(2-5절).

- ㉠ (1) 에서의 아내는 모두 3명이며 그의 아들은 5명이다.
- (2) 그런데 본장에 기록된 내용과 26:34;28:9을 비교해 보면 아내의 이름이나 혈통에 있어 다소간 차이가 난다.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36: 2, 3		26:34; 28:9		
혈 통	이 름	혈 통	이 름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 다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히위 족속 중 시므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희리마마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 딯	
이스마엘의 딸, 바웃의 누이	바 스 맛	이스마엘의 딸, 느바웃의 누이	마할랏	

- (3) 위 도표에서 이름의 차이가 나는 것은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가졌었거나 혹은 결혼한 이후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4) 또한 혈통이 다르게 된 것도 하나는 족속에 대한 고유 명칭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 족속에 사는 지역에 속한 다른 거민들이 그들에게 붙여 준 칭호라 볼 수 있다(Keil, Lange).
- (5) 아뭏든 위의 언급들에서 확실해지는 것은 에서가 세 아내를 취하였으며, 셋 중의 하나는 헷 족속 엘론의 딸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웃의 누이라는 사실과 아내의 이름 중의 하나는 바스맛이라는 사실 등이다.

(6) 에서의 다섯 아들에 관하여는 보다 자세히 다루어지는 Q 6을 참조하라.

4. Q 에서의 결혼이 보여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 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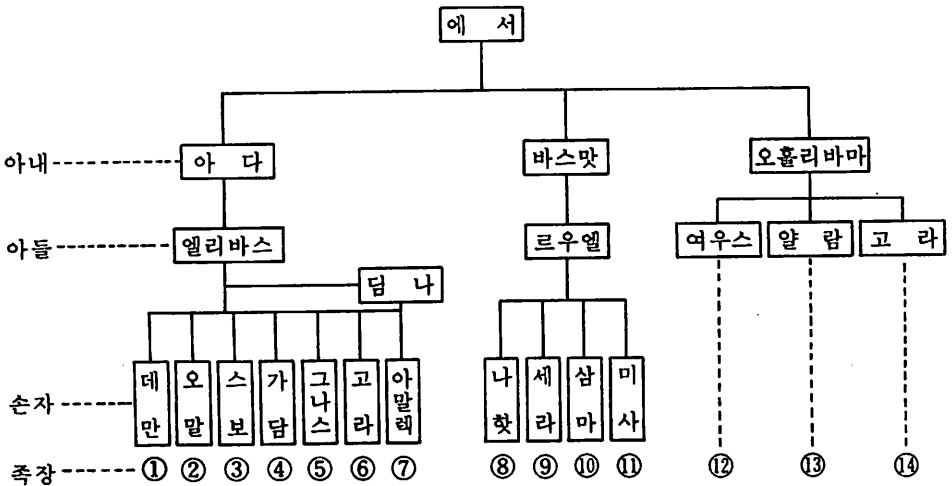
- A (1)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족속(가나안의 족속)의 여인들을 택하여 아내로 삼았다. 그러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그 일을 기뻐하지 않게 되자(26:34, 35; 27:46) 그는 같은 혈통인 이스마엘 족속의 마할랏(혹은 바스맛)을 또다시 아내로 취하였다.
- (2) 그러나 그의 결혼은 무분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 (3) 비록 에서의 후손은 한때 에돔 왕국을 이루며(31-39절) 번성하는 듯했으나 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救贖史)를 거스리는 족속으로 계속되다가 끝내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참조, 사 34장).
- (4) 이것은 신앙인들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나타내며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배우자와 결혼해야 함을 보여 준다.

5. Q 에서는 야곱과 헤어져 어디로 갔는가? (6-8절)

- A (1) 에서는 모든 재물과 가족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가나안으로부터 세일 산으로 갔다. 이곳의 현 위치는 예루살렘의 서쪽 약 14km 지점으로 사해 남쪽의 아라바 산악 지대이다.
- (2) 에서와 야곱이 헤어진 표면적인 이유는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 함께 거(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 (3) 그러나 그들이 서로 헤어지게 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에서에게 거친 땅에 거주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27:39) 세일 산을 에서의 기업으로 정하셨던 것이다(신 2:5; 수 24:4).

6. Q 에서의 아내와 아들과 손자 및 족장의 이름을 도표화하여 보라(9-19절).

A (1) 에서의 3명의 아내와 5명의 아들과 14명의 족장은 다음과 같다.



(2) 위 도표에 나타난 것처럼 에서 자손의 족장이 된 사람은 모두 14명인데 손자가 11명, 아들이 3명이다.

(3) 도표에서 ⑥번의 족장의 이름 '고라'는 에서의 손자로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11절) 족장들 중의 하나로 언급되었다(16절).

(4) 도표에서 ⑦번의 족장 아말렉은 엘리바스의 첩(妾) 딤나의 아들이다(12절).

7. Q 족장의 의미를 말하라(15-19절).

- Ⓐ (1) '족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알루핌>인데 이는 '친해진다', '연합한다'란 뜻을 가진 <알라프>에서 유래했다.
- (2) <알루핌>은 본래 에돔 족속과 호리 족속의 우두머리 또는 추장을 의미하던 고유 명칭이었으나 훗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유대인의 두목(chief) 또는 통치자를 가리키는 일반 명칭이 되었다(수 9:7;12:5).
- (3) 따라서 성경에 사용된 '족장'이란 말은 비교적 초기 시대 곧 가나안 정착 이전에는 주로 혈연 집단의 최고 어른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 후에는 사회적 지위가 유력한 한 집단을 가리키는 데 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8. ⓐ '그 땅의 원거인(原居人)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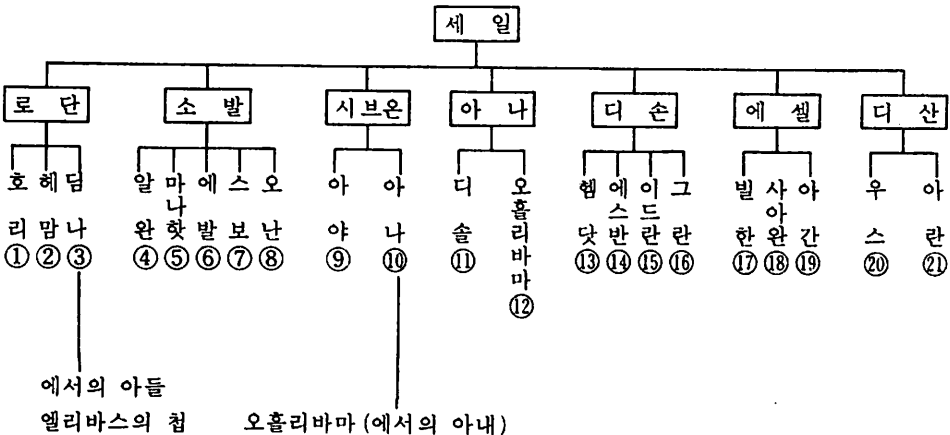
- Ⓐ (1) 세일은 호리 족속에 속한 족장 중의 한 사람이었는데 당시 호리 족속은 에돔 족속이 세일 산으로 이주하기 전에 그곳에 살던 거주민이었다는 뜻이다.
- (2) 그런데 이 호리 족속은 에돔 족속에 의해 추방되었으며 남은 자들은 에돔 족속과 동화되어 버렸다.
- (3) 예를 들면 에서의 아내가 된 오희리바마(2절)나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 된 딘나(12절)는 바로 이 호리 족속이었다.

9. ⓐ '호리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20절)

- Ⓐ (1) 히브리어로 <호리>란 말은 '구멍', '동굴', '동굴인'을 뜻하는 <홀>에서 파생된 말로서 혈거인(穴居人)이라고 풀이될 수 있다.
- (2) 이들은 에돔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석회암의 동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 (3) 지금도 세일 산에서 발굴된 동굴, 궁전, 무덤 등은 당시의 웅장한 모습을 전해 준다.

10. ⓐ 호리 족속, 즉 허위 족속에 속한 세일의 후손을 도표화하라 (20-30절).

- Ⓐ (1) 에서의 가족이 세일 산으로 가기 전에 세일 산에 살고 있던 호리 족속 세일의 후손은 다음과 같다.



- (2) 도표에서 ③번의 딘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妾)이 되어 아말렉을 낳았다.
- (3) 도표에서 ⑩번의 아나는 '오희리바마'를 낳았는데 이 '오희리바마'는 에서의 아내가 되었다.
- (4) 도표에서 볼 때 시브온의 아들 '아나' (⑩번)와 세일의 아들 '아나' (⑪, ⑫번의 아버지)는 동명 이인(同名異人)이지만 세일의 아들 '아나'는 시브온의 아들 '아나'의 숙부가 된다.

(5) 특히 세일의 아들 '아나'는 '오홀리바마'라는 딸을 낳았는데 (12번) 시브온의 아들 '아나' (10번)도 '오홀리바마'를 낳았다.

11. ㉠ 본장에 에서의 족보와 더불어 호리 족속인 세일의 족보가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0-30절)

- ㉠ (1) 그 이유는 에서의 자손이 세일 산으로 옮겨 간 후 두 족속이 서로 통혼(通婚)하면서 동화되어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 (2) 이처럼 에서의 가족은 결혼에 있어 순수성을 지키지 않았고 타민족에 대하여 개방적이었으며 결국 혼혈 민족을 형성했던 것이다.
- (3) 이러한 사실은 비록 에서가 아브라함의 후예이지만 택한 백성의 계열에서는 제외되어 이방 민족이 되고 말았음을 보여 준다.
- (4) 오늘날 비록 교회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외형상의 교회인(church man)은 될지언정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고 할 수는 없다(참조, 마 3:8-10; 롬 4:13, 16).

12. ㉠ 시브온의 아들 아나는 광야에서 무엇을 발견하였는가? (24절)

- ㉠ (1) 아나는 에서의 아내가 된 오홀리바마의 아버지로서(25절) 그의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치다가 광야에서 자연 온천(hot springs)을 발견하였다.
- (2) 에서의 후손이 온천을 발견하기는 했으나 영적인 면의 성공적 기록은 볼 수 없다.
- (3) 이처럼 본장의 족보들에는 이 온천 발견 사건 외에는 그 이름들만 나열되었을 뿐 그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 (4) 여기서 우리는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최종 목표일 수 없음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땅의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 그것을 몰랐기에 이 세상의 것만 추구했으며 영적인 면의 업적을 남겨두지 못하였다.
- (5) 사실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는 인간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그들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는 영적 축복의 삶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것이었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3. ㉠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의 왕이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31절)

- ㉠ (1) 본절에 이스라엘의 왕이라 함은 백성의 영도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모세가 그 첫 인물로 간주된다(참조, 신 33:5).
- (2) 따라서 본절은 에돔의 왕이 모세 이전 시대부터 등장하여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3)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에돔 족속은 독립된 나라를 이루면서 정치 제도에서 이스라엘보다 진보된 상태에 있었고 외형적인 번영과 풍요를 누렸던 것이다.
- (4) 이처럼 약속의 백성은 이방 백성보다 늦게 그들의 나라를 설립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현재 에돔이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 (5) 우리들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비록 서서히 진전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참조, 계 11:15).

14. ㉠ 에돔 왕을 순서대로 언급하고 그것이 주는 의미를 말하라(33-39절).

- ㉠ (1) 벨라-요밤-후삼-하닷-삼라-사울-바알하난-하달.

(2) 벨라가 죽고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것은 왕위가 세습되지 않고 선출에 의해 계승된 것을 알 수 있다 (33절).

15. ㉠ 본장에 나타난 에서의 후손, 즉 에돔 족속의 특징을 말하라.

- ㉠ (1) 많은 인종을 이루었다. 에서의 자녀는 처음에는 야곱의 자녀보다 적었으나 후에는 야곱의 후손보다 더욱 많아졌다.
- (2) 혼합된 인종이 되었다. 에서의 족속은 호리 족속을 정복하여 그들이 사는 곳에 정착하였으나 오히려 그들과 통혼(通婚)하는 등 호리 족속의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 (3) 왕정을 채택한 민족이 되었다. 이것은 에돔 족속이 하나의 조직적인 정치 체계를 완성했음을 의미한다.
- (4) 그러나 그들은 쫓겨난 인종이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들은 가나안 땅 밖에서 발전해야 할 인종이 되고 말았다.

16. ㉠ 본장에 나타난 에서의 자손들이 남겨 놓은 업적을 정리해 보라.

- ㉠ (1) 에서 자손의 역사는 유물주의(唯物主義)의 역사이며 약속과 축복이 없는 현실주의 역사이다.
- (2) 그들에게 업적이 있다고 하면 시브온의 아들 '아나'가 광야에서 은전을 발견한 일뿐이다(24절). 비록 에서의 자손 가운데 왕들이 많이 등장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세상적인 욕에 속한 영광만을 추구한 것밖에 없다.
- (3) 결국 에서와 그의 자손들이 남긴 업적은 하나님 나라의 업적과 관계가 없는 것들 뿐이다.
- (4)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추구의 삶이다(롬 8:24, 25). 이것은 결코 썩어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 신령한 하늘의 은총 가운데 영원토록 남아 있는 업적이다(고전 15:50; 벰전 1:3, 4).

연구자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요 산

산 명	위 치	주 요 사 건	성경 귀절
아 라 랫	아르메니아의 한 지방	대홍수가 끝난 후 노아의 방주가 닿은 곳	8:4
모 리 아 (시온)	예루살렘 동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던 곳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	22:1-19 대하 3:1
시내(호르)	가데스바네아 동북방 10여km 지점	모세의 형 아론이 죽음	신 32:50
세 벨	가데스바네아 남쪽 10여km 지점	출애굽 도중의 이스라엘이 잠시 유숙한 곳	민 33:23, 24
세 일	사해 남쪽, 아라바 평지 동쪽	에서의 후손이 그곳 원주민을 정복	신 2:12

그 리 심	세겔 부근, 사마리아 성 동남방 약15km지점	이스라엘이 축복을 선포	신 11:29
에 발	그리심 산 맞은편	이스라엘이 저주를 선포	신 11:29
느 보	사해 동쪽, 모압 고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 라보기 위하여 오른 곳	신 34:1
비 스 가	느보 산 서쪽 2km지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봄	신 34:1
헤 르 몬	팔레스틴 북방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의 북방 한계선	수 11:17
할 락	브엘세바 남쪽 40여km 지점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 을 격멸하고 정복한 땅	수 11:17
에 브 론	기랴트아랍 부근	가나안 정복 후 유다 지파의 지경(地境)	수 15:9
여 아 립	예루살렘 서쪽 약 15km 지점	“	수 15:10
다 불	이스라엘 평야 서북쪽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기 위해 납달리 자손과 스블론 자손을 모은 곳	삿 4:4-10
살 몬	세겔 부근	아비멜렉이 세겔 망대에 있는 남녀 1천 명을 죽임	삿 9:48, 49
길 보 아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전사한 곳	삼상 31:1-6
브 라 심	바알브라심과 동일 지역	다윗이 블레셋인을 격멸	삼하 5:20
감 략	팔레스틴 중앙을 남북으 로 가로지르고 있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치면서 지나쳐 감	삼하 15:30
길 르 앓	요단 동편 산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한때 거주하였던 곳	삼하 17:26
기 브 온	예루살렘 서북쪽 10여 km 지점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 아마샤를 죽임	삼하 20:8 -10
레 바 논	팔레스틴 북쪽 수리아 고원 지대	솔로몬의 건축 사업	왕상 9:19
갈 델	므깃도 부근 지중해 연안	엘리아와 바알 선지자 간의 대결	왕상 18:20 -46

제 37 장 애굽으로 팔려 간 요셉

단락구분 1-4 요셉에 대한 야곱의 총애와 형들의 시기 / 5-11 요셉이 꾸 두 가지 꿈 / 12-17 요셉이 양치는 형들을 찾아가다 / 18-24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다 / 25-28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다 / 29-35 아버지 야곱이 애굽해 하다 / 36 보디발의 종이 된 요셉

1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2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 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버지의 칠 밭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하더라

3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4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5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6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 꿈을 들으시오

7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

8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꾸즉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내게 절하더라 하니라

10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11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12 그 형들이 세겔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겔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4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

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겔으로 가니라

15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16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17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18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피하여

19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20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1 르우벤이 들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22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땅에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버지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던라

23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24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6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익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27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향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28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 올리고 은 이십 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

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9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30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나는 어디로 갈까
31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32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며
33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34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5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36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1. **㉠ 본장의 내용과 그 영적 의미를 설명하라.**

- (A)** (1) 본장에서부터 본서의 마지막 장인 50장까지는 야곱의 열 두 아들 그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전개되어진다.
 (2) 특별히 본장에서는 17세의 소년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꿈을 이야기하다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 가는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3)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찌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언의 성취이며 (15:13-16), 출애굽 역사의 배경을 제공해 주는 사건으로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닌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예정하신 뜻을 따라 구원 역사를 섭리하신다(엡1:11, 12).
 (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셨으며(갈4:4;엡1:4), 또 그 계획에 따라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다(막13:20, 27;요6:39).

2. **㉠ 야곱이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A)** (1) 에서는 야곱을 떠나 세일로 갔으나 야곱은 여전히 이삭이 거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이다.
 (2)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으며, 또한 그 약속은 야곱에게 반복되었다(12:7;13:15;15:7, 18;17:8;26:3;28:13;35:12).
 (3) 이때는 유목 생활을 하던 야곱의 가족들이 헤브론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시기이며 이삭이 죽기 몇 해 전이었다(35:29).

3. **㉠ '야곱의 약전(略傳)이 이러하니라'는 구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A)** (1) '약전' (히, 톨레트)은 계보, 족보(generation)를 의미하는 말이다(참조, 36:1).
 (2) 그런데 본절에 야곱의 약전을 말하겠다고 한 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3) 그러나 사실상 야곱의 계보적 위치는 요셉과의 연결에서 가장 큰 역사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요셉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4) 또한 이제부터는 언약의 상속권이 어느 한 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야곱의 열 두 아들과 그들의 후손 모두에게 계승되기 때문에 이후의 역사를 야곱의 약전이라고 볼 수 있다.
 (5) 따라서 본 구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가 요셉으로 연결되면서 요셉의 훗날 행적과 함께 새로운 장(場)이 펼쳐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4. **㉠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할 당시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2절)**

- (A)** (1) 당시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서 밧단아람에서 라헬의 첫아들로 태어났으며, 야곱에게

는 열 한번째 아들이다(30:24).

(2) 이처럼 요셉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꿈 이야기를 천진스럽게 할 수 있었다.

(3) 이 시기에 애굽으로 팔려 감으로써 시작된 요셉의 고난은 30세 때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 계속되었으니(41:46) 결국 요셉은 13년간이란 수난기를 보낸 셈이 된다.

5. ㉠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2-5절)

㉠ (1)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침으로 미움을 받기 시작했고 더우기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편애(偏愛)를 받고 있었으므로 열 명의 형들에게 더욱 시기를 받게 되었다.

(2)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셨던 꿈 때문에 결정적으로 미움을 받게 되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3) 결국 요셉이 받은 미움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

(4) 그는 미움을 받은 결과로 애굽으로 팔려 갔으며 후에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46:7)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15:13, 14).

6. ㉠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1)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으로서 야곱으로서는 실질적인 장자(長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30:23, 24).

(2) 또 요셉은 야곱의 노년기, 즉 91세 때 태어났으며 그의 생모(生母)인 라헬을 어렸을 때 여의었으므로(35:18, 19) 더욱 야곱으로 하여금 애착심을 느끼게 했다.

(3) 한편 요셉은 아버지 곁에서 그의 시중을 잘 들었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매우 경건하며 진실하였다(13절).

(4) 그러나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편애하는 것은 형제간에 시기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부모들은 밍게 보이는 자식일수록 더 사랑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기준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8).

7. ㉠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3절)

㉠ (1) 야곱은 12아들 중 오직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 그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표시했다.

(2) '채색(彩色) 옷'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케토넛>인데 직역하면 '긴 겹옷'(a long coat)이 된다.

(3) 모든 옷의 겹에 입는 이 옷은 옷 길이가 길어서 아래로는 발목까지, 팔은 손목까지 이르렀다(참조, 삼하 13:18).

(4) 후에 이 말은 '여러 조각으로 된 옷' 혹은 '여러 색깔로 된 옷'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5) 이러한 의복은 고대 애굽의 유물로 전해 내려오는데 추장들이 입던 옷으로 밝혀졌다.

(6) 또한 당시 관습에서 채색옷을 왕이 신하에게 또는 아비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그 채색옷을 그에 대한 매우 특별한 사랑을 표시하는 선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7) 따라서 야곱이 이러한 옷을 요셉에게만 허락한 것은 르우벤의 장자권을 요셉에게 넘겨주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8. ㉠ '언사(言辭)가 불평하였더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절)

㉠ (1) 이 말은 히브리인들 사이에 평범한 인사말인 '샬롬'(평안할지어다)으로 인사할 수 없을 만큼 요셉과 형들 사이가 좋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이러한 형제간의 불화는 야곱의 편애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

(3) 즉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해도 부모로서 이것을 자식들이 알도록

지 한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커다란 실책이었던 것이다.

9. **㉠ 요셉이 꿈의 성격을 말하라(5절).**

- ㉠ (1) 요셉의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주신 꿈, 즉 꿈을 통한 계시였다.
- (2) 즉 이 꿈 자체가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의 큰 실제적 사건에 대한 예시(豫示)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실현되었다(41:46).
- (3) 사실 요셉의 생애는 이 꿈의 실현을 향하여 전개되고 있으며 요셉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꿈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 (4) 과연 요셉의 생애는 세 번에 걸친 꿈에 의하여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 (5) 첫째는 본장에 나타난 두 개의 꿈이고, 둘째는 애굽의 감옥에 갇혔을 때 두 관원이 꿈 꿈이며(40장), 마지막은 바로가 꾸는 두 개의 꿈이다(41:1-32).

10. **㉠ 본장에 나타난 요셉의 두 가지 꿈 내용을 요약하라(7, 9절).**

- ㉠ (1) 첫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이었다.
- (2) 두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 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다.
- (3) 여기서 첫째 꿈은 요셉의 다른 형제들에 대한 우월성을 나타내며, 둘째 꿈은 요셉의 이스라엘 전체 가문에 대한 우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4) 이러한 요셉의 꿈은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이 엎드려 절함으로써 성취되었다(42:6;43:26;44:14). 또한 야곱이 요셉의 위대함을 인정하며 그에게 의지해서 살았을 때에 두번째 꿈도 성취되었다(47:12).

11. **㉠ 야곱이 요셉에게 '나와 네 모(母)와...' 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인가? (10절)**

- ㉠ (1)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베냐민을 낳을 때 죽었기 때문에(35:18) 여기서 '모(母)'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다음 네 가지 학설이 있다.
- (2) 첫째 비록 라헬이 죽었지만 야곱은 그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산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 (3) 둘째 야곱 집에서 가장 큰 어머니 격인 레아를 가리킨다.
- (4) 셋째 라헬의 여종 빌하가 라헬이 죽은 후부터 요셉의 어머니 역할을 했을 것이므로 빌하를 가리킨다.
- (5) 넷째 여기 나타난 '모' 라는 말은 요셉의 꿈의 내용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을 뿐이다.
- (6) 이상의 네 가지 학설 중에서 네번째가 가장 유력한 견해이다.

12. **㉠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 도단까지 간 것은 요셉의 어떤 성품을 보여 주는가? (12-17절)**

- ㉠ (1) 아버지 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나타낸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았으나 늙은 아버지의 곁에서 언제나 그의 심부름을 도맡아 해왔다(13절).
- (2) 형제 에 대한 친절을 끝까지 베푸는 그의 신실한 우애를 볼 수 있다. 형들의 시기를 알면서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멀고 험한 여행을 강행하여 형들을 만났다.
- (3) 맡은 일에 충실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것은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한 것이었다.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 세짐으로 왔다가 다시 도단으로의 험한 여행을 계속한 것이다.
- (4)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형제의 한 사람으로서 우애 있는 모습과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의 책임성은 모든 성도들의 모본이 된다.

13. **㉠ 요셉이 형을 만나기 위해 세짐으로부터 어디로 갔는가? (17절)**

Ⓐ (1) 도단으로 갔다.

(2) 도단은 세계 북쪽 3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사마리아로부터는 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다.

(3) 당시 세계 동쪽에는 좋은 목초지가 있었는데 도단에는 이보다 더 좋은 풀밭이 있었던 것 같다.

(4) 또한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야곱 시대 사람들이 거주한 후기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를 발견했다. 이곳이 지금은 폐허가 되었으나 옛 이름 그대로 불리워지고 있다.

14. ⓐ 요셉이 오는 것을 본 요셉의 형들은 어떤 흥계를 꾸미고 있었는가? (18절)

Ⓐ (1)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거짓 말을 하자고 하였다.

(2) 요셉의 수고와 우애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흥계를 꾸민 것은 너무나 잔인한 죄악된 행위였다.

(3) 결국 죽이기를 꾀하는 그들의 마음은 악인들의 공통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악인들은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이를 가는도다’(시 37:12).

15. ⓐ 요셉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누가 말렸는가? (22절)

Ⓐ (1) 맏형인 르우벤이었다.

(2) 그는 동생 요셉을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 보내기 위해 다른 형제들에게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질 것’을 제의하였다.

(3)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요셉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 그도 역시 요셉을 시기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인간 본연의 긍휼을 앞세워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제의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에 이바지하였다.

16. ⓐ 요셉이 팔려 가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라 (23-36절).

Ⓐ (1)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붙들어 채색옷을 벗기고 들에 있는 구덩이에 던졌다(23, 24절).

(2) 그러다가 그는 때마침 도단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28절).

(3) 그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에 도착한 후 요셉을 바로 왕의 시위 대장 보리발에게 다시 팔았다(36절).

(4) 결국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시에 예언하신 대로 약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생활을 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5) 이러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엿볼 수 있으며, 또한 성도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그의 주권 아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나타남을 배우게 된다.

17. ⓐ 이스마엘 족속의 한 때가 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5절)

Ⓐ (1) 여기서 이스마엘 족속은 아라비아의 대상(隊商)들을 가리킨다.

(2) ‘한 때’라는 말은 ‘한 무리의 여행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약대에 짐을 싣고 다니는 여행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3) 이들은 애굽과 앗시리아 사이에 위치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고대 근동의 무역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

(4) 요셉이 팔릴 당시 이 대상들은 시리아에서 애굽으로 물건을 갖고 내려가는 중이었으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그들에게 팔아 넘겼다.

18. ⓐ 이스마엘 족속이 약대에 싣고 가는 물건은 무엇이었는가? (25절)

Ⓐ (1) 향품과 유향과 몰약이었다.

- (2) 향품은 시리아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는 고무 수액을 말린 가루[粉]이다.
- (3) 향품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비싼 생산품 중의 하나이다(43:11).
- (4) 몰약은 아라비아, 시리아, 팔레스틴 등에서 자라는 관목에서 얻어내는 향기로운 진액을 말한다.
- (5) 이 가운데 유향과 몰약은 황금과 더불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가져온 선물이었다(마 2:11).

19. **㉠**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몸값으로 얼마를 받았는가? (28절)

- ㉠** (1) 은 20개를 받았다. 여기서 은 한 개란 은 한 세겔을 말한다.
- (2) 당시 노예 한 사람의 평균 값은 은(銀) 30세겔이었다(출 21:32). 그러나 요셉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20세겔에 팔렸다.
- (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 30에 팔렸다(마 26:15).

20. **㉠**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간 사건이 지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28절)

- ㉠** (1)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예언된 약속이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15:12-17).
- (2)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 (3) 결국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첫 단계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인도하셨던 사실을 알게 된다(45:7).

21. **㉠** '나는 나는 어디로 갈까' 라는 르우벤의 부르짖음에는 그의 어떤 심정이 나타나 있는가? (30절)

- ㉠** (1) 르우벤은 요셉을 구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려고 구덩이에 넣기를 제안했었다(21, 22절). 그런데 나중에 와서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고 몹시 괴로워하면서 울부짖었던 것이다.
- (2) 르우벤의 이러한 울부짖음에는 장자로서 동생에 대한 책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슬픔을 생각하며 큰 죄책감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유순한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다.
- (3) 비록 르우벤이 간음의 큰 범죄를 저지르긴 했으나(35:22), 그는 약속의 자녀로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여 장자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22. **㉠** 피 묻은 채색옷을 보고 슬퍼하는 야곱의 모습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34, 35절)

- ㉠** (1) 요셉이 죽은 것으로 믿게 하려는 아들들의 제략에 속아 고통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은 그가 이삭을 숙여 축복을 가로챘을 때 예서가 슬퍼하며 울던 모습을 연상케 한다(27:34).
- (2) 이처럼 사람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갈 6:8). 성도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 참고 선을 행함으로써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롬 2:7;6:23).

23. **㉠** 25절의 '이스마엘 족속'과 28절의 '미디안 사람' 그리고 36절의 '미디안 사람'의 관계를 말하라.

- ㉠** (1) 요셉이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렸는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는지에 대해 아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 (2) 특히 28절의 '미디안 사람'은 히브리어로 <미다남>인데 '미디안 사람'을 의미하나 36절의 '미디안 사람'(개역 성경)은 히브리어로 <메다남>인데 '드단(메단) 사람'을 의미한다.
- (3) 결국 이스마엘 미디안, 메단 족속이 모두 언급되어 요셉은 어느 족속에게 팔렸는지 혼란을 일으킨다.
- (4) 그러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의 아들이며 미디안과 드단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아들이므로 결국 세 족속은 아브라함의 한 혈통을 가진 자들로서 함께 무역업에 종사하는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요셉은 처음에 언급된 이스마엘 족속이 소유주가 되고 미디안 사람과 브단 사람이 동행하던 대상에 팔려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할 수 있다.

24. **㉠** 요셉은 애굽에서 누구에게 팔렸는가? (36절)

- ㉠** (1)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렸다가 다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으며 그는 미디안 상인에 의해 애굽의 시위대장(侍衛隊長) 보디발에게 팔렸다.
 (2) 시위 대장은 왕의 신변 보호를 맡은 호위대의 우두머리로 애굽 왕의 측근에 있는 신임받는 자였다.

25. **㉠** 본장의 요셉의 형들이 꾸민 모의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1) 요셉의 꿈의 내용이 다른 형제들에 대한 우월성으로 나타나자 형들의 시기와 증오는 극에 달했다. 그들의 미움은 살인으로까지 비약하였다. 비록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직접 살인하는 죄보다 더 큰 악을 행하였다.
 (2) 예수께서 미움과 살인을 같은 차원에서 해석하셨다(마5:21-25). 왜냐하면 미움은 살인의 근원이며 살인은 미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것조차도 죄가 된다는 원리는 예수의 '살인에 대한 재해석' 원리에서 나타난다. 미움은 살인과 같은 것이며 결국은 남에게 분노하는 것도 죄가 되는 차원에서는 살인과 같다.

지도자료

애굽으로 팔려 가는 요셉의 노정(路程)



1. 집으로부터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으로 보냄을 받음(4절).
2. 세겜에서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나아감(17절). 3. 형들에 의해 미디안 상고(商賈)에게 팔림(28절). 4. 다시금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림(36절).

제 38 장 유다와 다말의 근친 상간

단락구분 1-5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하다 / 6-12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은 유다의 두 아들 / 13-23 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유혹하여 통간하다 / 24-30 다말이 쌍둥이를 낳다

1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2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3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4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5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쉘라라 하니라 그가 쉘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6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7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8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10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11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쉘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쉘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12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 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담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13 흑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담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14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담나 길 곁에 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쉘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15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16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17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폐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즐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18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라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19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20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21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에 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22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리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23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24 석 달쯤 후에 흑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 내어 불사라라

25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뉘 것이니이까 한지라

26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쉘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27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28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흉사를 가져 그 손에 때었더니

29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30 그 형제 곧 손에 흉사 있는 자가 뒤에 나
오니 그 이름은 세라라 불렀더라

1. **㉠ 본장의 내용과 중심 사상을 말하라.**

- ㉠** (1) 본장에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의 계대 결혼(繼代結婚)을 이행하지 않다가 결국 다말과 동침하여 쌍둥이 아들을 낳는 불륜(不倫)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
- (2) 이러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인 베레스가 후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은(마 1:3) 매우 날카로운 영적 의미를 대립시킨다.
- (3) 즉 본장에 유다 가문이 언급된 것은 메시아의 혈통이란 점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지극히 영광스러운 사실이지만 그 반면에 불륜의 관계가 폭로된 점에서는 지극히 수치스러운 사실이었던 것이다.
- (4) 결국 본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부패성을 선명하게 대립시켜 묘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실 것을 증거하고 있다.

2. **㉠ 유다가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내려간 곳은 어디인가? (1절)**

- ㉠** (1) 아들람으로 가서 자신의 친구인 히라를 방문하였다.
- (2) 아들람은 헤브론 골짜기에서 북서쪽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다.
- (3) 아들람은 가나안의 31 성읍 중의 하나가 되었는데(수 12:15) 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굴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삼하 23:13).

3. **㉠ 유다는 누구와 결혼하였는가? (2절)**

- ㉠** (1) 유다는 아들람에서 수아의 딸을 만나 결혼하였는데 수아는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이방인이었다.
- (2) 이처럼 유다는 이삭, 야곱과는 달리(24:3;28:1,2) 여자의 민족 성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다. 아마도 그 이유는 언약의 상속 민족으로서의 구분이 일단 야곱 대(代)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인것 같다.
- (3) 또한 가부장적(家父長的) 문화권에 살았던 야곱의 아들들은 12아들로 확장되었으므로 이방 여인을 취한다 해도 곧 그들을 여호와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 (4)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 증가한 모세 시대에는 또다시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종교적 이유로 엄격히 금지되었다(신 7:3).
- (5) 오늘날 성도들은 결혼을 '주 안에서' 생각해야 하며(고전 7:39)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도록 하되(고후 6:14) 믿는 사람과 결혼할 경우에도 주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한다(고전 7:17).

4. **㉠ 유다의 세 아들의 이름을 말하라(3-5절).**

- ㉠** (1) 엘, 오난, 셀라 등 3명이다.
- (2) 엘은 '경계하는 자'의 뜻이며 오난은 '힘', 셀라는 '기도, 평화'의 의미이다.

5. **㉠ 유다의 장자 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7절)**

- ㉠** (1) '엘'은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다가 여호와께 죽임을 당한 자였다. 엘의 이름에 해당 하는 히브리어 철자를 바꾸어 놓으면 '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라>가 된다. 즉 엘의 이름 자체가 악을 암시해 준다.
- (2) 엘이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본문에 언급되고 있지는 않으나 앞절에 결혼 기사가 나와 있고, '여호와 목전에 악하다'는 표현이 오난의 결혼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엘은 성 윤리(性倫理)에 관한 죄악을 행했던 것이 확실하다.
- (3) 본장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의 맥락(脈絡)도 결혼 문제의 부도덕과 성 윤리의 타락상

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가운데 인간의 부패성을 고발하고 있다.

- (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성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의 대속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간음하던 현장에서 불잡힌 여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요 8:1-11).
- (5) 그러므로 어떤 성적인 범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신다(참조, 삼하 12:13; 시 51:7, 12).

6. **㉠ 오난이 그의 형수 다말과 결혼한 것은 당시의 어떤 풍습을 말해 주는가? (8절)**

- ㉠** (1) 아들 없이 죽은 형제의 후사를 위하여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주는 것을 '계대 결혼' (繼代結婚, levirate marriage)이라고 한다.
- (2) 후에 계대 결혼은 모세의 법에 의하여 확정되었다(신 25:5-10). 이것은 당시에 공인된 관습이었으며, 지금도 인디언, 페르시아인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관습이다.
- (3) 오난은 그의 형 엘이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형수인 다말을 취해 결혼하였다.
- (4) 이러한 계대 결혼은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의 대를 잇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공황과 회생을 보여 주는 제도로서 오난은 처음 낳은 자식으로 형인 엘의 대를 잇도록 해야 했다.

7. **㉠ 오난이 '땅에 설정(泄精)하였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 ㉠** (1) '땅에 설정하다'란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그것을 땅 위에 떨어지게 하다'인데 이것은 정액을 체외(體外)로 사정하였다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다.
- (2) 이처럼 오난이 형수를 통하여 낳은 아이가 자신의 후계자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계대 결혼을 이행치 않은 것은 악한 행위였다.
- (3) 즉 오난의 행동은 그의 형에 대한 애정의 결핍을 드러내었을 뿐 아니라 결혼의 신성한 제도와 그 목적을 거스린 범죄였던 것이다.
- (4) 만일 계대 결혼에 의하여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그 아들이 법적으로 형의 자식이 되어 가문의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므로 결국 오난은 이러한 관습 규정을 자신의 손해로 파악했던 것이다.
- (5) 오늘날 한 가정에 있어서 자신의 이해 득실(利害得失)에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위선된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 악한 것이다(10절).

8. **㉠ 유다가 다말에게 '수절하라'고 말한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1절)**

- ㉠** (1)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어 셀라와의 접촉을 금했다.
- (2) 유다는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나 그것은 변명과 구실에 불과하였다.
- (3) 즉 유다는 다말과 결혼한 두 아들이 모두 죽은 사실을 통하여 그의 마지막 아들인 셀라도 죽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 (4) 또 유다는 다말이 불행을 지니고 다니는 불길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여 결국 그럴 듯한 구실로 친정으로 쫓아내어 버렸다.
- (5) 이로써 그는 자기의 두 아들이 악하여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것인데도 그 허물을 연약한 며느리 다말에게 전가시켜 버린 셈인데 이는 분명히 유다의 잘못이다.
- (6)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며느리를 학대하거나 소박(疏薄)을 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당한 행위이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로서 오히려 며느리를 위로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참조, 삼상 1:8-11).

9. **㉠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은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 (1) 고대에는 과부가 사회의 큰 문제였다. 그들은 과부라는 표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과부의 의복을 입고 다녔다.
- (2) 과부의 의복이 색깔에 의한 것인지 또는 특수한 디자인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일반인들에게 곧 과부라는 것을 알려 주는 표시가 되었다.

(3) 여기서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었던 것은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이기 위해서였다.

10. ㉠ 다말이 면박(面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에나임 문에 앉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다말이 고급 매춘부(賣春婦)처럼 꾸미고 유다를 유혹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2) 다말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남편이었던 '엘'의 씨를 남기려는 속셈이었다.
 (3) 다말의 이러한 행위는 후에 유다를 통해 '웁은' (26절) 행위로 간주되었다. 즉 엘의 후손에 대해 유다 자신은 무관심했지만 다말은 그 당시의 관습대로 제대 결혼을 통해서라도 후손을 남기려고 하였던 것이다.
 (4) 그러므로 다말은 그 당시의 관습에 비추어 의로움을 나타낸 것이다.
 (5) 그러나 다말이 자기가 후손을 낳아 한 가문의 여자로서의 권리를 합당하게 유지하려는 것은 당시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웁은 행위라고 볼 수 있더라도 간음죄와 근친 상간의 죄악을 범한 잘못은 부인할 수 없다.

11. ㉠ 유다는 다말을 창녀로 알고 동침하기 위해서 무엇을 약조물로 주었는가? (18절)

- ㉠ (1) 유다는 동침한 대가로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주기로 하고 그 증거물로 도장과 그것에 달린 끈과 지팡이를 다말에게 주었다.
 (2)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도장을 손가락에 끼우거나 명주실로 끈을 달아 목에 걸고 다녔다. 이러한 도장을 찍는 것은 소유권과 주권의 표시 또는 동의(同意)의 의사에 대한 증거 등으로 사용되었다(참조, 마 27:66; 요 3:33; 엡 1:13).
 (3) 또한 지팡이는 꽃, 과일, 새 또는 다른 짐승들의 모양을 새겨 넣은 것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스코트처럼 휴대하는 일종의 장신구(裝身具)였다.

12. ㉠ 21절의 '창녀(娼女)는 15절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 ㉠ (1) 15절에서는 유다가 다말을 창녀로 여겼다고 했는데 여기서 창녀는 히브리어로 <조나>인데 이는 '간음을 행하다'란 뜻을 가진 <자나>의 여성 분사형이다.
 (2) 그러나 21절에서 유다의 친구 히라가 묻는 말 중에 사용된 창녀란 말은 다른 히브리어인 <케뎃샤>로서 우상 숭배를 위하여 '성별된 자'란 뜻이 있다.
 (3) 여기서 우리는 당시 가나안 종교의 음란성과 매춘 행위의 풍습을 보게 된다.
 (4)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일반적으로 <조나>와 <케뎃샤>라고 불리우는 두 종류의 창녀들이 있었는데 <조나>는 개인적인 창녀인데 비해 <케뎃샤>는 종교적인 목적 아래 공식적으로 인정된 창녀였다.
 (5) 특히 <케뎃샤>는 자연의 생식력과 생산적인 원리를 주관한다고 여겨졌던 여신 아스다룻을 섬기기 위해 헌신된 자를 말하는데 후에는 매음(賣淫)을 통하여 이 여신을 섬겼던 자를 의미했으며(신 23:18), 또한 가나안의 공식 창녀들에게 사용된 존경스러운 명칭이 되기도 하였다.
 (6) 이와 같이 당시 가나안의 종교는 매춘을 종교 행위로 여길 만큼 타락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음란한 사회적 풍조에 유다와 다말이 관련되었던 것이다.
 (7) 그러므로 본장은 야곱 가정의 부패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기인함을 보여 준다.
 (8) 아울러 본장은 이스라엘이 성별된 민족으로 나타나기 위해 음란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39장 이후의 이야기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

13. ㉠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는 유다의 말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23절)

- ㉠ (1) 유다는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위신(威信)에 대하여 더욱 걱정을 하였다.
 (2) 이것은 위선적인 행위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보다도 사람의 이목(耳目)을 더

육 의식하였던 것이다.

- (3) 이처럼 범죄한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죄를 짓는 것이다.
- (4) 다윗도 간음죄를 범한 후 그 사실을 감추려고 하다가 충신 우리아를 청부 살인(請負殺人)하는 등 연속적인 죄를 범하였다(삼하 11:4, 5, 15).
- (5)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더 큰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정으로 고백하여 용서받도록 해야 한다(시 51:10; 요일 1:9).

14. **㉠**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24절)

- ㉠** (1) 율법 아래에서 다말의 간음죄(姦淫罪)는 둘로 처죽임을 당하는 범죄였다(참조, 신 22:20-24).
- (2) 특히 근친 상간의 범죄는 극악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불로 태워 죽이는 극형(極刑)을 받아야 했다(레 20:14; 21:9).
- (3) 본장은 아직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인데 유다가 이런 말을 하였다는 사실은 비록 당시에 율법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불문법(不文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15. **㉠**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유다의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6절)

- ㉠** (1) 이 말은 시부(媳父)를 속이고 잉태한 다말의 행위가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유다의 부당한 처신과 비교할 때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는 말이다.
- (2) 즉 유다는 하나 남은 셀라의 생명을 염려한 나머지 후손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였는데 다말은 셀라의 성장을 기다린 후 그를 통해 후손을 이으려고 했으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유다를 속여서라도 후손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다.
- (3) 결국 다말의 근친 상간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유다의 실책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말을 용서하게 되었던 것이다.
- (4)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물을 잊고 남을 정죄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자기 눈에 들보를 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마 7:1-5).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먼저 자신을 돌아 보고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냉정하게 비판하고 회개하되 남의 허물과 실수를 발견할 때에는 그를 정죄하기에 앞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도록 해야 한다(마 18:33; 엡 4:32).

16. **㉠** 유다가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에서 유다의 어떤 면을 볼 수 있는가? (26절)

- ㉠** (1) 이 말에는 유다의 통회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짓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고 있다.
- (2) 즉 유다는 자기의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죄를 범치 아니했다.
- (3) 유다의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겸손한 자세였다.
- (4) 따라서 그의 아들들이 비록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았다(참조, 49:10).

17. **㉠** 다말은 잉태하여 누구를 낳았는가? (30절)

- ㉠** (1) 다말은 임신, 즉 진통이 시작될 때 배속에 있는 아이가 쌍둥이(twins)인 것을 알았다(비교, 25:24).
- (2) 베레스보다 세라가 먼저 나오려고 했으나 베레스가 먼저 터치고 나왔다.
- (3) 여기서 '터짐', '찢음'이라는 뜻의 베레스와 '나옴', '떠오름'이란 뜻을 가진 세라라는 이름이 유래한 것이다.

- (4) 베레스는 유다의 장자로서(46:12;민 26:20) 족장 나손의 조상이었고(민 2:3), 다윗 왕의 조상(룻 4:18;대상 2:5-15)이 되었다.
- (5) 결국 다말은 이 베레스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았다(마 1:3).

18. **㉠** 본장에 나타난 유다 가정의 비극에서 볼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은 무엇인가?

- ㉠** (1) 유다는 퇴폐한 아들의 도덕성을 바로잡기 위해 조혼(早婚)을 서둘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 (2) 첫째 아들 엘은 결혼 후에도 계속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와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했다. 이는 유다의 가정 교육이 잘못되었음을 보여 준다.
- (3) 또한 유다의 두번째 아들 오난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순결성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을 채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 생명의 탄생을 거부해 버렸다. 한 가정의 계승을 위한 계대 결혼(levirate marriage)이 무시당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가족의 순결성에 역행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엘과 오난의 은밀한 죄악은 죽음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다.
- (4) 결국 본장에 나타난 유다 가정의 비극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런 죄악의 결과는 비극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준다(참조, 시 7:8-11).

19. **㉠** 유다의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를 말하라.

- ㉠** (1) 유다는 며느리를 박대하는 잘못을 행하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수치스런 관계를 통하여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칼(ironical)하게도 쌍둥이 아들 중 장자인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 주는 사실이다. 즉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베레스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아담의 죄를 안고 태어난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 (3) 이처럼 유다 가정의 역사는 구약 시대에서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보여 주는 생생한 역사이다(엡 2:8, 9).

20. **㉠**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은 누구인가? (마 1:1-16절)

- ㉠** (1) 다말: 유다의 며느리이며 두 명의 남편과 사별(死別)하였다.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38:29, 30).
- (2) 라합: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군을 보냈을 때 그들을 숨겨준 기생(妓生)이었다. 후에 여리고 성이 멸망하고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을 구출해 주었다. 라합은 살몬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증조부인 보아스를 낳았다(수 2:1-21;룻 4:21).
- (3) 룯: 이방 모압의 여자로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며느리이다. 룯은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였으며 시어머니와 고난을 같이 하였다. 후에 라합이 낳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룯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룻 4:13-17).
- (4)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을 행한 여인이었으나 후에 다윗의 처가 되어 솔로몬을 낳았다(삼하 12:24, 25).
- (5) 마리아: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처녀로서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 고지(受胎告知)를 받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마 1:18-25).

제 39 장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단락구분 1-6 보디발의 청지기 된 요셉 / 7-13 보디발 아내의 유혹 / 14-18 누명을 쓴 요셉 / 19-23 옥
중에서의 요셉

1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일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4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5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 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 지라

6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7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증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9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 이까

10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1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

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12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13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4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15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16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17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 왔기로

18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19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23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과 그 교훈을 말하라.

㉠ (1) 본장은 37장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 온 후 많은 시련을 겪었으나 그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끈뚱하게 이겨냈던 승리의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2) 즉 요셉은 노예라는 비참한 신세로 보디발의 집에서 겪었던 고생이나 보디발 부인의 성적 유혹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는 고난 등을 오직 신앙으로 이겨내고 형

통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다.

(3)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결과였다. 그래서 본장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란 표현이 반복되면서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2, 3, 21, 23절).

(4) 오늘날 요셉의 승리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Immanuel)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마 1:23). 즉 성도들은 어느 곳,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시련이 형통과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삶을 체험할 수 있다(수 1:7-9; 시 1:2, 3).

2. Q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시기는 언제인가?

A (1)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시기는 그가 17세 되던 해로서(37:2)·B. C. 1898년으로 추정된다.

(2) 그렇다면 당시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는 중왕국 시대(B. C. 2160-1580)의 제 12 왕조의 한 왕인 센우스레트 3세가 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아직 없다.

(3) 한편 13년 후 요셉은 30세 때인 B. C. 1885년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용되었고 이 후에 80년을 더 살고 110세 때인 B. C. 1805년에 일생을 마쳤다.

3. Q 요셉이 애굽으로 온 사실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1절)

A (1)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대상(隊商)들에게 이끌려 애굽까지 오게 되었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 애굽까지 오게 된 것이다(15:12-15; 45:7, 8).

(2)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사마니즘적인 현세 구복(現世求福)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인간에게 좋고 평탄한 길만 주시는 것은 아니다.

(3)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뜻하지 않은 재난 혹은 억울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가운데서 더욱 깊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경우도 많다(히 12:11).

(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좋게 생각되는 것만 바라지 말고 비록 우리에게 험난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참조, 마 26:39).

4. Q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린 사실이 지니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1절)

A (1) 요셉은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으나 일반 평민의 가정에 팔리지 않고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렸다.

(2) 이것은 장차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치리할 자가 될 것에 대한 준비였다.

(3) 즉 요셉이 애굽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왕의 측근인 보디발에게 팔린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던 것이다.

5. Q ‘그 주인이…보았더라’에서 느낄 수 있는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2, 3절)

A (1) 이 말은 보디발이 여호와를 알거나 혹은 믿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신(神)의 특별한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음을 의미한다.

(2)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선한 행동과 생활을 통해 이방인까지라도 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마 5:13-16; 롬 14:18).

6. Q 보디발은 요셉에게 어떤 직책을 주었는가? (4절)

A (1) 보디발은 요셉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를 전적으로 신임하기에 이르러 가정의 모든 일 돌보는 가정 총무를 삼았다.

(2) 이 가정 총무의 직책은 옛날 아브라함의 집에서 엘리에셀이 맡고 있던 지위와 비슷한 것이다(24:2).

- (3) 또한 애굽에서 나온 비문에 의하면 왕정 초기에 그러한 직책이 부자 집에 있었던 것이 나타난다. 즉 쿨 엘 아말(Kum-el-Ahmar)의 무덤에서 발견된 계산서, 문서 등에는 집사(執事)의 직책이 있었음을 보여 주며, 기타 발견된 다른 자료에서도 가정 총무가 존재했던 사실이 입증되었다.
- (4) 이처럼 요셉은 아무 권한도 없는 비천한 노예의 신분이었으나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했을 때 주인 보디발을 감동시키게 되었고 결국 노예에서 시위대장의 가정 총무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
- (5)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봉사자의 자세이다.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골 3:22-24).

7. **㉠ 요셉이 종으로 있었던 보디발의 집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5절)**

- ㉠** (1) 보디발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든지 집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모두 통하는 축복을 받았다. ‘여호와와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 (2) 이는 보디발의 가사 일들(household affairs)이 순조롭게 잘 풀려 나갔을 뿐만 아니라 들의 곡식들이 잘 자라서 풍작(豊作)을 이루고 가축들은 번성해 그 수가 많아졌음을 의미한다(Living Bible).
- (3)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임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 (4)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2,3절) 등용시키고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처사는 없다.
- (5) 오늘날 기업(企業)이 번창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도 이러한 인재 등용(人材登用) 원리를 실천하는 데에 있다.

8. **㉠ 보디발은 요셉에게 무엇을 맡겼는가? (6절)**

- ㉠** (1)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 식료(食料) 외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고 다 요셉의 재량(裁量)에 위임하였다(참조, 8,9절).
- (2) 여기서 ‘식료’란 음식물(food)을 가리키는 말인데 당시 애굽인들은 히브리인 등 이방인들과는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하는 일은 요셉에게 위임되지 않았다.
- (3) 이처럼 보디발이 거의 모든 가사 일을 이방인인 요셉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했는가 하는 사실을 짐작하게 한다.
- (4) 성도들은 비록 불신자 아래에서 그리고 까다로운 성격을 지닌 상사(上司) 아래에서 직장 생활을 할지라도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
- (5)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벧전 2:18; 참조, 엡 6:5-8; 골 3:22-25; 딤후 2:9,10).

9. **㉠ 요셉의 용모(容貌)는 어떠했는가? (6절)**

- ㉠** (1) 요셉은 그 ‘용모가 준수(俊秀)하고 아담(雅淡)하였다’.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예페토알 위페 마레>로 직역하면 ‘외모가 아름다웠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가 된다.
- (2) 따라서 준수하다는 말은 신체가 균형잡힌 모습을 하고 있어 아름다웠음을 의미하며 아담하다는 것은 요셉의 얼굴이 말쑥하고 험심(handsome)하였던 사실을 가리킨다.
- (3) 이처럼 아름다웠던 요셉의 용모는 후에 보디발의 처가 그를 유혹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7절), 그 결과 요셉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20절).
- (4) 우리가 만일 남보다 더 좋은 용모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경건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 큰 시험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환난을 당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요셉과 같이 더욱 굳센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 (참조, 약 1:27).

10. **㉠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7절)**

- ㉠** (1) 성적인 관계를 갖기 원했다.
 (2) 애굽인들은 당시에 결혼한 후에도 방탕한 생활과 부도덕한 생활을 하였으며 특히 개방된 성생활을 즐겼다.
 (3) 그러므로 당시 애굽 여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종인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요구한 것은 평범한 일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
 (4) 성도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는 풍조에도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써야 한다.

11. **㉠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뜻으로 어떤 말을 했는가? (8, 9절)**

- ㉠** (1) 요셉은 비록 자신이 보디발 가정의 모든 소유를 위임받아 큰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인의 처와 부정한 관계를 갖는 것은 주인 보디발에게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2) 더구나 요셉은 부정(不貞)한 일로 주인을 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신앙적 입장이 분명히 밝혔다.
 (3) 이처럼 우리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 죄의 유혹을 받든지 간에 자기가 지켜야 할 도리(道理)를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

12. **㉠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정도는 어떠했는가? (10절)**

- ㉠** (1) 그녀는 요셉에 대하여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용하여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유혹하면서 동침할 것을 요청했다.
 (2) 이는 참으로 결사적인 유혹으로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유혹과도 흡사하다(벧전 5:8).
 (3) 사단은 오늘날도 시시각각으로 온갖 정욕의 불화살을 쏘아 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범 죄하도록 유혹하고 있다(엡 6:16; 참조, 눅 22:31).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全身甲冑)로 든든히 무장하되 특별히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도록 해야 한다(엡 6:11, 13; 약 4:7).

13. **㉠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요셉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7-12절)**

- ㉠** (1) 신속하게 거절하였다(8절). 유혹에 머뭇거리는 것은 시험에 빠지는 첫 단계이다.
 (2) 확고하게 거절하였다(9절). 매일매일 유혹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3) 용감하게 결사적으로 물리쳤다(12절). 그는 붙잡힌 옷을 벗어 두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다.
 (4) 이처럼 성도들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신속하고 확고하게 물리칠 뿐 아니라 설령 자신의 명예나 지위나 기타 모든 것을 버려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죄의 유혹을 받는 자리에서 도망쳐야 한다.

14. **㉠ 요셉은 어떤 증상 모략을 당하였는가? (14-18절)**

- ㉠** (1)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결사적인 유혹이 실패로 끝나게 되자 그녀는 부끄러움 대신에 요셉을 향한 증오심이 불타 올라 근거 없는 말로 요셉을 모함(謀陷)하기 시작했다.
 (2) 즉 그녀는 요셉이 자기를 욕보이려다 도망갔다고 하면서 요셉이 버리고 간 옷을 증거물로 제시하였다.
 (3) 우리는 이 여자의 악독한 증상 모략을 통하여 성도들이 당하는 억울한 누명의 한 전형(典型)을 보게 된다.
 (4) 성도들은 비록 요셉처럼 애매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죄와 불의

에 타협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히 12:4).

- (5) 그때 애매히 받는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며(골 1:24; 벧전 2:19-21)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된다(마 5:10-12).

15. ㉠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포함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19-23절)

- ㉠ (1)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으나 그는 아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며 진실하게 생활했다.
 (2) 그러자 얼마되지도 않아서 그는 옥의 책임자인 전옥(典獄, KJV, the keeper of the prison)에게 신임을 얻어 죄수 전부를 관리하는 간수(看守)가 되었다.
 (3) 성도들도 요셉처럼 악한 자들의 모함을 받아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더욱 신앙 중심으로 진실하게 행하도록 해야 한다(갈 6:9).
 (4) 이것이 바로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성도의 생애 가운데 수시로 찾아오는 환난과 꾀박을 축복으로 바꾸게 하는 비결이다(딤후 3:12).

16. ㉠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갇힌 옥은 어떤 곳인가? (20절)

- A (1)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서 주로 신분이 높은 죄수들만이 있는 곳이고 그 형벌도 가벼운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2)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아니면 상해(傷害) 배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옥에 가두어 살려 두는 자유형(自由刑)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3) 그러므로 상징적으로 생각할 때 누명을 쓴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지만 보디발은 그를 예외적으로 미결수(未決囚)처럼 대우하고 상류층 인사들이 갇힌 감옥에 수감하였다.
 (4) 이는 아마도 보디발이 요셉의 성실한 품행과 가정에 끼친 공로를 기억했을 뿐 아니라 평소 품행이 나쁜 아내를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5) 여기서 우리는 평소에 쌓은 신용과 덕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17. ㉠ 요셉이 감옥에 갇힌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라.

- ㉠ (1)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고 선을 행하던 요셉이 가정 총무였다가 하루 아침에 죄수가 되어 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2) 그러기에 요셉은 일시적이거나 그의 고난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대체 얼마나 더 극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크게 낙심할만 했다.
 (3) 그러나 이 극심한 고난의 어둠은 이제 곧 밝아 올 영광의 새벽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4) 결국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장차 애굽의 총리로 등용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다.
 (5) 이제 요셉은 다음 40, 41장에서 계속되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다.

제 40 장 요셉과 두 관원장의 꿈 해석

단락구분 1-4 바로의 두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옥에 갇히다 / 5-8 두 관원장의 꿈 / 9-15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 / 16-19 떡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 / 20-23 성취된 요셉의 꿈 해석

1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굶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2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굶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3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4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 일이라

5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굶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6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7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8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9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10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1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12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13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14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15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16 떡 굶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색 새가 내 머리에 있고

17 그 새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18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19 지금부터 사흘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꿇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20 제 삼 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굶는 관원장으로 머리론 그 신하 중에 듣게 하니라

21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 떡 굶는 관원장은 매여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과 그 의미를 말하라.

㉠ (1)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던 요셉의 생애는 어느 날 투옥된 바로의 두 신하를 통해 다시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2) 즉 요셉은 두 신하가 꾸는 꿈을 해석하여 줌으로써 장차 바로 앞에 나아갈 배경을 마련하였던 것이다(41:9-13).

(3) 여기서 우리는 택한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늘 기억하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다.

2. ㉡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굶는 자'란 누구를 의미하는가? (1절)

- Ⓐ (1) '술 맡은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쉬케>인데 이는 '마시다'란 뜻의 <샤카>에서 파생된 말이다.
- (2) 즉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는 자를 의미한다.
- (3) 여기에서는 단순히 음료수를 준비하는 사람이란 의미를 벗어나 왕의 옆에서 직접 술을 맡아 주며 시종드는 신하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4) 또한 '떡 굽는 자' (히, 오페)도 '요리한다'는 뜻을 가진 <아파>에서 유래한 말로 애굽 왕궁에서 떡 굽는 신하를 가리킨다.

3. ⓐ 두 관원장의 범죄는 어떤 것이었는가? (1절)

- Ⓐ (1) 유대 랍비 요나단의 탈굼(Targum) 역에 의하면 두 관원장은 왕의 음식에 독약을 넣었다가 발각 되었다.
- (2)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지만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한 말도 아니다.
- (3) 사실 위의 두 직책은 왕의 생명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음모가 빈번한 궁중에서 왕이 절대 신임하던 자들만이 이 직책을 맡았던 것이다.
- (4) 느헤미야도 한 때 페르시아 왕실에서 이런 관직을 맡은 일이 있었다(느1:11;2:1).

4. ⓐ '떡 굽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1절)

- Ⓐ (1) 왕의 음식을 만드는 책임자를 의미한다.
- (2) 그는 술 맡은 관원장과 더불어 요셉이 감혀 있는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요셉의 꿈 해석대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22절).

5. ⓐ 왕의 두 관원장과 요셉의 만남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3, 4절)

- Ⓐ (1)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요셉과 왕의 두 신하와의 만남은 요셉을 애굽의 왕 앞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되었다.
- (2) 이처럼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그것은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이 애굽을 탈출하는 역사를 전개하심으로 구속사적 의미를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 (3) 이 세상의 모든 사람(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또는 성도나 불신자)은 모든 사건을 통하여 전(全)인류의 구속을 목표로 직접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

6. ⓐ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내용과 그에 대한 요셉의 해석을 말하라(9-15절).

- Ⓐ (1)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으며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포도송이가 익었다. 술 맡은 자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 왕에게 주었다.
- (2) 요셉은 이 꿈을 사흘 안에 바로 왕이 술 맡은 자의 직책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였다.
- (3) 과연 요셉의 꿈 해석대로 그는 3일 후 직책을 회복하여 다시 왕의 음료를 담당하게 되었다(21절).
- (4)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14절)을 잊어버렸다.

7. ⓐ 떡 맡은 관원장의 꿈과 요셉의 해석을 말하라(16-19절).

- Ⓐ (1) 흰 떡 세 광주리가 그의 머리 위에 있는데 새들이 그 광주리 안에 있는 식물(食物)을 먹었다.
- (2) 이 꿈은 떡 맡은 자가 3일 만에 바로에 의해 죽임을 당하여 그 머리가 나무에 달리며 새들이 그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을 가리킨다.
- (3) 제 3일은 바로의 생일이었으며 요셉의 꿈 해석대로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22절).

8. ⓐ 두 관원의 꿈과 그 해석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가? (5절)

- Ⓐ (1) 이들의 꿈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꿈꾼 때가 일치되었다. 즉 같은

밤에 꿈을 꾸는 것이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2) 그들의 꿈의 내용이 달랐다. 비록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으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이 전혀 달랐다. 이 상이한 두 해석이 그대로 적용되어 요셉의 예언자적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3) 이 꿈의 해석의 열쇠는 요셉에게 주어졌다. 요셉은 하나님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8절). 이러한 신앙의 인물 요셉에게만이 꿈의 해석이 계시되었다.

(4) 두 관원의 꿈의 해석을 통하여 요셉은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결국 요셉을 높이 쓰시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관원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다.

9. **Q** 감옥에서 죄지은 두 관원을 만드느 요셉의 생활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4, 6-8절)

A (1) 죄인으로 간수가 된 요셉이 또 다른 죄인을 섬기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봉사 정신을 나타낸다.

(2) 즉 요셉의 생활은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올바른 생활 태도임을 보여 준다.

(3)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10. **Q**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라는 요셉의 말은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가? (8절)

A (1) 이방 신을 섬기는 두 관원에게 하나님의 성호(聖號)를 나타내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true God) 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요셉의 이와 같은 용기와 신앙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2)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며 사는 자의 용기와 긍지를 볼 수 있다. 성도들은 신앙인의 긍지를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하고 용기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각 처(處)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한다(고후 2:15).

(3) 이처럼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사랑을 온 천하에 드러내어 그의 영광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감사의 고백이다. 즉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느 신(神)도(애굽의 신들까지도) 참 신이 아님을 선포한다.

11. **Q** '득의(得意) 하거든'의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A (1) '일이 잘되어 행통하게 되면'의 뜻이다.

(2) 즉 요셉은 그의 꿈 해석대로 일이 순조롭게 잘되어 복직하게 되면 요셉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던 것이다.

(3) 그러나 술 맡은 자는 복직된 후에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렸다.

12. **Q** 요셉이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A (1) '히브리인'이란 명칭의 문자적 의미는 '건너온 자'로서 아브람(아브라함)이 맨 처음 히브리인으로 호칭되었다.

(2) '히브리'라는 명칭이 사용된 경우는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타(他) 민족에게 자신들을 소개할 때 사용되었으며(15절; 43:32; 은 1:9), 둘째는 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사용되었다(출 2:9).

(3) 그러므로 본절에서 요셉이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의 백성임을 나타내려 하였기 때문이다.

(4) 성도들도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신이 믿는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마 10:32, 33).

13. ㉞ 술 맡은 자는 언제 복직되었는가? (20절)

㉞ (1) 애굽 왕 바로의 생일 날이다.

(2) 왕의 생일 날은 신성하게 취급되었으며 거대한 잔치가 베풀어졌다.

(3) 모든 백성들도 일을 중단하고 하루를 쉬며 잔치에 동참하였다.

(4) 특히 이날에는 죄수들이 왕의 특별 사면을 받기도 하며 처형당하기도 하였다.

(5) 바로 이러한 특례를 따라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되어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했던 것이다.

14. ㉞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23절)

㉞ (1) 요셉은 감옥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를 보살피고 도와 주었다. 또 그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의 근심을 없애 주었으며 그의 직책이 복직된다는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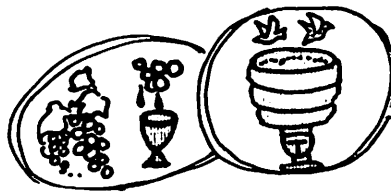
(2) 그러나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선행과 관심과 친절 등의 의로운 행위를 망각하고 자신의 일에만 급급하였다. 이러한 자는 매끈하게 닳아 빠진 반석 위에 빗물이 지나간 것처럼 타인(他人)의 은혜와 사랑을 값없이 흘려 버리는 배은 망덕한 자들의 모형이다.

(3) 요셉의 은혜를 잊고 사는 관원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힘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생활은 성도의 본분이다.

(4)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보살핌과 은혜를 망각하고 기억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를 기억하고 계시며 결국 구원하셨다(참조, 41:9-13). 이와 같이 사람에게 버린 바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다.

(5)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이 우리의 친절과 관심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끝없이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생활을 힘써야 한다.

본장의 요절



‘옥에 길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5절).

제 41 장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다

단락구분 1-7 바로의 두 가지 꿈 / 8-14 주관(酒官)이 요셉을 추천하다 / 15-32 요셉의 해몽 / 33-45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다 / 46-53 요셉의 지세(治世)와 두 아들의 출생 / 54-57 대기근의 시작

1 만 이 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꾀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2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3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4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5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한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6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7 그 세약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쥘꿈 꿈이라

8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9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10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굶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11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꾀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12 그 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13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14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 입고 바로에게 돌아오니

15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풀다더라

16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17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18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19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20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의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21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22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23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24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25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께서 그 하실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나니이다

26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27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칠 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28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29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30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31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2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였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33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34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들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35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36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
 굶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을 예비하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37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
 지라
 38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
 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내
 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
 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 뿐이
 니라
 41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
 굶 은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42 자기의 인장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
 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43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
 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엿드리라 하더
 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44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은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
 으리라 하고
 45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넛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은
 땅을 순찰하니라
 46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 세

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은 땅을 순찰하니
 47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48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 년 곡물을 거
 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
 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49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
 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다라
 50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
 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
 게 낳은지라
 51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
 니 하나님은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52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
 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
 셧다 함이었다라
 53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54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
 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은 땅에
 는 식물이 있더라
 55 애굽 은 땅이 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
 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
 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
 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56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
 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새 애굽 땅에 기근
 이 심하며
 57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
 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
 함이었다라

1. ㉠ 본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분수령과도 같은 세번째의 꿈 이야기가 나오면서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용되는 극적인 장면이 소개되고 있다.
- (2) 이로써 지나간 요셉의 고난기(苦難期)는 막을 내리고 그의 역할에 의해 애굽 은 땅이 구원을 받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3) 이러한 본장의 사건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미래의 일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 있다(참조, 마 28:18-20).

2. ㉠ 바로의 꿈은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1절)

- ㉠ (1)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어지는 꿈 이야기가 세 편 나오는데 그중에서 바로의 꿈은 세번째 꿈으로서 요셉의 운명을 변경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2) 즉 첫번째 꿈은 요셉의 장래 운명을 설명해 주는 예표였고(37:5) 두번째 꿈은 죄수로 있던 요셉의 운명이 바뀌어질 것을 예고하였다(40:8).
- (3) 이제 이 세번째 꿈은 요셉으로 하여금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앞의 두 가지 꿈을 통해 예표되고 예고되었던 요셉의 영화를 현실화시켰다(40절).
- (4) 이처럼 신령한 꿈을 통하여 요셉의 생애를 이끄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말씀에 근거

한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신다.

3. **㉠** '만 이 년 후에'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1절)

㉠ (1) 이 말은 요셉이 바로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 준 사건 이후(40장) 2년이 지났음을 말한다.

(2) 이 사실은 요셉이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3) 그러나 사실상 요셉이 감옥에 있는 기간은 그가 애굽 총리로 동용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4)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인간의 보기에는 매우 더딘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적절할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4. **㉠** 바로가 꾸는 꿈의 내용은 무엇인가? (1-7절)

㉠ (1) 바로는 꿈을 통하여 잠시 후 다시 잠이 들어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있을 때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또 하수에서 올라와 먼저의 살진 암소를 먹는 것을 보았다.

(2) 꿈을 꾸는 바로는 한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다음에 쇠약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와서 먼저의 충실한 이삭을 다 먹는 것을 보았다.

5. **㉠**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몽을 말하라(25-36절).

㉠ (1) 요셉은 살진 일곱 암소와 충실한 일곱 이삭을 7년간 풍년 들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해몽하였다.

(2) 또한 그는 파리한 일곱 암소와 쇠약한 일곱 이삭을 7년간의 흉년이라고 풀이했다.

(3) 그러므로 요셉의 해몽은 결국 앞으로 14년간에 생길 일에 관한 것으로 처음 7년간은 큰 풍년이 들 것이나 그 다음 7년간은 반대로 큰 흉년이 들리라는 예언이다.

6. **㉠** '하숫가' 란 어느 곳을 가리키는가? (1절)

㉠ (1) '하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을)은 '큰 강'을 의미하는 말로 이집트인들 사이에서는 주로 '나일 강'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출1:22;2:3;7:15).

(2) Living Bible 이나 RSV도 이 단어를 '나일 강' (the Nile)으로 번역하고 있다.

7. **㉠** 바로의 첫째 꿈에 나타난 '암소'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가? (2절)

㉠ (1) 수소는 농사하는 법을 발명한 애굽의 주신(主神) 오시리스(Osiris)를 상징했다.

(2) 반면 암소는 월신(月神) '이시스' (Isis)를 상징하는 동물로서 땅과 농사와 땅에서 나는 소출을 상징하기도 했다.

(3) 그러므로 '암소'가 꿈에 등장한 것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땅의 소출에 관한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8. **㉠** 두번째 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5, 6절)

㉠ (1) 두번째 꿈은 첫번째 꿈에 대한 반복으로 7년 풍년 이후 7년 흉년이 들 것을 의미한다.

(2) 고대 사람들은 짧은 시간 내에 반복되는 꿈은 그 꿈의 확실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3)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던 바로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확실하게 계시해 주기 위하여 같은 내용의 꿈을 반복하여 꾸게 하셨던 것이다.

9. **㉠** 바로가 번민한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1)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즉 그는 두 가지의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더욱 초조하고 애가 났다.

(3)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꿈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며 앞 일을 나타내시기도 하였다(참조, 단2장).

10. ㉠ 꿈을 꾸 후 번민하는 바로의 모습에서 보여 지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8절)
- ㉠ (1)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할 수도 있다. 그는 열국의 모든 백성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던 권력을 가진 자이었으나 결국 왕으로서 꿈 하나에도 마음의 번민을 가눌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 이처럼 인간은 지위, 권세, 지식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 (2) 불신자와 신앙인 간의 깊은 간격을 볼 수 있다. 성도는 이런 꿈을 꾸었더라도 아니 실제로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더라도 번민에 싸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인 바로는 번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11. ㉠ ‘술객’과 ‘박사’에 대하여 설명하라(8절).
- ㉠ (1) ‘술객’은 당시 사람들이 신비스러운 것을 설명하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던 말이다.
- (2) 이들은 모세 시대에 바로의 궁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출 7:11, 22; 8:18; 9:11)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궁전에도 있었다(단 1:20; 2:2).
- (3) 한편 ‘박사’(博士)는 재판과 일반적인 생활 문제를 처리하며 신탁(神託)과 꿈 해석에도 관계하였다.
- (4) 또한 넓은 의미에서 ‘박사’라는 말은 공식 직함이라기 보다는 애굽의 현자(賢者)를 일컫는 일반 칭호이기도 했다.
12. ㉠ 바로의 꿈을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은 왜 해석하지 못했는가? (8절)
- ㉠ (1) 바로가 꾸 꿈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술객이나 박사들의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에 의해서는 이해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함을 보여 준다(고전 2:11-14).
- (3) 오늘날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내용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으며 믿을 수 있다.
13. ㉠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한 사실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10-13절)
- ㉠ (1)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요셉의 꿈 해몽 사건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치리자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 (2) 즉 관원장은 일찌기 옥에서 들은 요셉의 부탁을(40:14) 잊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셨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신다(참조, 사 49:15).
14. ㉠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는 요셉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6절)
- ㉠ (1) 바로는 요셉을 만나자마자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는 것으로 말했다(15절).
- (2) 그러나 요셉은 바로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만이 꿈을 해석하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 (3) 즉 요셉은 이 말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할 능력 또한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 (4) 요셉은 이전에 옥에서 두 죄수의 꿈을 해몽할 때에도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만을 드러냄으로써(40:8)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5) 이와 같이 성도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불신자들에게 자기를 감추는 대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항상 드러내도록 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마 5:16; 고전 10:31).
15. ㉠ 바로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몽에서 요셉은 이 꿈의 특징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25-32절)

- Ⓐ (1) 요셉은 바로가 꿈 두 가지의 꿈이 결국은 한 가지의 내용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바로에게 먼저 알려 주신 것이라고 말하였다(25절).
- (2) 즉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애굽 땅에 임하도록 하실 터인데 이 장래의 일을 꿈을 통해 바로에게 알려 주셨던 것이다.
- (3) 결국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32절)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만 했다.
- (4) 여기에서 바로는 자기의 왕권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 (5) 지극히 미천한 신분에서 있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말 한 마디를 통해서도 세상의 군왕을 굴복시킬 수 있다.

16. ⓐ 요셉이 바로에게 말한 꿈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34-36절)

- Ⓐ (1) 애굽 전역에 걸쳐 관리를 두고 7년 풍년이 들 때 곡물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었다.
- (2) 이때 거두어 들이는 양은 매년 토지 소산 중 5분의 1이었다. 이것은 평소에 거두어 들이는 양의 배에 해당하는 곡물의 양이었다.
- (3) 7년 동안의 흉년을 위해 7년 동안 준비하는 일은 요셉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지시에서 비롯된 것이다.
- (4) 이런 요셉의 꿈 해석과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만족케 하였다.

17. ⓐ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37-45절)

- Ⓐ (1) 그는 바로에 의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불리었다. 이 말은 요셉이 초자연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로 여겨졌다는 의미이다.
- (2) 이리하여 요셉은 바로의 입장 반지를 끼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버금 수레를 타고 다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 (3) 요셉은 종의 신분에서 왕 다음의 높은 위치까지 오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 (4)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은 결국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 언약의 성취를 가져왔으며(창 15:13) 이후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을 이루게 된다.

18. ⓐ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어떻게 고쳤는가? (45절)

- Ⓐ (1) 히브리 말의 '요셉'이라는 이름을 애굽의 이름인 '사브넛바네아'로 고쳐 불렀다.
- (2) '사브넛바네아'의 뜻은 '세상의 구원' 또는 '생사 문제에 있어서 신과 같은 권능을 가진 자'라는 의미이다.
- (3) 이러한 요셉의 새로운 이름은 애굽의 다신론 사상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암시되어 있다.

19. ⓐ 요셉의 아내는 누구인가? (45절)

- Ⓐ (1)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다.
- (2) '온'은 카이로의 동북쪽 약 11km 떨어진 '헬리오폴리스'인데 이 지명이 고대의 비문에는 '타라'(ta-Ra) 혹은 '파라'(pa-Ra)로 나오는데 이것은 '태양의 집'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 (3) 즉 이곳은 태양 신 '라'(Ra)를 섬기는 종교적 중심지로 거대한 탑과 신전이 있었으며 제사장들이 거주했던 곳이다. '보디베라'는 그 제사장들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 (4) '보디베라'는 '보디발'(39:1)과 같이 '태양에게 바쳐진 자'라는 뜻이다. 한편 그의 딸이며 요셉의 부인이 된 '아스낫'은 '나이드(Neith) 신의 총애를 받는 자'라는 뜻으로 역시 애굽의 다신론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20. **㉠**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는가? (46절)

㉠ (1) 30세였다.

(2) 그러므로 요셉은 17세 때 애굽으로 팔려 온 후(37:2) 13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셈이며 그중 최소한 3년간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다(참조, 40:4;41:1).

(3) 이후 요셉은 70년을 더 살다가 향년 110세로 세상을 떠났다(50:22, 26).

21. **㉠** 요셉의 두 아들은 누구인가? (51, 52절)

㉠ (1) 장자의 이름은 '므낫세'인데 '잊어버림'의 뜻이다. 즉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고난과 그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다.

(2)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며 '창성함'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는 의미이다.

(3) 이처럼 요셉은 애굽에 살면서도 자식의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지었으며 범죄하지 않고 계속 신앙으로 극복해 나갔다.

(4)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지도자로 살면서 우상에 물들지 않고 여호와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요셉의 삶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도의 '구별된'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22. **㉠** 요셉 당시의 7년 기근의 정도는 어떠한가? (31, 57절)

㉠ (1) 요셉의 예언과 같이(27절) 7년의 흉년이 지나자 과연 애굽에 극심한 가뭄으로 7년간 흉년이 들어 앞의 7년 흉년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흑독했다.

(2) 팔레스틴 땅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 강을 가진 애굽에서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심한 가뭄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다.

(3) 그러나 요셉 때의 흉년과 매우 유사한 흉년이 1064-1071년까지 실제로 애굽에서 발생했다. 그때 사람들은 사람의 시체까지 먹었다고 전해진다.

(4) 아몽든 요셉 당시의 흉년은 애굽 뿐 아니라 모든 인접 지역에도 발생하여 각국에서 몰려 왔으며 요셉은 곡식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제하고 양식을 팔아 국고를 튼튼히 했다.

(5) 이 무렵 야곱의 가정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가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예언이 어김없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15:13-16).

23. **㉠** 본장에 나타난 바로와 요셉의 만남이 주는 교훈을 말하라.

㉠ (1) 종, 그것도 죄를 뒤집어쓰고 옥에 갇힌 종 요셉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왕 바로와 대면하였다.

(2)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바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요셉에게 호소하여 꿈을 해몽할 지혜를 요구했다.

(3)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약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자를 들어 강하고 부하고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참조, 고전 1:28).

(4) '여호와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삼상 2:6-8).

24. **㉠** 요셉의 전격적인 총리 등용의 배경과 그것의 구속사적 의미를 밝히라.

㉠ (1) 현대와 같이 정밀한 자연 과학이나 날카로운 논리의 인문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생활의 많은 부분을 다신론(多神論)적 관념에서 신들의 조화라고 생각했던 요셉 당시의 문화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바로가 요셉에 대하여 탄복하고 즉석에서 일국의 대신을 삼았다는 사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당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들 앞에 크게 보이도록 바로의 마음을 주장했던 것도 요셉이 총리로 등용하게 되어진 중요한 이유이다.

(2)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15:13-16의 예언대로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약 200

만의 대 인구로 급속히 증가하여 출애굽한 후 신정 국가를 이루는 일련의 과정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행동의 한 과정이었던 것이다.

연구자료

결혼의 목적과 기능. 결혼은 일생의 동반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의 도약을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결혼의 목적과 결혼한 부부의 역할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좀더 깊이 있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던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셨다(1:28). 하지만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담 혼자로서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셨다(2:18).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1:31)는 말씀과는 달리 유일하게 '사람의 독처(獨處)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2:18a)라는 말씀 가운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라는 규례를 정해 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이 같은 규례는 단순히 결혼에 대한 것만은 아니니 그것에는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말씀처럼 완전한 인격체를 형성 하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목적이다. 한편 정상적인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배필로서의 아내가 남편을 돕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맡아야 할 일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사상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으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여야 했으며(고전 14:34) 자기의 머리인(고전 11:3) 남자에게 순종해야 했다(엡 5:22-24).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생각은 우리 몸의 지체가 각기 다른 일을 하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선 남자나 여자의 구별이 없으나(갈 3:28) 기능상의 종속 관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조금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을 삼위 일체의 원리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위격(位格)에 있어서는 동등이 시지만 사역에 있어서는 성자와 성령이 성부에 종속되어 있으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 종속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로 두 인격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2:24)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때 이상적인 가정이 성립되는 것이다.

제 42 장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다

단락구분 1-5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다 / 6-17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려고 옥에 가두다 / 18-25 시므온을 억류하고 형제들을 돌려보내다 / 26-35 형제들의 귀향 / 36-38 야곱의 큰 근심

1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2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 하매

3 요셉의 형 십 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4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던라

5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6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7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9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10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11 우리는 다 한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12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13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십이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었나이다

14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15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16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간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17 그들을 다 함께 삼 일을 가두었더라

18 삼 일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19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20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21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 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23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 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24 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25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26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더니

27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28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29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되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

로되

30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31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32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십이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제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33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립을 구하고

34 너희 말제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라 하더이다 하고

35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36 그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37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38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1. ㉠ 본장의 중요한 사건과 그 의미를 말하라.

- ㉠** (1) 본장은 기나긴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무려 20여 년 만에 그의 형제들과 재회(再會)하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 (2) 당시 애굽과 주변 국가들에게 미친 극심한 흉년으로 인하여 팔레스틴에 살던 야곱의 가정도 식량난(食糧難)을 겪게 되었고 마침내 야곱의 열 아들들도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 (3) 이리하여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로서 식량을 주관하던 자기들의 동생인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6절).
- (4) 이로써 20여 년 전 형들이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37:20) 라고 비웃었던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37:7, 9, 10).
- (5) 이제부터 계속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요셉의 고난과 영화가 지니는 영적 의미와 그의 생애를 통하여 야곱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周到綿密)하신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

2. ㉡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는가? (1절)

- ㉡** (1)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사실을 말하면서 그것을 구입해 오도록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였다.
- (2) 특별히 야곱의 말 중에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는 대목은 당시 야곱의 가정에 식량이 다 떨어져 생계(生計)가 곤란하였던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 (3) 본래 팔레스틴 땅에는 가뭄이 흔한 일이었으나 이번 가뭄은 그 피해 정도나 기간이 유례 없을 정도로 혹심하였다.
- (4) 이제 그 가뭄의 피해가 상당 기간 진행되어 야곱 가정으로서는 어려움이 한계 상황에 까지 도달하였던 것이다.

3. ㉢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낼 때 베냐민을 남겨 둔 이유는 무엇인가? (3, 4절)

- ㉢** (1) 전에 요셉은 야곱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37:3) 또한 정실(正室) 부인인 라헬의 소생이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 사랑을 받았었다.
- (2) 그러다가 요셉이 없어지자 그가 사랑받던 것과 같은 이유로 요셉의 아우인 베냐민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 (3) 따라서 야곱은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베냐민을 거칠고 험한 사막을 지나야 하는 애굽 여행길에 보내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 (4) 이처럼 베냐민이 형들과 동행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트집을 잡히게 되고 나아가서는 회개하게 되는 배경이 조성되어진다 (21, 22절).
4. **㉠ 애굽으로 곡식 사러가는 야곱의 열 아들을 열거하여 보라 (3절).**
- ㉠** (1)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갓, 아셀, 스블론, 납달리, 잇사갈 등 10명이다.
 (2) 이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었으며 후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던 자들이다 (37:28).
5. **㉠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한 사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6절)**
- ㉠** (1) 이것은 20여 년 전에 있었던 요셉의 꿈이 사실로써 성취되었음을 의미한다 (37:5-9).
 (2) 특히 '절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하>는 요셉의 꿈에 나타난 사실 (37:7, 9, 10)에 이어 이곳에서도 반복 사용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예언이 철저히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예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 (마 5:18).
6. **㉠ 요셉은 자기를 찾아온 형들에게 어떻게 말하였는가? (7, 8절)**
- ㉠** (1) 요셉의 형들은 20여 년 전에 헤어져 애굽화되고 또 위대한 통치자로 변모한 요셉을 알 아볼 수 없었다.
 (2)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용모와 말씨에서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을 공개하지 않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란 말로 그들을 엄하게 힐문(詰問)하였다.
 (3)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형제들에 대한 복수심이나 표리 부동(表裏不同)한 인격 때문이 아니다.
 (4) 무엇보다도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 상태와 더불어 연로하신 아버지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근황(近況)을 먼저 알아보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이다.
 (5)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매사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가족들에 대하여 세심하게 배려했던 자상한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보게 된다.
7. **㉠ 요셉이 형들을 정탐군이라고 말한 의도는 무엇인가? (9절)**
- ㉠** (1) 당시 애굽은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로부터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2) 특히 당시에는 애굽만이 식량이 많이 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나라들이 애굽에 대한 약탈과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3) 따라서 애굽인들은 외국 나그네들이 외국의 첩보원이 아닌가에 대하여 극히 예민하게 감시하였다.
 (4)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을 향하여 정탐군이라고 한 말은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과 다름없는 선포였다.
 (5) 이처럼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신변에 위협을 받게 됨으로써 지난 날을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참조, 21, 22절).
 (6) 때때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환난과 곤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지나간 과오와 실수를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
8. **㉠ '독실(篤實)한 자들'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1-13절)**
- ㉠** (1) 이 말(히, 케넵)은 '정직한 자들'(RSV, honest men), '진실한 자들'(KJV, true men)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요셉의 형들은 '정탐군'이라고 하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3) 애굽 총리에게 그들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낱낱이 고함으로써 정탐군이 아니라 평범

한 가정의 아들들임을 보이려고 했던 것이다.

(4)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독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다시금 요셉에게 한 가지 요청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9. **㉠**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하도록 요청했는가? (14, 15절)

㉠ (1) 요셉은 형들에게 그들의 독실함을 증명하는 행동으로 막내 동생인 베나민을 데려오도록 요청했다.

(2) 사실상 베나민은 요셉에게 있어서 유일한 동복(同腹) 형제였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 동생 베나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다.

(3) 한편 이러한 요셉의 요청은 형들의 입장을 더욱 급박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들은 전날 요셉에게 행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기억하고 회개하게 되었다.

(4) 그러나 이 요청은 결코 요셉이 개인적인 보복 감정으로 취한 행동이 아니었다.

(5) 우리는 여기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침착하면서도 지혜롭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10. **㉠** 요셉이 형들을 삼 일간 가둔 목적은 무엇인가? (16, 17절)

㉠ (1) 요셉이 형들을 3일간 가둔 목적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과거 행위를 반성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려는 데에 있었다.

(2) 이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었고 더욱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었다.

(3) 요셉도 과거에 이와 같이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였고 (37:24) 3년간 옥중에서 생활하기도 하면서 (39:20)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다.

(4) 옥에 갇히는 것 같은 환난도 때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큰 유익이 되기도 한다 (시 119:7).

11. **㉠** 요셉은 형들을 옥에 가둔 지 3일 만에 어떻게 행하였는가? (18-20절)

㉠ (1) 요셉은 다시 형들을 자기 앞에 불러 놓고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2) 그는 지금까지 철저히 애굽인으로 행세하였으나 (15, 16절) 이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로 처신하였던 것이다.

(3) 여기서 사용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명칭은 형들에게 친근한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요셉에게 어느 정도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4) 그리고 요셉은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팔레스틴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승인함으로써 전에 말한 첫번째 조건 (16절)을 완화시켰다.

12. **㉠**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요약하라 (21, 22절).

㉠ (1) 그들은 20여 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일을 기억하면서 (37:23-28) 자신들의 범죄를 시인하였다. 이것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서 회개의 첫 단계이다.

(2) 그들은 당시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자신들이 과거에 행한 범죄에 대한 보응으로 간주하면서 누우쳤다.

(3)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비로소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였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시키는데 있어서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다.

(5) 결국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신을 장사꾼에게 팔아 넘겼던 형들의 무자비함에 대하여 (37:24) 자비심을 가지고 처신하였던 셈이다.

(6) 이러한 요셉의 행위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롬 12:17) 고 한 바울 사도의 교훈과도 부합된다.

13. **㉠** 누가 결박되어 애굽에 남게 되었는가? (24절)

㉠ (1) 야곱의 12 아들 중 둘째인 시므온이다.

- (2) 당시 장자인 르우벤도 자리에 있었으나 그는 전에 요셉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형제들에게 충고한 적이 있기 때문에 (37:21-30) 억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3) 따라서 르우벤 다음의 차자(次子)인 시므온이 형제들을 대표하여 애굽에 남게 되었던 것이다.

14. ㉠ 요셉은 돌아가는 형들을 어떻게 대우하였는가? (25절)

- ㉠ (1)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선을 행하였다.
- (2) 즉 그는 그들이 원하는 곡식을 주었을 뿐 아니라 여행하는 동안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곡식도 따로 주었다.
- (3) 또한 곡식의 값으로 받은 돈을 다시 그들의 자루에 넣어 주었다.
- (4) 이것은 후에 그들에게 대하여 다른 구실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28절),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는 일에 있어서 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43:23).

15. ㉠ ‘객점’ (客店)이란 어떤 곳인가? (27절)

- ㉠ (1)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을 떠나 집을 향해 가던 중 한 객점에서 쉬게 되었다.
- (2) 여기서 ‘객점’이란 현대적 의미에서 시설을 갖춘 여관 (KJV, inn)이 아니라 여행자가 쉴 수 있는 공간, 즉 숙박소 (RSV, lodging place)를 가리킨다.
- (3) 이곳에서는 여행자나 짐승들에게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게 되었다.
- (4) 그때 그들은 자루 안에 곡식 값으로 치른 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매우 두려워하였다 (43:21).

16. ㉠ 요셉의 형들이 자루에 들어 있는 돈을 보고 두려워한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28절)

- ㉠ (1) 요셉은 단지 형들을 후대하려는 의도에서 돈을 자루에 넣어 주었다 (참조, ㉠12).
- (2)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관리들이 자기들에게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줄 알고 그 결과로 돌아오게 될 화(禍)를 인하여 두려워했다.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성도들을 아시고 과분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대하여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흡사하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 뿐 아니라 그의 광대하신 사랑도 이해함으로써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참조, 었 2:4; 3:18, 19; 요일 4:18).

17. ㉠ 야곱의 아들들이 귀향한 후 야곱이 근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9-36절)

- ㉠ (1)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동안 있었던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29-34절).
- (2) 이때 야곱은 또한 베냐민을 다시 데려가기 위하여 시므온이 불모로 잡혀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
- (3)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근심과 고통은 모두 그의 아들들에게 속아서 당하는 고통이었다.
- (4) 즉 베냐민을 데려 오도록 한 이번 일들은 사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속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5) 이리하여 야곱은 약 50여 년 전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잘못에 대한 보응을 그대로 받게 되었다.
- (6)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 6:7).

18. ㉠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는 말에서 르우벤의 어떤 면을 볼 수 있는가? (37절)

- ㉠ (1) 이 말은 르우벤이 야곱에게 한 말로서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는 뜻으로 한, 결의에 찬 말이다.

- (2) 그는 이전에 요셉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것같이(37:21) 베나민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내세웠던 것이다.
- (3) 창 46:9에는 르우벤의 아들로서 네 명(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말을 할 당시에는 두 명만이 태어났던 것 같다.
- (4) 이 말에서 르우벤이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한 것은 자신이 그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의 형제도 사랑한다는 뜻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형제애(兄弟愛)의 일면을 나타내 준다.
- (5) 이처럼 지극한 형제애는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의 가족들이 본받아야 될 점이다.

19. **㉠** '흰 머리로... 음부에 내려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38절)

- ㉠** (A) (1) 여기서 '음부' (히, 스올)는 단순히 시체를 두는 무덤을 가리키는 말로 육체적인 죽음을 상징한다(민 16:30, 33; 시 16:10).
- (2) 이 말은 '노인이 죽는다'라는 의미를 지닌 풍자적인 표현으로서 베나민에게 재난이 미칠 경우 야곱이 겪게 될 슬픔을 나타내 주고 있다(참조, 44:29, 31).
- (3) 죽음으로까지 이끌 정도로 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 (4) 이와 같은 자식에 대한 야곱의 애뜻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애착과도 비슷하다.
- (5) 나중에 야곱이 결국 가족의 구원을 위해 결단을 내리고 베나민을 내어 보냈던 것처럼(43:14)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요 3:16).
- (6)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연구자료

구약에 언급된 꿈과 해몽. 성경에 기록된 꿈을 분류해 보면 ① 자연적인 꿈(전 5:3) ② 예언적인 꿈(28:12) ③ 악한 꿈(신 13:1, 2; 렘 23:32)으로 나뉘어진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31:10, 11; 31:24; 민 12:6; 왕상 3:5).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알려 주는 예언적인 기능에 사용되기도 했다(37:5-11; 40:5-22; 41:1-32; 사 7:13-15; 렘 23:28; 단 2:1-45; 4:4-28; 7:1-28등). 그러나 개인이 꾸는 꿈을 하나님의 제명보다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되었다(신 13:1-5). 한편 꿈의 기능을 중요시여기던 구약 시대에는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꿈을 해몽하는 사람 외에도 주술적인 방법으로 해몽하는 술객과 박사들이 많이 있었다(41:8).

제 43 장 요셉 형제들의 두번째 애급 방문

단락구분 1-10 베나민을 데리고 가기 위한 유다의 간구 / 11-14 야곱의 결단 / 15 애급을 방문하다 / 16-25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다 / 26-30 요셉의 뜨거운 눈물 / 31-34 요셉이 형제들에게 음식을 배급하다

1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2 그들이 애급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3 유다가 아버지께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4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5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 이니이다
6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7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이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8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 내가 그의 몸을 담보 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10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11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12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량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13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나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이다
15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감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나민을 데리고 애급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16 요셉이 베나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들이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17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8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19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고하여
20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21 재정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 왔고
22 양식할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23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내고
24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25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26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니

27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나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28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29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나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30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31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32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33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 대로 앉하운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34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오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1. ㉠ 요셉 형제들의 두번째 애굽 방문이 갖는 영적 의미를 말하라.

㉠ (1) 가나안 땅의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사기 위하여 두번째로 애굽을 방문하였다.

(2) 이 두번째의 애굽 방문을 통해서 그 동안 헤어져 있던 12형제가 모두 한 자리에 만나게 되는데 이는 구속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 즉 그 동안 시기와 죄악에 의해 분리되었던 12형제가 각자의 양보로 화해되었던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회의 참된 화해(reconciliation)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4) 이러한 야곱 가정의 화해와 일치는 모든 구성원의 역할에 의해 이루어졌다.

(5) 먼저 요셉은 형들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다.

(6) 또한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보내기로 결단함으로써 아들에 대한 편애(偏愛)를 포기했다.

(7) 그리고 유다는 베냐민을 보호하는 데에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회생을 자처하였는데 이는 르우벤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의 뜻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8) 이러한 양보와 회생은 사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생의 영(靈)이 역사하신 결과이다(참조, 엡 5:2).

2. ㉠ 요셉의 형제들이 두번째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게 된 배경을 말하라 (1, 2절).

㉠ (1)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뭄이 계속되었으며 그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

(2) 당시 야곱의 식구는 약 70명에 달했으며(46:27) 그 종들과 가축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 소비량이 대단했다.

(3) 그러므로 첫번째 사온 곡식이 어느덧 모두 소비되었고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곡식을 다시 사오도록 급박히 지시했던 것이다.

3. ㉠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란 짧은 기사를 이 죄악 세상과 비교할 때 얻는 영적 교훈은 어떠한가? (1절)

㉠ (1) 그 땅에 육신의 양식에 대한 기근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대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반면 정신적으로는 병들어 있어 영적 기근이 심하다.

(2) 이 영적 기근에 대한 고통은 사회학, 심리학, 문학, 여러 종교 등에 의하여 계속 지적되고는 있으나 별다른 해결책 없이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3) 한편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기근에 대한 것은 쉽게 느끼지만 영적인 기근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 (4) 당시 야곱 집안이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애굽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본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명의 위협까지도 무릅쓰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었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영적 기근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성도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음으로써 영적 양식을 취해야 하고 또 기근에 시달리는 이웃에게도 전해야만 한다(참조, 왕하 7:9, 10).

4. **㉠** 양식을 ‘조금 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이 말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량은 많지만 살 수 있는 분량은 적을 수밖에 없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2) 이 말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 기근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5. **㉠** 유다는 무엇을 야곱에게 간청하였는가? (3-5절)

- ㉠** (1) 곡식을 사오라는 야곱의 말을 듣고 유다는 이전에 애굽에서 들은 요셉의 말을 상기(想起)시키면서 베나민을 보내 달라고 간청하였다.
- (2) 사실 유다는 야곱의 네째 아들이었으나 형제들을 대표하여 말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
- (3) 즉 장자인 르우벤은 동일한 내용을 간청하였다가 이미 거절된 바 있고(42:37) 둘째인 시므온은 애굽에 억류되었으며 셋째인 레위는 세겔 살륙 사건(34:25)에 연루(連累)되어 야곱에게 신용을 잃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 (4) 또한 유다는 전날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의 잔인한 행동을 막는 일을 했으므로 양심적인 거리낌없이 아버지에게 간청할 수 있었다.

6. **㉠**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사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본장에는 옛 이름인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이란 명칭이 세 번 사용되었다(6, 8, 11절).
- (2) 어떤 비평 학자는 이런 명칭의 변경을 앞장파는 다른 저자가 본장을 기록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 (3) 그러나 이것은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주장에 불과하다.
- (4) 그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본장에 있어서 야곱이란 단어의 인격보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름이 더욱 적합하기 때문에 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고 보아야 한다.

7. **㉠** ‘조조이’의 뜻은 무엇인가? (7절)

- ㉠** (1) ‘조조(條條)이’란 말은 ‘조목조목 자세히’란 뜻이다.
- (2) 즉 요셉이 그들에게 자세하고도 치밀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자세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8. **㉠** 유다는 어떤 말로 아버지를 설득하였는가? (8-10절)

- ㉠** (1) 전에 르우벤은 베나민을 잃을 경우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이라는 지나치게 과장된 말을 하였다가 거절당했다(42:37).
- (2) 그러나 이번에 유다는 상당히 타당성 있는 진실한 말로써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켰다.
- (3) 즉 그는 ‘내가 만일 그(베나민)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9절)라고 말했던 것이다.
- (4) 이러한 유다의 제의는 자신이 베나민과 함께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버지에 대한 죄인으로서는 형벌을 받겠다는 의미이다(참조, 왕상 1:21).
- (5) 비록 선한 뜻을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르우벤처럼 사리에 합당치 않은 말을 해서 안 되며 유다와 같이 상대방이 공감(共感)할 수 있는 말을 해야 좋은 반응을 얻는다.

9. **㉠** 야곱이 애굽 총리에게 줄 예물을 준비한 것은 그의 어떤 면모를 보여 주는가? (11절)

- ㉠** (1) 야곱은 옛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던 에서에게도 이런 예물을 주었었다(33:8).
- (2) 이러한 사실들은 자신의 재물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았던 야곱의 지혜로운 성격의 일

면을 보여 주고 있다. 사람의 생명은 이 땅의 재물보다 더 귀하다(참조, 마 16:26).

- (3) 또한 이것은 원숙한 야곱의 기지였다. 즉 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예물로 애굽 총리의 환심을 사려 한 것이다.
- (4) 이처럼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잠 19:6).

10. ㉠ 야곱이 준비한 예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1절)

- ㉠ (1) 유향, 꿀, 향품, 몰약, 비자, 파단행 등 모두 6종류로서 이것들은 애굽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가나안의 토산물들이다.
- (2) '유향' (乳香)은 유향목의 진액을 짜내서 말린 고급 향료를 말한다.
- (3) '꿀' (히, 데바쉬)은 벌의 꿀이 아니라 신선한 포도의 즙을 내어 바짝 졸인 진한 시럽 (syrub)을 가리킨다. 이것은 지금도 헤브론에서 이집트로 수출된다.
- (4) '향품' (香品)은 일종의 흰 수지질 (樹脂質)의 약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혹자는 '트라가간트 고무'라고 추정한다(Lange).
- (5) '몰약' (沒藥)은 감람과의 관목 줄기에서 나온 즙으로 진한 향기가 나는 진귀한 약재이다.
- (6) '비자' (榲桲)는 히브리어로 <바트님>인데 이것은 한 쪽은 평평하고 다른 쪽은 볼록한 것이 밤[粟]과 같은 모양을 가진 열매이다.
- (7) '파단행' (巴旦杏)은 히브리어로 <쇄케드>로 '알몬드' (almond) 나무를 가리킨다. 이 집트에서는 이 나무가 귀하지만 팔레스틴에서는 많이 자란다.

11. ㉠ '차착' (差錯)의 의미는 무엇인가? (12절)

- ㉠ (1) 이 말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의 순서가 틀려서 앞뒤가 잘 안맞게 됨'을 가리킨다.
- (2) 본절에서 야곱이 이 말을 사용한 것은 곡물을 관리하던 애굽 관리의 실수로 또는 자신의 아들들이 너무 급해서 경황 중에 돈을 치루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번의 돈이 다시 자루 속에 담겨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3) 원문에서 차착에 해당하는 단어 <미쉐게>는 '간단한 실수'라고 번역될 수도 있다.

12. ㉠ 베나민을 보내기로 한 야곱의 신앙적 결단은 어떠했는가? (14절)

- ㉠ (1)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베나민을 애굽으로 보내도록 허락할 때에 모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신앙으로 결단을 내렸다.
- (2)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히, 엘 샷다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은 이전에 아브라함(17:1)과 야곱 자신(35:11)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사용되었던 표현으로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강한 의미를 지닌다.
- (3) 즉 야곱은 자신과 언약 관계를 맺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다.

13. ㉠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이 말은 야곱의 자포 자기(自暴自棄)적 심정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 (2) 야곱은 여기서 이후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으며 그 결과를 자신의 신앙으로 수용하겠다는 단호한 각오를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 (3) 이러한 신앙적 결단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 4:16)고 말한 에스더의 결심과도 통하며 복음을 위해 일사(一死)를 각오했던 바울 사도의 신앙과도 맥을 같이 한다.
- (4)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제자들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한다(막 8:34, 35).

14. ㉠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될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18-22절)

- ㉠ (1) 그들은 총리 대신 요셉의 집으로 인도될 때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조치로 알고

형벌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으로 두려워하였다.

- (2) 특별히 그들은 전에 곡식 자루 안에 담겨 있던 돈 때문에 혐의(嫌疑)를 받는 줄로 생각하고 그 돈 문제에 대하여 변명했다.
- (3) 그러나 사실 이번 조치는 요셉이 곧바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전에 형제들에게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준 다음 구원의 기쁨을 주려고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도 먼저 죄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회개를 할 때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다.

15. **㉠** 요셉 형제들의 변명에 대하여 청지기는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23절)

- ㉠** (1) 요셉의 형제들이 자루에서 발견된 돈에 대하여 변명했을 때 요셉 집의 청지기는 그 돈 문제로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그 돈은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2)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청지기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알고 경외했던 사실을 보게 된다.
- (3) 이러한 사실은 당시 요셉이 자신의 집을 이미 여호와 신앙으로 철저히 훈련시켰음을 암시해 준다.
- (4) 이처럼 산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항상 그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냄으로써 그가 머무는 처소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된다.

16. **㉠** 11형제가 요셉에게 엎드리어 절하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26절)

- ㉠** (1) 요셉의 집으로 인도된 11형제는 정중한 대우를 받으며 예물을 준비한 후 요셉을 기다렸다.
- (2) 오정이 되자 요셉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11형제는 준비한 예물을 요셉에게 바치며 일제히 땅에 엎드리어 절을 하였다.
- (3) 여기서 엎드렸다는 것은 몸을 완전히 땅에 대고 얼굴을 묻는 인사법을 말한다.
- (4) 이 장면은 놀라움게도 옛날 요셉이 꾸었던 꿈, 즉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11형제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던 광경과 일치되는 것이다(37:6-8).
- (5) 당시 요셉의 형들은 그 꿈을 인하여 요셉을 시기하였고 또한 그 꿈을 비웃으면서 결국 그를 애굽에 팔아 넘기고 말았는데(37:19, 20) 이제 그 꿈이 엄연한 현실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 (6) 여기서 우리는 택한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계시와 신령한 꿈(vision)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라 반드시 현실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불변(不變)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 (7)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믿는 자들 가운데 먼저 신령한 소원을 주신 후 그 소원을 따라 역사하신다(빌 2:13).

17. **㉠** 요셉은 베냐민에게 축복한 후 어떻게 행하였는가? (29, 30절)

- ㉠** (1) 요셉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복(異腹) 형제였지만 베냐민만은 라헬이 죽기 전에 낳은 친형제였으므로 요셉으로서는 그에게 각별한 애정을 느꼈다.
- (2)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베냐민을 소개하기 전에 미리 그를 알아보고 축복하였다.
- (3) 이때 요셉은 베냐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북받쳐 울랐기 때문에 급히 자리를 피하여 울었다.
- (4) 이것은 요셉이 감정을 견디지 못하여 온 두번째 사건이다. 처음에는 그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뉘우칠 때였다(42:24).
- (5) 이 사건은 요셉의 지도자적 면모와 풍부한 인간성을 동시에 보여 준다.
- (6) 즉 요셉은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에 지배되지 않았고 큰 일을 성취하기에 적합한 강한 의지(意志)도 겸비한 인물이었다.

18. **㉠** 요셉은 형제들을 식탁에 어떤 순서로 앉게 하였는가? (33절)

- ㉠** (1) 애굽인들은 일반적으로 의자에 앉지 않고 등그런 식탁 주위의 바닥에 둘러 앉아서 음

식을 먹었다.


- (2) 요셉은 형제들을 식탁 둘레에 나이 순서대로 앉게 하였는데 이것을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 (3) 왜냐하면 이러한 배열이란 그들 가정 일에 대하여 초자연적인 영감을 받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 (4) 결국 요셉은 조금씩 자신의 정체체를 노출시키고 있었으나 형제들은 아직 요셉을 알아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 (5)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는 것과 유사하다.
- (6)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체를 밝히고 공개하였듯이(45:3)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참조, 고전 13:12).

19. **㉠ 본장에 나타난 베냐민과 형제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 ㉠ (1) 야곱은 전날 요셉에 대해 편애(偏愛)했던 것처럼 여전히 베냐민에 대해서도 그러했다. 그 사실은 10절에 나타난 대로 전가족이 굶어 죽을 입장에 처해서도 베냐민만은 보호하려고 했던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 (2) 그러나 형제들은 전날에는 별다른 이유없이 요셉을 죽일 정도로 미워했지만 이제는 스무 살이 넘은 베냐민을 애정과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하며 감싸되 자신과 자식들의 생명을 걸기까지 하였다(42:37;43:9).
- (3) 또한 애굽에 이르러 요셉이 베냐민을 특별히 대우할 때 형들은 함께 즐거워하였다(34절). 이런 점을 볼 때 이제 그들은 전날 요셉에게 지은 죄를 분명히 뉘우치고 신앙 인격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 이처럼 성도들도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과오를 극복하고 꾸준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聖化)를 계속하여야 한다(엡 4:13-16).

화보자료

몰약(myrrh tree).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약용(藥用) 식물이다. 나무 줄기에서 수액이 분비되는데 이것을 말린 것이 일명 '몰약' (myrrh)이다. 이 나무는 주로 아라비아 지역에서 식하고 있다.



야곱은 애굽 총리에게 보낼 예물로 몰약을 준비하였다(11절).

몰약

제 44 장 요셉이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다

단락구분 1-3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다 / 4-13 자루를 수색당하는 형제들 / 14-15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잡혀 오다 / 16-17 베냐민 억류 명령 / 18-34 유다의 뜨거운 간구

1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2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3 개동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4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5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 같이 하니 악하다 하라

6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7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8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적질 하리이까

9 종들 중 뉘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10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뉘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11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한 땅에 내려놓고 자기 푸니

12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매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라

13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14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15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6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

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17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18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19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20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의 끼친 것은 그 뿐이므로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21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22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23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24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25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26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 하면 내려 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 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27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28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녕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29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

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30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31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 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32 주의 종이 내 아버지께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34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1. ㉠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영적 의미를 말하라.

- ㉠ (1)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환대한 후 그들의 형제 우애(兄弟友愛)를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행하였다.
- (2) 즉 그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억류하려 할 때 형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런지를 알고자 했던 것이다.
- (3) 이 시험에서 유다는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여 베냐민에 대한 사랑을 나타냄으로 요셉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다.
- (4) 여기에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게 된다(45:1-3).
- (5) 따라서 본장의 핵심 내용은 무엇보다도 아우 베냐민을 위해 유다가 눈물겨운 심정으로 변론(辨論)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18-34절).
- (6) 이 유다의 변론을 절정으로 야곱 가정의 시련은 끝을 맺게 되고 요셉을 중심으로 한 축복의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된다.
- (7)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시련도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과정이요 준비이다.

2. ㉠ 본장의 내용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그 문맥을 살펴보라.

- ㉠ (1) 본장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 두 단락은 전반부 1-25절이고 후반부는 16-34절이다.
- (2) 전반부에서는 요셉이 형제들의 마음 상태를 시험하기 위하여 거짓 누명을 씌우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불안과 긴장,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으로 묘사되었다. 만약 이런 시험의 상황에서 형제들이 서로 자신의 이기심을 드러내어 베냐민을 매도(賣渡)하였다면 45장에서 보여지는 감동적인 형제들의 재회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 (3) 이어서 후반부는 이번 두번째 여행의 대표자적인 유다가 전 형제들을 대표하여 요셉에게 탄원한 감동적인 산문(散文)이다. 이 유다의 진솔(眞率)한 탄원에 감격한 요셉은 크게 울며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재회의 기쁨을 한껏 나누게 되었다.
- (4) 이처럼 본장은 두 단락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제들의 변화된 신앙 인격을 부각시키면서 요셉의 시험에 대하여 합격 판정을 받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3. ㉠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보낼 때 베푼 정성을 말하라(1절).

- ㉠ (1) 형제들이 나귀에 실어 운반할 수 있는 최대의 곡식을 주었다.
- (2) 곡식 값으로 가져온 돈을 모두 그들에게 주었다.
- (3) 요셉의 이러한 사랑은 은밀히 그의 청지기를 통해서 진행되었다.
- (4) 예수께서도 성도의 선행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교훈하시기 위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마 6:2-4).

4. ㉠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2절)

- ㉠ (1)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을 넣을 때 베냐민의 자루 속에는 요셉의 은잔을 넣었다.
- (2) 이것은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우려는 계획이었다.
- (3) 요셉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베냐민이 체포된 후 다른 형제들이 그를 버려 두고 가는

지의 여부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다.

- (4) 즉 자신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버린 형제들의 본심을 다시 한번 확인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 (5)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성도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시험하시는 것과 유사하다. 하나님은 성도를 은밀히 도와 주시는 한편 시험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 인격을 연단하신다(참조, 욥 23:10).

5. **㉠** 개동시(開東時)는 언제를 말하는가? (3절)

- ㉡** (1) ‘아침이 비취기 시작할 때’를 말한다.
- (2) 즉 먼동이 틀 때 요셉의 형제들은 일찌기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였다.
- (3) 요셉의 형제들은 뜻밖의 환대를 받았으며 많은 곡식을 싣고 가기 때문에 그들의 출발 아침은 매우 상쾌한 아침이었다.

6. **㉠**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4-13절)

- ㉡** (1)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을 추격하여 은잔을 찾아오도록 명하였다.
- (2) 청지기가 그들에게 미쳤을 때 만약 은잔이 발견되면 그들은 스스로 포로가 되겠으며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 (3) 그러나 청지기는 은잔을 훔쳐 간 한 사람만 노예로 삼겠다고 하였다.
- (4) 결국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으며 요셉의 형제들은 스스로 다시 애굽에 돌아왔다.
- (5) 이것을 통하여 요셉은 형제들의 우애를 확인하게 되었다.

7. **㉠** 요셉이 은잔으로 점을 쳤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5, 15절)

- ㉡** (1) 본문에 언급된 점치는 행위는 고대 애굽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것이다.
- (2) 당시 애굽인들은 조그마한 금이나 은조각 또는 값이 나가는 돌에 이상한 표식을 새긴 후 잔이나 그릇 속에 집어 넣은 다음 주문을 외우며 신적인 존재에게 기도를 하였다.
- (3) 또 어떤 경우에는 술잔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햇빛을 비치게 한 다음 그 술잔 위에 비치는 모양을 보고 점괘를 가리기도 했다.
- (4) 본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미신에 속한 점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5) 따라서 요셉은 단지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은폐시키면서 형제들의 우애를 시험하려는 의도에서 은잔으로 점을 쳤던 것처럼 가장했던 것이다.

8. **㉠** 요셉의 청지기는 어떻게 행하였는가? (6절)

- ㉡** (1) 그는 요셉이 명령한 대로(4, 5절) ‘그대로’ 행하였다.
- (2) 우리는 여기서 유능하고 성실한 청지기상을 발견하게 된다.
- (3)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이 의도하고 있는 바를 잘 이해하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언제나 큰 역할을 하였다.
- (4) 이것은 마치 과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던 것과 유사하다(39:1, 2).
- (5) 이와 같이 충실한 청지기의 모습은 만유(萬有)의 주 되신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역할에 대한 암시가 되기도 한다.

9. **㉠** 16-34절에 나타난 유다의 탄원을 통해 형제 우애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라.

- ㉡** (1) 유다는 전날의 과오에 대한 진실한 참회, 늙은 아비에 대한 애뜻한 효성, 범죄한(물론 누명이지만) 동생에 대한 희생적 사랑을 열정적으로 고백하였다.
- (2) 유다는 죽음을 무릅쓰고 탄원한 것이다. 이전까지도 그들은 애굽 총리대신(요셉)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계속 불안해 하였다.

- (3) 그러나 뜻밖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막내 동생 베나민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상황을 만나게 되자 유다는 비록 자신은 살아날 수 있었지만 동생을 위해 기꺼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던 것이다(참조, 37:25-28).
- (4) 이때 요셉은 유다의 말 가운데 자기가 이미 죽은 자로 생각되고 있는 점(27, 28절), 또 늙은 아버지가 기근에 시달리며 고생하고 있는 점(29절)을 자세히 듣고는 비감(悲感)을 금치 못했다.
- (5) 그러나 무엇보다 전날 자신을 억울하게 팔던 때와는 너무나도 변한 형제들을 보고 요셉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국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형제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던 것이다.

10. **㉠**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다는 유다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6절)**

- ㉠** (1) 이 말은 그들이 일찌기 요셉에게 가했던 악행(37:18-28)을 기억하는 말이다.
- (2) 즉 그들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전날 요셉에게 범한 죄악의 대가로 간주하여 자신들의 허물을 시인하고 있다.
- (3) 이러한 유다의 말은 요셉의 형제들이 전날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였음을 나타낸다.
- (4) 이것으로써 요셉은 그들을 시험한 목적을 달성하였다.

11. **㉠**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는 요셉의 말의 참뜻은 무엇인가? (17절)**

- ㉠** (1) 베나민을 비롯한 모든 형제들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는 유다의 제의에 대하여 요셉은 베나민만 종이 되게 하겠다는 뜻이다.
- (2) 이것은 요셉이 다시 한번 그들을 시험해 보는 의도이다.
- (3) 결국 요셉의 형제들은 베나민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요셉의 말을 따를 수 없었다.

12. **㉠**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는 유다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18절)**

- ㉠** (1) 요셉은 바로와 같이 큰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 (2) 이 말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 달라는 뜻이다.

13. **㉠** **유다가 요셉에게 간구하는 내용 중 핵심을 이루는 주제는 무엇인가? (19-34절)**

- ㉠** (1) 유다는 부친 야곱의 사랑을 받는 베나민에 대해 그 호칭을 22번이나 부르며 애원했다.
- (2) 그는 베나민에 대하여 ‘아우’, ‘소년’, ‘그’, ‘말째’, ‘아우’, ‘이’, ‘아이’ 등으로 묘사함으로써 베나민에 대한 애정을 다각도로 표현하였다.
- (3) 또한 유다는 부친 야곱에 대하여 말하므로 요셉의 동정심을 일으켰다. 즉 베나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야곱이 죽게 된다는 것이다.
- (4) 이와 같은 유다의 눈물겨운 형제 우애와 부친에 대한 효성은 요셉을 감격시켜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 (5) 여기에 나타난 효성과 유다의 뜨거운 형제 우애는 오늘날 점차 개인주의화 되어 사랑을 상실하고 있는 가정 윤리에 경종을 울려 준다(참조, 롬 12:9-13).

14. **㉠** **유다가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제안한 내용은 무엇인가? (33, 34절)**

- ㉠** (1) 유다는 베나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2) 이러한 유다의 제안은 동생 베나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아버지 야곱에 대한 효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 (3) 유다의 이 말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으며 요셉을 감격시켰다(45:1, 2).
- (4) 가족들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유다의 희생 정신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 실천해야 할 귀한 교훈이다.

15. **㉠** **본장에 나타난 요셉, 유다, 베나민의 행동이 갖는 모형적 의미를 비교하여 말하라.**

- Ⓐ (1) 요셉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를 살피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참조, 고후 13:5).
- (2) 베냐민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연약한 성도의 모형이다. 베냐민과 요셉이 형제였듯이 그리스도도 신자들을 자신의 형제로 인정하신다(벧전 1:17).
- (3) 유다는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는 신앙의 지도자의 모형으로 볼 수 있다(약 5:16).

화보자료

점치는 도구. 아래의 사진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간(肝)의 모형이다. 이것에는 사진과 같이 설형 문자로 된 주문(呪文)이 새겨져 있다. 고대 근동인들은 짐승의 간을 이용하여 점을 치거나 잔(盞)속에 담아 둔 액체를 이용하여 점을 치는 미신을 갖고 있었다.



요셉의 은잔에 대하여 요셉의 청지기가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 (5절)이라고 말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당시 애굽에도 잔을 이용한 점치는 방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 45 장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다

단락구분 1-4 요셉이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다 / 5-8 형들을 향한 요셉의 용서와 위로 / 9-15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러 형들을 다시 보내다 / 16-20 야곱에 대한 바로의 초청 / 21-28 귀향한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요셉의 일을 고하다

1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2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3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6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이 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9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10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12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13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14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16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17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8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쁨진 것을 먹으리라

19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데려오라

20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것임이니라 하라

21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22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23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열 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리고 암나귀 열 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공궤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싣리고

24 이에 형들을 돌려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25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26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27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버지에게 고하매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28 이스라엘이 가로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1. **㉠** 본장의 중요한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전장(前章)에 바로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의 가족들을 모두 초청하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
- (2) 이러한 요셉의 소식은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 마치 비온 뒤의 햇빛처럼 새로운 기쁨을 선사했다.
- (3)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닥치는 시련과 환난도 때가 되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롬5:3, 4).

2. **㉠** 요셉이 정을 억제치 못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요셉은 지금까지 마음속에 일어나는 벽찬 감정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였지만(42:24; 43:30) 이제는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다.
- (2) 왜냐하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회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42:21; 44:16)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나민에 대한 사랑이 순수하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이다(44:33, 34).
- (3)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뜨거운 애정의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그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정을 억제하시고 시험하실 경우가 많다(참조, 마 15:21-28).

3. **㉠** 방성 대곡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절)

- ㉠** (1) 그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독차지하였고,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이었으며 동시에 그는 터무니없이 당한 종살이에도 좌절하지 않고 경건 생활을 계속했던 신앙의 지조(志操)를 가진 인물이기도 했다.
- (2) 그러던 요셉이 이제는 당시 최강의 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전권(全權)을 행사하며 나라 일을 맡게 되었다. 보통 고위 직무를 맡게 되면 교만해 지거나 일에 쫓겨 따뜻한 인간성을 잃는 것이 보통이다.
- (3) 그러나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 형들을 심문하여 지도자로서의 그의 면모를 나타내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드러내고 본연의 순수한 본성을 보이며 형제들과 함께 뜨거운 인간애를 나누고 있다.
- (4) 이처럼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순수한 인간미를 유지하여 모든 사람들의 위로와 기쁨이 되어야 한다.

4. **㉠** 요셉이 자신을 알리는 장면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3절)

- ㉠** (1) 요셉이 방성 대곡한 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장면은 우리에게 인생의 숙명적인 만남에 있어서 절정의 상태를 보여 준다.
- (2) 즉 외국에 종으로 팔아 버린 동생이 이제는 그 형들의 구주가 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그는 이전 범죄에 대한 심판이나 죽음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랑과 용서만을 갖고 형제들 앞에 나타났다.
- (4)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마 9:13).

5. **㉠** 요셉은 놀라서 능히 대답치 못하는 형제들을 어떻게 위로했는가? (2-5절)

- ㉠** (1) 요셉의 말을 들은 형들은 놀라 말조차 못했다. 이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범죄 심리학에 의하면 범죄인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극도의 불안감이라고 한다. 따라서 체포되면 안정을 되찾아 기뻐하는 죄수들이 많다고 한다.
- (2) 이처럼 죄인은 늘 불안하며 언젠가는 크게 놀랄 날이 올 것이니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 (3)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 즉 자신을 죽이려 했던 아니 죽인 것보다 더 하게 노예로 팔았던 그 죄를 용서한 것은 물론, 총리대신인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그들의 동생으로 돌아가 그들을 형으로 극진히 섬겼다.

(4)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 하나님도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죄인처럼 내주어 십자가에 못박게 하심으로 인간들을 섬기신 셈이다(마 20:28).

6. **㉠ 5-9절에 나타난 요셉의 사랑이 신앙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라.**

㉠ (1) 5-9절 사이에서 요셉은 다섯 차례나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였다.

(2) 특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라고 했다.

(3) 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복수하기는커녕 진정한 사랑으로서 저회를 위로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총을 감사한 까닭이다.

(4) 형들에게 팔린 것도, 보디발의 종된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요 결코 형들의 소행이 아님을 설교했다.

(5) 역경과 순경(順境)을 막론하고 사정과 경위를 초월하여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는 자는 요셉과 같이 원망과 불평과 자만이 있을 수 없고 다만 기쁨과 감사가 있을 뿐이다(참조, 빌 4:4-7, 12, 13).

7. **㉠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 말들을 열거하여 보라(5-9절).**

㉠ (1)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5절).

(2)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7절).

(3)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8절).

(4)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8절).

(5)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9절).

(6)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것과 애굽에서 총리가 된 것 그리고 야곱의 온 가정이 애굽으로 오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8. **㉠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1) 요셉은 애굽에서 제 2인자이지만 바로의 상담자요 정책 실무자인 면에서는 오히려 바로의 위에 있는 자였다.

(2) 즉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바로에게 전달되므로 요셉이 바로의 주인과 같은 존재였다.

(3) 이와 같이 성도들도 비록 세상의 권세 아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왕 같은 제사장’ (벧전 2:9)으로서 권세자들보다 높은 신분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9. **㉠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께로 속히 가라’고 한 말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9절)**

㉠ (1)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재촉하여 속히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가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도록 부탁했다.

(2) 요셉이 이와 같이 서두른 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애굽 이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15:13-16).

(3)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뜻을 따라 신속히 행동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취해야 할 신앙적 자세라고 볼 수 있다.

10. **㉠ 요셉이 지정한 야곱의 가족이 살 수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10절)**

㉠ (1) 나일 강 북부에 있는 하(下)애굽 지역의 목초지 고센 땅이다.

(2) 그 땅은 매우 비옥하였으며 목축업을 하고 있는 야곱의 가족이 살기에는 매우 좋은 지역이었다.

- (3)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며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4)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아버지를 봉양(11절) 하려는 그의 극진한 효성에서 비롯되었다.
- (5) 당시 야곱은 나이가 많았으며 자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처지에 있었다.
- (6) 성경에 나타난 효도의 모범된 예는 요셉의 경우 이외에 다윗(삼상 22:3), 솔로몬(왕상 2:19), 엘리사(왕상 19:20), 요나답의 자손들(렘 35:8), 예수(눅 2:51; 요 19:25, 26)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7) 연로한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삶이며 동시에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11. **㉠** 요셉과 그 형제와 야곱의 가족을 위한 바로의 친절은 무엇인가? (16-20절)

- ㉠** (1) 바로는 요셉을 신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존경했으며 요셉 때문에 애굽이 태평을 누리는 사실에 대단히 감사를 느끼고 있었다.
- (2) 즉 요셉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바로와 그의 나라(애굽)에 많은 이익을 가져왔으며 애굽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했다.
- (3) 그러므로 바로는 요셉의 형제와 야곱의 온 가족을 위하는 일에 최대의 편의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 (4) 다시 말해 바로는 야곱의 가족이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양식을 주었으며 야곱의 가족이 모두 타고 올 수 있을 만큼의 수레를 보냈으며 선물까지도 주었다.

12. **㉠** 바로가 요셉을 통하여 야곱 가족에게 준 선물은 무엇인가? (21-24 절)

- ㉠** (1) 요셉의 형들에게는 각각 옷 한 벌씩을 주었으며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었다.
- (2) 야곱에게는 수나귀 열 필과 그 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렸으며 암나귀 열 필과 그 위에 길에서 먹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려 보냈다.
- (3) 이와 같은 바로의 친절한 배려는 세밀하고도 정성이 깃든 호의였다.

13. **㉠** 야곱의 아들들의 보고를 듣고 '기색(氣塞)' 했다는 뜻은 무엇인가? (26절)

- ㉠** (1) 야곱은 죽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아들들의 말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 (2) '기색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팍>인데 이는 '힘이 진하다'는 의미이다.
- (3) 영역 성경 가운데 KJV와 RSV에는 야곱의 심장이 '기진해졌다'(fainted)로 번역되어 있다.
- (4) 그러나 다른 영역 성경(Modern Language Bible)에는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unmoved)로 번역함으로써 그 의미를 조금 달리하고 있다.
- (5) 이 번역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의 말을 전혀 신용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강조된 것이다.
- (6) 이러한 해석의 견해도 일리는 있지만 문맥에 비추어 볼 때 개역 성경, 공동 번역('다만 어리 등절하여')과 KJV, RSV의 의미가 좀더 원어의 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4. **㉠** 요셉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야곱이 인식하게 된 것은 언제이며 그 후의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27절)

- ㉠** (1) 야곱은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서 아들들의 말을 믿게 되었다.
- (2) 특히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는 순간 그는 요셉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 (3)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흐뭇한 마음을 '축하도다'라는 한 마디의 말로 요약하였다.
- (4)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 보다도 인간의 사랑을 삶의 최고 이상(理想)으로 삼게 된 노인의 경지를 볼 수 있다.

15. **㉠** 야곱의 이름이 본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28절)

- ㉠** (1) '이스라엘'로 표기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뜻깊은 표현이다.

- (2) 야곱이 아들을 잃고 슬퍼하던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으나 이제 아들을 찾은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소망이 가득 차 있었으므로 이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다.
- (3)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 이김'이란 승리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32:28) 여기서 야곱은 삶의 승리자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료

히브리인들의 식생활(食生活)

1. 일상시의 식생활

히브리인들은 하루에 보통 2번 밖에 식사를 하지 않는다(참조, 출 16:12; 왕상 17:6). 대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정오까지 일을 한 후 비로소 첫 식사를 하며 그 후 저녁까지 다시금 일을 한 후 저녁 식사를 한다. 저녁 식사 시간은 휴식과 원기 회복은 물론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친화(親和)를 도모하는 시간이다. 식사시에는 낮은 식탁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이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를 두고 모든 식구들이 빙 둘러 앉았다. 일반 평민들의 주식은 빵과 물이었으며(참조, 사 3:1) 집에서 사육하는 짐승으로부터 젓과 고기를 취하기도 하였다. 계절에 따라 과일만큼은 비교적 풍성히 취할 수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로는 무화과, 포도 등을 들 수 있다(참조, 신 24:21; 마 21:18, 19).

2. 손님 접대

손님이 방문하면 주인은 먼저 그를 상석(上席)으로 앉히우고 그에게 손 씻을 물을 가져다 준다. 그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면 주인이 그 음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참조, 삼상 9:13; 눅 22:17, 19) 손님과 더불어 음식을 들기 시작한다. 때때로 특별한 존경의 표시로 집주인은 친히 손님의 시중을 들기도 하였는데 이때 손님에겐 음식의 가장 좋은 몫이 대접되어졌다(참조, 삼상 9:24).

3. 여행시의 식사

여행자들은 노중(路中)에서 양식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고대 근동에서는 일찍부터 나그네를 환대하는 풍습이 생겨 났었다(참조, 18:1-8; 19:1-3). 길을 가던 여행자들은 일단 어느 집에 유숙하게 되면 그날의 식사와 잠자리를 보장받았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전도 여행시에 양식을 준비하지 않고 길을 떠났던 것이다(눅 10:1-8). 이에 반해 대상(隊商)들은 빵, 말린 과일, 치즈 등의 식량을 준비해 다니었다.

제 46 장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단락구분 1-4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는 야곱과 하나님의 위로 / 5-7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다 / 8-27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자손들 / 28-34 야곱과 요셉의 기쁜 재회

1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회생을 드리니

2 밤에 하나님이 이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야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5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의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6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7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8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9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무와 헤스론과 갈미요

10 시므온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랄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11 레위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12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몰이요

13 잇사갈의 아들 곧 들라와 부아와 읍과 시므론이요

14 스불론의 아들 곧 세렛과 엘론과 알르엘이니

15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삼십 삼 명이며

16 갓의 아들 곧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17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18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 십륙 명이요

19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20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21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질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뭉빔과 홉빔과 아룟이니

22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합 십 사 명이요

23 단의 아들 후심이요

24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렐이라

25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빌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칠 명이라

26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육십륙 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27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칠십 명이었던라

28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29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동안 울매

30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31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32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으므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33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

이나 묻거든

34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 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1. **㉠ 본장과 출애굽 사건 사이에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라.**
 - ㉠ (1) 본장은 기근 속에 있던 야곱의 가족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애굽 이주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준비하셨다.
 - (3) 즉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은 후일 장정만 약 60만을 이루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의 대행군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 (4) 이처럼 본장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사건에는 먼 훗날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구속의 의미'를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다.
2. **㉠ 본장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본장에서 야곱의 이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표기되고 있다(1, 2, 4, 8, 30절).
 - (2) 사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자격으로 기근을 피하기 위해 이주함이 아니었다.
 - (3) 이때 야곱은 언약을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민족을 대표하여 행동하고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 (4) 결국 애굽 이주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성취로서(15:13-16) 야곱의 가족들이 장차 거대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 (5) 이러한 사실이 지니는 의미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본장에서 야곱은 특별히 언약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32:28)로 호칭되고 있는 것이다.
3. **㉠ 야곱은 어디에서 제단을 쌓았는가? (1절)**
 - ㉠ (1) 야곱은 애굽을 향하여 출발한 후 팔레스틴 최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회생을 드렸다.
 - (2) 이 '브엘세바'는 이전에 아브라함과(21:33) 이삭이(26:25) 상당 기간 동안 머물면서 여러 번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 (3) 야곱이 애굽으로 가다가 이곳에 머무른 것은 그의 조상들에게 계시를 내려 준 하나님의 뜻을 좀더 분명히 알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 (4) 사실상 이때까지도 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17:8) 버리고 그의 조상에게 해를 끼쳤던 애굽으로(참조, 12:10 이하; 26:2) 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4. **㉠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2절)**
 - ㉠ (1) 밤에 이상(異象)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 (2) 성경에는 밤에 이상을 보는 일이 여러 번 기술되어 있다(욘 4:13; 33:15; 단 2:19 등).
 - (3) 이것은 단순한 꿈을 가리키는 데에도 사용되었으나(사 29:7)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방법으로 나타났다.
 - (4) 본절에서 야곱은 후자의 경우로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이다.
5. **㉠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받은 계시의 내용은 무엇인가? (3, 4절)**
 - ㉠ (1)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야곱의 부친인 이삭의 하나님임을 밝히셨다.
 - (2)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을 따라 야곱을 인도하고 계셨던 사실을 암시해 준다.
 - (3)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②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

루게 하리라 ③ 너와 동행하고 너를 인도하리라 ④ 요셉이 네 눈을 감기리라는 네 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셨다.

(4) 이로써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일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되었다.

(5)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갈길 못찾아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분명한 뜻을 밝혀 주신다.

6. Q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4절)

A (1) 당시 야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자신의 행동이 모순되지 아니한지를 염려했다.

(2) 이에 대해 하나님은 후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셨다.

(3) 이 약속은 약 400년 후 모세에 의하여 출애굽 사건으로 성취되어졌다.

7. Q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위로에서 보이는 사랑은 어떠한가? (4절)

A (1) 본래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들어온 인간의 슬픈 비극이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으로 그 존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주석가 벵젤의 표현을 들면 죽음이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부활을 위한 준비라 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을 알고 죽음에 임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은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나타냄으로써 남아 있는 성도들에게 큰 격려를 준다.

(3) 우리는 지금도 끔찍한 로마 시대의 박해 때 기쁘게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성도는 자신의 죽음으로도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으며 또 보여야 한다.

(4)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큰 위로가 아닐 수 없다.

(5) 인간은 죽음 앞에서 괴로와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기억하시어 선한 길을 베풀어 주신다(참조, 시 23:4).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8. Q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건이 주는 신앙 생활의 한 단면은 어떠한가? (1-4절)

A (1)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늙은 야곱에게는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일대 모험이었다. 즉 오랜 나그네 생활 끝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려 했던 그가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실패를 맛보았던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것은 그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9. Q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에 그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었는가? (5절)

A (1) 야곱이 브엘세바에 머문 기간은 별로 긴 것 같지 않다. 아마 하룻밤에 불과하거나 길어야 하루 이틀이었던 것 같다.

(2) 그러나 그가 브엘세바에 도착할 때와 떠날 때의 마음 상태는 완전히 다르다.

(3)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브엘세바에 도착했으나 떠날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목적지 애굽을 향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성도들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도 진정한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것은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이다.

10. Q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을 도표를 통해 설명해 보라(8-25절).

A (1) 야곱의 가족 70명을 그 모세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대	모 계	2대	3대	4대	계
야	레 아	르우벤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유다손) (베레스 자) 헤스론, 하물	33
		시므온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사울		
		레 위	게르손, 그핫, 므라리		
		유 다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잇사갈	둘라, 부와, 욥, 시므론		
		스불론	새렛, 엘름, 알르앗		
		디나(여)			
곱	실 바	갓	시본, 학기, 수니,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손) (브리아 자) 헤벨, 말기엘	16
		아 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세라(여)		
	(라헬)	요 셉	므낏세, 에브라임		14
		베나민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돕빔, 홉빔, 아룻		
빌 하	단	후심		7	
	납달리	야스엘, 구니, 예셀, 실렘			

() 안은 이미 죽은 사람

(2) 위의 도표는 야곱의 며느리들을 제외한 야곱의 소생들의 명단으로서 남 65명, 여 5명 포함 70명이 포함되어 있다.

11. ㉠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수가 여러 형태로 나온다. 그 수자를 열거하고 이유를 설명하라 (27절).

- ㉠ (1) 창 46:26에는 66명으로 나와 있다. 이것은 위 도표에서 야곱, 요셉, 므낏세 및 에브라임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 (2) 창 46:27; 출 1:5; 신 10:22 등에는 70명으로 언급되어 있다. 70명의 수자는 ㉠ 10의 도표와 같으며 이 수자는 히브리인의 개념으로 완전을 상징한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70명으로 언급된 것이다.
- (3) 행 7:14에는 75명으로 언급되었다. 여기서 스테반이 75명으로 언급한 것은 본장에 나타난 70명의 수에 요셉의 손자 5명을 포함시켰거나 아니면 70인역(LXX)을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70인역에는 요셉의 아들이 9명이며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수는 75명으로 언급되어 있다.

12. ㉠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낸 사실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28절)

- ㉠ (1) 유다는 형제들의 2차 애굽 방문 때부터 자신을 희생하고 가족들을 위하여 큰 역할을 했다(44:14-34).
- (2) 야곱은 이러한 유다의 공적을 인정하여 그를 신임하였다.
- (3) 따라서 그는 전체 가족들의 대표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었던 것이다.
- (4) 여기서부터 유다는 12형제 중의 대표자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야곱에 의하여 메시아의 조상이 되리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49:8-12).

13. ㉠ 야곱이 애굽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머문 고센은 어떤 곳인가? (28, 29절)

- ㉠ (1) 고센은 나일 강의 삼각주 동쪽, 국경에 위치한 성읍으로 농경지로서는 부적합하나 목축 생활에는 매우 적합한 초원 지대를 이루고 있다.
- (2) 본절에서 야곱이 이곳에 머문 것은 47:1-12에 비추어 볼 때 아직 바로에 의해 정착지로 허락받지는 못하였으나 총리인 요셉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다.

- (3) 이 사실에서 우리는 바로에 대한 요셉의 발언권이 매우 컸음을 알게 된다. 47:1-12에 있는 형제와 바로의 대화는 실상 일종의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 (4) 결국 야곱의 가족들은 이 고센 땅에 완전히 정착하여 출애굽까지 살게 된다.

14. ㉠ 요셉을 만난 야곱의 기쁨을 말하라 (30절).

- ㉠ (1) 야곱이 요셉을 만난 것은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이며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이었다.
- (2) 야곱은 '지금 죽어도 가(可)하다'는 말로써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였다.
- (3) 이러한 부자(父子)의 만남은 헤브론에서 헤어진 후 약 20여 년 만의 만남이었다.
- (4) 그들은 서로 목을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

15. ㉠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중히 여긴 이유는 무엇인가? (34절)

- ㉠ (1) 고대 애굽 사회에는 직업에 대한 신분 구분이 매우 엄격하였다.
- (2) 애굽인들은 특별히 목축업을 매우 천시하여 목축업에 종사하는 유목민들과는 함께 거주하는 것조차 꺼려했다.
- (3) 그 이유는 유목민들이 애굽인들에게 신성시 되는 짐승을 죽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 (4) 또한 애굽은 완전한 농경 사회로서 다른 직업인 목축에 대해서 천시하는 풍조가 있었으며 애굽이 주로 유목민들에게 침공을 받았던 사실은 이 천시의 풍조를 심화시켰다.
- (5) 이러한 애굽의 풍조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인들과 구별되어 살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종교적 순수성을 수호하는 데에 기여했다.
- (6)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위하여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된다.

16. ㉠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신 사실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 ㉠ (1) 애굽은 당시 근동 지방의 중심지였고 문화적인 면에서 발전의 첨단을 걷고 있었던 반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지역이었다.
- (2) 이러한 애굽에 노예로 팔린 요셉을 통해 이주한 70명의 야곱 가족이 400여 년 후 6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한 것은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 (3) 즉 야곱 가정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 말미암았다.
- (4) 이러한 애굽에 한낱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일약 총리가 되어 기근으로 죽을 위기에 있던 그의 가족 70명을 구원하여 애굽으로 인도한 과정은 매우 오묘하다.
- (5) 뿐만 아니라 후일 나약한 노예 민족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막강한 애굽의 권세를 파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 놀라움다.
- (6) 결국 애굽으로 이주한 후 60만의 민족을 형성하여 출애굽하기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는 약자를 들어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좋은 예이다 (고전 1:26-28).

본장의 요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30절).

연구자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요셉

이스라엘 족장 중 한 사람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37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본서의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이어진다. 그의 삶은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로 엮어져 있으며 파란 만장(波瀾萬丈)하였다. 그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사실은 그가 슬한 역경 가운데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과 그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에 의해서 이끌려졌다는 점이다. 한편 요셉에 관한 기사 중에서 성경의 다른 기사와 뚜렷이 구별되는 점은 한 사람의 생애, 즉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임종시까지의 삶이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의 생애를 뚜렷이 구별되는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유년기의 요셉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열 한번째 아들로 태어났다(30:24). 그의 어머니는 네 명의 아내 중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며 동생은 베냐민이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가장 사랑했는데 그러한 사실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힌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37:3). 이러한 아버지의 편애(偏愛) 때문에 요셉은 자기 형들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다(37:4). 또한 그는 자기가 형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오를 것이라는 계시적인 꿈을 두 번씩이나 꾸었으므로(37:7,9)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37:8).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그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도단으로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가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였으나 결국 이스마엘 족속의 대상(隊商)들에게 은 20세겔에 팔린 후 다시 애굽의 시위대장(侍衛隊長) 보디발에게 팔렸다(37:36). 그런데 이 당시에는 노예 매매가 널리 성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이야기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2. 청년기의 요셉

보디발의 집에 팔려 간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향기를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나타내었으며 그로 인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다스릴 가정 총무가 되었다. 이러한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39:5). 이처럼 요셉의 지위가 보디발의 가정에서 확고히 굳혀져 갈 때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련이 닥쳐왔다. 즉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증언에 의해서 무고(誣告)히 옥 생활을 감내(堪耐)해야만 했다(39:8-20). 그렇지만 요셉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곳 생활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처신했다. 그 결과 그는 전옥(典獄)으로부터 옥중 죄수들을 다스릴 뿐 아니라 그 제반 사무를 처리할 임무를 부여받았다(39:22). 한편 요셉의 신분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들만 가두는 옥에 갇힌 것은 아마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시위대장이었기 때문인 것 같다(참조, 40:3). 그렇지만 종의 신분
을 가진 요셉이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곳에 갇히게 되었을 뿐 아
니라 왕의 죄수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 자체만
보아도 우리는 그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

3. 애굽의 치리자(治理者)로서의 요셉

요셉이 28세 되던 해에 그 감옥에 바로의 떡 굶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되어 요셉은 그들의 수종(隨從)을 듣게
되었다(40:4). 그러던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꿈을 2차례 꾸게 되
었는데, 그들의 꿈을 요셉이 해몽하였다. 그리고 그의 해몽대로
그 꿈의 내용은 성취되었다. 그 후 요셉의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하룻밤에 같은 내용의 꿈을 2차례 꾸게 되어 애
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 해몽하게 했지만 능히 해석할
자가 없었다. 이때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장
이 바로에게 요셉 이야기를 했다. 이리하여 요셉은 바로 앞에 서
서 그의 꿈을 해몽하게 되었으며 바로는 그를 애굽 온 땅을 총리
하는 치리자로 삼았다(40:40-43). 요셉의 해몽대로 애굽 땅에는
기근이 찾아왔으며 야곱과 그의 가족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도
심한 기근이 시작되었다. 기근의 해가 거듭되자 야곱의 가정은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어 요셉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
서 야곱은 요셉의 요청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 중에
서도 가장 기름진 고센 땅에 거하게 되었으며(47:6, 27) 극심한
7년의 기근 동안 평안히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
을 뿐만 아니라 무고히 투옥되는 등의 슬한 슬픔과 고통을 당하
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던 몽조(夢兆)대로 마침내 자기
형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으며 동시에 극한 기근으로부터 자기
의 가족을 구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을 죽음의 그늘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통해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
러한 의미에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요셉
의 전생애가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되어야 했듯이 그리
스도께서도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온전히 헌신
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45:5)라고 고백했
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로(마 1:21) 또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
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로(눅 1:79), 그리고 '세상 죄
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요 1:29) 보내심을 받았던 것
이다. 오늘날은 물질 문명의 팽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
의적 사고 방식에 젖어 자기 회생을 감수하는 자들을 비웃게 되
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세상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점점 접어들

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오스 구니스는 '제 3의 종족'이라는 책에서 서구 문명이 사양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제 3의 종족인 그리스도인들이 제 3의 방법, 즉 역사적인 기독교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역사적인 기독교란 간단하게 말해서 사도적인 신앙을 이어받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요셉에 대한 성경의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의 눈을 단순히 위대한 한 족장의 신앙을 통한 승리에만 고정시키지 말고 그가 몸소 실천했던 위대한 희생 정신으로까지 확장시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활 태도를 벗어 버려야 한다. 이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눅 17:33)라고 말씀하신 생활 원리인 것이다.

4. 그리스도를 예표한 요셉

요셉의 생애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① 요셉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다(37:3; 마 3:17). ② 죄없는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렸듯이 죄없으신 그리스도께서도 미움을 받고 팔리셨다(37:4-8; 요 15:24, 25). ③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살해하려고 했으며 상징적으로 죽였다(37:18-24; 마 26:3-27). 이 외에도 재판 없이 투옥된 요셉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감옥에서 두 사람의 죄수 틈에 끼인 요셉과 십자가에서 두 사람의 강도 사이에 끼인 예수 그리스도 등과 같은 예표적인 사건들이 있다. ④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하듯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다시 살게 된 요셉(37:28; 마 28:1-9). ⑤ 요셉은 자신으로 말미암은 큰 축복을 형제들에게 베푼 후에 형제들과 화해하였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유대인들 사이도 이렇게 되었다(45:1-47:11; 호 2:14-18; 롬 11:1, 15, 25, 26). 이러한 사건들 외에도 애굽 전체 뿐만 아니라 인근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흉년으로부터 구한 요셉은 인류를 죄악에서 구해내신 그리스도와 아주 흡사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요셉의 활동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 47 장 바로 앞에 선 야곱

단락구분 1-6 요셉이 형 다섯을 바로에게 보이다 / 7-10 바로 앞에 선 야곱 / 11-12 요셉이 땅과 음식을 주어 가족을 부양하다 / 13-22 요셉이 시행한 토지 정책 / 23-26 요셉이 세운 남세 제도 / 27-31 가나안 땅에 묻히기 원하는 야곱의 유언

1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2 형들 중 요셉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3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나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대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4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5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6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7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8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9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 삼십 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0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11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12 또 그 아버지와 형들과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제하였더라

13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14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물수이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15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진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진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16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진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17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 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18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19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니이다

20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물려서 각기 전지를 팔아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21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뉘였으나

22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으므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23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24 추수의 오분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사본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25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26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오분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니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27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28 야곱이 애굽 땅에 심 칠 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일백 삼십 칠 세라

29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
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
뿔 아래 놓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
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30 내가 조상들과 함께 늙거든 너는 나를 애

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
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1. ㉠ 본장의 주제를 말하라.

- ㉠ (1) 본장에는 야곱과 그의 가족이 바로의 배려로 애굽에서 평화롭게 살게 되었으며 요셉의
선정에 의해 애굽이 부강한 나라가 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2) 이러한 본장의 사건들은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애굽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
리와 출애굽을 위한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2. ㉡ 요셉이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해 바로와 만나게 한 사실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절)

- ㉡ (1)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바로에게 소개할 수 있었으나 당시 애굽인들이 가장 의
미있는 수자로 생각하던 '5'에 해당하는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소개하였다(비고,
43:34).
(2) 이러한 행위에서 우리는 요셉이 용의 주도(用意周到)하며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활에 적용시켰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3) 하나님은 스스로 할 일을 포기한 자는 결코 돕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주인으로부터 받
은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슬픈 운명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마 25:26-30).
(4) 반면에 스스로 부여받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였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운분(運分)의
보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 위에 더 많은 것을 받아 풍족케 되었다(마 25:29).
(5)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며 그의 가족들을 구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능
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서 근면하게 자기 일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6) 성경에는 요셉 이외에도 근면과 성실로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함으로 세상에서 높아진
예가 많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로보암과(왕상 11:28) 모르드개와(에 6:11) 다니엘
(단 2:48;5:29;6:2) 및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단 3:30) 등이다.

3. ㉢ 요셉의 형들은 바로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4절)

- ㉢ (1) 그들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여 애굽 땅에 우거(寓居)하러 왔다고 하면서 고센에 거주
할 수 있기를 정식으로 바로에게 요청했다.
(2) 이러한 요셉 형제들의 요청 속에는 그들이 고센 땅에서 영주(永住)하겠다는 것이 아
니라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머물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3) 본절의 '우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글>이 '잠시 동안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
다는 사실은 위와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참조, 12:10;20:1;35:27 등).
(4) Modern Language Bible은 '우리들은 잠시 살기 위해 이곳에 왔읍니다'(we have
come to live here temporarily)라고 번역함으로써 이 뜻을 분명히 하였다.
(5) 공동 번역도 '저희들은 이 땅에 좀 머물 수 있을까 해서 왔읍니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6) 여기서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하여 주신 가
나안 회복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15:16;28:15;46:4).

4. ㉣ 바로는 요셉의 형들의 요구에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5,6절)

- ㉣ (1) 바로는 야곱과 그 가족들이 좋은 땅을 골라 거주하도록 쾌히 승락하였다.
(2) 또한 그들 중에 능한 자는 왕실(王室)의 가축을 주관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바로가
요셉의 형들을 크게 신임하여 큰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의미한다.

(3) 바로는 그가 요셉을 인정한 것처럼 요셉의 형들에게도 호의를 베풀었다.

(4) 결국 요셉의 높아짐으로 그 혜택이 형제들에게 미친 셈인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높아짐은 그가 형제로 삼아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된다(빌3:21).

5. **㉠** 야곱은 바로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7, 10절)

㉠ (1) 야곱은 바로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다.

(2) 이것은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 의식을 갖고 바로에게 축복을 선언한 것이다.

(3) 이때 야곱은 바로가 그 동안 요셉을 잘 돌봐 준 것과(41:40) 공식적인 초청(45:18) 그리고 친절한 땅의 분배 등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4) 그러므로 야곱은 왕궁에 들어갈 때에 축복하였듯이(7절) 왕궁을 나갈 때에도 축복하였다(10절).

6. **㉠**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는데 과연 인간이 인간에게 축복할 수 있는가? (7절)

㉠ (1)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축복은 천지 창조를 마친 신 하나님에 의하여 이뤄졌다(1:22, 23). 하나님에 의한 축복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12:1-3; 신 23:5; 삼하 7:29; 시 24:5; 129:8; 133:3; 잠 10:22).

(2)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기원하는 축복, 즉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구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27:4, 27-29).

(3) 구약의 족장(族長) 시대에는 축복권이 족장의 고유한 권리로 확립되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 반면에 족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인정과 허락에 의해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4) 또한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서로 축복을 비는 문구(文句)가 평상시(平常時)의 인사로 사용되기도 했다(삼상 25:5, 6, 14; 왕하 4:29). 그러나 이런 인사에는 하나님에 의한 적극적인 축복의 의미가 없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전제하지 않고 인간끼리만 서로 복을 비는 것은 실상 우정과 호감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5) 인간을 향한 성도의 축복은 오늘날 신약 교회에서도 적용된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교훈에 있어서 적극적인 실천 사항이기도 하다(참조, 눅 2:34; 롬 12:14; 고전 4:12; 10:16; 14:16). 더우기 신약은 구약의 축복의 개념을 진일보(進一步)시켜 원수까지 축복하여야 한다고 교훈한다(롬 12:14).

(6) 이와 같이 성경의 전반적인 사상을 종합해 볼 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타인(他人)을 축복하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 또한 정당했다. 당시 바로는 야곱의 가족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고 야곱은 이에 적합한 축복을 바로에게 하였던 것이다.

7. **㉠**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무엇으로 묘사했는가? (9절)

㉠ (1) 야곱은 그 자신의 생애와 그의 조상들의 생애를 '나그네 길'이라고 묘사했다.

(2)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으나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정처 없이 방황하였기 때문이다.

(3) 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현은 피조물인 인간이 지상에서 참된 휴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영적 평안을 갈구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생활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다(참조, 삼상 29:15; 시 39:13; 119:16, 54).

(4) 이러한 사실에 우리는 족장들이 겪은 인생에 대한 번민과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대한 대망(待望)을 엿볼 수 있다(히 11:13-16).

(5) 성도들도 이와 같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써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

8. **㉠** 야곱은 자기 나이를 몇 살이라고 밝혔는가? (9절)

- ㉠** (1) 그는 그의 나이를 130세라고 밝히면서 비록 자기 조상들보다 짧게 살았으나(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2) 그런데 이 말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 당시 야곱은 죽음에 임박하였음을 느꼈던 것 같다.
 (3) 그러나 그는 이 말을 한 후 17년이나 더 살고 147세에 죽었다(28절).
 (4) 전에 그의 부친 이삭도 자기가 일찍 죽을 것을 예측하였지만(27:1, 2) 그 후 43년이나 더 살고 180세에 죽었다.
 (5) 이처럼 우리 인생은 자신의 종말에 대하여 결코 바로 알지 못한다. 단지 자신의 연합을 시인하고 남은 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참조, 시 39:4, 5; 약 4:14).

9. **㉠** 야곱과 그 가족이 바로에게 받은 기업은 무엇인가? (11절)

- ㉠** (1) 애굽의 좋은 땅 라암세스를 기업으로 받았다.
 (2) 라암세스는 고센 지역의 다른 이름으로 모세 시대의 지명이다(출 1:11).
 (3) 그런데 여기서 고센이 '라암세스'라고 표기된 것은 모세가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였다.
 (4) 한편 이 라암세스는 좁은 의미로는 고센 땅에 세워진 한 국고성의 명칭이기도 하다.

10. **㉠** 애굽 백성은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15-17절)

- ㉠** (1) 그들은 요셉에게 모든 짐승들을 이끌고 와서 곡식으로 바꾸어 갔다.
 (2) 즉 백성들은 당시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짐승들의 먹이인 커녕 자신들의 먹은 양식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3) 그래서 그들은 돈 대신 말, 양, 소, 나귀 등을 요셉에게 바치고 곡식을 얻었다.
 (4) 이러한 일은 기근 6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 사건이다.
 (5) 이처럼 요셉이 곡식을 무상(無償)으로 배급하지 않고 가축과 교환한 것은 백성들의 자립심과 훗날의 사회 질서를 위해서 매우 현명한 정책이었다.

11. **㉠** 돈과 짐승이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되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18, 19절)

- ㉠** (1) 7년 기근의 마지막 해가 되자 돈과 짐승마저 떨어진 백성들은 이제는 자기들의 몸과 토지를 요셉에게 바치고 곡식을 얻어 갔다.
 (2) 이로써 애굽의 모든 돈과 가축과 토지가 왕의 소유가 되었으며 백성들은 왕의 종, 즉 소작인(小作人)이 되고 말았다.
 (3) 이러한 애굽 토지의 국유화 정책은 바로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는 한편 백성의 빈부 차이를 좁히게 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 좋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국가적 위기와 난국은 오히려 더 견고한 안정과 질서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12. **㉠** 요셉은 왜 제사장의 토지는 사들이지 않았는가? (22절)

- ㉠** (1)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祿)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서 '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크>는 '양식으로 주는 일정한 액수의 보수'를 의미한다(참조, 잠 30:8; 겔 16:27).
 (2) 이처럼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직접 급료를 받았으므로 식량을 얻기 위하여 땅을 팔 이유가 없었으며 국가의 입장에서 그 땅을 구매하는 것이 무의미했다.
 (3) 여기서 제사장이란 태양 신 '라' (Ra)를 주신(主神)으로 한 잡다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4) 당시 애굽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제사장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다.

13. **㉠** 요셉은 바로의 토지를 경작한 백성들에게 얼마의 세금을 내도록 했는가?(24-26절)
- ㉡** (1) 추수한 곡물의 5분의 1을 바치게 하였다.
 (2) 이것은 수확량의 2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작인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 양이었다.
 (3) 그러므로 요셉의 세금 징수가 백성들에게 부담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4) 사실 이때 모든 토지가 국가의 소유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요셉의 조세 정책은 매우 너그러웠던 사실을 알 수 있다.
14. **㉠**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종이 되겠나이다'는 백성들의 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5절)
- ㉡** (1) 당시 요셉은 애굽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 조직을 정비하였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2)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 자립 능력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3) 이런 경우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피보호자와 보호자의 관계이었으며 약탈당하는 자와 수탈자(収奪者)와의 관계는 아니었다.
 (4) 이러한 당시 상황 속에서 애굽 백성들은 요셉의 선정(善政)에 감복하여 그의 종이 되기를 스스로 제안한 것이다.
 (5) 이와 같은 자발적인 주종 관계(主從關係)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후 9:7).
15. **㉠** 요셉이 세운 애굽 토지법을 설명하라(26절).
- ㉡** (1) 요셉이 세운 애굽 토지법은 다음의 3가지 내용을 그 골자로 한다.
 ① 모든 토지의 소유권자는 애굽 왕이다.
 ② 단 예외로 제사장 계급은 일부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있었다.
 ③ 백성은 왕의 토지를 경작한 후 토지 소산의 오분의 일을 세금으로 바쳐야 한다.
 (2) 이러한 내용은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서도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
 (3) 즉 그리이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투스(Herodotus, B. C. 484-425?)는 세소스트리스(Sesostris)가 애굽의 토지를 공평하게 분할하여 매년 소출에서 세금을 징수하였다고 기록하여 (1) - ③의 사실을 입증하였다.
 (4) 또한 B. C. 1세기 말에 살았던 시실리아의 역사가 디오도루스 시쿠르스(Diodorus Siculus)는 '애굽의 토지는 제사장, 왕, 또는 군 지휘관에게 속해 있었다'고 밝힘으로 (1) - ②를 뒷받침하였다.
 (5) 그런데 여기서 '군 지휘관'이 포함된 것은 요셉 후대에 바로가 전공(戰功)을 세운 전사(戰士)들에게도 토지를 봉토(封土)로 분배하였던 사실에서 기인한다.
16. **㉠** 야곱의 나이에 따라 그의 생애를 요약하라(28절).
- ㉡** (1) 야곱의 일생을 그의 나이와 더불어 생각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2) 왜냐하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3) 다음에 제시하는 야곱의 일대기(一代記)는 루터(M. Luther)의 계산에 따른 것이다.
 (4) 즉 그는 가나안에서 77세 때에 맞단아람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결혼했으며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5) 그 후 가나안에서 33년을 지내다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17년을 더 살았으므로 그의 수명은 147세가 되는 것이다.
17. **㉠** 야곱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한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29절)

- Ⓐ (1)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까지도 약속의 보증이 된다는 의미로 행해지던 맹세의 의식이었다.
- (2) 이때 야곱은 앞으로 되어질 일, 즉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맹세의 의식을 행했던 것이다.
18. ⓐ 야곱이 죽을 기한이 가까왔을 때 요셉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 (29-31절)
- Ⓐ (1) 이스라엘(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 고센 땅에 거한 지 17년이 흘렀다. 즉 130세에 애굽에 내려왔는데 지금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되었다.
- (2) 그는 자기의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자신이 죽으면 시체를 선영들의 무덤에 함께 장사해 주기를 요셉에게 당부하였다.
- (3) 여기 선영(先塋)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을 의미한다(23:1-20).
- (4) 그의 이러한 부탁은 가나안 땅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신앙에 근거한 것이다.
- (5) 즉 야곱은 그의 후손들이 언젠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의 주권을 차지할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이다(참조, 15:12-21; 23:4).
- (6) 이러한 야곱의 놀라운 신앙은 메시아 재림의 대망(待望)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료

매매로 인한 노예. 구약 성경에서 보통 사람이 노예로 되는 경우를 전쟁 포로, 매매, 채무 불이행, 증여, 상속, 그리고 출생에 의한 것으로 언급한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전쟁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된 경우인데,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 획득을 위해 군사 정복을 시도했다. 여기서는 요셉이 대상(隊商)들에게 팔려 다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39장)과 연관지어 매매로 인한 노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구약은 이방인이 노예로 매매될 수 있으며 사유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다(레 25:44-46). 그러한 노예들의 가격은 출 21:32에 의하면 30세겔로 언급되어 있지만 레 27:3-7에는 노예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3세겔로부터 50세겔에 이르는 가격차가 기록되어 있다. 그중에서 젊은이에 대한 가격은 20세겔인데, 이 가격은 요셉이 팔릴 때의 가격이기도 하다(37:28). 한편 어린이들은 조건적인 계약을 맺고 노예로 팔렸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의 경우에 훨씬 더 빈번하게 적용되었다. 그 한 예로 어떤 남자가 그의 딸을 팔면 그녀는 성숙해질 때 주인 또는 그 아들의 처나 첩이 되어야 하며 그 집의 어떤 남자도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녀는 속량금을 내지 않고도 해방될 수 있었다(출 21장). 이를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 사회에서도 인신 매매(人身賣買)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 48 장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

단락구분 1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문병하다 / 2-4 가나안 약속의 전승(傳承) / 5-20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야곱의 축복 / 21-22 야곱이 요셉에게 두 배의 상속권을 주다

1 이 일 후에 흑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2 흑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3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4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고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5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6 이들 후의 네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7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임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임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임은 곧 베들레헴이라)

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9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10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11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12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끌

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13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14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차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없었더라

15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으며 이들로 내 이튿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튿날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7 요셉이 그 아버지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8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19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이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20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2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22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 (1) 본장은 전장(前章)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 (2) 여기서 야곱은 자신의 매장에 대한 명령(47장)과 더불어 손자들에게 축복을 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
- (3) 즉 그는 죽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그의 후손을 통하여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본장의 내용을 통하여 한 인간 야곱이 죽어가는 대신 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탄생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2. **㉠** ‘이 일 후에’란 언제를 말하는가? (1절)

㉠ (1) ‘이 일’은 전장(前章)의 내용 중 47:29의 사건을 말한다.

- (2) 즉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요셉을 불러 자신이 죽은 후의 문제를 부탁한 사건이 있는 후를 말한다.

3. **㉠** ‘혹’ (或)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절)

㉠ (1) 개역 성경 등 대부분의 성경들(KJV, NIV, RSV)은 ‘혹’ (one)과 같은 비인칭 주어를 사용하여 ‘어떤 사람’이 야곱의 위독함을 요셉에게 알렸다고 번역했다.

- (2) 그러나 당시 요셉은 애굽의 제 2인자로서 큰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또 야곱의 병세도 위독했으므로 그는 특별한 사자(使者)를 아버지 곁에 고정 배치해 놓았던 것 같다.
- (3) 어떤 학자는 이 사자가 ‘에브라임’이었다고 주장하나 근거 없는 견해이다(Rashi).

4. **㉠** 요셉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온 목적은 무엇인가? (1절)

㉠ (1) 당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나이가 18세나 20세쯤 되었을 것이다.

- (2) 요셉은 죽음을 앞둔 연로(年老)한 할아버지를 뵈게 하기 위해 그들을 데려온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었지만 아울러 언약의 족장인 부친을 통해 그들도 ‘이스라엘 가정의 일원’이라는 보증을 받으려는 목적도 있었다.
- (3) 사실 그들은 애굽 여인의 소생이었으므로 이러한 확증이 필요했던 것이다.
- (4) 한편 야곱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 (5)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방에서 생활할 그의 후손들을 보살피 주시고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이 말을 하였던 것이다.

5. **㉠**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야곱의 말은 어떤 의미인가? (3, 4절)

㉠ (1)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에게 계승시키려고 한 말이다(28:10-19; 35:6-13).

- (2)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6. **㉠**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한 야곱의 말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5절)

㉠ (1)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은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41:45-52).

- (2) 당시 요셉은 애굽의 피가 섞인 자기의 두 아들이 야곱 가계(家系)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지를 우려하였던 것 같다.

- (3) 그러나 야곱이 그 두 소년에 관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고 선포한 말은 그러한 요셉의 의구심(疑懼心)을 말끔히 씻어 주기에 충분했다.

- (4) Living Bible은 이 말을 ‘나는 그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나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라고 의역하였다.

- (5) 이러한 야곱의 예언은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친 아들과 같이 취급되었으며 또한 각기 한 지파로 인정받아서 가나안 땅의 분할에도 동참하게 되었다(참조, 민 1:1-16; 신 34:2).

7. **㉠** 야곱과 문병 온 요셉의 대화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8-11절)

㉠ (1)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야곱과 요셉의 대화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

적인 대화였다.

- (2) 즉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야곱에게 말했으며 (9절) 야곱은 두 손자를 보게 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였다 (11절).
- (3) 성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이다.

8. **㉠** 이스라엘이 두 손자에게 입을 맞춘 사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10절)

- ㉠** (1) 이 입맞춤은 단순한 부성애(父性愛)의 표현 이상의 뜻을 지닌다.
- (2) 즉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참조, 삼상 10:1).
- (3) 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 전에 입을 맞추고 그의 몸 냄새를 맡았었는데 (27:26, 27) 이것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9. **㉠** 두 손자를 바라보던 이스라엘은 어떤 말을 하였는가? (11절)

- ㉠** (1) 그는 요셉을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所生)까지 보이셨도다' 라고 말하였다.
- (2) 사실 야곱은 한 때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괴로워하면서 요셉을 다시는 못볼 것으로 생각하였었다(37:33-35).
- (3) 그러던 그가 뜻밖에 위대한 인물로 성공한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45:27,28;46:29,30) 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 즉 손자까지 보게 되었으니 그의 기쁨은 대단했던 것이다.
- (4) 이때의 기쁨에 대하여 야곱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5)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축복까지 넘치게 채워 주시는 분이로 영광을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엡 3:20, 21).

10. **㉠** 요셉은 그의 두 아들을 어떻게 야곱에게로 인도하였는가? (13절)

- ㉠** (1) 그는 장자 므낫세로 야곱의 오른손 쪽에, 에브라임을 왼손 쪽에 각각 위치하도록 하여 두 아들을 야곱에게로 인도하였다.
- (2)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오른쪽 또는 오른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 (3) 즉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며(욥 40:14; 시 45:4; 눅 6:6; 행 3:7) 또한 축복받을 자들의 공동체가 위치하는 방향을 의미하기도 했다(출 29:20; 질 21:22; 마 25:33).
- (4) 그밖에도 오른손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신 33:2; 시 89:13) 및 창조 의 권능을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사 48:13).
- (5) 그러므로 요셉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큰 의미를 지니는 오른손의 축복을 장자인 므낫세에게 돌리려고 그를 야곱의 오른쪽으로 인도하였던 것이다.

11. **㉠** 이스라엘(야곱)이 두 손자에게 축복한 내용을 말하라(14-20절).

- ㉠** (1) 요셉의 두 아들 중 므낫세는 장자(長子)이고 에브라임은 차자(次子)이다.
- (2)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왼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놓았으나 야곱은 손을 바꾸어 놓았다.
- (3) 요셉이 다시 야곱의 손을 바꾸어 놓으려 했을 때 야곱은 아우(에브라임)가 더 큰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을 예언하고 그대로 축복하였다.
- (4) 결국 야곱은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에게 더 많은 언약의 축복을 하였다.
- (5) 이때 요셉의 두 아들이 받은 축복의 내용은 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것과 ② 세상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이었다.
- (6) 결국 야곱의 두 손자가 받은 축복은 언약의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모든 축복을 다 포함하고 있다.

12. ㉠ 성경에는 안수(按手)에 대한 기록이 여러 번 나온다. 어떤 경우에 안수가 시행되었는지 유형별로 간략히 나누어 보라(14절).

- ㉠ (1) 모세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예배자가 번제나 속죄제의 제물을 가져올 때 그 희생되는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출 29:10; 레 1:4; 4:4, 24, 29, 33; 8:14; 민 8:10, 12). 이러한 행위는 예배자의 피를 희생물에게 전가(轉嫁)시키는 것이기도 하며 그 희생물을 특별하게, 즉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서 성별(聖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신성 모독자 또는 율법에 따라 죽을 죄를 진 자들을 온 회중이 들로 치기 전에 증인들의 손을 그 머리에 얹게 하였다. 이것은 공동체 위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그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의미를 갖는다(레 24:14).
- (3)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안수는 이 귀절과 같이 축복을 위하여도 시행되었다. 그리스도께서도 안수로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적이 있다(마 19:15; 막 10:13, 16). 또한 우리들에 대한 축복으로 제사장도 이 방법을 사용했으며(레 9:22) 그리스도의 승천시에도 축복의 안수가 실시되었다(눅 24:50).
- (4)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안수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와(막 5:23, 41) 제자들과(막 16:18) 바울(행 28:8)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 (5) 안수는 또한 성령의 은사를 전달하는 방법으로도 쓰였다(행 8:18, 19; 19:6).
- (6) 안수는 성직 수임식(授任式) 때에 시행되었다. 모세가 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임명하던 의식(민 27:18, 23; 신 34:9)과 신약 교회의 일곱 집사 임명(행 6:6)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위임(행 13:3) 때에 사용되었다.
- (7) 이와 같이 안수는 고대로부터 초대 교회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널리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안수는 축복과 치유, 은총과 새 능력받는 행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제도로 사용되었다.
- (8) 이러한 의미에서 안수의 사용은 정당하다. 그러나 안수하는 자의 능력에 의하여 그 행위가 효력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안수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인간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안수를 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13. ㉠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15절)

- ㉠ (1) 그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 (2) 그가 먼저 하나님을 조부와 부친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언약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다.
- (3) 또한 그는 자기를 길러 주신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
- (4) 즉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첫 출생부터 시작하여 죽기 직전인 당시의 그 시점까지 자기를 보호하셨음을 상기했던 것이다.
- (5) 또한 이 귀절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牧者)로 부른 첫 귀절이라고 볼 수 있다(참조, 시 23:1; 28:9).
- (6) 죽음을 앞에 두고 목자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는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차 누릴 영생을 소망하는 자 만큼 행복한 죽음을 예비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14. ㉠ 야곱이 차자(次子)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한 사실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가? (17, 18절)

- ㉠ (1) 사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가 축복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정작 야곱은 오른손으로 차자 에브라임을 축복함으로써 그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 (2) 여기서 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 이유는 확실치 않다.
- (3) 다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 (4)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도 실상은 어떤 합리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선택으로 이루어진다(엡 1:4).

15. **㉠** 야곱은 그의 후손이 가나안을 회복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21절). 이러한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였으므로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다.
- (2) 성경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갖는 유익에 대하여 기록한 귀절이 많다(민 14:8; 시 3:6; 20:7; 23:4; 27:3; 46:2; 사 12:2; 합 3:18).
- (3)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확신에 찬 신앙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 (4) 성도가 끊임없이 추구하여야 할 확신은 자신이 선택받았음(살전 1:4)과 하나님의 양자(養子) 됨(엡 1:4, 5)과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고전 6:15)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다(요일 5:13). 이러한 확신은 성도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줄 것이다(롬 5:1).
- (5) 이러한 확신은 먼저 말씀을 믿는데서 온다(살전 2:13).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롬 10:9, 10), 약속 위에 굳게 서게 되며(요 10:28-30), 영을 추구하고(벧전 2:2), 은혜 안에 성장하며(벧후 1:5-11), 삶의 변화를 깨닫고(고후 5:17; 요일 3:14-22),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며(롬 15:12, 13; 빌 4:7),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요일 5:4, 5), 성령의 증거를 받음으로(롬 8:15, 16) 절대적인 확신에 이르게 된다(롬 8:33-39; 딤후 1:12).

16. **㉠**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다'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22절)

- ㉠** (1) 가나안 정복 후 레위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11아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 (2) 그중에 요셉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를 형성하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받은 셈이다.
- (3) 야곱은 바로 이러한 미래의 사실을 예언자적 통찰력으로 요셉에게 알려 주었던 것이다.

17. **㉠**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기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1) 성장기(成長期)의 야곱은 그의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간사하고 교활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생활로 일관(一貫)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5:31-34; 27:1-29; 30:37-43; 32:6-8, 13-20). 이러한 그의 성격은 그의 형 에서는와는 달리 조용하게 장막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 (2) 그렇지만 그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고집스럽게 어려움을 참고 극복하는 면을 보여 주기도 했다(25:26; 29:15-30; 32:24-32).
- (3)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와 같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축복하셨다(35:9-15).
- (4) 물론 그는 자기가 행했던 간사한 속임수에 대한 대가(代價)를 톡톡히 치루었다(29:21-30; 32:7; 34장; 37:31-35).
- (5)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시었으니 그는 겸손해졌을 뿐 아니라 진실로 밝은 신령한 눈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이다(참조, 47:9).
- (6) 이처럼 성화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두 아이의 장래를 분명히 내다보고 축복할 수 있었다(19절).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그의 영감(inspiration, 靈感)은 자기의 열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도 뚜렷이 나타났었다(50:1-28).
- (7)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 즉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사 당신의 뜻에 합당한 인격으로 변화시키신다.

제 49 장 열 두 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

단락구분 1-2 임종을 앞둔 야곱이 열 두 아들들 부름 / 3-4 르우벤 지파에 대하여 / 5-7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대하여 / 8-12 유다 지파에 대하여 / 13 스불론 지파에 대하여 / 14-15 잇사갈 지파에 대하여 / 16-18 단 지파에 대하여 / 19 갓 지파에 대하여 / 20 아셀 지파에 대하여 / 21 납달리 지파에 대하여 / 22-26 요셉의 후손들에 대하여 / 27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 28-33 야곱의 유언과 죽음

1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이다

3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5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6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다

7 그 노엽이 흑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도다

8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도다

9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옆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 흠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도다

11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도다

12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도다

13 스불론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도다

14 잇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꿰어 앉은 긴장한 나귀로다

15 그는 실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16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도다

17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도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로 뒤에 떨어지게 하리도다

18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19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도다

20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개하리도다

21 납달리는 농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22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결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3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24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25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찢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26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27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뼈 앓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도다

28 이들은 이스라엘의 십이 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29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헛 사람 예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30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1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
 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

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32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33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진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1. **㉠** 본장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를 말하라.

- ㉠** (1) 야곱이 임종에 이르러 12아들에게 그들의 앞날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 (2) 이 예언은 훗날에 모두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졌다.
- (3) 이제 본장에 기록된 야곱의 죽음으로 족장 시대는 막을 내리고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선민 역사가 새롭게 전개되어진다.

2. **㉡** 야곱은 왜 임종 때가 되어서 예언을 하였는가? (1절)

- ㉡** (1) 본장 전체는 임종을 눈앞에 둔 야곱의 예언으로 되어 있다. 노아도 그의 임종이 다가왔을 때 자손들에 대한 예언을 하였다(9:25 이하).
- (2) 임종을 눈앞에 둔 사람의 말은 생존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따라서 그 말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또한 이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다.
- (3) 그러나 야곱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편적인 경우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의 예언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4) 결국 하나님은 야곱이 임종을 맞이한 가장 약한 때에 그를 들어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다. 즉 야곱은 가장 약한 중에도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완전한 예언을 하였다.
- (5) 아무리 약해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능력의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한없이 강한 존재로 나타날 수 있다(고후 12:9, 10).

3. **㉢**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가? (3-28절)

- ㉢** (1) 야곱이 12아들에 대한 예언의 순서는 정확하게 나이 순서대로 된 것은 아니다.
- (2) 그들은 먼저 모계(母系)에 의하여 분류된 다음 그 모계 안에서 나이 순서대로 예언을 받았다.
- (3) 즉 3-15절은 레아의 6아들에 대하여, 16-21절은 야곱의 두 첩(빌하와 실바)의 아들에 대하여 그리고 22-27절은 라헬의 두 아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4. **㉣** 르우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무엇인가? (3, 4절)

- ㉣** (1) 르우벤은 야곱의 장남으로서 장자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들이 있었다.
- (2) 그러나 그는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통간(通姦)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의 특권을 상실하였다(35:22).
- (3)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탁월치 못하다는 예언을 받았다.
- (4) 후에 르우벤의 후손인 나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민 16장; 신 11:6; 시 106:17).
- (5) 결국 르우벤의 가져야 할 장자권적 주도권은 유다에게로 옮겨졌으며 장자가 상속받아야 할 상속의 축복은 요셉이 대신 받게 되었다(48:22; 대상 5:1, 2).

5. **㉤** 시므온과 레위가 받은 예언은 무엇인가? (5-7절)

- ㉤** (1) 시므온과 레위는 동일한 부모의 피를 받은 형제이며 그들의 행동 양식도 비슷하였다.
- (2) 이들은 동생 디나의 사건 때 세겟인들을 대량 학살하고 약탈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들의 잔인성을 보이기도 했다(34:25-31).

(3) 이들이 받은 예언은 야곱 족속 중에서 흠어지는 저주였다.

(4) 이 예언대로 후에 시므온 지파의 수는 가장 적었으며 (민 26:14), 레위 지파는 전국에 흠어져 살게 되었다 (수 21:1, 40).

6. **㉠**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 가운데 그들의 잔인성이 지적되었다. 잔인한 자가 겪게 되는 삶의 형태를 말하라 (5-7절).

㉠ (1) 시므온과 레위는 세겟인의 학살 사건의 주동자였다. 그들은 누이 디나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였다 (34장).

(2) 이와 같은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들의 과도한 복수는 인명(人命)을 경시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잔인성을 표출(表出)한 것이다.

(3) 그들의 행위는 아버지 야곱을 근심케 하였다 (34:30). 야곱은 죽기 전에 행한 마지막 예언에서도 이 사건을 회상하고 그들에게 임할 진노를 강조했다 (7절).

(4) 성경에는 시므온과 레위 이외에도 잔인한 행동을 한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 애굽 왕 (출 1:22)과 아도니 베섹을 징벌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삿 1:6, 7)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욕한 암몬 사람 나하스 (삿 9:2)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삼상 11:2; 삼하 12:31; 왕하 25:7; 렘 38:6; 단 3:20; 행 16:24; 27:42 등).

(5) 성경은 이러한 자가 반드시 정죄(定罪)를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잠 12:1). 그러나 예수께서는 잔인한 행동을 피할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적극적인 선을 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마 5:38-48).

7. **㉠** 성도들이 지상(地上)에서 생활할 때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악인(惡人)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6절)

㉠ (1)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수하게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선을 확장시켜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히 3:13).

(2)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성도들은 악한 자로 하여금 그 길을 돌이켜 선에 이르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롬 16:17).

(3) 그러나 그와 같은 선한 권고를 끝내 거부하는 자들도 많다 (속 7:11). 그들은 영적인 귀머거리로서 선한 권고를 청종(聽從)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딤후 4:4).

(4)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요일 3:10). 성도들은 이런 자를 용납하여서는 안 되며 그들과 분리함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전 5:11).

8. **㉠** 유다가 받은 예언은 무엇인가? (8-12절)

㉠ (1)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

(2)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 예언은 유다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찬란하게 성취되었다.

(3) 또 '유다의 아비의 아들들이 유다 앞에서 절하리라'는 이 예언은 유다의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함으로써 완전히 성취되었다.

(4) '유다는 새끼 사자로다' 이것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이 수행할 정복 사업에 대한 예언이다. 또한 유다 자손 중 메시아가 나타나서 원수들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5) '흠(笏)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흠은 왕권의 상징이다. 이 예언대로 유다의 후손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모아서 하나의 통일된 나라로 만들었으며 견고한 왕권을 확립하였으며 후손에게 왕권을 계승시켰다.

(6) 결국 이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출생하심으로써 구속사의 흐름은 그 절정에 이르게 하였다.

9. **㉠** '실로'를 '메시아'로 이해하는 데 대한 성경의 근거를 밝혀라 (10절).

- (A)** (1) 실로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는 설명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 말은 메시아에 대한 암시로 이해되어 왔다. 성경에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 정황(情況) 증거가 있다.

(2) 민 24:9, 17, 24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사자(獅子)로 비유하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고 한 것이 49:9, 10에 있는 야곱의 예언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이 있다. 이와 같은 해석 방법을 취할 때 ‘실로’는 ‘메시아’이다.

(3) 대상 28:4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하였다. 여기에서 왕을 메시아의 예시(豫示)로 보고(참조, 히 1:15) 실로와 동일시하는 해석이 있다. 그리고 시 60:7에서 다윗이 노래한 ‘유다는 나의 흙이며’라는 귀절도 실로와 더불어 메시아에 대한 암시로 본다.

(4) 예언자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평강’ 또는 ‘안식’이라고 부른 적이 많다. 여기서 ‘실로’가 ‘안전하다’, ‘편안하다’는 뜻을 가진 <찰라>에서 유래했다고 가정한다면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 사 2:2-4; 9:5; 미 4:1-4; 숙 9:10).

10. C 스킨론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무엇인가? (13절)

- (A)** (1) 해변에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2) 이 예언대로 스킨론 지파는 후에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거주했다(수 19:10-16).

11. C 잇사갈에 대한 예언은 무엇인가? (14, 15절)

- (A)** (1) 잇사갈은 건장한 나귀로 비유되었다.

(2) 후에 잇사갈 지파는 일하는 나귀처럼 농사짓는 일에만 전념하였다.

(3) 또한 그들은 주로 육체적인 노동과 납세의 의무에 시달리며 피지배 계층에 머물렀다(참조, 신 20:11; 수 16:10).

12. C 단에 대한 예언은 무엇인가? (16-18절)

- (A)** (1)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예언은 후에 삼손에 의해 성취되었는데 삼손은 약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士師)로 지내면서 블레셋을 격퇴시켜 백성들의 안전을 도모했다(삿 16:31).

(2) 또한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이 예언의 해석은 단 지파가 남들을 해칠 것으로 보기도 하며 또한 계 7장을 근거로 하여 적그리스도가 이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을 말하기도 한다.

13. C 갓에 대한 예언은 무엇인가? (19절)

- (A)** (1) ‘갓은 군대의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이다.

(2) 이 예언에서는 갓 지파의 용감성이 드러난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 살면서 여러 차례 동방 족속의 침략을 받았으나 성공적으로 격퇴시켰다(신 33:20; 대상 5:18; 12:8-15).

14. C 아셀에 대한 예언은 무엇인가? (20절)

- (A)** (1)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珍羞)를 공취하리로다.’

(2) 이러한 예언은 후에 아셀 지파가 갈멜 산에서 베니게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였던 사실로 성취되었다.

(3) 즉 지중해 해변에 있는 이곳은 땅이 기름지고 소산이 풍부하였기 때문이다.

(4) 후에 솔로몬 왕은 여기서 생산되는 밀과 기름을 두로 왕 히람에게 공급하기도 했다(왕상 5:11).

15. C 납달리에 대한 예언은 무엇인가? (21절)

- (A)** (1) ‘납달리는 농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이다.

(2) ‘농인 암사슴’은 그의 후손이 민첩한 전사(戰士)가 될 것을 암시하며 ‘아름다운 소리

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응변과 노래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3) 이 예언처럼 납달리 지파는 전쟁에 승리하여 가나안 왕 야빈을 격퇴시켰다(삿 4, 5장).

16. **㉠** 요셉이 받은 예언은 무엇인가? (22-26절)

- ㉠** (1)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예언은 요셉의 가문(家門)이 항상 번창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 (2) 여기서 특별히 '무성한 가지'는 요셉의 후손으로 구성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누리게 될 영육간(靈肉間)의 축복을 상징하는 말이다.
- (3) '활쏘는 자'의 확대를 물리칠 정도로 강대할 것이다(23, 24절). 여기서 '활쏘는 자'는 외국의 대적들을 말하는 것이니 후에 므낫세 후손인 기드온은 활을 잘 쏘는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승리했다(삿 6, 7장).
- (4)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젓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을 것이다(25절). 이 말씀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이슬과 비와 햇빛 그리고 수원(水源)이 매우 풍부할 것과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것에 대한 예언이다.
- (5) 과연 가나안 정복 후 요셉 후손이 분배받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은 많은 자연 혜택을 받아서 풍부한 곡물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 (6) 이와 같이 요셉에게 여러 형제 중 더욱 많은 축복이 주어진 것은 그가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평케 함으로써 장자권을 계승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17. **㉠**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란 말은 무슨 뜻인가? (24절)

- ㉠** (1)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문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스라엘의 반석되신 목자로부터'가 된다.
- (2) 이는 요셉이 후손이 건강(堅剛)하여 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 (3) Modern Language Bible은 이 부분을 '이스라엘의 반석되시는 목자로부터'(from the Shepherd the Rock of Israel)라고 번역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18. **㉠** 베냐민이 받은 예언은 무엇인가? (27절)

- ㉠** (1)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 로다'이다.
- (2) 이 예언은 베냐민 지파의 호전적(好戰的)인 성격을 나타내 준다.
- (3) 이러한 기질은 사사(士師) 에훗과(삿 3:15) 이스라엘 왕 사울(삼상 11:6-11; 14:13, 15, 47, 48)에게서 잘 드러난다.

19. **㉠**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각기 축복을 주었다. 이것은 불공평한 것인가? (28절)

- ㉠** (1)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야곱 자신의 생각이냐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미래에 대한 예지(豫知)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 (2)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그들이 지금까지 행하였던 행동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각각 그들이 행하였던 일을 기반으로 하여 축복을 주신 것이다.
- (3)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르우벤'과 세겟족을 습격한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성실함을 보인 '유다' 및 그 형제들을 기근에서 구한 '요셉'이다.
- (4) 이런 의미에서 야곱의 축복은 전혀 불공평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각 아들의 후손들이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감당하여야 할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량대로 적당한 축복을 준 것이다.
- (5) 이 점은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각각의 성도들은 그 말은 바 직분대로 사명에 충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직분은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

문이다(참조, 고전 12:21).

- (6) 예수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도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그들이 받은 돈의 양이 아니라 그들의 충성한 정도에 따라서 같은 축복을 받았다. 즉 그 두 사람은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으나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정죄된 것이다(마 25:14-20).
- (7) 성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며 남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여서는 안 된다.

20. **㉠** 야곱은 자신의 시체를 어디에 묻어 달라고 부탁하였는가? (29-32절)

- Ⓐ (1) 헛 사람에게서 산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 (2) 이곳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다(참조, 23:19; 25:9; 35:29).
- (3)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약을 성취시켰던 열조들과 그 가족들처럼 자신도 그곳에 함께 묻히기를 원했다. 이것은 여호와를 향한 그의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21. **㉠** 성경이 보여 주는 죽음에 대하여 기술하라(33절).

- Ⓐ (1)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즉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엡 2:1) 및 영원한 죽음(마 8:12)이다. 여기서는 육체적 죽음에 대하여 말한다.
- (2) 인간의 생리적인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그저 ‘죽음’이라(25:11)고 할 뿐이며 여러 가지 상징적인 말로써 묘사하였다. 즉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3:19; 욥 7:21; 시 22:15; 90:3),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25:8, 17; 민 27:13; 사 2:10; 대하 22:20), ‘세상을 떠나 가는 것’(딤후 4:6; 빌 1:23; 벧후 1:15), ‘장막을 벗어나는 것’(벧후 1:14), ‘잠을 자는 것’(시 13:3; 요 11:11; 행 13:36; 고전 11:30; 살전 4:14), ‘기운이 끊어지는 것’(욥 10:18; 14:10), ‘영혼이 떠나는 것’(왕상 17:21, 22; 전 12:7; 마 2:50; 요 19:30; 행 5:10; 약 2:26) 등으로 묘사되었다.
- (3) 이러한 죽음은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고전 15:22; 히 9:27).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再臨)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살아 남아 있는 자들은 그러한 육체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전 15:51, 52; 살전 4:17).
- (4) 이러한 죽음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3:19).

본장의 요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친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8절).

제 50 장 야곱의 장례식과 요셉의 죽음

단락구분 1-3 야곱의 죽음에 대하여 70일 동안 애곡하다 / 4-14 야곱의 장례식 / 16-21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위로 / 22-26 요셉의 유언과 죽음

- 1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 2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버지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 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 3 사십 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칠십 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 4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 5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 6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 7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 8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 9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 10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칠 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 11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 12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좇아 행하여
- 13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르레 앞 막벨라 밭 곁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 14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

- 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 15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 16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 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 18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다
 -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 21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 22 요셉이 그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일백 십 세를 살며
 - 23 에브라임의 자손 삼 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 24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 25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 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 26 요셉이 일백 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1. ㉠ 본장의 개요와 그 중심 사상을 말하라.

㉠ (1) 본장에는 야곱의 장례식과 더불어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

- (2) 야곱은 그가 생전에 한 유언대로(49:29-32)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
- (3) 또한 요셉도 죽을 때에 미래의 출애굽 사건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유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줄 것을 유언하였다.
- (4) 이처럼 족장 야곱과 요셉은 비록 나그네 된 땅에서 죽었지만 그들은 항상 본향인 가나안 땅을 사모하였다.
- (5) 이것은 그들이 사후(死後)에 들어가게 될 하늘의 본향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히 11:13-16).
- (6) 이처럼 빛과 생명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하였던 창세기의 역사는 본장에서 어두움과 죽음으로 막을 내리고 있지만 동시에 출애굽을 통한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예시(豫示)하고 있다.

2. **㉠** 요셉이 향 재료를 아비의 몸에 넣게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

- ㉠** (1) 이것은 요셉이 자기 집의 주치의(主治醫) 또는 궁중 의사를 명하여 야곱을 미이라(mirra)로 만들게 하였음을 의미한다.
- (2) 이러한 일은 의술이 발달하였던 고대 애굽에 있어서(참조, 렘 46:11) 귀족들이 죽었을 때 행해졌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 (3) 성경에서는 야곱과 요셉을 미이라로 만든 것 외에는 미이라에 대한 언급이 없다.
- (4) 물론 후대 유대인들에게도 시체에 향 재료를 넣는 일이 있기는 했으나 애굽에서 행해지던 방법과는 달랐다(참조, 요 19:39).

3. **㉠** 향 재료를 넣는 데 걸린 시일은 얼마인가? (3절)

- ㉠** (1) 40일이 걸렸다.
- (2) 고대 애굽에서는 미이라를 만드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였고 하나의 미이라를 만드는 데에는 여러 과정의 세밀한 기술이 요구되었다.
- (3) 따라서 야곱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드는 데에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당시 요셉이 차지한 애굽에서의 비중을 보아서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4. **㉠** 고대 애굽에서 미이라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라(3절).

- ㉠** (1)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에 의하면 미이라를 만드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정교한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 먼저 죽은 사람의 콧구멍을 통하여 뇌를 긁어내고 방부제인 몰약과 향을 채운다.
- (3) 옆구리를 찢고 내장을 긁어낸 후 그 빈자리에 향 재료를 채운 다음 갈라진 곳을 꿰매고 시신을 천연 탄산 소다로 씻는다.
- (4) 그 후 은몸에 진액을 바른 다음 세마포로 싸서 입관(入棺)을 시킨다. 시신에서 긁어낸 창자는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에 버린다.
- (5) 이런 모든 절차를 마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야곱의 경우는 40일이 걸렸다.

5. **㉠** 애굽인들이 야곱을 위해 70일간이나 애곡한 사실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3절)

- ㉠** (1) 고대 애굽에서는 미이라 등 방부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시체를 오래 보관할 수 있었으므로 70일간의 애곡이 가능했다.
- (2) 특별히 70일간이나 애곡하였다는 것은 야곱이 요셉의 부친으로서 애굽 사회에서 귀족의 대우를 받았으며 그의 장례식도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음을 보여 준다.
- (3) 즉 이 장례식에는 애굽의 주요 인물들이 대거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된 일종의 국장(國葬)이었던 것이다(7,9절).
- (4)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 애굽에서 요셉의 지위와 그에 대한 왕의 신뢰도가 얼마나 컸는가를 보여 준다.

6. **㉠** 요셉은 부친의 명세에 근거하여 장례식을 치루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명세를 하

지 말라고 하셨다(마 5:34). 그렇다면 신약과 구약의 윤리 기준이 모순된 것이 아닌가? (4-6절)

- Ⓐ (1)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맹세가 기술되어 있다. 즉 증거를 위한 맹세(출 22:11)와 충성에 대한 맹세(왕하 11:4)와 계약의 맹세(창 26:31;31:53;47:31;50:25) 및 하나님께 자신에게 하신 맹세(22:16;시 89:35) 등이 있다.
- (2) 결코 성경은 이러한 맹세를 금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이러한 맹세 속에 포함된 신앙적 요소를 중시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 (3) 특히 요셉이 야곱에게 하였던 맹세(47:31)는 그대로 실천되었는데(50:5, 12, 13)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맹세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4) 즉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는 신앙의 기반 위에 선 맹세였던 것이다.
- (5) 그러나 예수께서 금하신 맹세는 신앙을 떠난 거짓 맹세였다는 점에서 참된 맹세와 구별되어야 한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옛 사람이 말한 바 헛 맹세’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것이다(마 5:33).
- (6) 예로부터 거짓된 것을 말하거나 인정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맹세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였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전지(全知)하심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레 19:12).
- (7)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가 남발(濫發) 되는 경향이 사회의 일반적인 풍조가 되었었다.
- (8) 예수께서는 단지 이런 거짓 맹세, 즉 과장된 맹세를 금하신 것이다. 마 5:33-37의 교훈은 ‘예와 아니오’라는 원칙에서 벗어난 과장된 맹세가 악한 것임을 교훈한 내용이다.
- (9)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부르지 않고 경홀히 부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되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참조, 출 20:7).

7. ⓐ ‘아닷 타작 마당’은 어느 곳을 가리키는가? (10절)

- Ⓐ (1) ‘타작 마당’은 곡식을 떨기 위하여 곡식 밭 안 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자리를 정하여 직경 7-12m 정도 넓이로 등글게 다져 놓은 단단한 마당을 말한다.
- (2) 팔레스틴의 거민들은 이곳에 곡식단을 무릎에 찰 만큼 펼쳐 놓고 가축이 밟도록 하여 떠는 것이 보통이었다.
- (3) 본절에 나오는 ‘아닷 타작 마당’의 위치에 관해서는 정확한 위치 추정이 어렵다.
- (4) 혹자는 ‘요단 건너편’이라는 말을 ‘요단 강 서쪽’으로 이해하는 반면 (Drusius, Kallisch 등) 혹자는 ‘요단 강 동편’으로 주장한다(Keil, Lange, Murphy 등).
- (5) 전자의 입장을 취한다면 11절을 근거하여 볼 때 요셉의 애곡이 가나안 경내에서 발생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 (6) 또한 본서의 저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요단 건너편’은 곧 ‘요단 서편’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7) 따라서 ‘아닷 타작 마당’은 요단 서편의 어느 지역이었을 것이다.

8. ⓐ ‘아벨미스라임’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 Ⓐ (1) 야곱의 장례 행렬이 요단 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요셉을 비롯한 모든 장례식에 참석한 자들이 7일 동안 애곡하였다.
- (2) 이것을 지켜 본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곳 이름을 ‘애굽인의 목초지’란 뜻을 가진 ‘아벨미스라임’이라고 불렀다.
- (3) 그러나 70인역과 벌게이트(Vulgate) 역은 ‘애통’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에벨)이 잘못

발음되어 '목초지' 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벨)로 되었기 때문에 본래 의도대로 이곳의 이름이 '에벤키스라임'으로 불리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귀절을 '에굽인의 애통'이라고 번역했다(Kalisch).

(4) 아뭇튼 이 지명(地名)은 당시 야곱의 장례식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큰 화제(話題)가 될 정도로 성대했음을 기억하게 해준다.

(5) 결국 이러한 사실은 후일 야곱의 후손들이 창대한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미래의 사건을 예시해 주고 있다.

9. **㉠ 호상군(護喪軍)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4절)**

㉠ (1) 개역 성경의 한자어의 뜻으로 보면 야곱의 '장례 행렬을 호위한 군대'라는 뜻이다.

(2) 그러나 원어의 의미로 볼 때에는 다만 야곱의 장례 행렬에 참가했던 야곱 가족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0. **㉠ 요셉은 형들이 두려워하며 용서를 빌 때 너그럽게 용서하였다. 이러한 요셉의 행위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비교하여 기술하라(15-21절).**

㉠ (1) 요셉의 형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그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지었던 죄를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이었다.

(2) 그러나 이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요셉에 대한 부당한 의심에서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시 요셉은 이미 이들의 죄를 용서하였으며(45:5) 자비로써 너그럽게 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3) 이 귀절은 범죄한 인간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 준다(참조, 3:8; 레 26:36; 민 22:3; 욥 18:11; 시 14:5). 요셉의 형들 또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4)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 야곱의 말'을 요셉에게 상기(想起)시켰다. 즉 그들은 자신의 의(義)로서는 멸망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5) 그들은 요셉의 너그러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용서의 확약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돌보아 주겠다는 요셉의 말을 들었다(19, 20절). 요셉은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의 호의를 보인 것이다.

(6)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유사하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회개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구원의 길에서 끊어진 양심에 화인(火印) 맞은 자들이다(참조, 딤후 4:2).

(7)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써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식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기 때문이다(롬 6:1). 그러나 죄의 해결을 받은 요셉의 형들이 보복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성도가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8)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요셉과 그들 사이에 화해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죄에 대한 중보자(中保者)로 세우는 것과 유사하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의로움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9) 요셉은 형들에게 죄를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양육하겠다는 너그러움을 보였다.

(10) 하나님도 이와 같이 회개하는 인간에게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의롭다 하시고(롬 5:1) 영화롭게 만드신다(롬 8:30).

(11) 예수께서도 탕자의 비유에서 죄를 누우치고 종이 되기 위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이하며 잔치를 베풀 것을 비유로 보여 주셨다(눅 15:11-32).

11. **㉠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하였는가? (17절)

- A** (1)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을 '종'으로 낮추며 지난 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했을 때 측은한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사랑에 감복하여 울었다.
 (2) 이러한 눈물은 하나님 앞에 흠향되는 용서와 사랑의 눈물이었으며 요셉의 전인적(全人的)인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3) 특히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의 눈물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진실된 눈물이다.

12. C 요셉의 향년을 말하라(22절).

- A** (1)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까지 살았다.
 (2) 그는 자손 3대를 보기까지 장수함으로써 이전에 야곱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체험했다(49:22-26).
 (3) 즉 그는 아들 므낫세와 므낫세의 아들 마길과 마길의 아들들까지 그의 무릎에 앉힐 만큼 장수하였던 것이다.

13. C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라는 요셉의 말은 어떤 의미인가?(24절)

- A** (1) 이 말은 비록 요셉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후손에게 언약을 계승시켰음을 뜻한다(48:21).
 (2) 즉 이것은 신실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그의 후손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의 신앙을 나타낸다.

14. C 요셉이 그의 죽음을 준비하는 태도를 말하라(24절).

- A** (1) 의인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슬픈 빛이나 두려운 표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2)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 가운데서 죽음을 준비하였다.
 (3) 요셉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는 죽음을 해결한 성도였기 때문이다.
 (4)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어도 살며 또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11:25, 26)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25절).

15. C 본장에서 야곱과 요셉은 자신들의 영원한 안식처로 가나안 땅을 유언으로 지적하였다. 이 사실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25절)

- A** (1) 누구라도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비록 자기의 주검이나마 그리운 고향 아니면 자신의 삶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땅에 묻히고 싶어한다.
 (2) 이런 인지상정(人之常情)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족장들이 가나안에 묻혀야겠다는 소원에는 하나님의 가나안 언약(12:1-6; 13:14-18; 15:7-14; 28:15; 35:9-16; 48:3, 4)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언약의 땅에 유해를 묻혀 그 언약의 축복에 동참하려는 열망까지 내포되어 있다.
 (3) 이스라엘 민족이 한 때는 평안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종노릇하며 애굽 땅에서 400년을 지냈으나 민족의 정신을 영원히 망각하지 않고 출애굽하게 된 이유는 이처럼 강력한 가나안 약속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4)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는 구속이 완성된 상태로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영적 가나안)이다.
 (5) 구약의 성도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도 더 좋은 안식의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감사함으로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16. ㉠ 본장에 나타난 요셉의 신앙과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를 말하라.

- ㉠ (1)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2) 특히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냈고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겸손하게 처신했다.
 (3) 요셉의 신앙적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었다.
 (4) 즉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이라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役事)를 준비하셨던 것이다.

17. ㉠ 요셉의 삶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비교하라.

- ㉠ (1)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의 소생이다. 그는 잉태치 못하는 라헬의 간절한 소원 끝에 태어났다(30:23). 마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待望)하던 때에 태어난 것과 유사하다.
 (2) 요셉은 그의 형제들로 인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 가는 고난을 당하였다(37장). 이것은 마치 죄없는 그리스도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과 유사하다.
 (3)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여호와와 사랑하심을 받음으로 그 집을 형통하게 하였다(39:4). 이것은 그리스도가 죄의 권세에 시달리는 이 세상을 죄에서 놓여 나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으로 변화시킨 것과 유사하다.
 (4) 그는 계속되는 고난을 받았으나 실망하지 않고 선(善)만을 추구하였다. 즉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또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도 많은 고난을 받으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셨다(마 26:39).
 (5) 요셉은 기근에 시달리는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구하였다. 예수께서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셨으며 영원한 삶을 주셨다.
 (6) 이와 같이 요셉의 의로운 삶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예표(豫表)로 이해할 수 있다.

본장의 요절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4절).